

실무 능력 속기사로 이끌어 주는

동방속기

실무편

Since 1948 이동근

동방속기학회 저

혁신판

응용 위주의 체계적인 약기법 수록!!

최신 실무 필수 각종 규정·사례 수록!!

속기 실무를 위한 비결 수록!!

■ 문장 연습문제 수록!!

- 부록 ▶ 의회 속기사를 위한 회의록 작성내규에
맞춘 실무사례
- ▶ '95년 개정 국회회의록 작성 내규 수록
- ▶ 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틀리기 쉬운 말
- ▶ 우리말을 알자.



첨단 기술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기술서적 사업부

머리말

읽어보자!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속담은 “시작이 반이다”이다.

그래서 일단 시작한다. 그러나 시작이 과연 반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는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길의 중간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로써 깨우쳐준다.

“백리 길을 가자하면 구십리가 반이라네. 뉘라서 열나흘달을 온달이라 하던가”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런 고사성어도 있다.

“미성일궤(未成一簣)”... 산을 만들려고 하다가 한 삼태기를 덜 부어 산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다.

마무리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많이 알면 알수록 힘있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속기를 배우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은 속기학습을 통해서 많은 희열과 좌절을 동시에 느낄 것이다. 속기는 말 그대로 「속도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다.

속도가 빨라지면 정신이 없어진다. 당황하고 실수하고 어깨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또, 속도를 극복하고 난 뒤의 희열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이다.

「속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는 사람의 말 속도와 일치할 때이며 그 이하는 속기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속기」를 하려고 한다면 연습만이 그 방법이다.

효과적인 연습법이란 별 것이 아니다.

우선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손끝으로 전해오는 느낌...

미련한 학습법은 시간만 헛되이 흘러보내지만 효과적인 학습법은 시간의 단축은 물론 사고하는 방법까지를 터득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최소한의 암기해야 할 부분을 암기하지 않고 응용만 한다면 잘못된 방법이다.

하나를 알면 열이 아니라 백, 천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동방속기이다.

반대로 하나를 모르면 전부를 알 수 없는 것이 동방속기이다.

기본문자를 많이 써 보아야 한다.

흔히 약기법만 많이 알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전을 놓고 한 번 찾아보라. 약기법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글이 느려서 속기를 배워 빠뜨리지 않고 써 보려고 하였더니 속기연습을 하면서도 빠뜨리는 것이 왜 이리 많은가? 문제는 생각이 빨리 나지 않아서이고 손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한글을 쓰는데 생각나지 않는 글자가 있는가? 첫글자를 잘 받아쓰지 못하면 빠뜨리게 된다.

첫글자를 잘 받아쓰자면 기본문자를 연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언제나 기본문자를 써보고 진도에 들어가도록 한다.

기본문자를 늘 연습하는 사람은 본 실무편에 나와 있는 약기를 순서 없이 응용하여도 무방하다.

상식을 넓혀야 된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받아쓰지 못한다.”는 말은 속기사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이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상식을 넓힐 수 있지만 속기하는 도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는 습관만 가져도 엄청난 상식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이 습관은 저절로 몸에 배게 된다. 속기를 배워서 가장 많이 는 것이 있다면 상식일 것이다.

번문하는 연습을 쓰기와 병행해야 한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편지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들 하는데 그 할머니가 꼭 글씨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글 읽는 생활을 하지 않아 빨리 읽을 수가 없어 답답한 것이다. 속기문자를 써놓고 「읽기는 나중에…」식으로 하다가 보면 잘 읽어지지 않는다. 속기문자가 잘 읽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대개 그와 같이 학습방법을 잘못 택했기 때문이다. 속기한 것은 읽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

주어진 대로만 외워서 하는 사람은 속기완성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기본원칙과 자신의 상식 범위 안에서 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좋은 속기법은 쉽고 빠르게 속기사로 이끌어 준다. 아무쪼록 사람의 말이 자신의 손끝에서 문자로 바뀌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자.

창안자가 후학들에게

동방속기를 배우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1945년 광복이 되던 해에 그전부터 꿈꾸고 있던 우리말 속기를 창안하기 위하여 3년여의 각고 끝에 동방속기를 창안·발표·출간한 이동근입니다.

우리말을 우리 손으로 만든 속기문자로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운명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제가 우리말, 우리글을 쓰지도 못하게 하던 때와 비교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말은 일본말이나 영어와 그 구조를 달리합니다. 무조건적인 모방이나 도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미 『현대속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피트맨이 발견한 직선과 곡선 및 양성·음성 모음을 굽기로 분류한 표음속기문자가 현대속기의 정통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세계의 속기는 그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말속도와 일치하는 자국의 속기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창안한 동방속기는 그러한 바탕에서 글보다는 말에 치중하여서 연구·분석이 된 속기문자로서 받침을 문자의 앞에 붙이고 자음이 전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속기법입니다. 처음에는 결점도 많았으나 50년이 가깝도록 양성기관을 통하여 후학들이 갈고 닦고 수정보완의 연구를 계속하여 이제는 누구나 완벽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쉬워지고 빨라져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국내 최고임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속기사가 될 보편성이 높은 속기법』으로 자타가 인정을 해주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방속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948년 이래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성을 멈춘 적이 없었던 데 연유한 덕분이었다고 봅니다.

좋은 속기가 되도록 끊임없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후학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속기로 다듬어졌고 충분히 증명된 동방속기를 배우는 이상, 목적인 바 최고의 속기술을 익혀 여러분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동방속기 동문 여러분!

우리 동방속기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영원한 벚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50년 가까운 동방속기 동문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학들에게 기록에 대한 신념은 물론 건전한 정신을 불어넣어 『우수한 속기사』이전에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의 말씀

문자는 사람의 말이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수단이다.

처음에는 약기적인 방법으로 돌·뼈·나무·줄 등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거나 그려서 자신의 의사전달 또는 글자 보존이란 두 가지 기능을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약기의 해석으로 인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더욱 세밀하게 구분함으로써 이같은 폐단은 해결되었으나 말과 글의 필기속도 차이는 계속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말하는 것만큼 빨리 기록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속기를 만들어낸 것으로서 이러한 속기는 문자의 전달이나 보존수단의 충족을 넘어서 또 다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속기술의 활용과 기여도는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 대한속기협회의 회원 동지들이 현대화된 속기법식으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사과정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달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의 구실을 하고 있으니 이는 곧 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이며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추천하는 동방속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현대화된 속기법의 하나로서 우리 회원 동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나 지방의회, 일반 회의 분야 등에서의 활약상이 매우 두드러지며 오랜 기간 양성기관을 통해 우수한 속기사를 많이 배출해 오고 있다.

요즘 과대광고 등으로 속기가 영똥하게 왜곡되어 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때에 동방속기법식이 새로운 모습으로 속기지방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데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이처럼 전문속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법식들이 좋은 교재로서 출간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속기사에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속기를 배워 일상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속기사는 단순한 기록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현대판 사관』이며 치우침이 없는 『시대의 공정한 기록자』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회장

국회의원 강우혁

권하는 말씀

속기와 의회제도는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이다.

의회는 국민 대표가 모인 회의체로서 그 회의 결과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며 속기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국회 개원 이래 속기법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해 오고 있는 바 이는 일제하에서도 기약할 수 없는 독립의 날에 대비하여 우리 말 속기를 창안, 속기사를 길러 내온 동방속기의 이동근 선생을 비롯한 속기계 원로들의 공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이 말의 속도에 맞추어 기록이 가능한 우수한 속기법식이 완성되기 전에도 조선시대 승정원에서는 주서(注書)라는 관리가 조보체(朝報體)라는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궁중 어전회의 내용을 기록하였다가 이를 토대로 왕조실록을 편찬하는 등 기록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말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즉시 사라지므로 이를 널리,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의 속도에 맞추어 기록하여 전파·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도 많은 생각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메모·기록하였다가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생각에 머무를 뿐 소용이 없게 된다.

속기술은 메모·일기 등 간단한 기록에서 취재 활동·회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다.

요즘은 컴퓨터의 기능향상으로 속기가 필요없는 시대가 곧 돌아올 것 같은 기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컴퓨터가 인간의 다양한 음성을 완전히 인식하여 모든 발언을 문자로 기록해 낸다는 것은 요원한 일로서 과학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컴퓨터·녹음기 등은 속기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줌으로써 속기사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보조기구일 뿐이다.

보다 쉽게, 빨리 익히고 그 기록능력이 우수한 속기법식을 찾아 배운다는 것은 초심자에게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50년에 가깝도록 사회각계에서 이미 그 진가를 인정받아 온 『동방속기』가 더욱 새롭고 혁신된 내용으로 발간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국회예산 정책심의관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이사 김 기 영

본서의 특징

- 학원강의와 학교강의, 속기실무 등에 10~30년 이상 종사한 현직 1급 속기사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다.
- 모든 학습의 목표를 1차는 자격증취득에, 2차는 실무에 두고 저술하였다.
- 속기사 자격취득의 최고 실적을 가진 동방속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재반성하여 더욱 빠르고 쉽게 고쳐 쓴 혁신판이다.
- 모든 규칙을 단순화하여 쉽게 최고의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속기사전이 필요없는 속기교재이다.
- 이론보다는 실기에, 설명보다는 연습거리를 충분히 제공하여 『무실역행』하는 속에 저절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구성하였다.
- 시중에 떠도는 속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예문과 채점기준을 최초로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 속기가 암기과목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고치고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응용위주의 진도방식을 택하였다.
- 기존의 교재에 비해서 최신의 약기와 약자 등이 더욱 정확히 써지고 읽어들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바꿔 다시 쓴 교재이다.
- 속도향상에 맞추어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실무해석과 예제를 넣었다.
- 말로만 쉬운 교재가 아닌 진정한 속기사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 학원 강의와 직결되는 교재로서 언제나 고급과정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 우리는 전체 합격자의 40~50%가 동방속기 학습자들임을 자랑한다.
- 쉽게 배워 널리 쓰는 속기가 되도록 하였다.
- 전문속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일기, 메모, 강의, 비서업무, 설교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례

머리말	1-1
창안자가 후학들에게	1-3
추천의 말씀	1-4
권하는 말씀	1-5
본서의 특징	1-6

제 1장 보충약기법

1. 수사	11
2. 관계조사약기법	12
3. 상선응용약자	13
4. 중간응용약자	13
5. 동사	16

제 2장 최장선약기법

1. 가줄 최장선약자(1)	25
2. 가줄 최장선약자(2)	25
3. 나줄 최장선약자	26
4. 다/라줄 최장선약자	26
5. 마/바줄 최장선약자	28
6. 사줄 최장선약자	28
7. 아/이줄 최장선약자	30
8. 자줄 최장선약자	31
9. 차/카줄 최장선약자	31
10. 타/파줄 최장선약자	32
11. 하줄 최장선약자	33
속기록	35

제 3장 최장선응용약자

1. 최장선응용약자의 활용법	53
2. 최장선응용약자	53
3. 최장선응용약자	57
4. 최장선응용약자	58
5. 최장선응용약자	60
6. 최장선응용약자	63
7. 최장선응용약자	65
8. 최장선응용약자	67
9. 최장선응용약자	70
속기록	73

제 4장 일반응용약자

1. 일반응용약자	99
2. 일반응용약자	101
3. 일반응용약자	103

제 5장 기타 응용약자

1. 특정일 약기법	109
2. 숫자응용	109
3. 회견	109
4. 핵	110
5. 산물	110
6. 동포	110
7. 정권	110
8. 공업	111

9. 시사	111
10. 도입	111
11. 방위	112
12. 이 자리를 ~	112
13. 이러한 ~	112
14. 숙어	113
15. 형태	114
16. 「 」모음형	114
속기록	116

제 6장 사자성구 및 회의용어약기

1. 사자성구	139
2. 회의용어약기	145
국회본회의 회의록	152
주주총회 속기록	171

제 7장 고유명사 및 외래어약기

1. 국명약기	181
2. 중요지명약기	181
3. 외래어약기	182

문장연습 및 모의시험

문장연습	191
모의시험	215
참고문장	254

1. 국회속기사를 위한 회의록 작성내규에 맞춘 실무 실례	269
2. 음이 같아 틀리기 쉬운 말	280
3. 음이 비슷하여 틀리기 쉬운 말	285
4. 우리말을 알자	321



제 1 장

•

보충약기법

이 약기법은 2권(응용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약기법으로서 수사, 상선, 중선, 동사약기법을 보다 세밀하게 취급하고 있다.

1. 수 사

1-1. ~년~개월 $\frac{3}{5}$

4	1년 365일	95	~년말 현재	95	~년 현재
6	~월말 현재	12	~월 현재	59	~일 현재
	전년동기		전년동기대비		작년대비
	9		9		✓
	전년대비		전기대비		
	9		9		

1-2. 수 ^

^	수십	^	수십만	^	수백
^	수백만	^	수천	^	수천만
^	수만	^	수억	^	수많은
^	수없이				

1-3. 몇 VV 몇몇 V

VO	몇십	VO	몇십만	✓	몇백
✓	몇백만	✓	몇천	✓	몇천만
✓	몇만	✓	몇억	✓	몇억만

1-4. 도량형계

킬로 4mm)				
2	kg	2	km	2	kw
)	kl	2	kcal	cl	cal
)	m	c	cm	m	mm
s	m ²	ㄹ	km ²	ㄹ	m ³
ㄹ	km ³	g	g	ㄱ	ha
p	ppm	"	inch	/	o(도)
3ㄹ	t	9	yd	24ㄹ	평

참고 : 약기법보다 기본문자가 더 편리한 경우에는 기본문자로 쓴다. 약기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2. 관계조사약기법

~가지고 ㄹ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ㄹ

ㄹ

2-1. 특별어미 : 앞문자 끝에서 하줄로 띄어쓴다.

~합니다 ...

조사 다음에 나올 때 활용하면 편리하다.

~합니다마는 ...

생각을 합니다.

「~만/~마는」은 구별하지 않고 「~마는」으로 통일한다.

3. 상선응용약자 ... 위치 : 상선

결단코 	구태의연하게 	구태의연한 	구호대책 	수해대책
월동대책 	종합대책 	한해대책 	나도 너도 	너도 나도
누군가가 	늦어도 	대관절 	더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군다나 	부득불 	수석대표 	어느 정도 	어떠한지
어떨지 	어떠할지 	어떠신지 	어떠한가 	어떠할까
어떨까 	오랜동안 	한동안 	오로지 	오직
하물며 				

4. 중간응용약자

4-1. 중간생략형

날이 갈수록 	날이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불구하고
아닌게 아니라 	좌우간 	좌우지간 	말이야
암만해도 	모름지기 	아무튼 	유종의 미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4-2. 최장선형 ... 길이 2cm 이상

가다듬다



가다듬어



간추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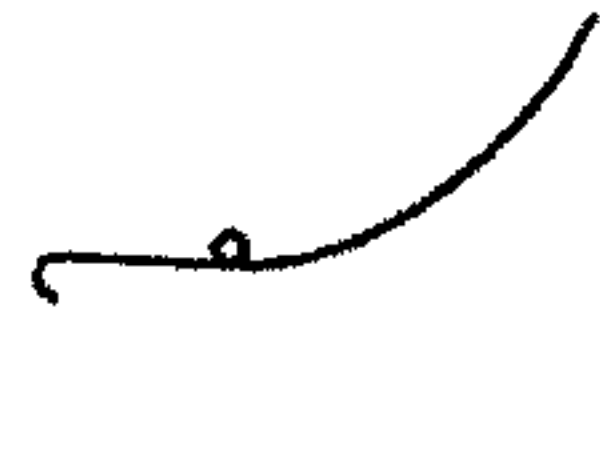
게으르다



기울이다



깨우치다



꽃피우다



눈부시다



뉘우치다



늘어나다



덧붙이다



덮어놓다



돌이키다



돌이켜보다



동떨어지다



뒤따르다



뒤떨어지다



뒤떨어졌다



떨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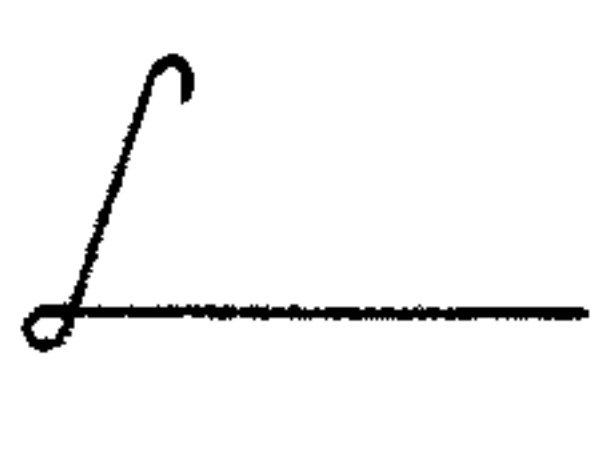
뒤틀리다



되돌아보다



되새기다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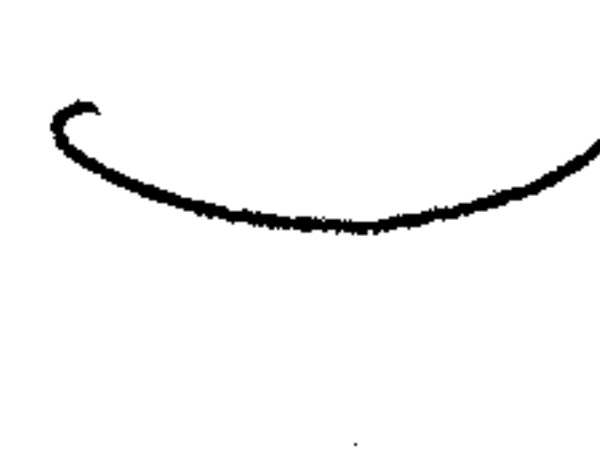
둘러싸다



에워싸다



위요하다



매달리다



머무르다



메마르다



무너지다



무찌르다



보잘것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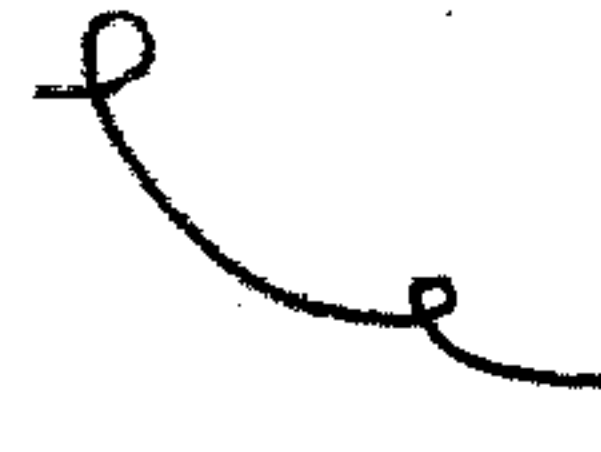
부르짖(는)다



비추다



비추어보다



빠저리다



빠저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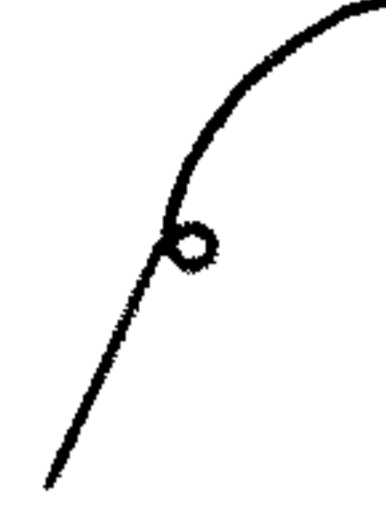
살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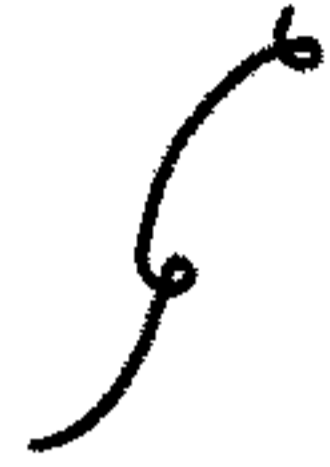
서두르다



스며들다



슬기롭다



시달리다



아랑곳(없다)



아프다



알리다



알려져



알려졌다



앞지르다



어처구니(없다)



어긋나다



엄청나다



올리다



올바르다



외치다



울부짖(는)다



위태롭다



이루다, 이르다



지나치다



짓밟(는)다



치우치다



커다랗다



크나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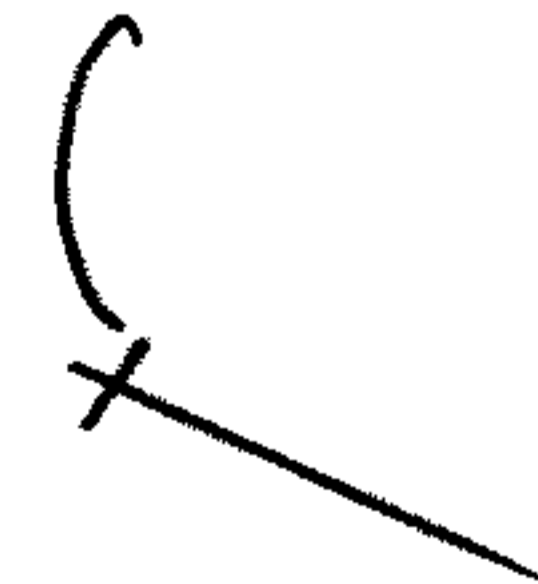
터무니없다



털어놓다



피땀-흘리다



틀림없다



휘두르다



흐르다



흔들리다



참고 : 동사의 응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5. 동 사

동사의 응용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간단한 것을 암기해서 수백 수천 가지로 응용이 되는 것이 동사약기법의 최대 장점이다. 외우려 들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동사이지만 응용하면 참 간단하다.

아래에 다시 전개되는 동사의 어미, 접두어 등도 동사의 기본형에 대입하여 연습해 보아야 한다.

5-1. 위치(어미)변화 (“2”자)

다니까	다느냐	끼리
<u>2</u>	<u>2</u>	<u>2</u>
2	2	2
다면서	다지만	는데로(는 대로)

응용

기본형 및 시제변화형에 대입해서 응용한다.

눈으로만 보아도 이해가 되겠지만 역시 실제 연필을 가지고 연습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요령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한 사람은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 활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5-2. 위치(어미)변화 (“이” 2mm)

느니	리라	고나니
<u>1</u>	<u>1</u>	<u>1</u>
1	1	
노라면	인지, 지 못	

5-3. 위치(어미)변화 (X자)

고 나니까	다고 해도	
<u>X</u>	<u>X</u>	<u>X</u>
X	X	X
고 나면	(기)만 해도	해도
	X	X
	지도 못하고	는데(인데)도 불구하고

5-4. 위치(어미)변화 (하줄 꺾침)

다니	다나	라고
↘	↘	↘
<hr/>		
다며	리지 (지가)	라는데

5-5. 위치(어미)변화 (소원)

나니까	느라고	고는
○	○	○
<hr/>		
다면	지는	는데는

5-6. 위치(어미)변화 (V자)

다느니	십시오	십시다
∨	∨	∨
<hr/>		
	도록	다는데서

5-7. 동사응용

┌	못~	못 한다	못 본다	못 먹는다
		└	┌	└
┌	안~	안 한다	안 본다	안 먹고
		└	┌	└
┌	잘~	잘 했다	잘 된다	잘 잔다
		┌	┌	┌
┌	아니~	아니 된다	아니 본다	아니 먹고
		┌	┌	┌

S ✓	돌아~, 들어~	돌아온다	돌아본다	들어가서
		S ✓	S ✓	↳
~	잘 안~	잘 안온다	잘 안준다	잘 안 먹고
		~ ✓	~ ✓	~ ~
ㄱ	잘못~	잘못했다	잘 못하다	잘못 먹지
		ㄱ ~	ㄱ \	ㄱ ~
✓	불러, 불어	불러온다	불러일으킨다	불러들인다
		~ ✓	~ —	~ /

5-8. 동사용용

ㄱ	했느냐 못 했느냐	ㄱ /	했느냐 안했느냐
ㄱ (했느냐 아니했느냐	ㄱ	~느냐 마느냐
ㄱ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있느냐

응용











같은 형태로 「~습니까 못~», 「~습니까 안~」 등등 어미변화를 적용하여 응용할 수 있다.

참고 : 우리말에서 반대말이 복분명한 것이 바로 용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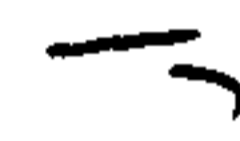


















속기법에서는 「~느냐 마느냐」의 형태와 「있다/없다」의 형태는 명백한 반대말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못, 안, 아니」 등 구별할 수 있는 말을 쓴다. 실제 상황에서는 판단이 빠르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다.

5-9. 동사용용

~ ✓	~어요, ~아요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	↳	↘
~	~겠어	하겠어	보겠어	주겠어
		~	~	~

	~소	하였소 	주겠소 	드리겠소 
	~리 나위없이	말할 나위없이 		더할 나위없이 
		말할 나위도 없이 		말할 나위가 없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5-10. 동사응용




	~리 텐데	갈 텐데 	있을 텐데 	먹을 텐데 
	~리 터인데	갈 터인데 	볼 터인데 	될 터인데 
	~리 진대	갈진대 	드릴진대 	알진대 
	~면 ~리 수록	보면 볼수록 	주면 줄수록 	알면 알수록 
	~거니와, ~거니	하거니와 	되거니와 	먹거니와 
	~려니와, ~려니	되려니와 	받으려니와 	하려니와 

참고 : 「~거니와」, 「~거니」는 문장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려니와」, 「~려니」도 마찬가지다.

5-11. 동사응용


	~다더니	했다더니 	하신다더니 	온다더니 
	~더니	그랬더니 	주었더니 	되더니 

	~나마	뒤늦게나마	산에서나마	그나마
	~자마자	보자마자	끝나자마자	되자마자
	~예요, ~이에요	보는 것이예요	어디예요	집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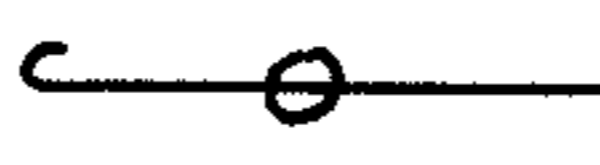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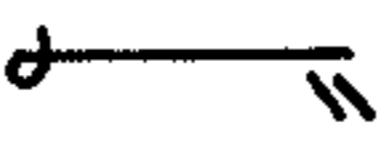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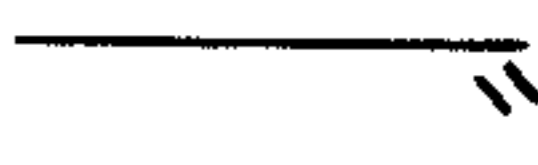






5-12. 동사응용

	~다거나	된다거나	먹는다거나	준다거나
	~거나	보거나	보았거나	되었거나
	~는데에다	되는데에다	주는데에다	가는데에다
		보는데에다가	아는데에다가	
	된다 해서	되고 해서	되는데에서	
	되는데 대해서	되는데 대한	되는데 대해	
	되는데 대하여	되는데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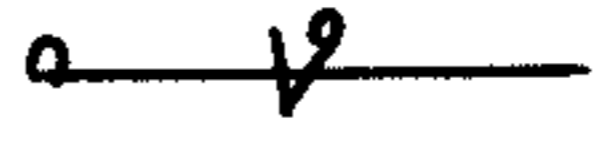
참고 : 「~는데 대해서」나 「~는데에 대해서」나 발음상 구별이 어렵고 또, 구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험이나 실무에서는 아무렇게나 번문해도 좋다.

	~데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하신 데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말씀하신 데 대한



5-13. 동사용용

	~지, ~지 아니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아니한 
	~지 못한	되지 못한	먹지 못한 알지 못한
	~(리 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날마다 볼 때마다 
	~답니다	있답니다 	없답니다 된답니다 
	~만한	괄목할 만한 	될만한 그만한 
	~뿐(더러)	있을 뿐더러 	없을 뿐더러 했을 뿐 
	~터에	있는 터에 	없는 터에 된 터에 

5-14. 동사용용

	~리 래야 ~리(수 없다)	드릴래야 드릴 수 없다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다 	드릴래야 드릴 도리없다 
	드릴래야 드릴 도리가 없다 	꿇을래야 꿇을 수 없는 

5-15. 동사용용

	~고 싶습니다	4~16mm
	~는지 모릅니다	

ㄴ — ~는지도 모릅니다

ㄹ — ~는지는 모릅니다

ㄷ — ~리지 모릅니다

ㄷ — ~리지도 모릅니다

ㄷ — ~리는지 모릅니다

5-16. 동사용용

ㄷ — ~다고 봅니다

ㄷ — ~다고 생각합니다



제 2 장

•

최장선약기법

이 약기법은 속기문자의 길이를 2cm 이상 길게 써서 기본문자와 확연히 구별되는 성질을 이용한 약기법으로 명사형을 주로 다루고 있다.

1. 가줄 최장선약자 (1) ... 위치 : 중선, 길이 ... 2cm 이상

교육 	교육헌장 	국회, 개발도상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회속기사
국회의사당 	국가 	국가경제 	국가경쟁력
국가백년대계 	국내외정세 	국내정세 	국외정세
국민생활 	국민투표 	국무위원 	국무총리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정지표 	국토개발
기관, 가치 	국제 	국제경쟁 	국제정세
국제연합 	국제무대 	쿠데타 	군사쿠데타

참고 :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2. 가줄 최장선약자 (2)

건설, 건전, 간단 	긴장완화 	긴장상태 	관계
관계개선 	관계부처 	곤란 	결정
권기, 권력 	금년, 감사 	금융 	금액, 금진

공정, 공산 	공화국 	공공연 	경제
경제질서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자립경제
경제체제 	경제부처 	경제건설 	평양, 관광
기구, 기회 	금지, 공지 		

3. 나줄 최장선약자

노동 	노동자농민 	내각 	내용
납득 	내각책임제 	난동 	논란, 논평
내년 	날치기 	남세, 남침 	남세의무
농촌 	농어촌 	영세농민 	중농정책
냉철, 냉전 	냉전종식 		

4. 다/리줄 최장선약자

드디어 	따라서 	도리어 	대단, 대전, 파동
---------	---------	---------	----------------

대중,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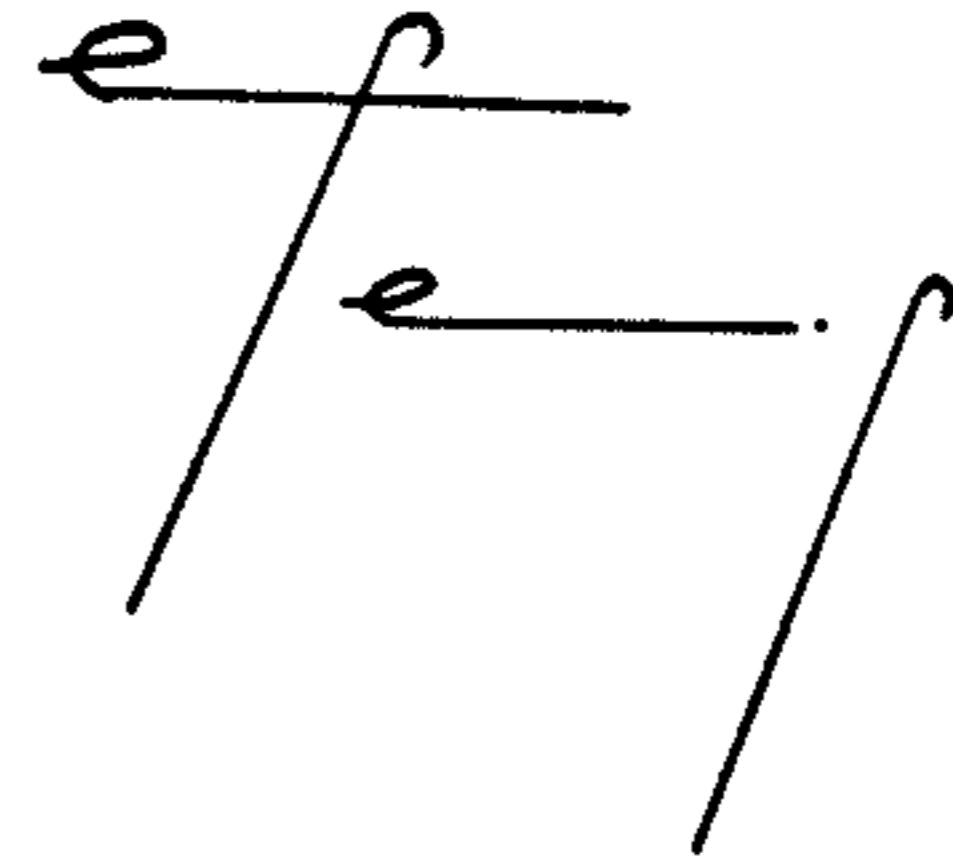
대통령, 되풀이
대륙붕, 데모



대통령각하



김영삼대통령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직선제



대한민국



독립



독립국가



자주독립



대사



대사관



독재, 독과점



독재정치



단체, 단결



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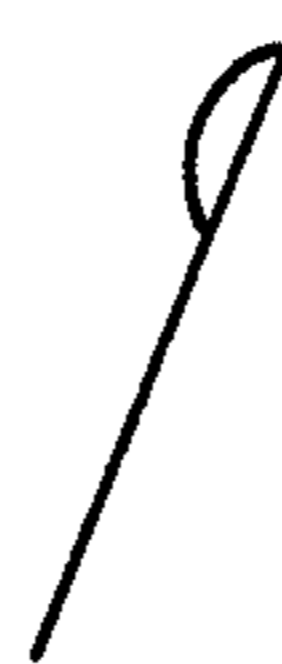
달성, 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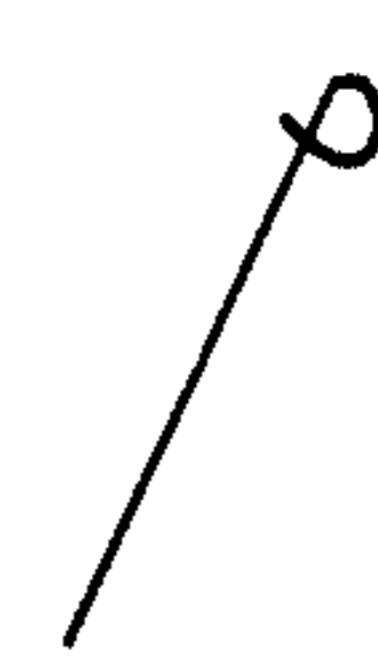
답변



담화



뒷받침



동포, 당국



동북아



나라



이익, 이용, 자리



노력



이유



노골적, 일인당



농성, 능력



5. 마/바줄 최장선약자

무역	매년, 매우	미래	목적
목적달성	문화	민심	민심소란
민심수습	민족	물가, 물론, 물질	물질문명
밀수, 밀접	명년	맹세	민중
부가가치, 부조리, 부총리, 부통령, 보고	비로소, 비롯, 비동맹	분쟁, 배부	부동산
복지, 북한	비판	백성	방법
빙자	반드시, 반듯이	분명, 반대	분위기
변화	발전	범위, 법관	범죄

6. 사줄 최장선약자

사회, 사법, 수정	사회생활	스스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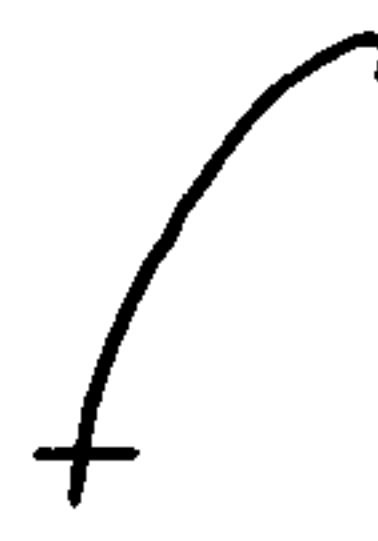
실명



실명제



실명거래



시정연설



세계, 세금, 세기



속기, 석유,
속전속결



식량, 식민,
시기



식량자급, 식민사관



식량자급자족



삭제, 세력



산업



신문, 신바람



신문지상



신문기자



신한국



설명, 솔직



실시



삼천리, 시위



삼천리금수강산



신뢰회복



심의



심지어



사상



사대사상



봉건사상



성장, 성명



생산



생산코스트



생활



생활필수품



생필품



7. 아/이 줄 최장선약자

오늘, 여론	유신, 여러분	유권자	예산, 애국
억제	역시, 역사	액수, 위기	운영, 안전, 은행
연행	완전, 위반	올해	암시, 압력
위협	운동	영향, 영양 음자, 영세	영세민
요구	주의, 장관, 행위, 장군	외교	위험
외채	외채누적	외채누증	외채상환
인정과세	인기품목	원인, 원조	조직
일반	원칙, 월남	입후보, 입법	위법

8. 자 줄 최장선약자

질문, 자금



지금, 지도, 지방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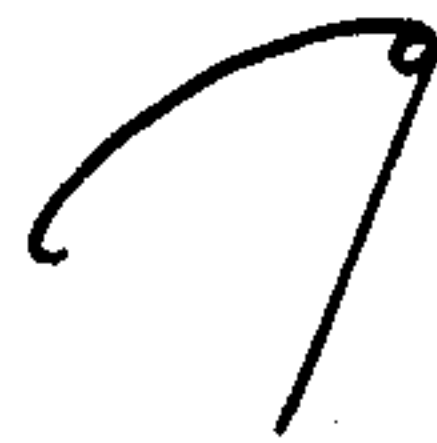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도편달



지극히



제도



작년, 작전



직접



존경, 존재



진영



주장



질의



질의전



질의응답



질서



잠시



집중



정부, 정신



문민정부



집권



쟁취



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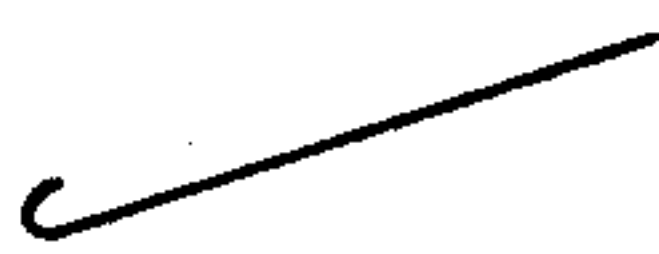


9. 차/카 줄 최장선약자

추진, 추세



치안, 치하



체제, 채무, 채택



촉진, 측면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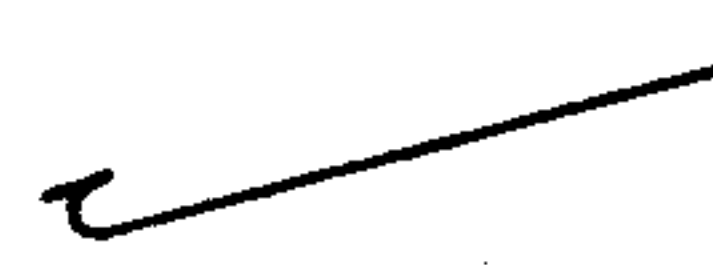
책임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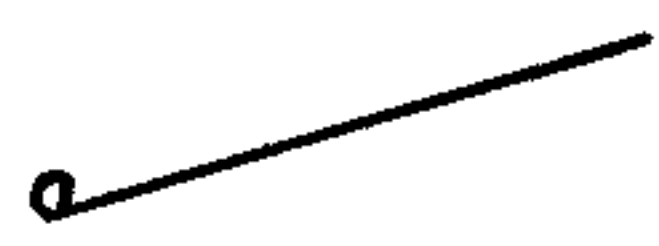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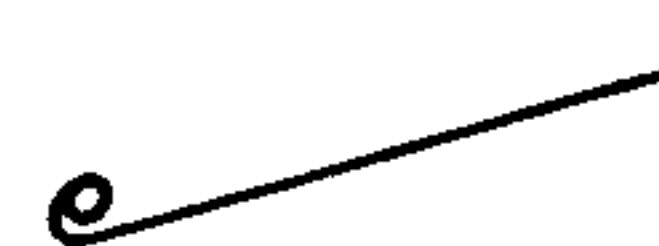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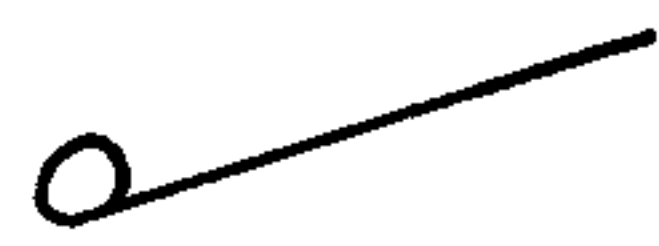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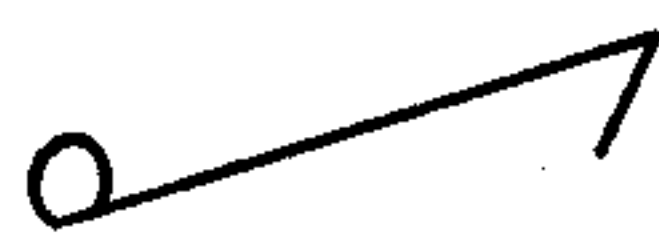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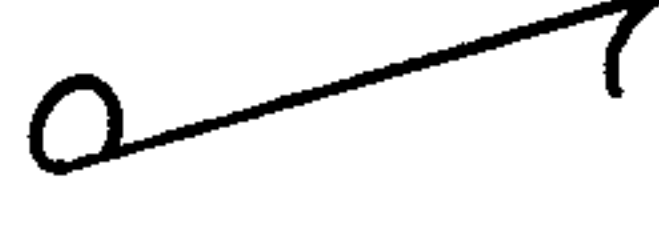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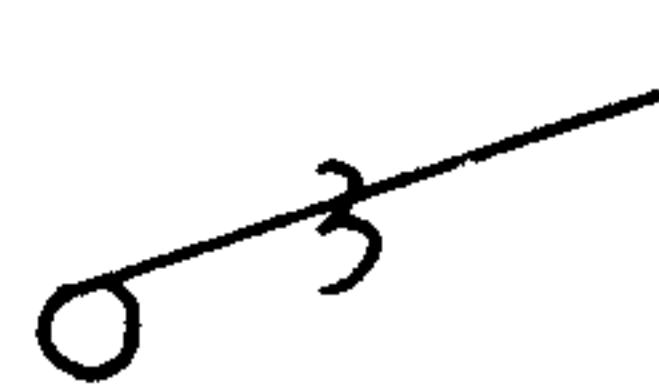


책임전가



















이치



찬성, 천명 	친애, 친선 	철저 	참작 
침략 	참모, 침체 	참모본부 	참모총장 
청소년, 총리, 청사진 	청와대 	총선거 	창립, 총액 
창립행사 	창립3주년 		

10. 타/파줄 최장선약자

투자, 투쟁 	투융자 	태도, 태평양, 테러, 테두리 	태극기 
특징 	탄압 	타협 	틀림 
틈바구니, 탐관오리 	퇴폐, 퇴폐 	통일, 통화, 통과 	포기 
평등 	필요, 피로 	필수불가결 	필수불가결 

패기, 폐기, 폐단



폭력, 폭격, 폭로



파괴



판단



편승



품질



풍토



평화



평화공존



평화공세



평화정착



11. 하줄 최장선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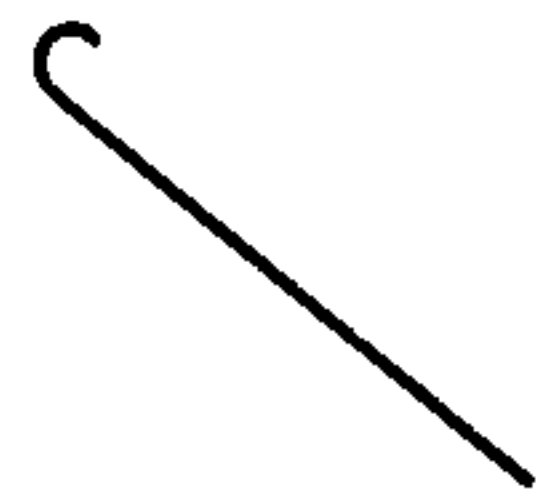
현재, 하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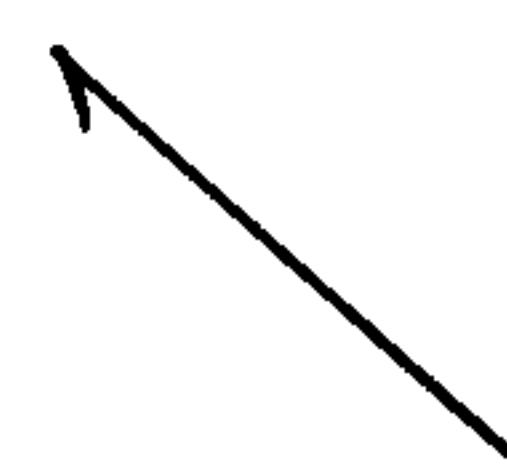
향상,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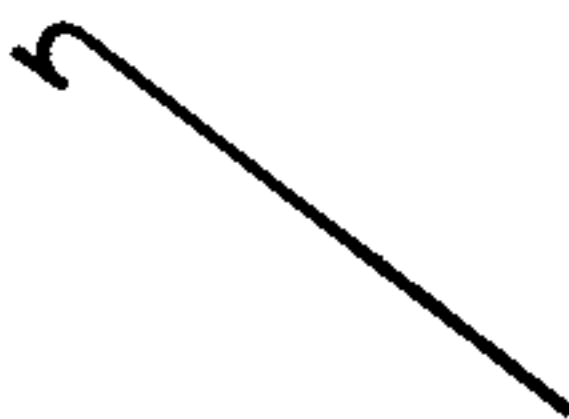
해결,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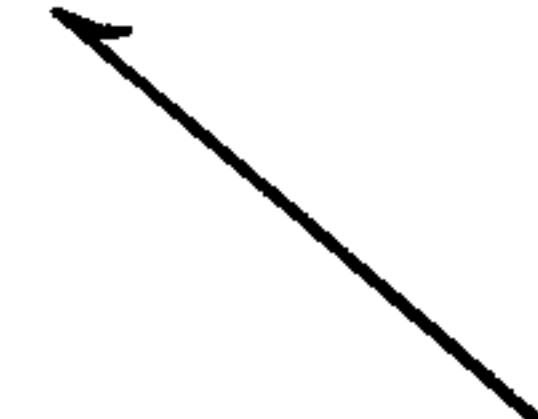
학교, 획책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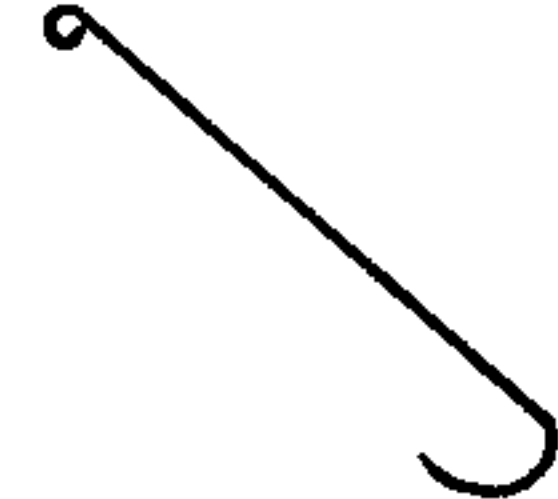
확실,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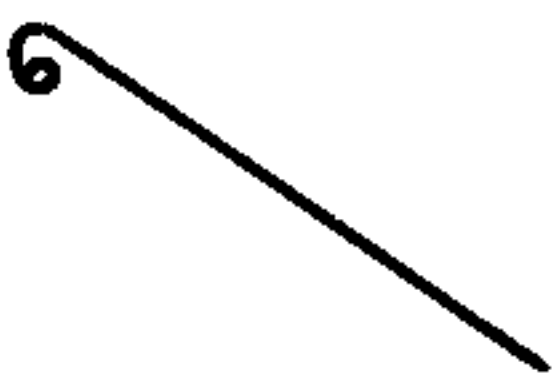
한국, 한덩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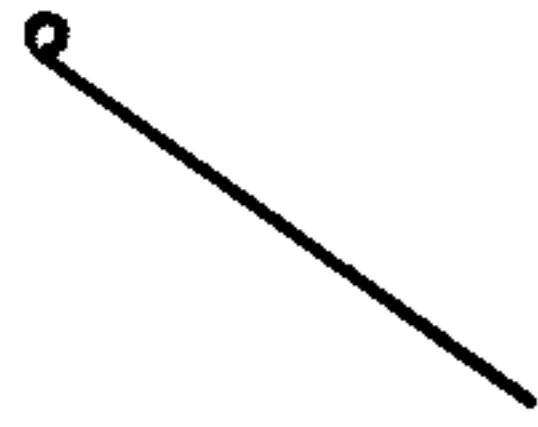
한꺼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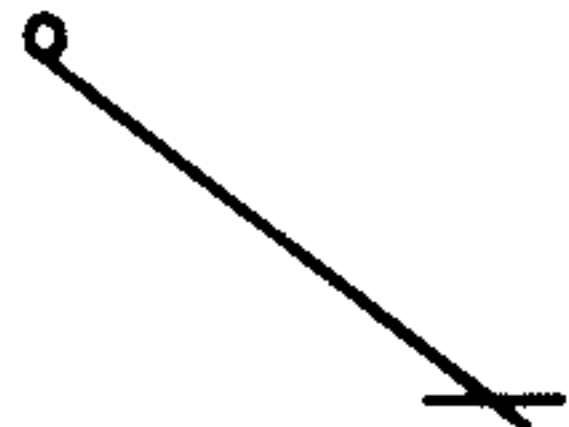
현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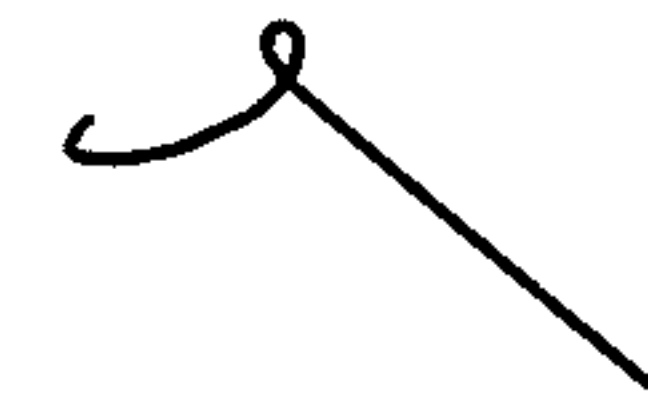
헌법,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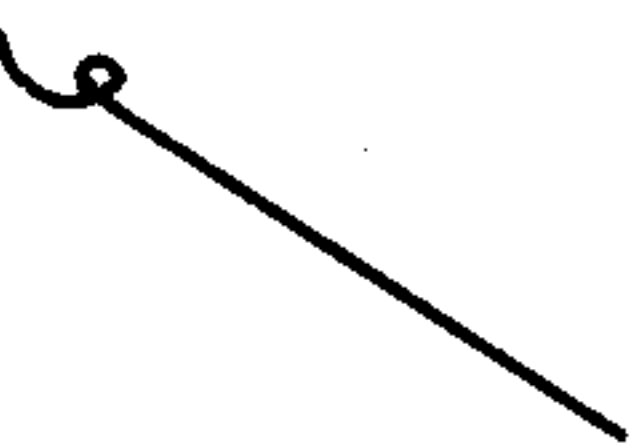
헌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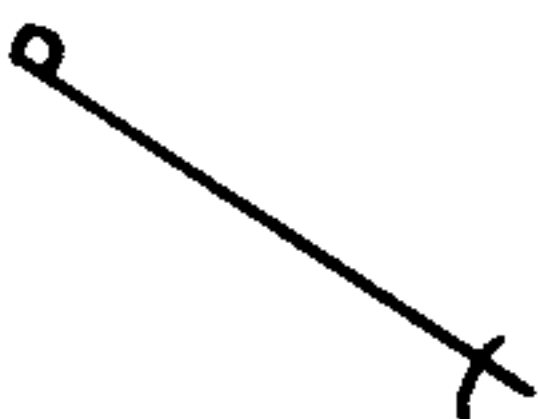
유신헌법



바이마르헌법
(Wei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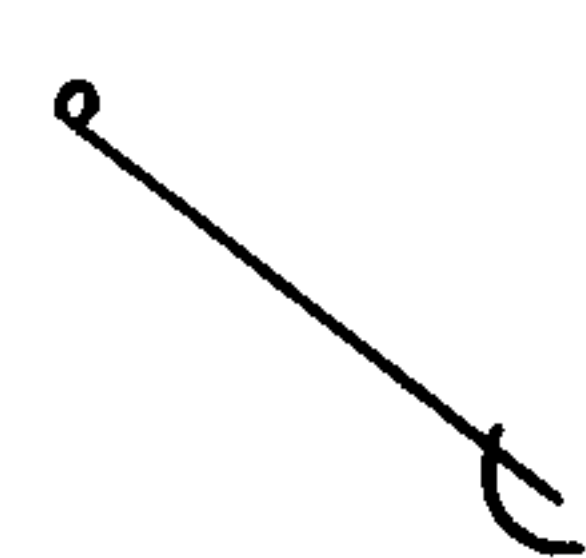
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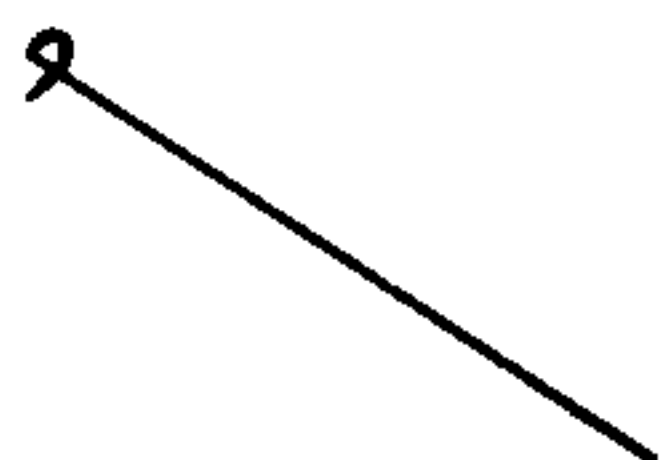
환경오염



환경보호



활동,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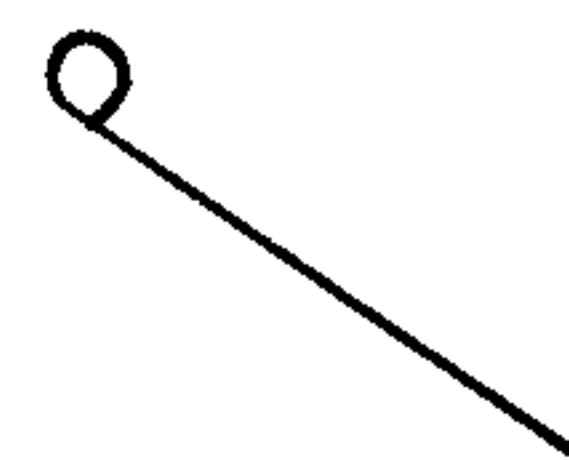
항상, 항공기



형편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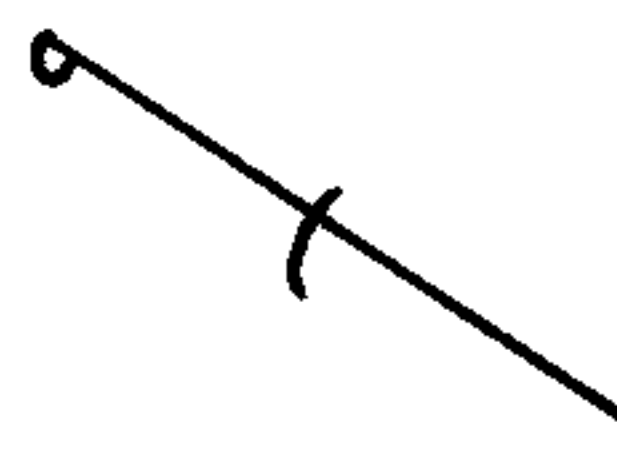
형평



한반도



한국형경수로



화염병



참고 : 경수로



〈속기록〉 ...속기록을 속기문자로 써보자.

<p>○ 김종위원 서울 강동구출신 민주자유당소속 김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앞두고 시베리아 별판에서 불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은 동구라파를 거쳐서 프랑스와 이태리를 지나 이베리아반도에까지 상륙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는 케네디 이후 처음으로 40대의 젊은 클린턴정부를 탄생시키고 멕시코</p>	<p>의 살리나스와 알젠틴의 메넴 정부에 까지 그 개혁의 바람은 불어 닦쳤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개방 개혁정책을 불러 일으켰고 월남에 노크를 했는가 하면 전후 일본에도 엄청난 정치적 지각변동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구적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21세기를 탄생시키기 위한 20세기 인류사의 마지막 창조적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가치를</p>
---	---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모해보자.

The image shows a series of handwritten lines of shorthand notes. Each line corresponds to a line of text from the '속기록' section above. The shorthand uses a combination of numbers (e.g., 1, 2, 3, 4, 5, 6, 7, 8, 9, 10, 20, 40), letters (e.g.,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nd various symbols (e.g., circles, squares, triangles, lines, curves) to represent the original text. The notes are written in a fluid, cursive style, demonstrating the shorthand system's efficiency in capturing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p>높이 든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의 탄생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절불굴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김영삼대통령의 막료로서 막중한 개혁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순항하여 진실로 신한국을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배의 기관사에 해당하는 각료들의 개혁정신과 시대방향감각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p> <p>그러므로 나는 오늘 새로운 정부가 신한국 창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출범한 이후 최초로 열리</p>	<p>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새 정부 각료들의 시대정신과 개혁의 방향에 대해 소상히 물어보고자 합니다.</p> <p>국무위원 여러분!</p> <p>지구적이고 세계사적인 대변혁에 부응하여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우뚝 서서 영광스러운 민족사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느냐 또 국경없는 경제전쟁에 이겨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은</p>
---	---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환해보자.

Handwritten shorthand notes in a cursive style, likely representing the text from the adjacent box. The notes are organized into several lines, with some characters resembling the printed text above. The handwriting is fluid and characteristic of a shorthand system.

바로 이러한 개혁을 지렛대로 하여 우리의 내부적 역량과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대통령정부가 들어서서 2개월째 벌이고 있는 개혁작업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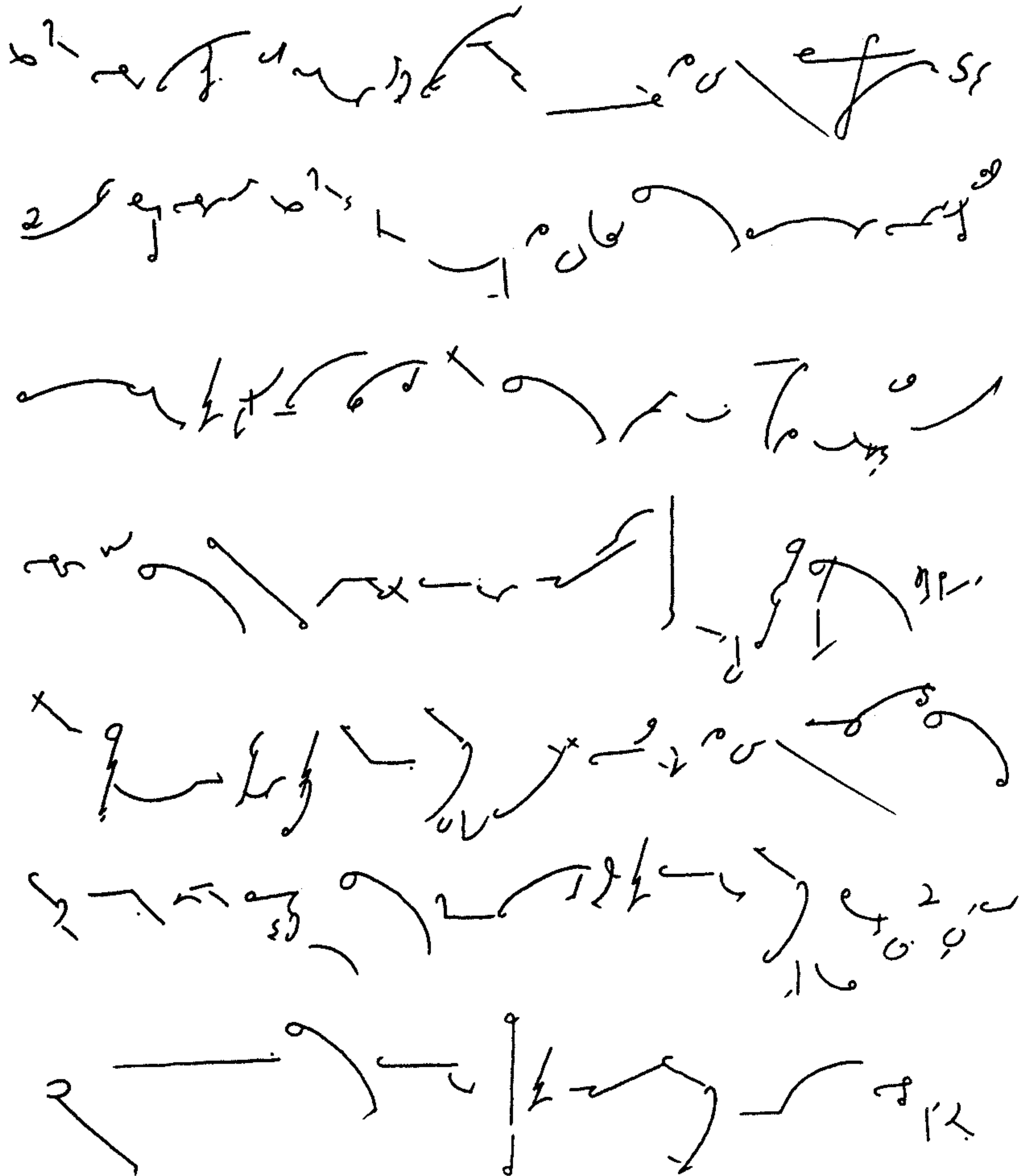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민족 내부의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이 결국 통일의 주체가 되고 구심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개혁이야말로 앞으로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규범적 가치창조행위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서독이 통일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도 결국은 동독을 능가하는 서독의 내적 도덕률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통일이 화려한 구호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일희구집단의 높은 도덕적 규범의 확립에 있다고 보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가치확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모해보자.



확립해야 할 도덕적 가치의 준거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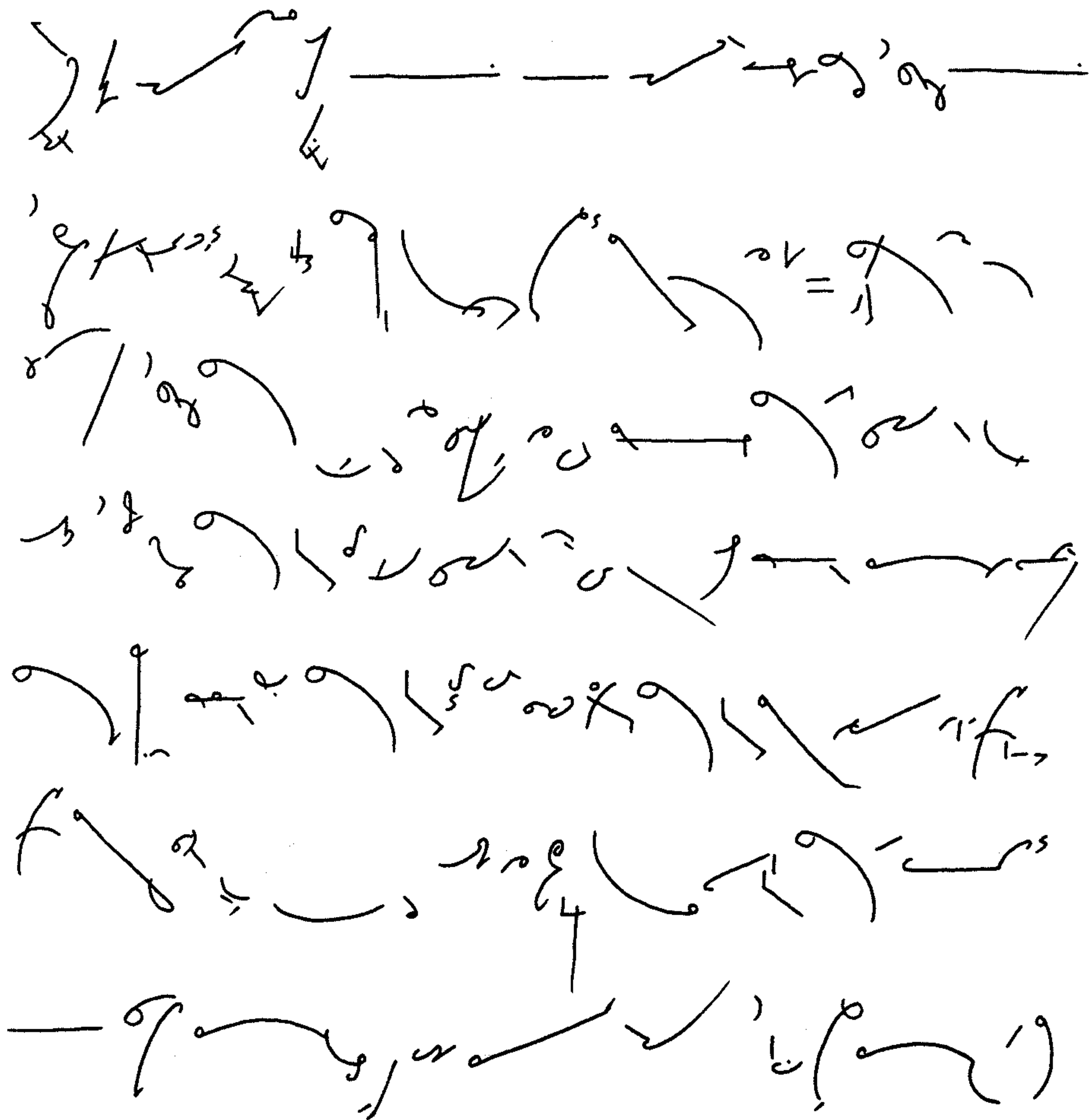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서 통일원장관인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통일문제는 이제 과연 통일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쯤 또 어떤 형태로 통일되느냐 하는 문제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정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미로 봐서는 통일이후의 대책

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한 민족적 과제라 하더라도 통일을 이루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통일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통일 이후의 한국은 자칫 잘못하면 식물인간처럼 식물한국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취임 이후 통일정책기조에 대해서 그 중심을 민족복리에 두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환해보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명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민족의 복리와 유리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배척되어야 옳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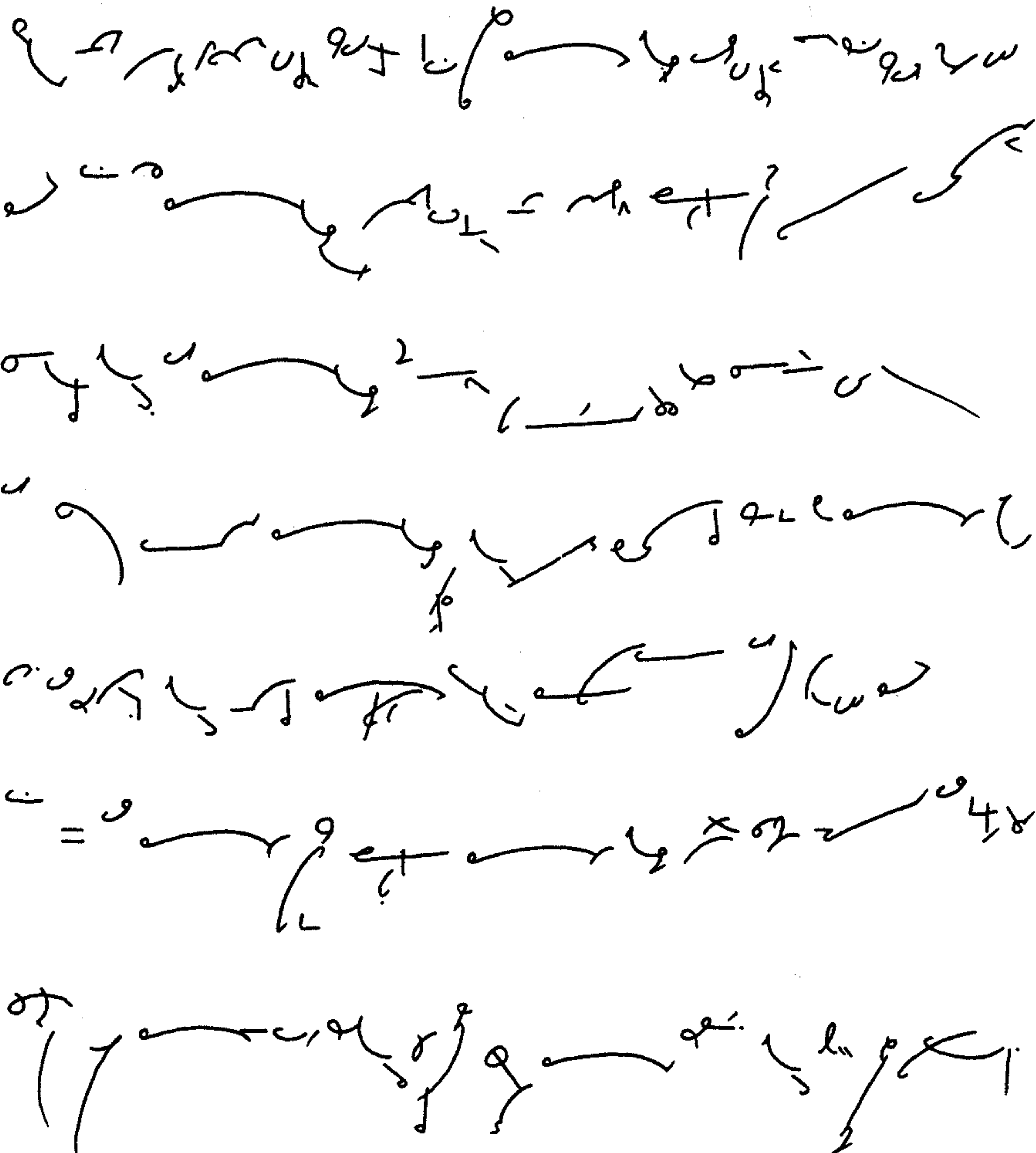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는 민족복리보다는 주체이념에 입각한 가장 저차원적인 김일성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광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의 민족 복리의 논리를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통일정책기조를 민족복리에 두고 있다

고 한다면 북한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반 민족적 폭압정치에 대하여 우리는 엄중히 항의 하고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을 위한 끈질긴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옳습 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김일 성에 대하여 민족적 복리를 주장할 전략적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족개념도 남북한이 서로 달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족을 앞세운다고 하 여 북한에 얼마만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며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표로 변모해보자.



<p>지금까지 이념을 같이 해 온 우방국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p> <p>뿐만 아니라 핵무기개발 의혹으로 국제적 지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직도 냉전적 사고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외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한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그것은 국제적으로 자칫 잘못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p> <p>여기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p>	<p>니다.</p> <p>또한 지금까지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들은 남북의 공존공영입니다. 남북연합을 통한 1국가 2체제의 과정을 거친 다음 1국가 2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통일방안의 요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의 나라에 두 개의 각기 다른 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을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또 낭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p>
--	---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환해보자.

Handwritten shorthand notes in Korean, consisting of several lines of stylized symbols and characters. The notes appear to be a transcription or shorthand version of the text above, used for quick reference or recording.

남북상호간의 체제존중과 공존공영 논리는 결국 남북한 모두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는 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의 시기는 역사에 미루어 보자 하는 뜻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실체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그 실체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제대로 밝혀본 바 없고 말해본 바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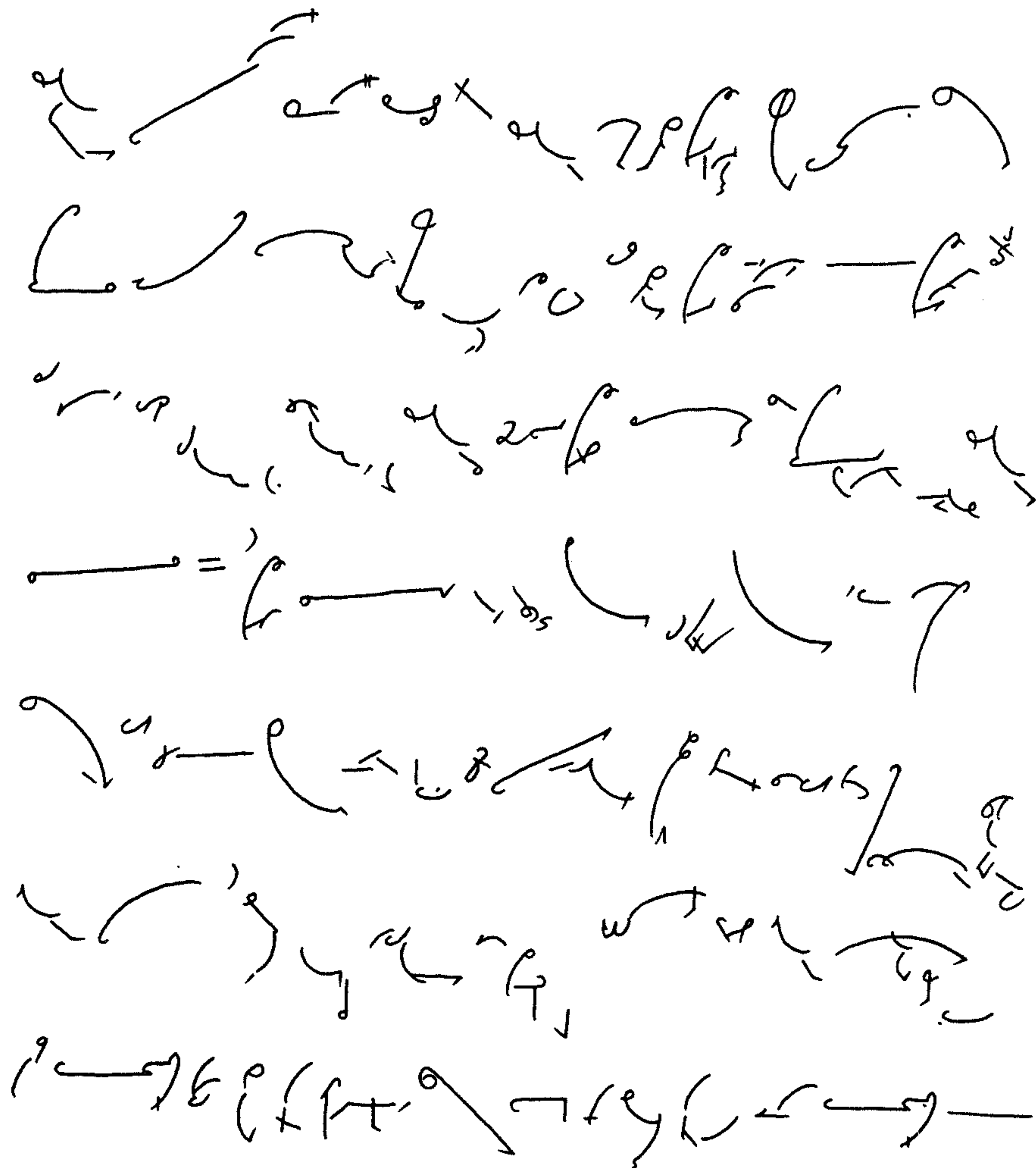
남북한이 두 개의 실체로서 민족사의 한 시기를 병존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남북한의 관계는 과연 어떤 실체적 관계여야 하는가 하는 것

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접근방법은 거창한 이념이나 새로운 체제의 창안보다는 실질적인 대화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면밀한 정세판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어떤 활로도 보이지 않는 자연 붕괴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로 북한은 무역의 발판을 잃게 되었으며 단순 기계류와 소비재상품을 수입할 대외창구도 잃은 형편입니다. 과거 소련블럭에서 수입해 온 각종 기계류와 그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환해보자.



<p>스페어부품의 수입통로까지 막혀 질식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p> <p>또한 머지 않아 있을 김일성시대의 종말은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긴장을 고조시킬 요인일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북한의 앞길에 활로를 뚫어 줄 우방국마저도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선택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일는지도 모릅니다.</p> <p>핵무기를 이용한 국제적 흥정이나 종말론자들</p>	<p>과 같은 광적 결단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은 어떠한지 예상하는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p> <p>외무부장관께서는 우리도 이제는 세계 13위 교역량, 17위의 경제력 이런 것에 걸맞게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수차에 걸쳐서 밝혔습니다.</p> <p>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은 인류의 양심과</p>
--	---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면해보자.

Handwritten shorthand notes in Korean, consisting of several lines of stylized characters and symbols. The notes appear to be a transcription or a set of shorthand for a specific document or speech.

민족적 자존심의 차원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성도 투명성도 보이지 않는 냉전체제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민족자존과 국가위상을 새롭게 확립하는 길은 결국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원칙 있는 외교에는 대상국이 어느 나라이건 변함없는 원칙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의 미야자와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적에 클린턴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냉전시대의 협력관계는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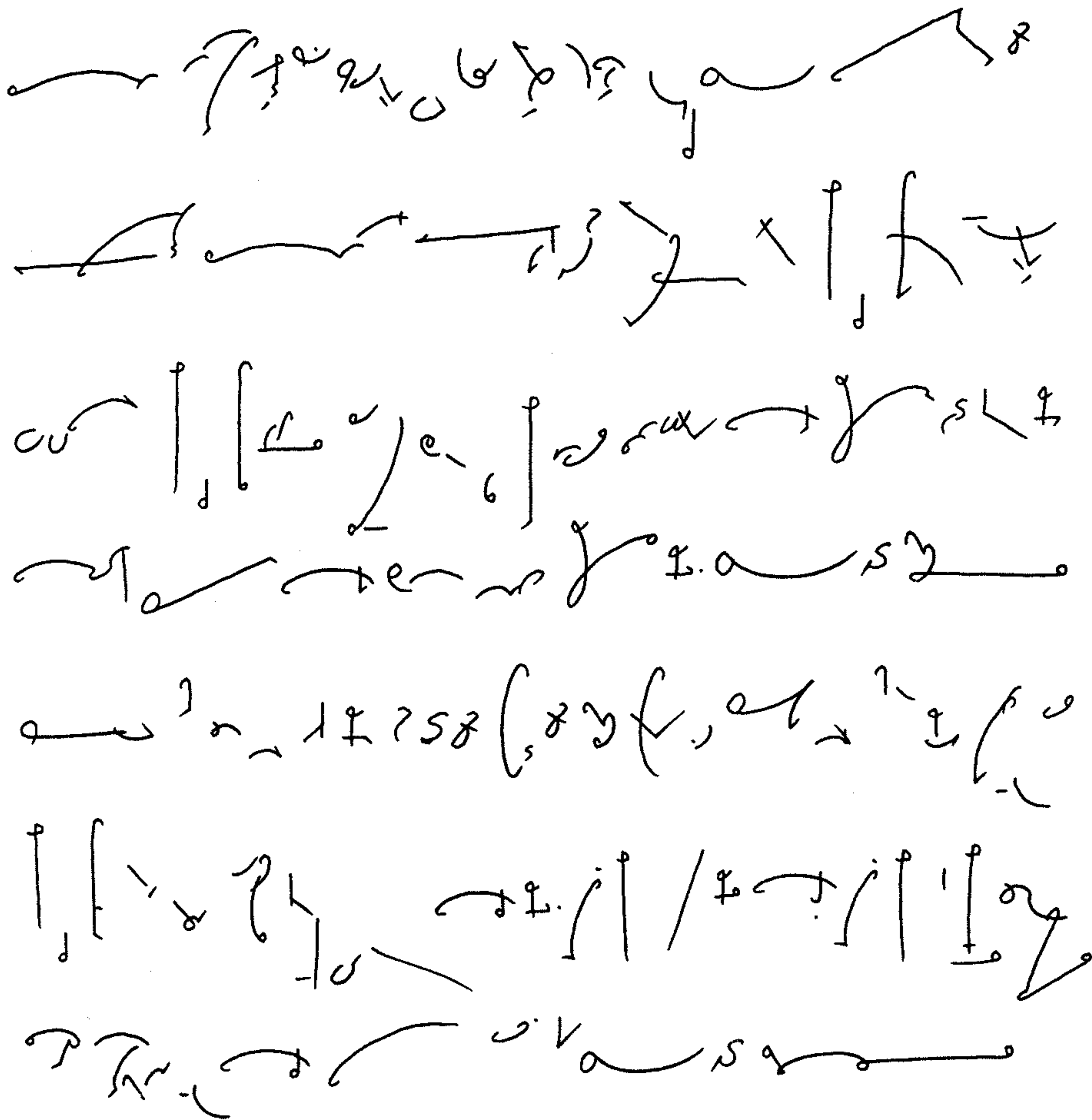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원칙 있는 외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제시하는 원칙 또 일본이 미국에 대하여 제시하는 원칙 이 원칙과 원칙이 맞부딪치는 문자 그대로의 모순의 현장을 보면서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대하여 “이제 냉전시대의 한미관계는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책으로 변모해보자.



끝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미외교를 펼쳐 나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오늘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에 와서 미국에 대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냉전시대 이후 세계질서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 유일의 냉전체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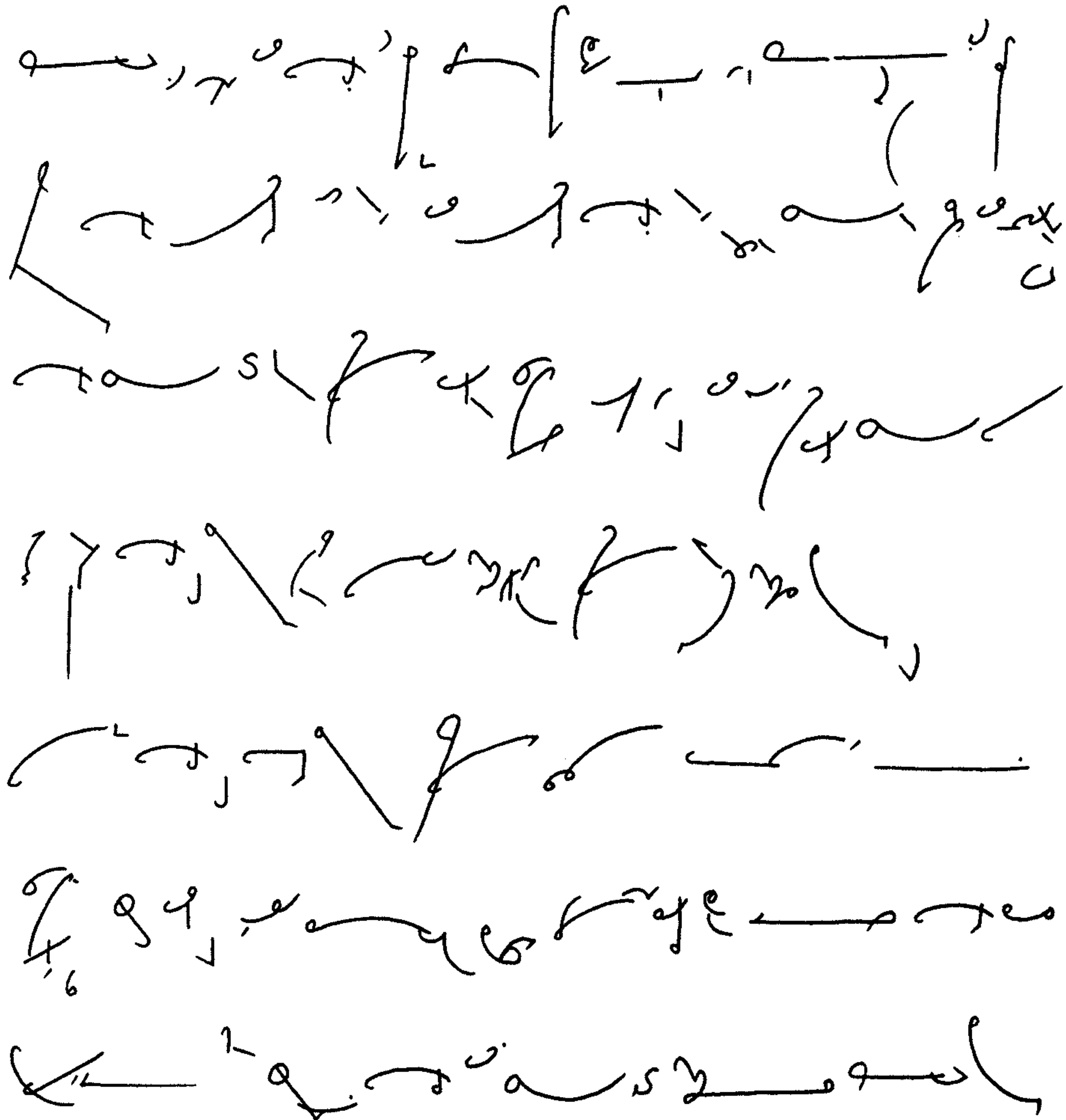
미국에 있어 한국은 단순한 지역협력의 대상일 뿐 세계질서 확립의 협력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 과거의 한국은 동북아질서의 전진기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없어지고 중국이 개방된 지금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동북아질서의 전진기지도 그리고 중심축일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어쩌면 민족내부분쟁의 소지만을 안고 있는 변방국가로 미국의 눈에는 비칠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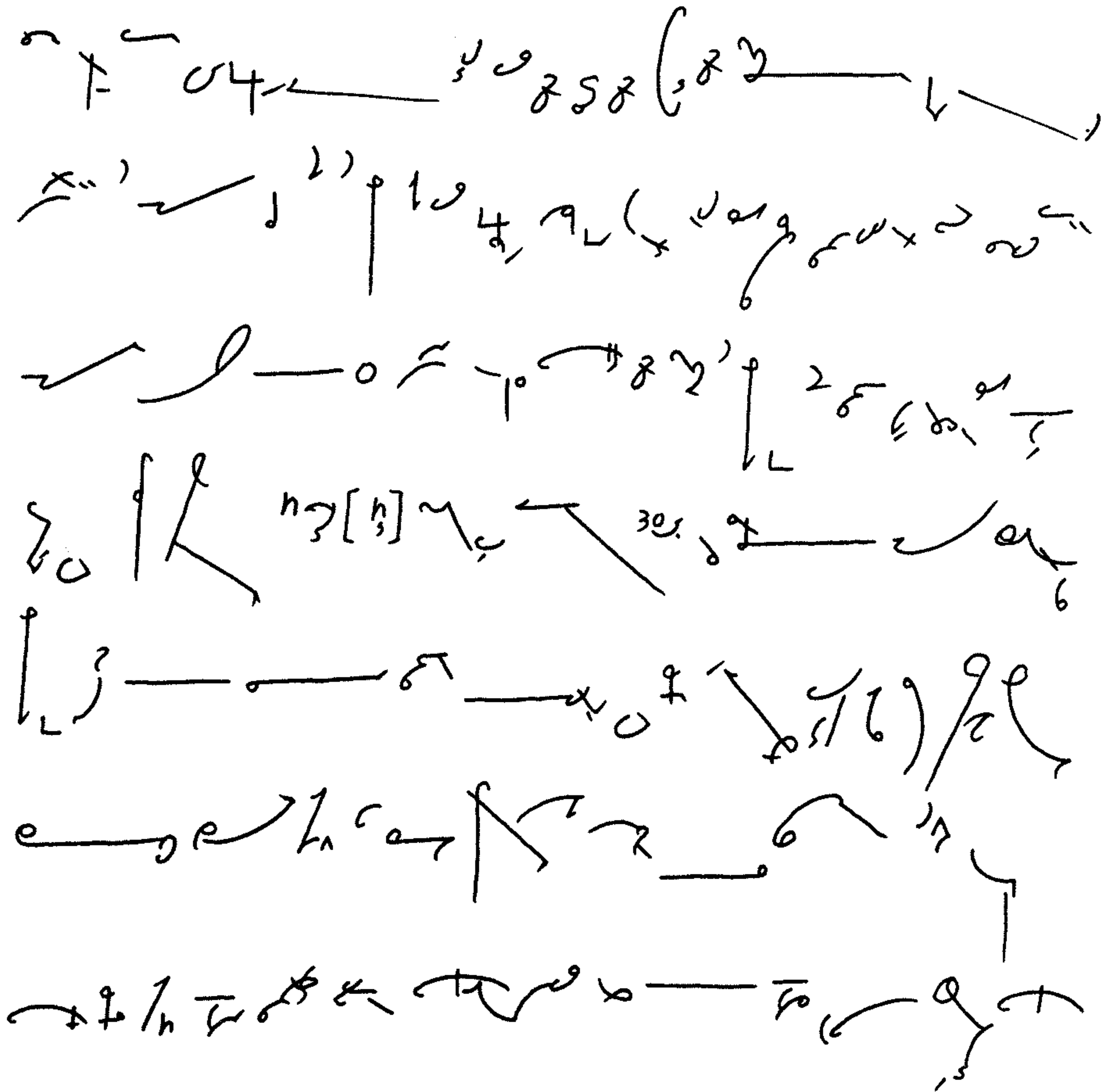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게 대하여 냉전시대의 협력관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분명히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연해보자.



<p>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p> <p>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협력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것, 어떤 원칙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원까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p> <p>만약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면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구상도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외무부장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p> <p>같은 맥락에서 내후년이면 국교정상화 30년을 맞이하는 한 일관계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새롭게 그 관계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폭이 큰 동북아정세에 비추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정치 군사적 외교활동의 증대를 모색해 나가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p> <p>미국과 일본이 똑같은 가상적을 전제로 해서 체결한 미·일안보조약이 바로 그 가상적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미·일</p>
---	--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법으로 변모해보자.



안보조약은 효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그 내밀한 의미를 우리는 음미해 가면서 우리도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에 대하여 안보적 차원의 외교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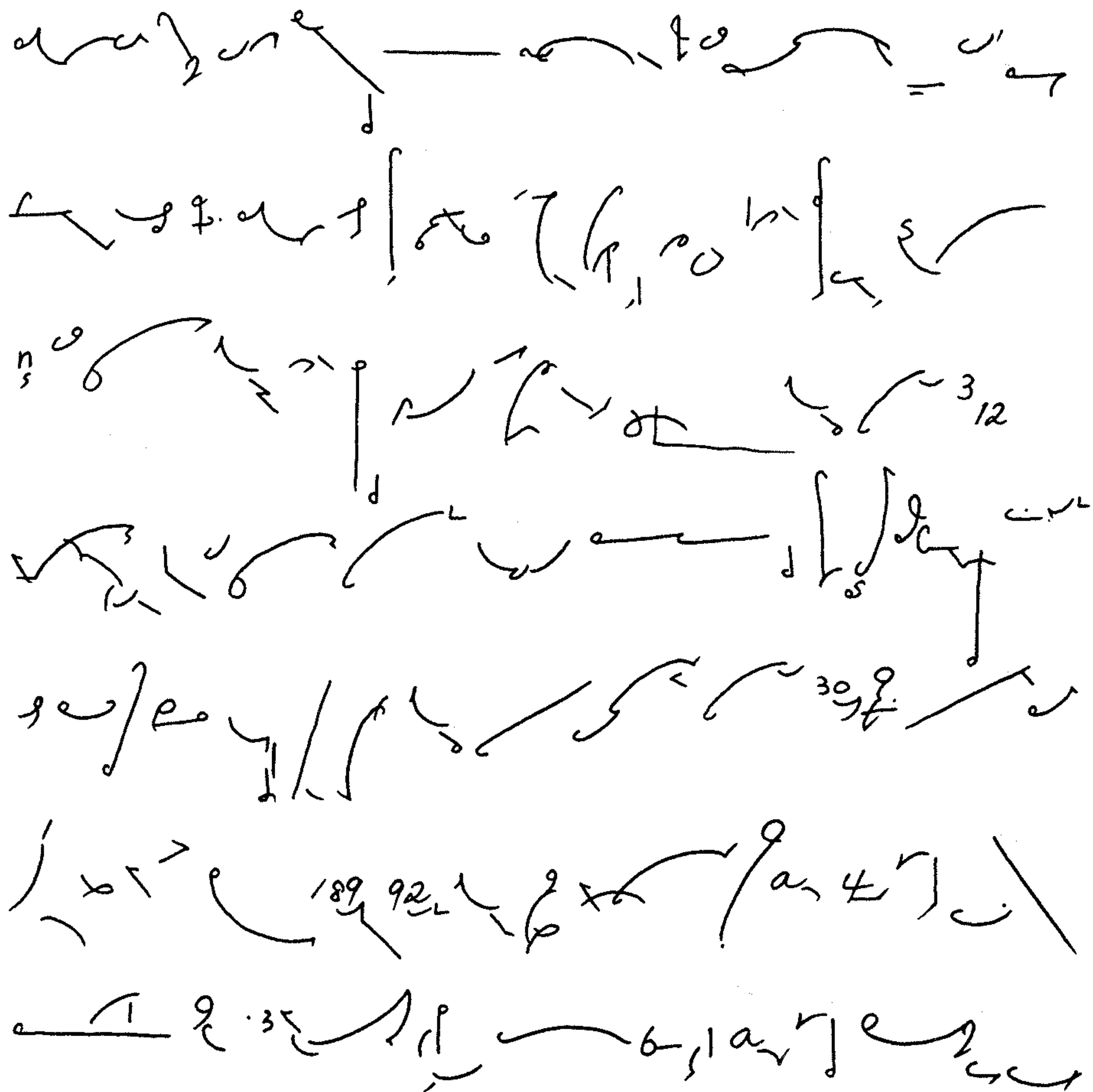
북한이 지난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탈퇴선언 철

회를 위해 지금까지 보여온 끈기 있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지난 30년동안 생사를 걸고 추진해 온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핵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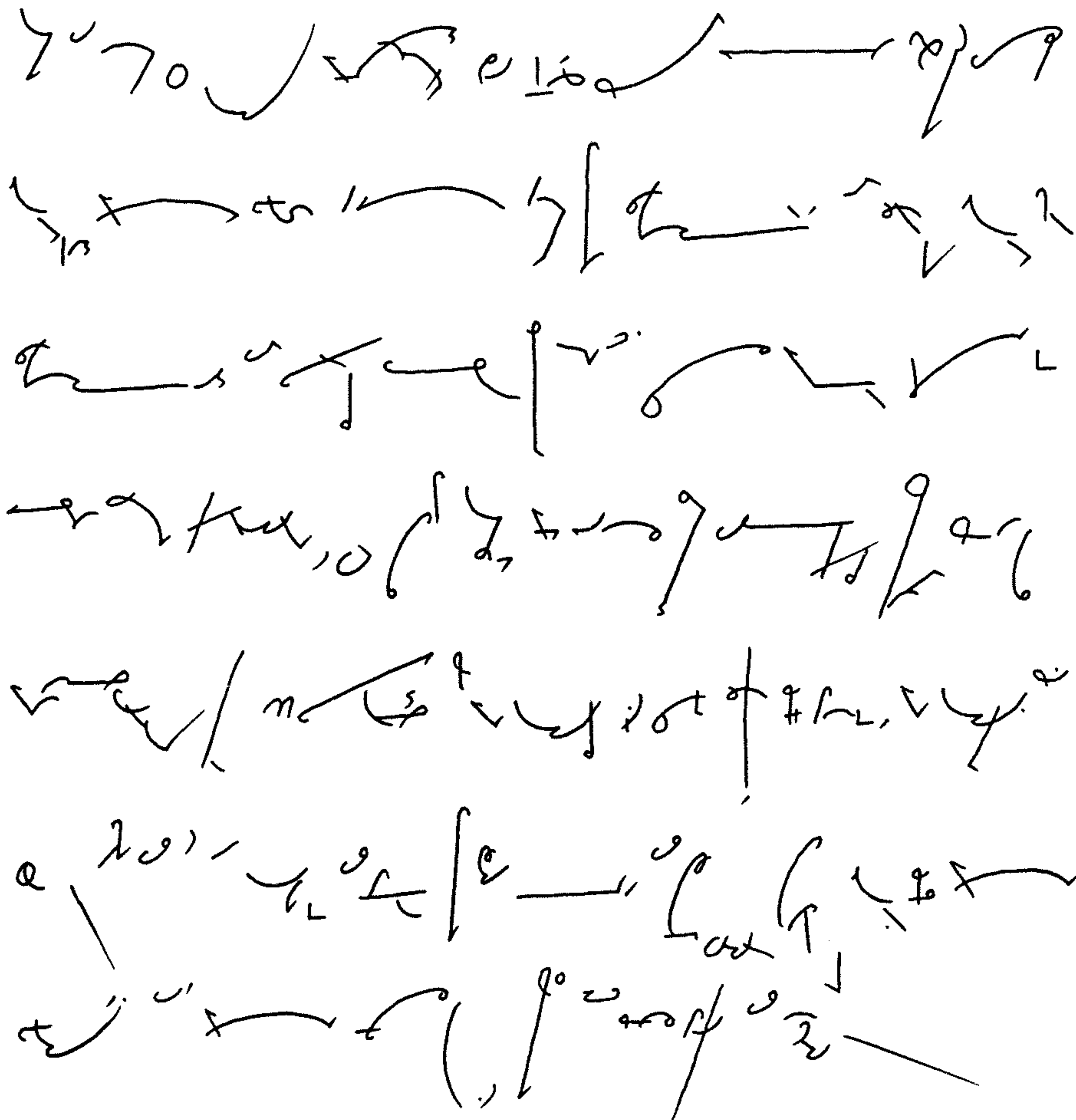
분명히 1989년 이후 92년까지 북한은 연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여 원자탄 4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현재 건설중인 영변 제3핵반응로가 완성되면 매년 6개이상의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문해보자.



<p>보도를 우리 모두 같이 보았습니다.</p> <p>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 하나 만으로도 엄청난 국제적 협상카드를 쥐게 된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의 개발이야말로 다목적 다탄두의 외교적 전술무기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북한의 이러한 전술무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본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외신이 보도하는 것처럼 핵확산의 악몽이 한반도에서 야기되었을 때에는 동북아 전체가 건</p>	<p>잡을 수 없는 핵저장고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NPT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대만까지도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p> <p>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정책노선을 가지고 우리는 대국방외교를 펼쳐 나갈 것인가?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북한이나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하여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안이라도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p>
--	--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모해보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전술핵우산에 안주할 수 있는 세계질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냉전체제의 와해는 핵을 통한 전쟁억지력의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우리도 민족의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가야 할 외교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의 현명한 대처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핵에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을 통해서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남북간에 합의를 하고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비핵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으로 비핵선언은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공동선언에 서명하기 전에 이미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9개, 건설 중인 발전소 3개, 계획중인 것 2개, 합해서 14개의 원자력발전소중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핵연료의 재처리가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공동선언으로 우리는 핵재처리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문해보자.

Handwritten shorthand notes in Korean, consisting of several lines of stylized characters and symbols, likely representing a transcription exercise.

<p>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세계에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결국 핵재처리를 해외에 의지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핵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정</p>	<p>책과 상업적, 평화적 정책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p>
--	--

<속기노트> ... 속기문자를 속기록으로 변환해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제 3 장

•

최장선 응용약자 응용약자

이 약기법은 지금까지 배운 최장선을 활용하여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 생략, 응용할 수 있는 약기법이다.

1. 최장선응용약자의 활용법

이 약기법은 학습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응용할 수 있는 약기법이다.

응용의 방법은 앞자를 한 두 자 써주고 뒷부분을 표시하면서 중간을 생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학습자 자신이 중간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응용이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긴 명칭이 약해지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이 되므로 첫 글자만 써야 될 것인지 두 자 까지 써야 될 것인지, 응용부분을 달리 표기해야 할지를 분간하여야 한다.

예> 원래 명칭 -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변 형 - 경제개발5개년계획(구 명칭)

경제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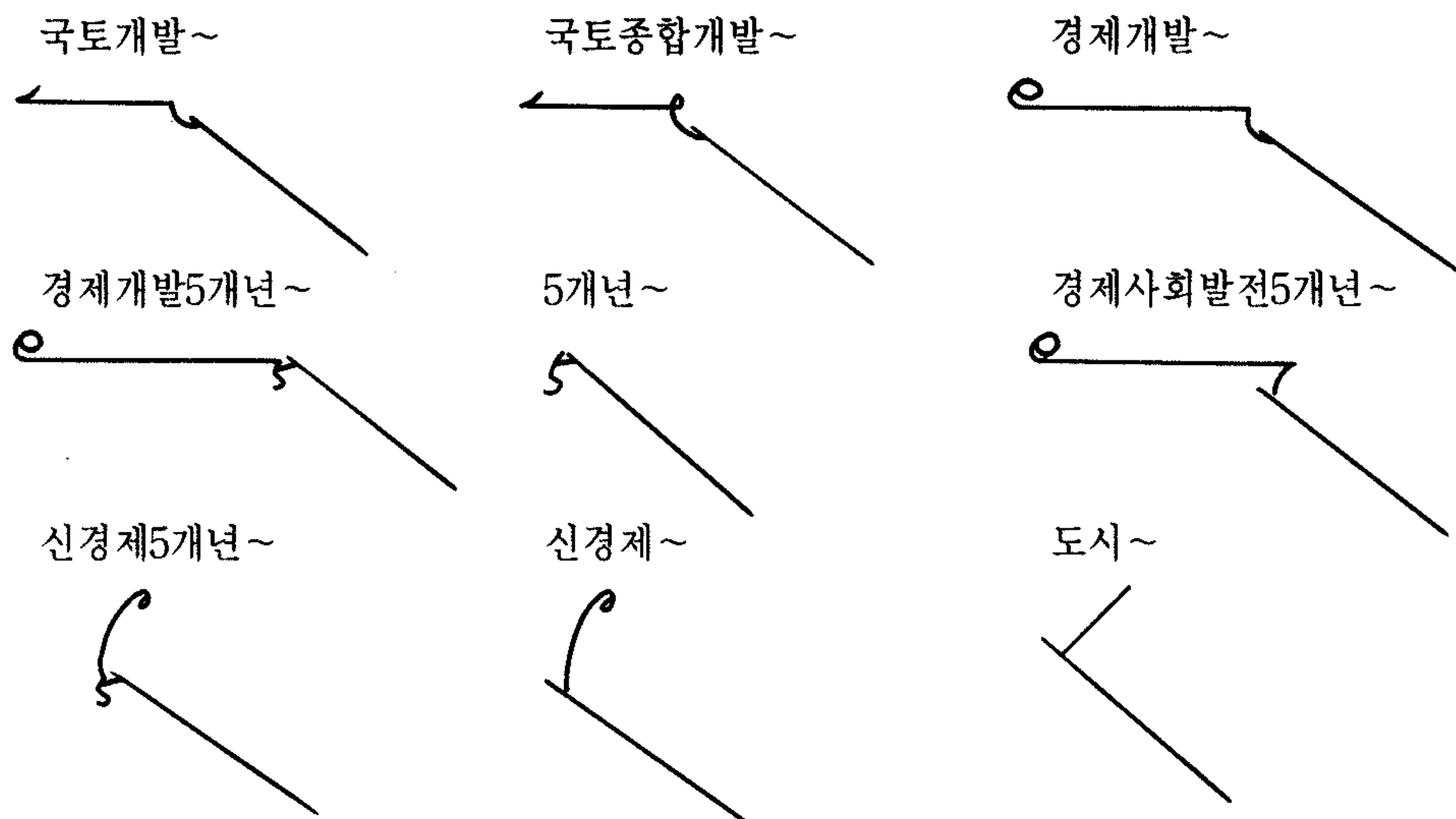
원래 명칭 - 선진국가

변 형 - 선진국

선진제국

2. 최장선응용약자

2-1. ~계획 : 「학」을 응용한다.



참고 : 어떤 말이 있다고 해서 다 약자화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문자나 이미 배운 약기법을 응용해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약자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하고 이해하는 것이 약기를 최소화하고 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공하는 학습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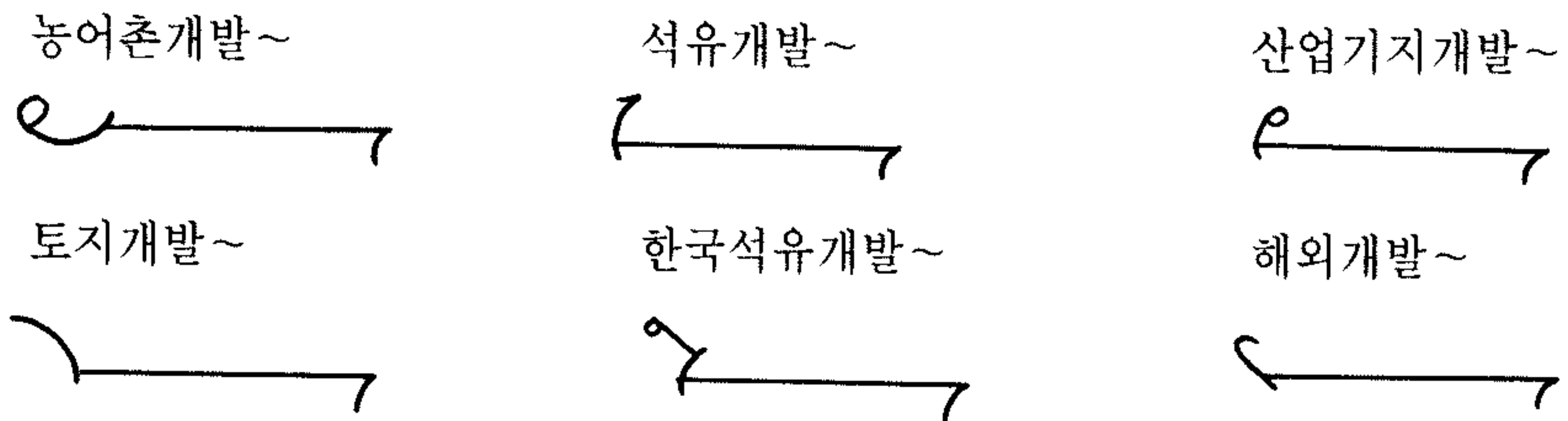
2-2. ~공사 : 「가사」를 응용한다.

근로복지~



응용방법 : 「~공사」는 대체로 다음의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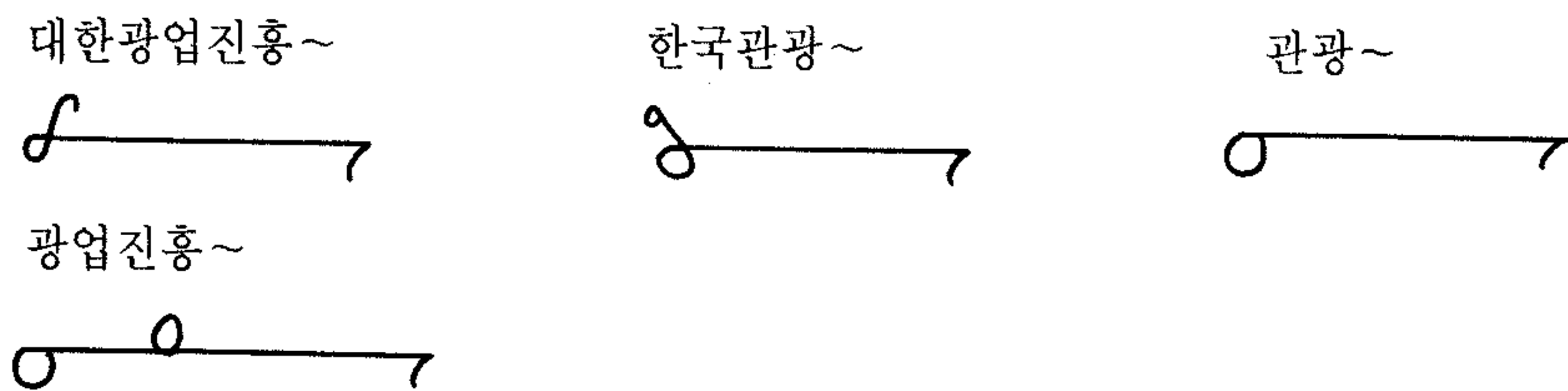
1. 「~개발공사」로 끝나는 형태 : 「개」를 최장선으로 쓰고 「사」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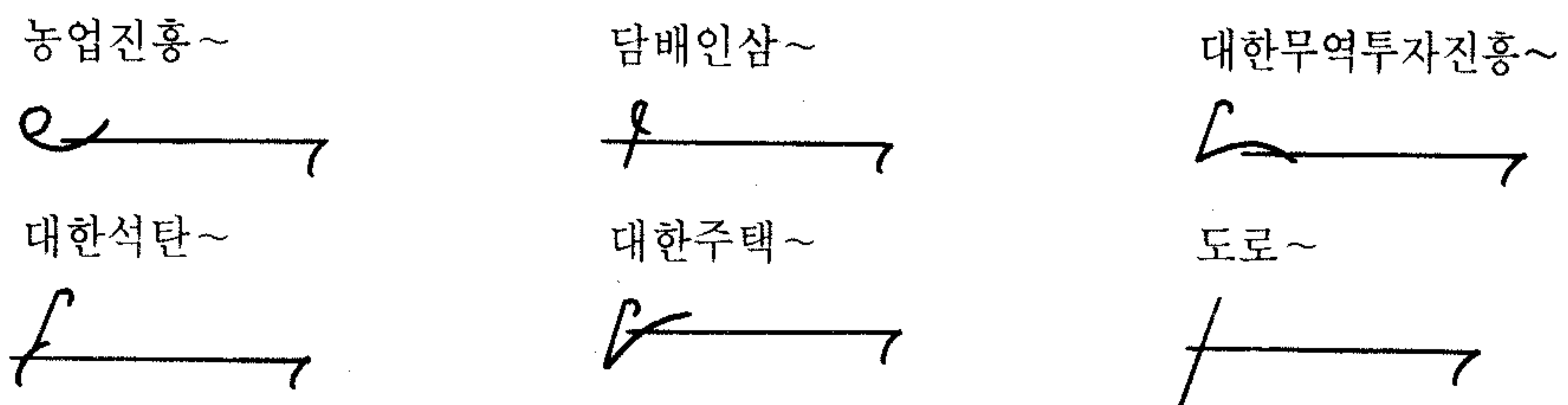
2. 「~통신공사」로 끝나는 형태 : 「공」을 최장선으로 쓰고 「사」 응용



3. 「~광~공사」로 끝나는 형태 : 「광」을 최장선으로 쓰고 「사」 응용



4. 그냥 「~공사」로 끝나는 형태 : 「공」을 최장선으로 걸쳐주고 「사」 응용



| | | |
|-------------|-----------|-----------|
| 무역진흥~
 | 방송~
 | 석탄~
 |
| 성업~
 | 영화진흥~
 | 전력~
 |
| 조폐~
 | 주택~
 | 지하철~
 |
| 한국담배인삼~
 | 한국도로~
 | 한국방송~
 |
| 한국전력~
 | | |

참고 :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는 없나? 이 약자를 일일이 연습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것과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것을 빨리 깨달지 못하면 혼란적으로 속기를 할 수 없다.
속기는 응용의 예술이다.

2-3. ~공단 : 「고다」를 응용하여 「~관리」로 끝나는 말은 「괄」, 「~진흥」으로 끝나는 말은
o 받침처럼 처리한다.

연금관리~


| | | |
|----------------|-------------|-------------|
| 예> 국제공항관리~
 | 산업인력관리~
 | 에너지관리~
 |
| 의료보험관리~
 | 중소기업진흥~
 | 교통안전진흥~
 |

참고 : 응용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첫자를 쓰고 뒷자는 무조건 생각하기만 하면 번문이 나오는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각법도 무용지물이다. 상식을 넓히는 데 정진해야 한다.

2-4. ~관계 : 약자 「관계」를 응용한다.













우호~  우호협력~ 

예> 남북~  한일~  한미~  상관~ 

2-5. ~교육 : 약자 「교육」을 걸쳐서 응용한다.

반공~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응용법을 익히자.

| | | | |
|--|---|--|--|
| 정신~
 | 초등~
 | 중등~
 | 고등~
 |
| 대학~
 | 생애~
 | 평생~
 | 유아~
 |
| 성인~
 | 가정~
 | 직업~
 | 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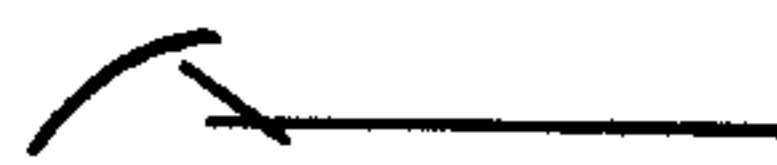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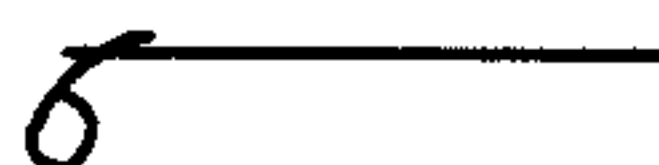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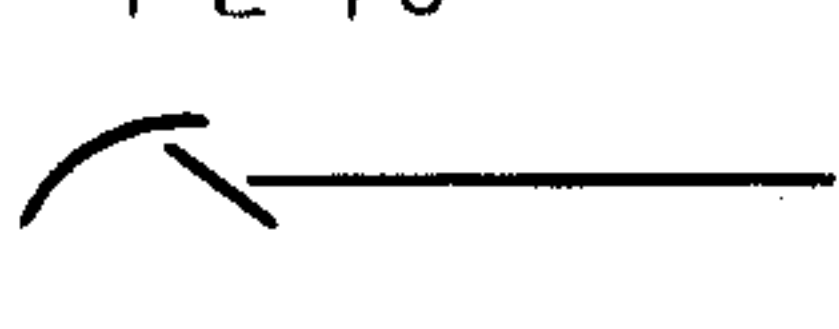

2-6. ~국 : 「국」에는 「구」, 「국가」에는 「국가」를 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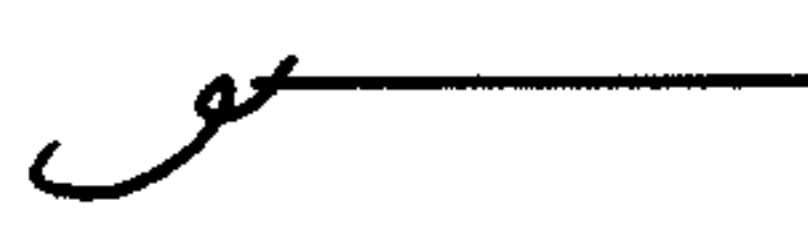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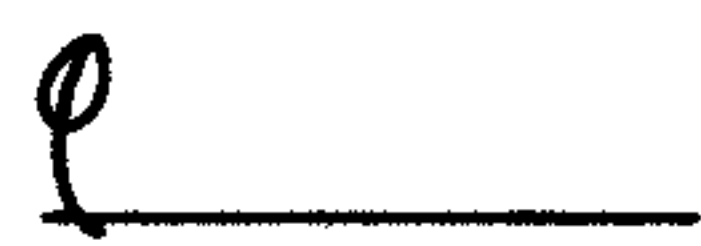
선진~  선진국가 

예> 후진~  후진국가  중진~  개도~ 

2-7. ~군 : 「구」를 응용한다.

향토예비~ 

예> 예비~  주한미지상~  미지상~  정규~ 
비정규~  육해공~  주한미공~  주한미군 

UN평화유지~ 평화유지~
 

3. 최장선응용약자

3-1. ~구조 : 「조」를 걸쳐서 응용한다.

산업~



예> 재무~



유통~



3-2. ~기 : 「기」를 받쳐서 응용한다.

상반~



예> 하반기~



전반~



후반~



1·4분~



2·4분~



농번~



무더~



녹음~



사춘~



복사~



소고~



3-3. ~기업 : 「기업」을 응용한다.

중소~



예>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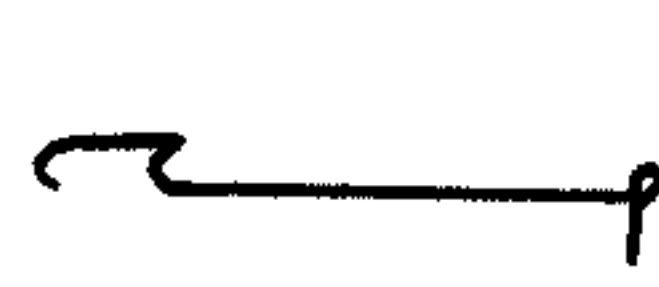
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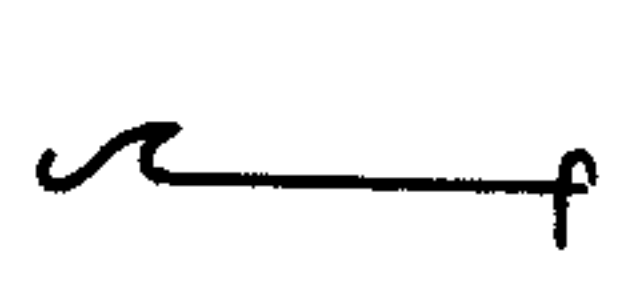
부실~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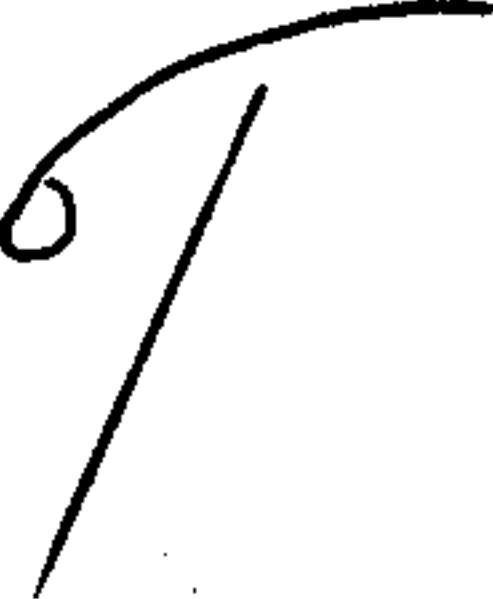


재벌~



3-4. ~당국 : 약자 「당국」을 응용한다.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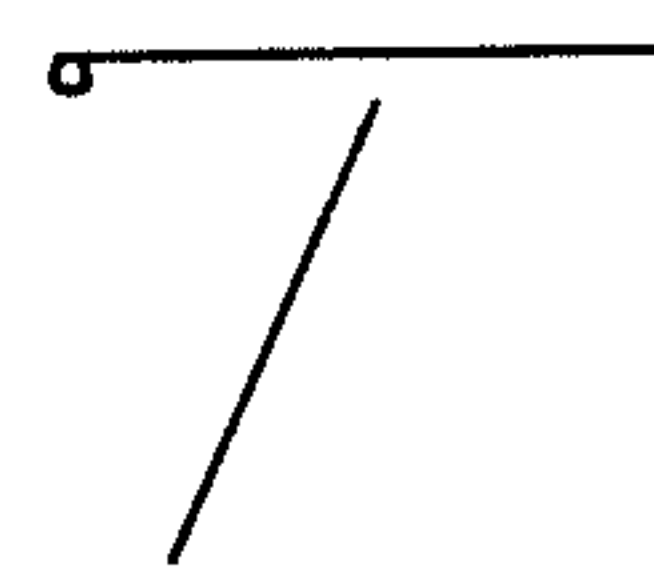
예> 수사~



검찰~



관계~



3-5. ~도 : 「도」를 응용한다.

경기~



예> 경상~



강원~



충청~



전라~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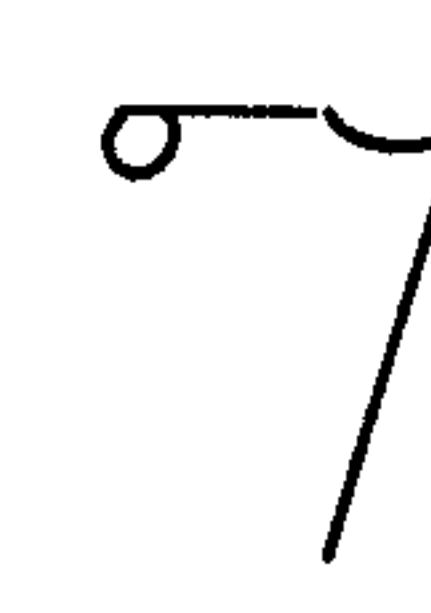
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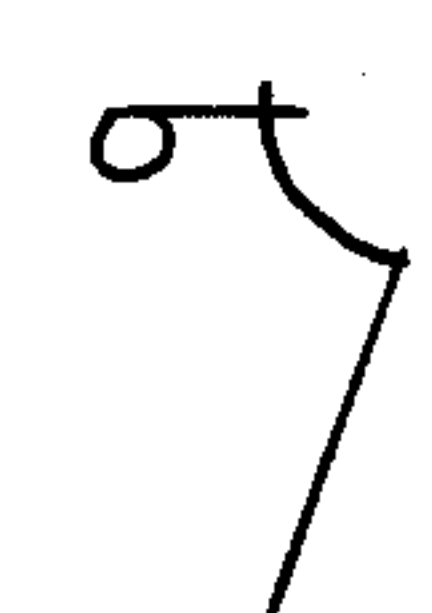
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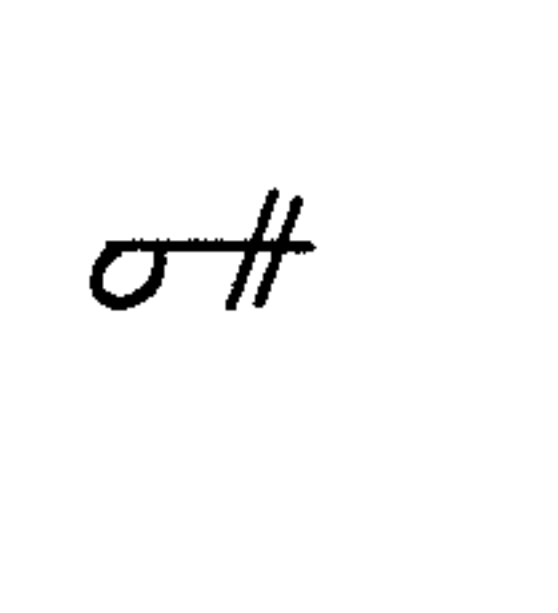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북도



3-6. ~민족 : 「맨」을 응용한다.

이~



예> 타~



한~



단일~



백의~



4. 최장선응용약자

4-1. ~방송 : 「방송」을 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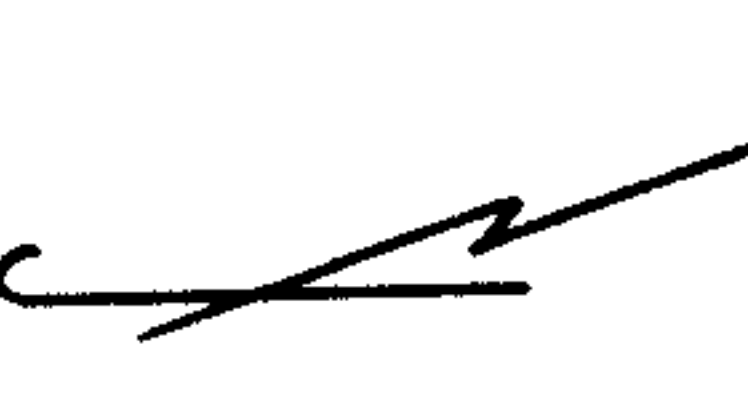
공영~



예> 사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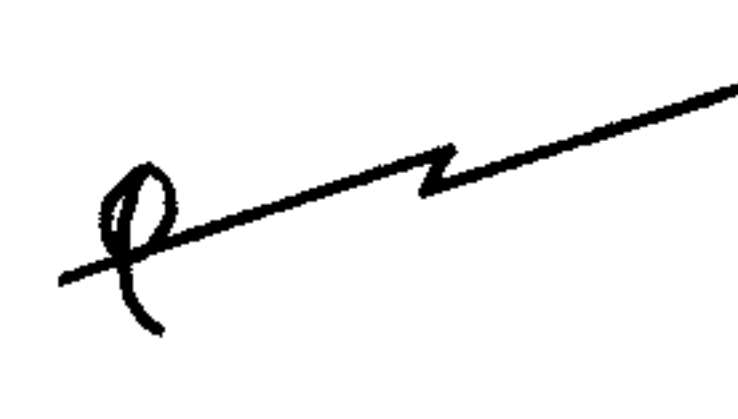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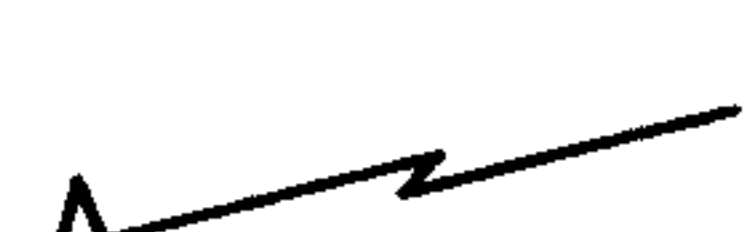
불교~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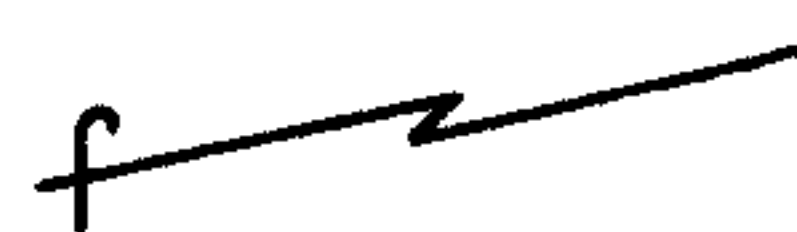
민영~



유선~



위성~



4-2. ~법 : 「버」를 걸쳐서 응용한다.

국가보안~

- | | | | |
|--------------|------------|-------------|------------|
| 예> 국세징수~
 | 국군조직~
 | 국회의원선거~
 | 대통령선거~
 |
| 법원조직~
 | 반공~
 | 예산회계~
 | 정당~
 |
| 정부조직~
 | 조세범처벌~
 | 조세감면규제~
 | 조감~
 |
| 집시~
 | 외환관리~
 | 언론기본~
 | 언기~
 |
| 선거~
 | 지방자치~
 | | |

4-3. ~보험 : 「보」를 응용한다.

생명~

- | | | | |
|------------|-------------|-----------|----------|
| 예> 교육~
 | 화재~
 | 화재해상~
 | 자동차~
 |
| 의료~
 | 산업재해보상~
 | 산재~
 | 보증~
 |
| 연금~
 | 의료보호
 | | |

4-4. ~본부 : 「보」를 걸쳐서 응용한다.

대회~, 대간첩대책~

| | | | |
|-------------|---------|------------|-----------|
| 예> 생산성~
 | 육군~
 | 해군~
 | 공군~
 |
| 합동참모~
 | 치안~
 | 재해대책~
 | 수해대책~
 |
| 한해대책~
 | 중대~
 | 새마을운동~
 | 새마을~
 |

참고 : 「~법」과 같은 형태이나 구별이 가능하다.

4-5. ~부문 : 「뵤」을 응용한다.

공업~ 서비스~

5. 최장선응용약자

5-1. ~부 : 「부」를 돌려서 응용한다.

외무~

| | | | |
|-------------|-----------|---------|-----------|
| 예> 내무~
 | 문화체육~
 | 문체~
 | 농림수산~
 |
| 국가안전기획~
 | 안전기획~
 | 안기~
 | 중앙정보~
 |

| | | | |
|---------|-----------|-----------|-----------|
| 정보~
 | 통상산업~
 | 통산~
 | 정보통신~
 |
| 정통~
 | 보건복지~
 | 건설교통~
 | 건교~
 |
| 환경~
 | 입법~
 | 사법~
 | 행정~
 |

참고 : 상식에 의한 번문... 부서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속기문자로 다 쓰지 않고 첫 자만 쓰고서도 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약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5-2. ~처 : 「처」를 응용한다.

| | | | |
|------------------|-----------|---------|-----------|
| 과학기술~
 | 과기~
 | 총무~
 | 공보~
 |
| 예> 법제~
 | 국가보훈~
 | 보훈~
 | 법원행정~
 |

5-3. ~청 : 「처」를 걸쳐서 응용한다.

| | | | |
|----------------|---------|-----------|---------|
| 조달~
 | | | |
| 예> 경찰~
 | 국세~
 | 관세~
 | 검찰~
 |
| 농촌진흥~
 | 농진~
 | 공업진흥~
 | 공진~
 |

5-4. ~장관 : 약자 「장관」을 응용한다.

| | | | | |
|-------------|--|----------|--------|--------|
| 외무부~ | | 외무~ | 내무부~ | 내무~ |
| 국방부~ | | 국방~ | 국무~ | 정보통신부~ |
| 정통~ | | 정무~ | 과학기술처~ | 과기처~ |
| 통일원~ | | 통상산업부~ | 통산부~ | 보건복지부~ |
| 부총리겸재정경제원~ | | 부총리겸통일원~ | 재정경제원~ | |
| 외무부차관 | | 외무차관 | | |

참고 : 정식명칭은 돌리고 약칭이나 첫자가 같은 것은 걸치거나 찍어쓴다.

5-5. ~사령부 : 「리」를 ◦ 받침이어쓰기 형태로 응용한다.

| | | | |
|--------------|--|-------|-----|
| 국군보안~ | | | |
| 예> 보안~ | | 국군기무~ | 8군~ |
| 3군~ | | 수도방위~ | 사령관 |
| | | | |

5-6. ~산업 : 약자 「산업」을 걸쳐서 응용하고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면 띄어쓴다.

기간~

예> 수출~

사양~

첨단~

관광~

6. 최장선응용약자

6-1. ~생활 : 약자 「생활」을 응용한다.

서민~

예> 도시~

농촌~

호화~

내핍~

6-2. ~성명 : 약자 「성명」을 응용한다.

공동~

특별~

7·4~

7·4공동~

남북공동~

7·4남북공동~

6-3. ~세 : 「세」를 걸쳐서 응용한다.

소득~

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가~

부가가치~

개인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갑종근로소득~

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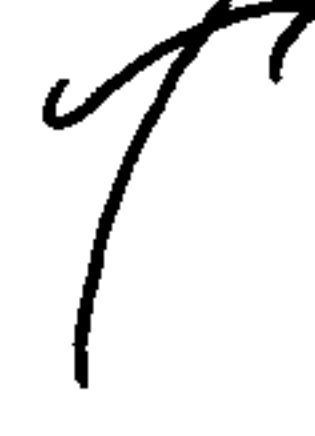
지방교부~



내국~



재산~



특별소비~



특소~



특별관~



특관~



간접~



석유류~



회발유~



법인~



취득~



토지초과이득~



토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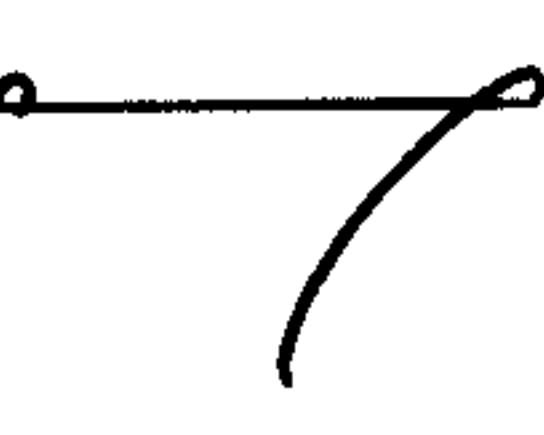
종합토지~



종토~



근거과세



6-4. ~소송 = ~소속 : 「소소」를 응용한다.

형사~

예> 민사~

행정~

선거~

6-5. ~수지 : 「수」를 걸쳐서 응용한다.

국제~

예> 경상~

무역~

무역외~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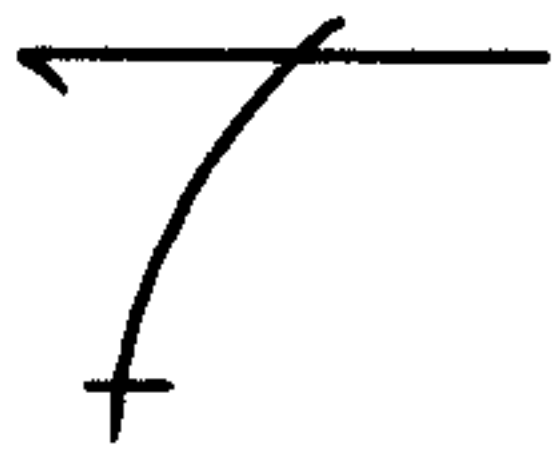
이전~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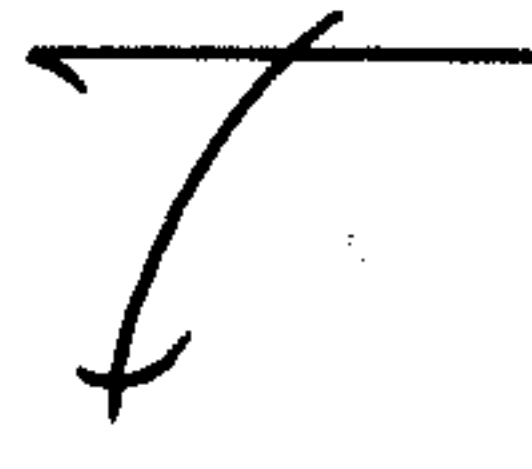
국제수지적자

국제수지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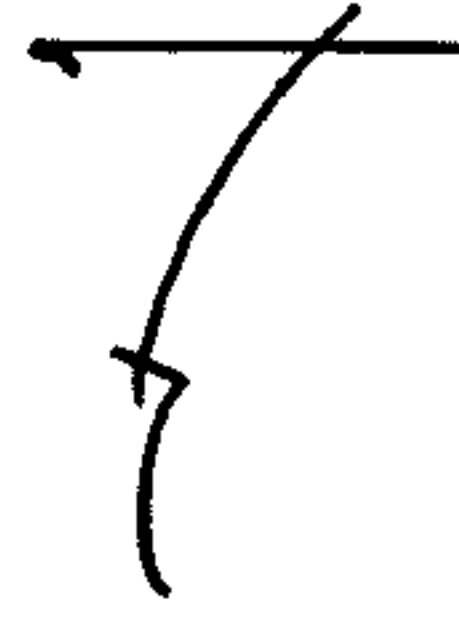
국제수지개선



국제수지악화



국제수지흑자폭



6-6. ~업자 : 「업」을 응용한다.

상공~

예> 남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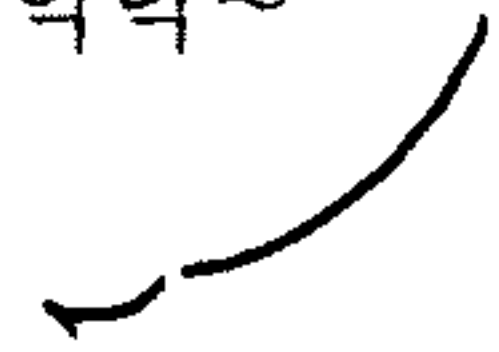
건축~



실~



악덕~



7. 최장선응용약자

7-1. ~여러분 : 약자 「여러분」을 응용한다.

7,000만 동포~

예> 선배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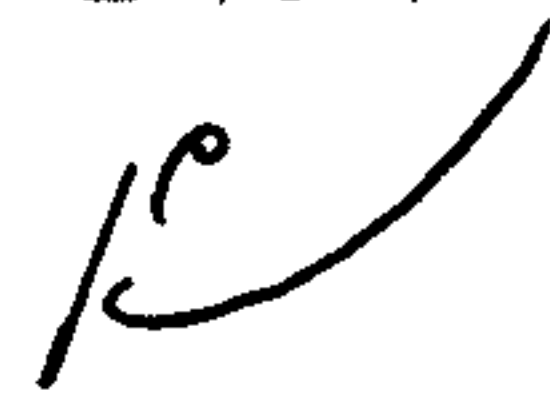
선배동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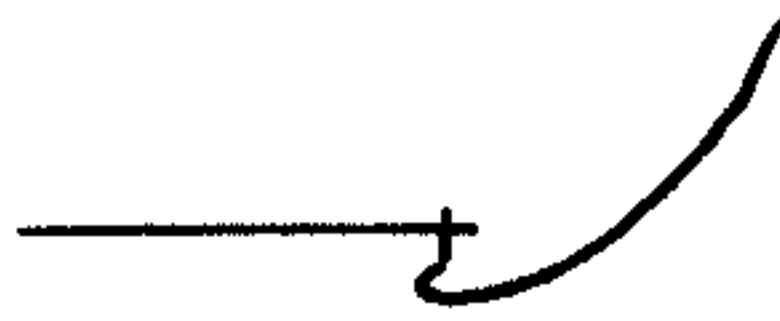
선배동료의원~



선배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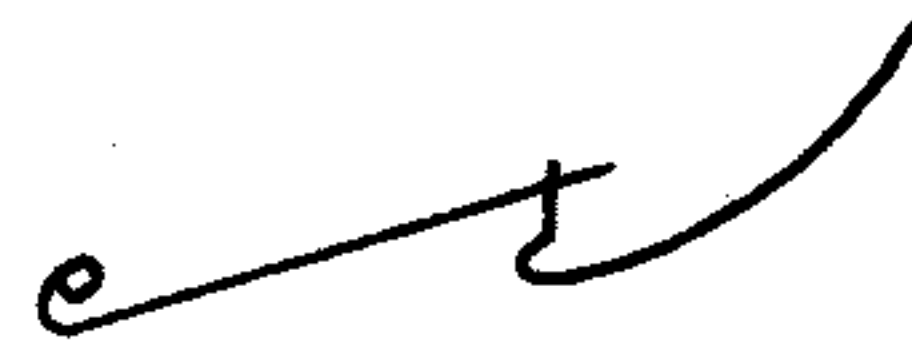
그리고 의원~



그러나 의원~



친애하는 의원~



존경하는 의장!



7-2. ~역사 : 「여」를 응용한다.

반만년~

5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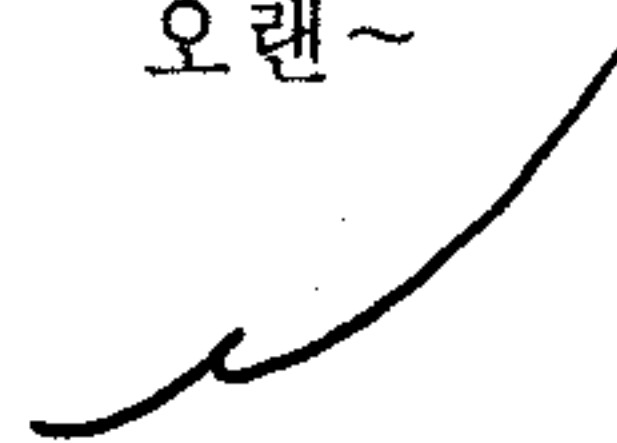
예> 유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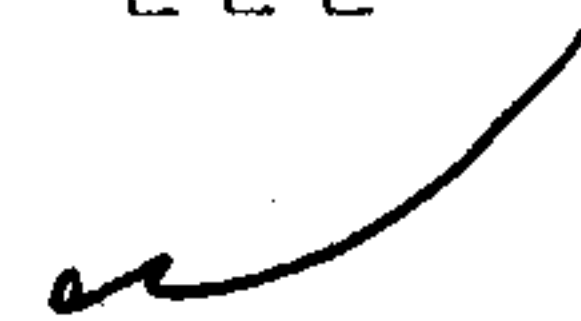
빛나는~



오랜~



찬란한~



7-3. ~예산 : 「어」를 돌려서 응용한다.

추경~



추가경정~



예> 신년도~



적자~



흑자~



팽창~



당초~



새해~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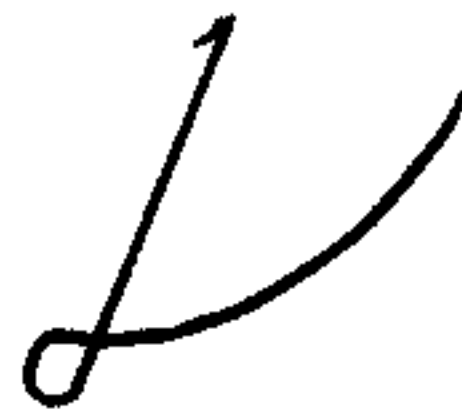


세출~



7-4. ~운동 : 「우」를 돌려서 응용한다.

독립~



예> 학생~



새마을~



민주화~



천리마~



자연보호~



환경보전~



7-5. ~은행 : 「으」를 걸쳐서 응용한다.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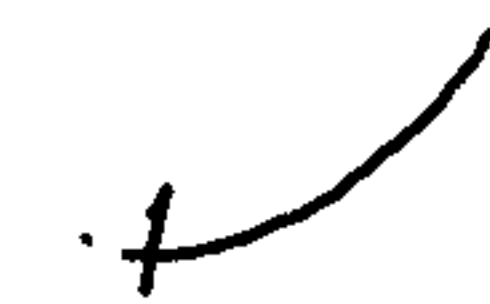
한일~



예> 상업~



제일~



조흥~



주택~



아시아개발~



중앙~




지방~




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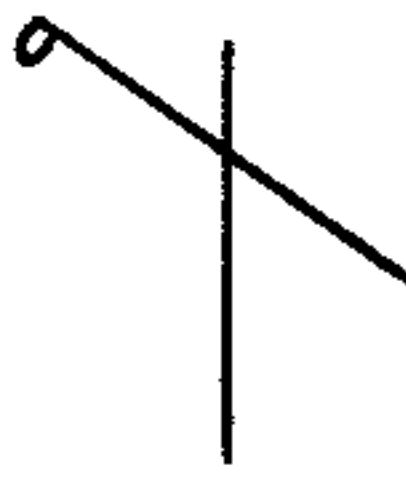


7-6. ~일보 : 「이」를 걸쳐서 응용한다.

동아~ 

예> 조선~ 


중앙~ 


한국~ 


세계~ 

참고 : 단어의 역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용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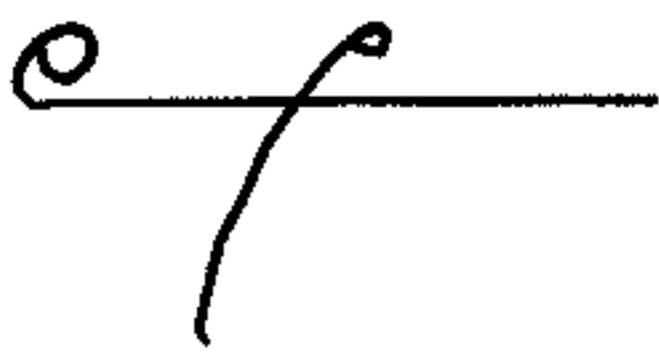
7-7. ~신문 : 약자 「신문」을 걸쳐서 응용한다.

서울~ 

예> 경향~ 

매일경제~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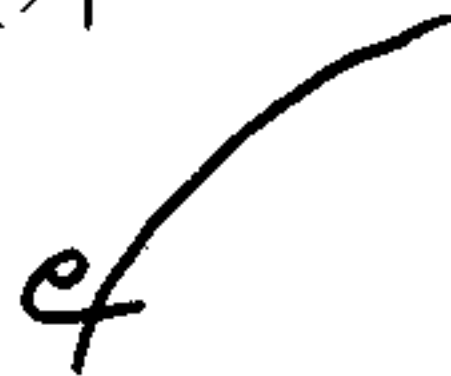
경제~ 


8. 최장선응용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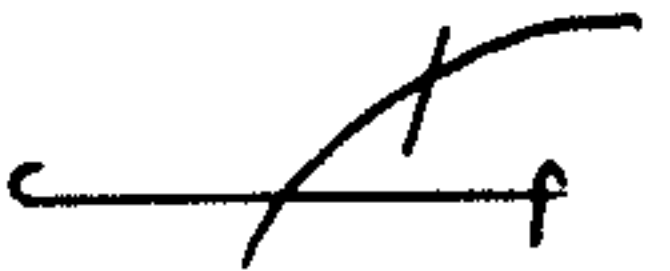
8-1. ~자금 : 「자」를 걸쳐서 응용한다.

정치~ 

예> 운영~ 


선거~ 


영농~ 


기업자금조달 


8-2. ~절 : 「저」를 걸쳐서 응용한다.

3·1~ 

예> 광복~ 

개천~ 

성탄~ 

부활~ 

참고 : 「자금」과 「절」은 같은 형태이지만 서로 구별된다.

8-3. ~적 : 「저」를 응용한다.

가급~



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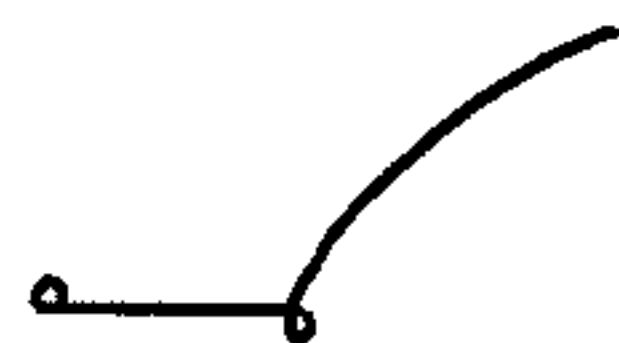


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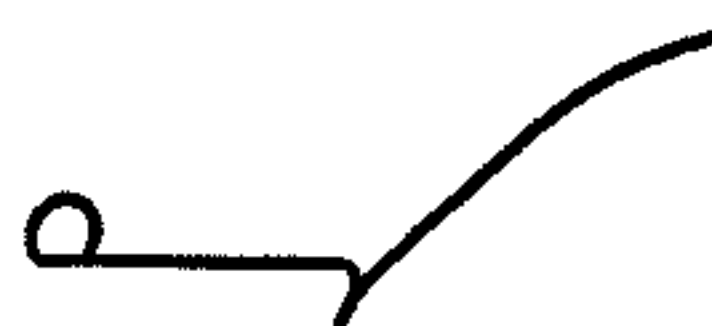


예>

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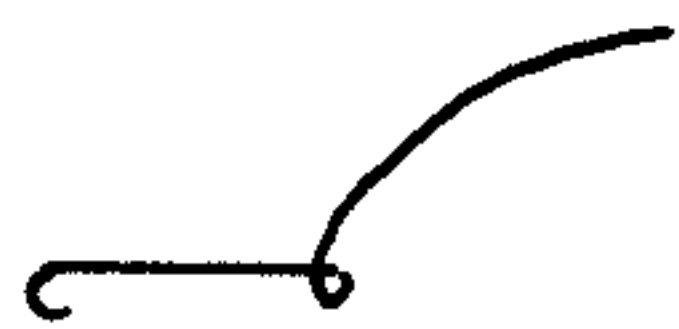
궁극~



궁정~



과학~



객관~



감동~



감상~



능동~



능률~



부정~



실제~



실질~



성공~



소극~



이론~



일방~



일시~



전반~



전체~



전형~



적극~



즉각~



자연~



자주~



정상~



종합~



진취~



지리~



지정학~



찰나~



철학~



초당~



추상~



퇴영~



퇴폐~



평면~



평화~



현실~



형식~



획기~



획일~



결과~



결론~



참고 : 「~적」이 붙을 수 있는 단어는 너무나 많다.

응용의 기법을 터득하지 않고 배우려 들면 끝이 없다.

8-4. ~정신 : 「저」를 돌려서 응용한다.

3·1~

예> 혁명~



자립~



새마을~



민족~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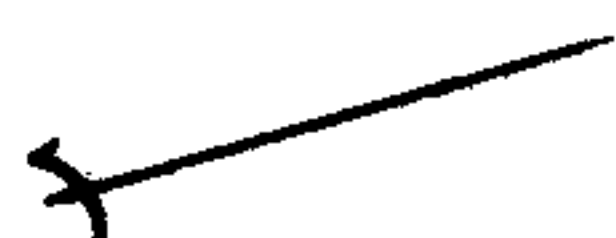
봉사~



8-5. ~조치 : 「차」를 걸쳐서 응용한다.

임시~

예> 특별~



비상~



긴급~



잠정~



법적~



후속~



의법~



입법~



8-6. ~조합 : 「조」를 띄어서 응용한다.

협동~



예> 농업협동~



수산업협동~



축산업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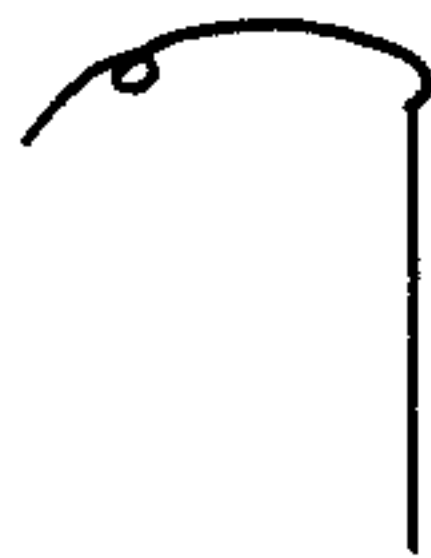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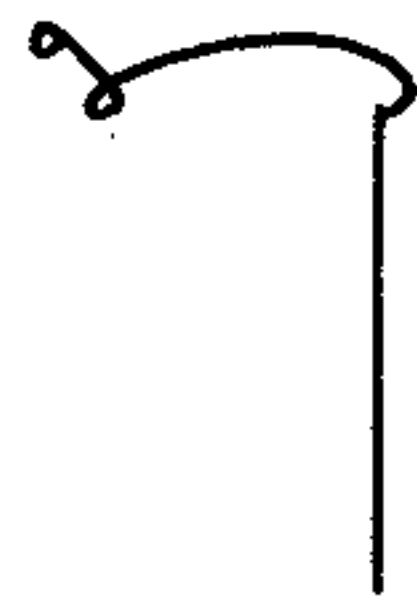
9. 최장선응용약자

9-1. ~주의 : 약자 「주의」를 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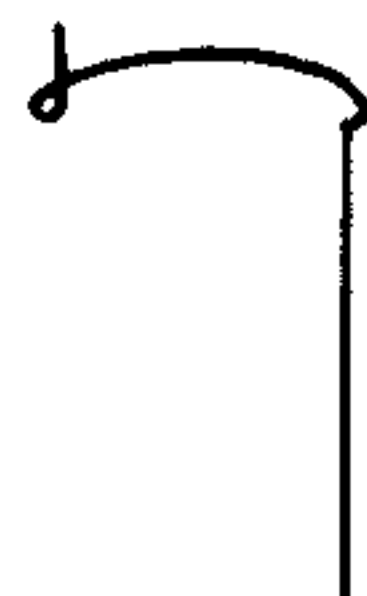
자유민주~



예> 한국적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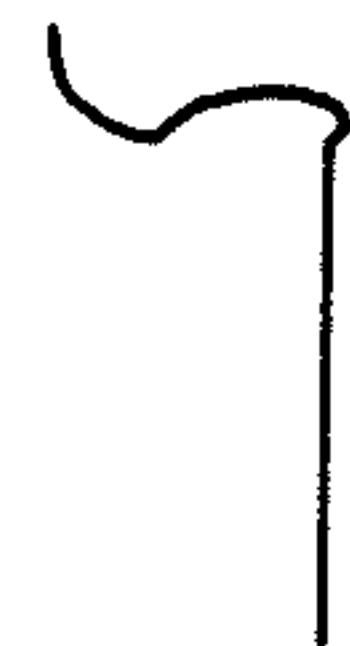
의회민주~



자원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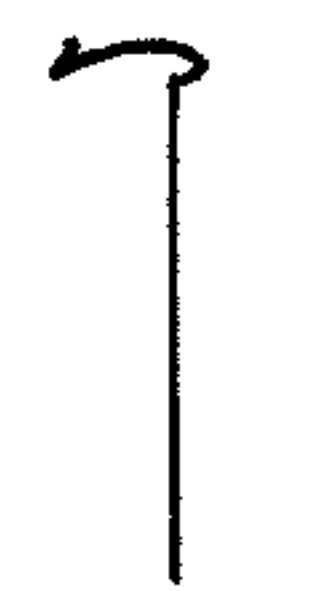
보호무역~



보호~



막스레닌~



황금만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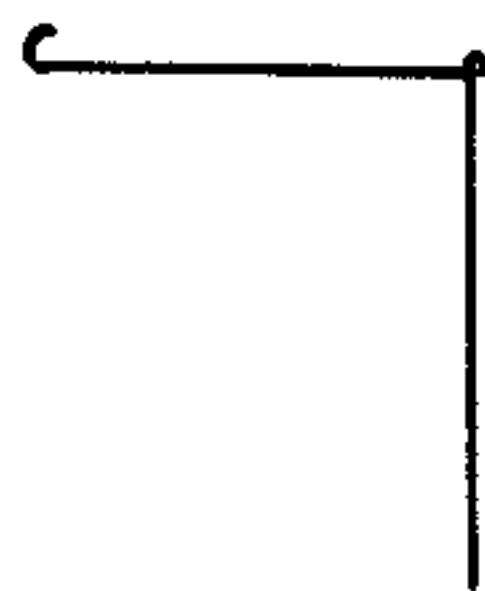
실용~



이기~



기술패권~



지역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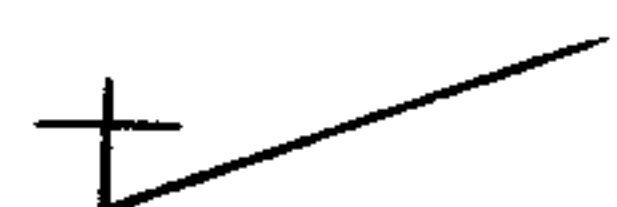


자본~



9-2. ~츠 : 「츠」를 응용한다.

가일~



| | | | |
|------------|----------|---------|----------|
| 예> 더한~
 | 특권~
 | 고위~
 | 서민~
 |
| 고소득~
 | 저소득~
 | 중산~
 | 각계각~
 |

9-3. ~특별회계 : 「계」를 응용한다.

| | |
|-----------|------------|
| 양곡관리~
 | 재정투융자~
 |
| 특별회계
 | 일반회계
 |
| 회계년도
 | 기업회계
 |

9-4. ~학교 : 「학」을 응용한다.

| | | | | |
|---------|----------|-----------|-----------|----------|
| 국민~
 | 중고등~
 | 육군사관~
 | 해군사관~
 | 삼사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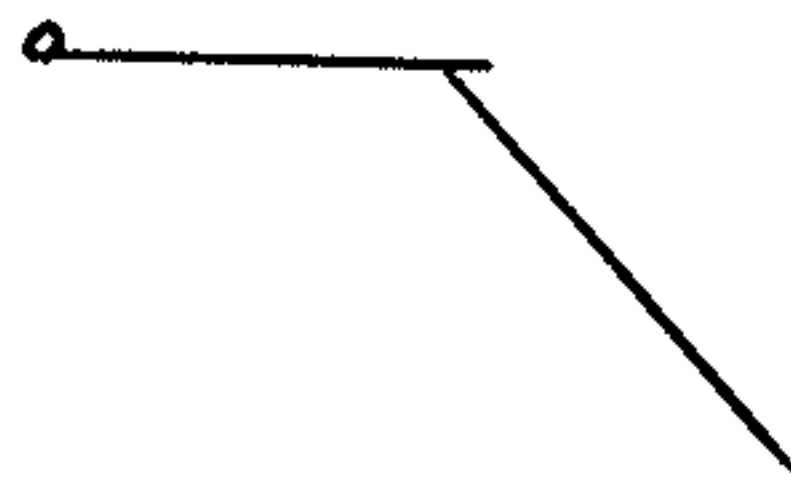
9-5. ~협회 : 「협」을 응용한다.

| | | | |
|---------|-----------|---------|---------|
| 무역~
 | 대한속기~
 | 속기~
 | 친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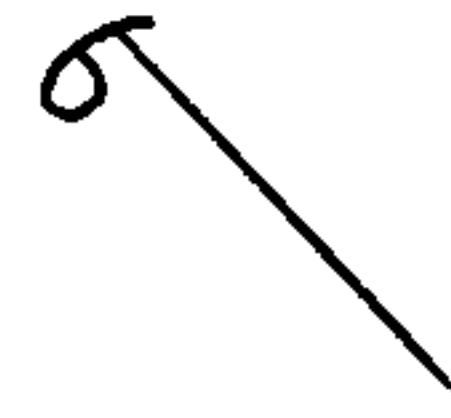
9-6. ~화 : 「화」를 응용한다.

| | | |
|-----------|----------|---------|
| 조국근대~
 | 남북대~
 | 세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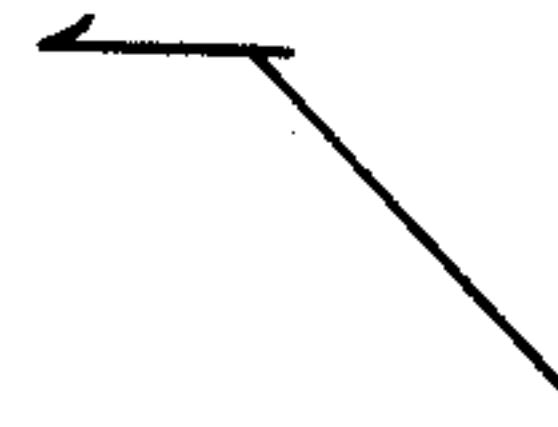
예>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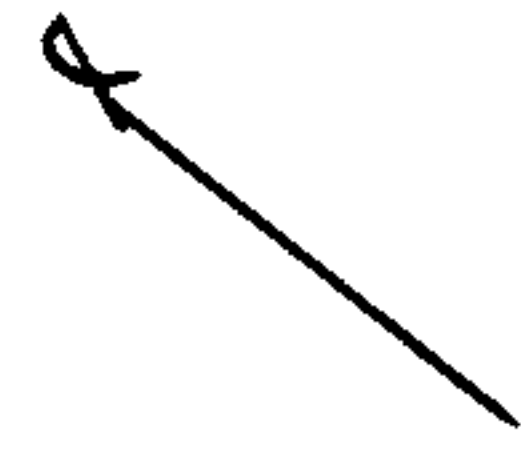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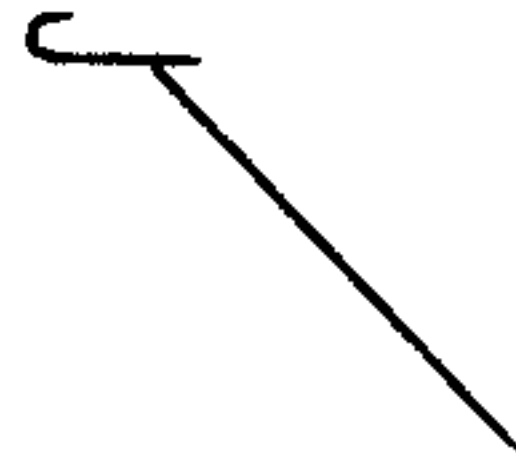
국교정상~



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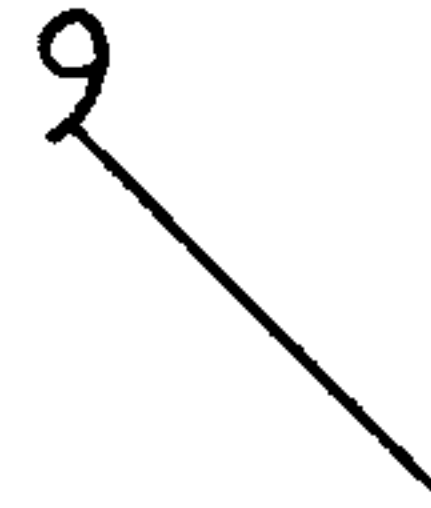
경영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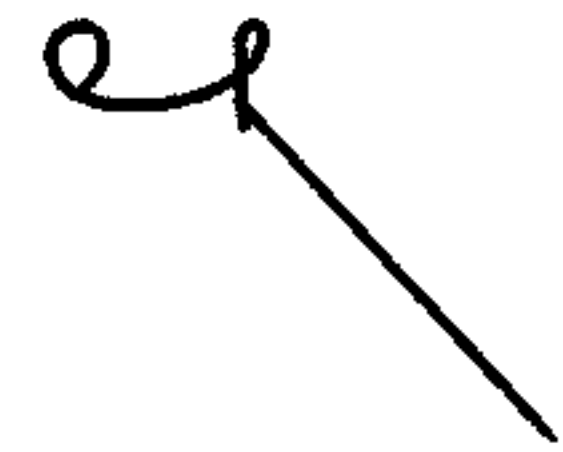
기계~



영농기계~



농업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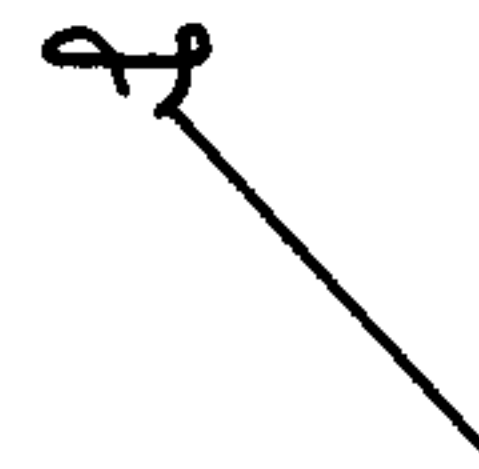
수입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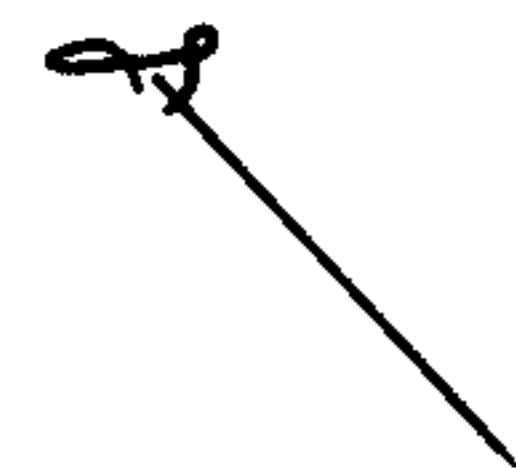
무역자유~



금리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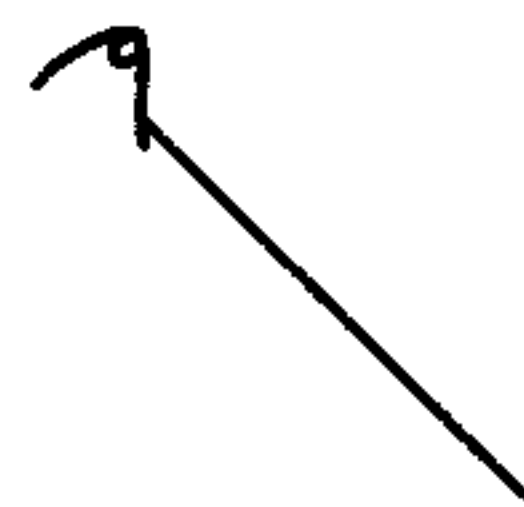
금리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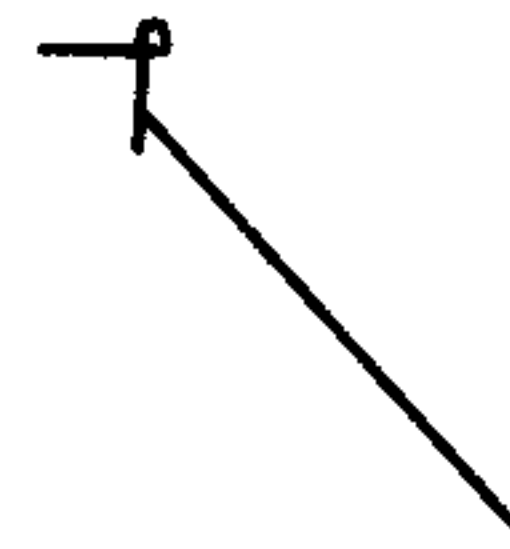
식량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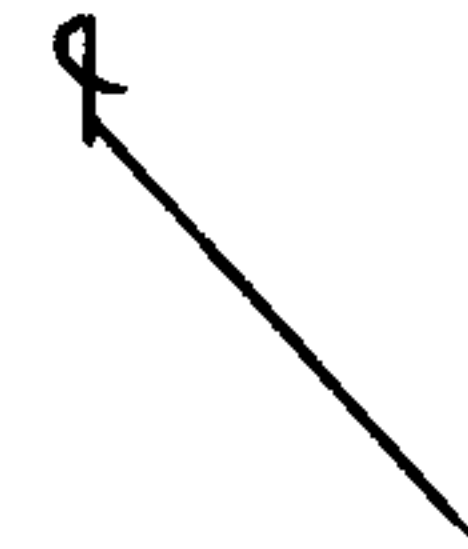
자원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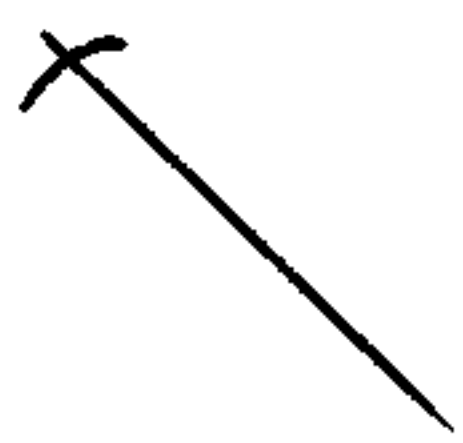
가격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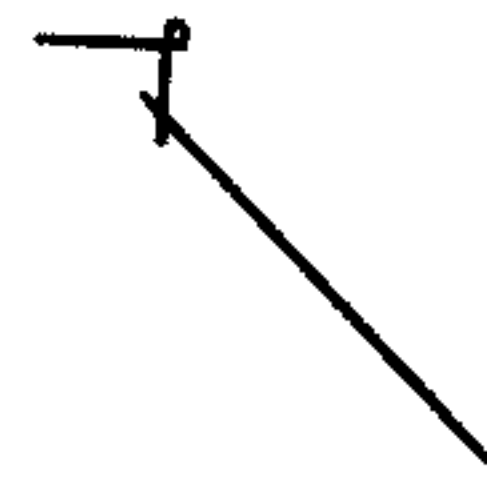
임금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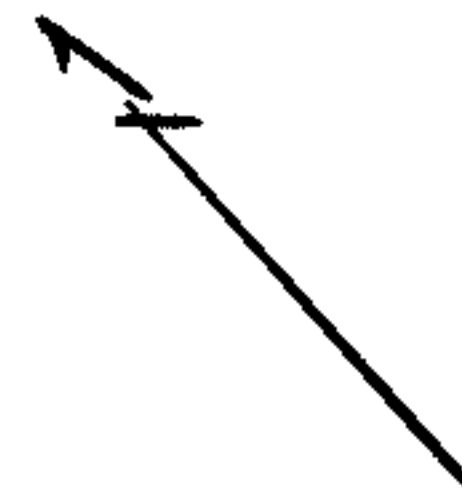
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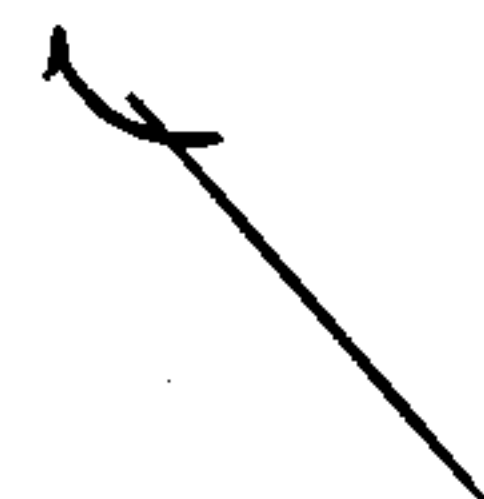
가격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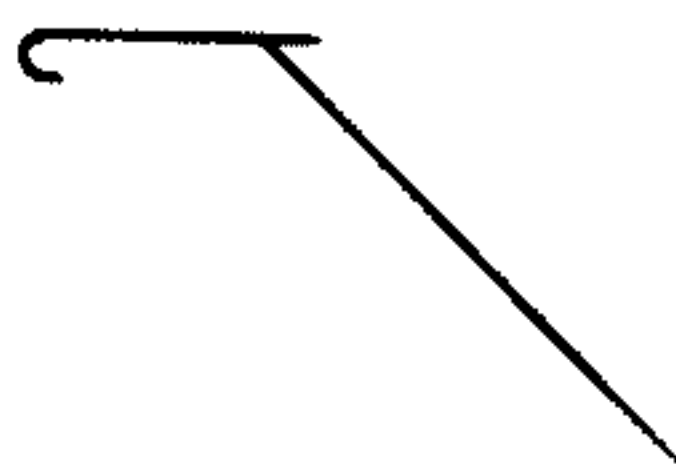
학원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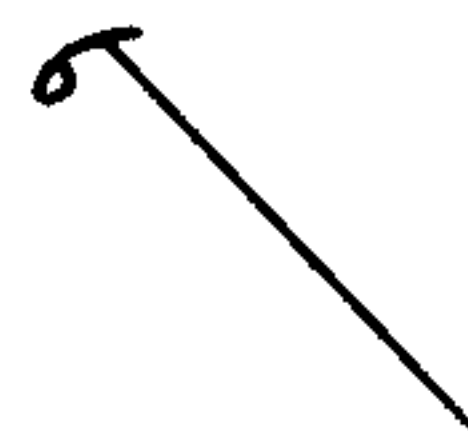
복장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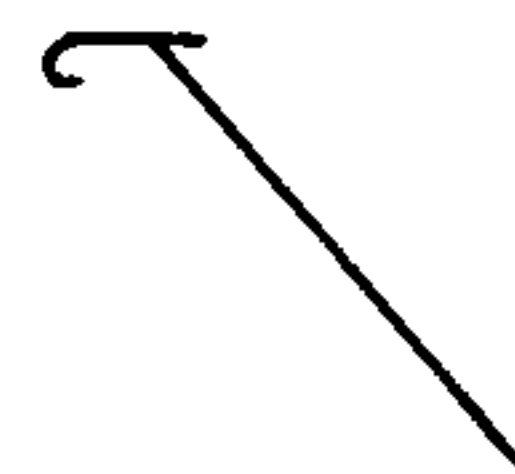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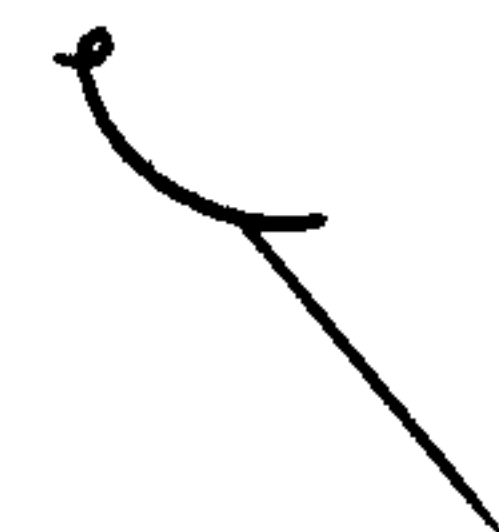
전산~



개방~



블록~



〈속기록〉 ... 속기술의 향상은 지속적인 연습이 비결이다. 써 보는 데 임하자.










| | |
|---|--|
| <p>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군수뇌부들의 뇌물인사 사건과 무기현대화 사업에 뒤따른 갖가지 의혹에 관한 신문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 이상이 없을까 하는 우려의 눈초리로 오늘의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군인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명예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군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속에서 군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건군 이래 최대로 실추된 군의 사기와 명예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회복시키려는 자기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참다운 군인 정신으로 다시 무장하고 국민 속의 사랑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당부해 두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미·소 양극체제의 냉전상태는 분명히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고 하여 국지분쟁까지도 소멸된 것은 분명</p> | <p>히 아닙니다. 군비경쟁은 오히려 강화되고 국지분쟁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극한적 도발가능성은 김일성시대의 종말과 함께 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철수는 한반도가 전쟁 불능지역에서 전쟁가능지역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최대의 방위비 지출국인 일본은 매년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면서 해·공군 현대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KO법안에 따른 일본 자위대병력의 캄보디아 파병은 장기적인 군사적 강화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기에 족한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면 이를 빌미로 즉각 핵개발을 서두를지도 모를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인접국인 소련·인도·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해·공군력의 강화를 위해 소련방의 첨단무기를 매년 도입할 계획으로</p> |
|---|--|

〈응용해설〉

- 1) 기본적으로 : 「기본」과 「근본」이 어떤 상황에서는 혼동이 된다. 그러므로 「기본」은 돌려쓰고, 「근본」은 기본문자로 쓴다.
- 2)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같이 응용할 수도 있으나 로 도 쓸 수 있다.
- 3) 태어나기 위한 : 상선 태어나다 를 활용
- 4) 두는 바입니다 :
- 5) 되었다고 하여 : 로 활용하면 뭉칠 염려가 있어 와 같이 쓴다.
- 6)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 늘어나다 를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으로 쓴다.
- 7) 올 것이 : 「~는 것이다」다음에 조사가 나올 때는 빠치지 말고 쓰면서 조사를 붙인다.
- 8) 시작할 것이라는 : 「이」를 생략하여 「시작할 것」, 「라는」으로 쓴다.
- 9) 내용으로 한다는 : 내용으로 다음에 「하」를 생략하여 활용

| | |
|---|---|
| <p>있으며 90년 이래 연평균 12%씩 국방예산을 증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p> <p>이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서 역내 안보환경은 결코 안이하게만 대처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p> <p>국방부장관계서는 동북아지역내의 안보환경을 어떻게 전망하며 국방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외무부장관계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지역내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아시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제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안보협력기구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지역내 경제교류를 통해 각국의 경제발전까지를 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p> <p>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p> <p>해방된 지 반세기가 되도록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독립운동에 몸바쳤던 백암 박은식 선생은 그의 투</p> | <p>철한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후세에게 우리나라가 외래에게 어떻게 해서 나라를 빼앗겼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통탄하는 마음으로 한국통사를 썼습니다.</p> <p>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어떻게 피를 흘리며 싸워 찾고 있는가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지혈사를 쓰고 해방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한국을 건국했는가를 쓰기 위한 한국건국사를 쓰고 싶었던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p> <p>그러나 해방이후 우리는 통절한 마음으로 한국통사를 다시 써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북이 분단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통사 또 어떻게 그 분단된 조국을 통일조국으로 만들 것인가 하기 위한 우리들의 혈사,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한국사입니다.</p> <p>과연 총리!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p> <p>모두 통일한국사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
|---|---|

<응용해설>

- 1) 이와 같은 :  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이」를 길게 써서  로 쓴다.
- 2) 밝혀 주시고 :  밝혀 주신다면 : 
- 3)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하다」, 「되다」, 「이다」에서 파생된 말은 약기법보다 기본문자를 쓰면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굳이 약기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면 기본문자로 쓴다.

- 4) 빼앗겼는가 하는 것을 :  에서 「는가」를 빼쳤다면  로 표기하고 미리 들어서 시간이 있다면 「는가」를 쓰면서 「는 것」을 활용한다. 
- 5) 쓰고 싶었던 것이 : 「~었던 것이다」를 활용한다. 

| | |
|--|--|
| <p>○ 의장 이만섭 다음은 민주당의 나병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나병선의원 민주당 나병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 국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요청하고자 합니다.</p> <p>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p> <p>주지하시다시피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는 한국의 안보영역 확대를 강요하고 있으며 북한을 추가하여 주변 강대국들간의 세력 재편성 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 및 유동성의 증대와 경제적 실리추구 중심의 국가이기주의화의 경향,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간의 관계 재설정애 따른 외교적 영역의 복잡화 등 비군사적 위협요소들이 점차 비중을 더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p> <p>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안보체제를 재검토해 보고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통일시대를 지향한 장기적 차원의 안보개념을 재설정해야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정책기조의 방향</p> | <p>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국방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재구상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p> <p>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국가안보정책 및 국방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p> <p>먼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지역 정세에 위기를 몰고 올 것이며 또한 그 가공할 파괴력에 비추어 민족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현정부의 대응자세를 보면 과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p> <p>본의원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두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 하나는 미국·북한·한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3자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둘째는 북한의 핵은 단지 핵문제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체 남북한문제의 패케지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p> |
|--|--|

<응용해설>

-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은 항상 「국무위원~」이므로 생략해도 변문할 수 있다.
- 2) 재검토 : 제안 . / , 제의 ; 등 제(재)를 응용 .
- 3) 갖게 하고 있습니다 : 갖다 ㄴ 는 「같다, 갖다」와 같이 쓴다.
- 4) 해결하는 데 있어서 : 「는데」 다음에 「있어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숙어처럼 보인다. 그래서 「는데」 위치에서 「있어서」를 바로 시작한다.
- 5) 다루어질 것이 : 「것」생략법을 응용한다.

북한의 당면 생존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체제유지요, 둘째는 경제난 해결입니다. 셋째는 군사적 억지력의 확보라고 봅니다.

북한은 핵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북한도 핵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북한에게는 설득력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NPT 탈퇴선언 배경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핵노선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번 제7회째의 특별사찰을 수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는 핵능력이 있다는 결론이고 하나는 핵능력이 없다는 결론일 것입니다. 핵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면 미국과 UN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고 만일 북한이 핵이 없다고 판명되어지면 북한은 협상의 마지막 칩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에게는 핵이 없다고 되는 것보다는 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

것은 바로 북한이 NCND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NPT탈퇴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북한 핵 정책 진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을 외교분야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에서 찾을 것인지를 우선 순위 개념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왜 핵에 집착하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북한의 핵집착 동기를 제거해 주는 근본 치유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남한으로부터도 두 가지 종류의 위협을 크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로부터 느끼는 하나의 위협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경쟁에서 이미 낙오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 위협이고 남한은 120대의 F16기를 포함해서 매년 수십억불에 달하는 무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응용해설>

- 1) 첫째 : 의외로 「첫째」, 「첫번째」, 「첫째번」을 혼동하는 수가 많다. 첫째, 둘째는 숫자를 돌려쓰고 「~번째」는 「째」, 「~째번」은 「번」의 자음을 걸친다. 또 「둘째」 이후로 넘어가면 속기문자와 숫자의 구별이 뚜렷해지므로 원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 둘째 2 두번째 2x 둘째번 2x
- 2) 봅시다 : 「바시다」는 밑줄 긋고 다줄로 빼침
- 3) 나타났을 것입니다 : 나타나다) 에 「~었을 것이다」를 응용
- 4) 결론일 것입니다 : 1
- 5) 갖게 될 것이고 : ㄴ 로 써도 좋으나 ㄹ 가 더 편리하다.
- 6) NCND : ㄴ 7) 계신지에 대하여 : ㄴ 8) 집착하는가를 : ㄴ
- 9) 120대의 : 129 ... 숫자에 속기문자를 이어써도 무방하다.
- 10) 수십억불에 달하는 : 2x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지금 사올 수 있는 경화를 이제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선택은 공갈 의미가 큰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그리고 장거리 대구경 유도탄을 대량 보유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 왔을 수록 북한은 핵을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핵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고 포기부터 하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로부터 느끼는 두번째 위협은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로부터 느끼는 두 가지 위협을 제거해 주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제거 받기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경쟁카드를 연결시켜 남북한이 평화공존과 경제번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북한의 핵문제와 군축 그리고 경제협력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으며 대한 미국역할의 한계와 한국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남북한 핵의 불균형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북한의 핵에 대하여 한국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여타 주변국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계 묻겠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취임초부터 북한 핵문제에 매달려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분주하게 왕래하며 연쇄적인 협의를 한 바 있는데 한국과 미국·중국·일본간에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인식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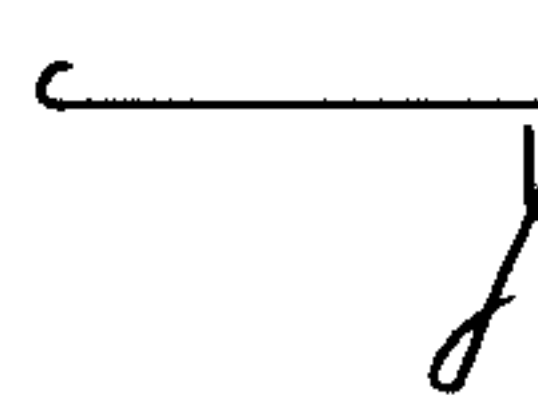




특히 미국과 중국과는 어떤 점을 협의하였는지 무엇을 제의했는지 또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던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국제적 공조체제나 UN안보리의 역할만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또 한국의 역할과 대응책은 무엇이며 만일 북한이 NPT 탈퇴를 철회하고 IAEA의 핵사찰을

<응용해설>

- 1)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 ㄴ
- 2) 보유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 ㄴ
- 3)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ㄴ
- 4) 밝혀주시기 바라고 : ㄴ 밝혀주시고 : ㄴ
- 5) 시킬 수 있을 것으로 : ㄴ

| | |
|---|--|
| <p>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핵사찰만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본의원은 북한의 핵문제가 UN 제재 이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p> <p>총리께서는 만일 북한이 끝내 NPT 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UN 안보리에 의해 북한에 가해질 제재조치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그 예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본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대응카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근본원인은 국가생존과 안보가 달려 있는 핵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익과 상반된 핵정책을 수행해 온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독자적인 핵정책이 없었다는 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정세와 우리 안보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p> | <p>현재 진행되고 있고 장차 더욱 가시화될 한국의 안보환경에 관한 본의원의 소견은 다음 두 가지 핵심이라고 봅니다.</p> <p>즉 새로운 세계질서의 대두에 따라 남북한의 교차 관계개선은 필지의 현상일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안보환경의 개선된 측면을 가리키기도 하나 이와 동시에 냉전종식 후에 오히려 한층 더 예민해진 지역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담과 함께 우리는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p> <p>바로 위 두 가지 핵심사항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안보정책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p> <p>그 하나는 전통적 한·미안보협력관계의 재조명문제이고 두번째는 국민의 안보의식 변화와 그로 인해 안보정책을 뒷받침할 사회통합능력의 약화라고 볼 수 있고 세번째는 군사적 안보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경제안보를 중시해야만 하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관의 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깊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게 하는 시기가 등장하게 되었다는</p> |
|---|--|

<응용해설>

- 1) 없앨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 상선약자 7 없앤다 활용 7
↓
- 2) 수행해 온 데 있다고 : 
- 3) 기인된 것으로 :  기본문자 활용이 더 좋은 것은 약기를 고집할 필요없다.
- 4) 세계질서의 :  최장선약자끼리 이어써도 된다.
- 5) 장기적인 :  정기적인 :  ~적인 관점에서 : 




| | |
|--|---|
| <p>것을 의미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신정부는 이런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포괄적 국가안보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안보개념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의 동북아정세는 지각변동에 비유할만큼 급속하고도 심각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북한의 핵이요 둘째는 중국과 일본의 무장증강 추세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 축소에 따른 이 지역의 공백을 중국과 일본이 메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지역정세를 극복하는 수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럽과 같은 공동안보 또는 다자간안보구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공동안보구상은 일찌기 1986년 소련연방의 고르바초프가 이 문제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시큰둥하던 미국이 요사이 갑자기 위 구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p> | <p>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u>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u>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u>신뢰할만한 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u>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양자관계로만 우리의 안보가 해결되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주변국가들과 지역안보를 같이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협대처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에만 의존하던 절대안보개념을 변화시켜 주변국과의 공동안보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공동안보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구상,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방안에</u> 관하여 총리께 묻습니다.</p> |
|--|---|

<응용해설>

- 1) 말씀드리겠습니다 : 말씀 ○ 과 드리다 / 를 붙여쓴다. ㄴ
- 2) 말할 것도 없이 : ㄱ
- 3) 고르바초프 : ㄴ
- 4)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ㄴ
- 5) 신뢰할만한 : ㄴ
- 6)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ㄴ
- 7) 국가안전보장회의의 : ㄴ






| | |
|---|--|
| <p>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가는 현상태하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군사안보 못지 않게 중요한 안보문제로 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안보는 포괄적 안보개념이어야 합니다.</p> <p>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개념을 안보정책결정 메커니즘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헌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이고 이제까지 안보는 국민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에 불과했습니다.</p> <p>통일문제, 핵문제, 남북관계의 모든 면에 걸쳐서 개념이 하나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종합적 의미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의 일부분에 불과한 문제를 취급하는 통일원이라는 기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원은 안기부나 국방부와 같은 정보수집기관도 없습니다.</p> <p>그들은 잘해야 이들 정보수집능력이 있는 부처로부터 일부의 정보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p> <p>총리는 통일원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p> | <p>으로 축소·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p>이제 안보정책은 경제·외교·남북관계·핵문제·군사문제를 모두 포용하는 패키지단위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가끔 실시하고 있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별도로 열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p> <p>총리께서는 신안보정책의 사령탑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은 소수정예군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p> <p>결프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군이 곧 강군인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국방비를 가지고 대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복지문제와 장비현대화 그리고 군인력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p> <p>우리는 몇 년전부터 군이 공식적으로는 '소수정예과학군'을 택할 것이라는 발표에 접해 왔습니다.</p> |
|---|--|

<응용해설>

- 1) 못지 않게 : 못지 | 못지 않게 : |
- 2) 메커니즘 : 
- 3) 되어 있으나 : 4
- 4) 이제까지 : 상선약자 W
- 5) 요즈음 : 
- 6) 이런 : 상선 7
- 7) 이전까지만해도 : 1/4*
- 8) 국방비 : 「~비」 응용 

| | |
|--|---|
| <p>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은 동네 북처럼 병무청만 두드려 소리만 냈을 뿐입니다. 때로는 아직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군도 변할 수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p> <p>군에서 수없이 중복되어 있는 비계를 떼어내고 지휘구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전투력 증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값싼 장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기구는 많은 반면 정작 필요한 기구는 없는 경우도 많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p> <p>지금 우리나라와 무역전을 치르고 있는 상대국들은 엄청난 경제적 <u>소요</u>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줄이고 새로운 전략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제전을 치러야 할 한국이 무슨 실력으로 군사개혁 없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까?</p> <p>이제 군은 북한을 핑계삼아 군개혁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강군의 길을 가기 위해 인력을 줄이는 대신 국방비를 더 써야 한다면 그</p> | <p>소요를 제기해야 옳지 인력을 줄여봐야 오히려 장비현대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p> <p>군에서 30만 인력을 절약해 낸다면 그들은 산업전선에서 연간 10조원 가량의 GNP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군은 국방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일에도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p> <p>군의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를 다소 더 쓰는 한이 있어도 군의 인력을 산업전선에 복귀시켜야 군이 소수정예화가 될 수 있습니다.</p> <p>장관계서는 소수과학정예군을 위한 국방비 <u>소요</u>와 인력절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과학군은 인력·장비·<u>전략</u>면에서 지금의 군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p> <p>전략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군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본의원은 먼저 지적합니다.</p> <p>다음은 중복기구의 통합문제입니다.</p> <p>군은 8·18계획에 의하여 기구개편을 일부 이루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복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정보사, 통신·정보부대도 하나로</p> |
|--|---|

<응용해설>

- 1) 바뀔 때마다 :  =바꿀 때마다... 조사에 따라 달리 번문된다.
- 2) 소요 :  수요 : 
- 3) 전략 :  전력 : 

| | |
|--|--|
| <p>통합시킬 수 있으며 육·해·공군이 각각 별도로 가지고 있는 군수부대, 통신부대, 교육기관들도 대폭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p> <p>더불어 각군본부 야전군 군단의 지휘체제도 한 개 제대는 해체되어야 지휘·통제체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p> <p>장관은 <u>없어져야 할 부대</u>, 통합되어야 할 부대, 경량화해야 할 참모부서 그리고 보장되어야 할 기능들에 대해 개혁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국방부는 문민시대에 즈음하여 지난 3월29일 군5대개혁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p> <p>그러나 인력구조의 개선과제와 군복지 과제는 국방비의 엄청난 증액을 소요할 것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p> <p>다음은 <u>향토예비군</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지금 수많은 향토사단과 400만이 넘는 <u>예비군</u>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토 사단이 많다 보니 이들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향토군단까지</p> | <p>창설했습니다. 향토사단은 대간첩작전과 예비군 및 방위병에 대한 훈련목적으로 창설되었으나 지금은 이 세 가지 목적이 모두 다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p> <p>따라서 군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비군제도를 재검토한 후 <u>향토예비군의 인력규모를 대폭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그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아울러</u> 향토사단과 향토군단도 기능화하여 삭감시켜야 할 것입니다.</p> <p>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p> <p>마지막으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u>군비리</u>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p> <p>질문에 앞서 평생을 군에 몸담아 왔던 군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를 드립니다.</p> <p>군의 계급은 국민이 주는 숭고한 명예이며 애국과 봉사의 대가인 것입니다. 여기에 <u>돈과 사</u>를 개입시킨 자가 있다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색출,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사바리의 근본원인은 5·16 이후 30여년간 군은 정치군인들 손에 맡겨져 왔고 정권과 유착되어 군이 성역화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p> |
|--|--|

<응용해설>

- 1) 없어져야 할 :
- 2) 향토예비군 : 예비군 :
- 3) 재검토한 후 :
- 4) 시킴과 아울러 :
- 5) 군비리 : =
- 6) 돈과 사(私)를 :

따라서 소수의 핵심 정치군인들이 군의승진·보직 등과 관련된 인사를 독점하여 인사의 지역 편중과 파벌주의를 낳았고 그로 인해 아무리 좋은 인사제도가 있어도 이 대열에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진급풍토가 조성되어 능력보다는 지연, 학연, 사조직 등이 우선되고 권력의 비호를 받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구조적 비리를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리는 황금만능주의가 만연시킨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무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군인사비리를 척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근본원인부터 제거하는 개혁을 병행, 단행하여 권력에 기생하여 무임승차한 자들을 제거하고 정권안보쪽에 있던 군을 국민안보쪽에 전환시키는 개혁이 있어야 군도 다시 태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수의 비리자들로 인하여 군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매도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 고지에서, 바다와 하늘에서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무릅쓰고 묵묵히 불철주야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를 위해 다 같이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장관은 군인사비리의 근본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척결하고 군을 단결시켜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인사비리에 이어 군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의혹의 근본원인은 통치권자의 도덕성, 정경유착 그리고 소요 획득 과정상의 제도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KFP 전투기사업, 구축함사업, 잠수함사업, UH-60 헬기사업, 전차사업 등의 대형사업들은 하나 같이 그 단위가 수천억에 달하며 기업의 흥망과 연관이 있을 정도의 특혜사업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기업이 어떤 외국기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대두되며 국내 경쟁기업간에 어느 기업이 주계약업체가 되느냐에 따라 사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뒷거래의 의혹이 있고 검은 돈이 이에 유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응용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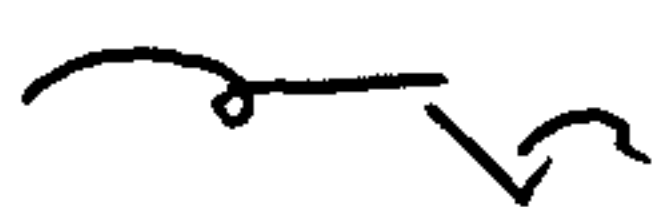
1) 파벌주의를 낳았고 :



2) 비리를 낳게 되었으며 :



3) 무관한 것만은 :



4) 태어나게 할 것인지 : 상선약자



5) 하나 같이 :



6) 되느냐에 따라 :








7) 검은 돈이 :



| | |
|---|---|
| <p>특히 전력증강사업은 그 특성상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나 지정계약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무기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국방부에서 타당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결심권자가 정경유착이 되면 의혹문제가 되는 것이고 소요획득 과정에 있는 실무진들이 전문지식과 애국적 사명감이 없이 처리한다면 이 또한 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p> <p>이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길은 공개성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방산업체의 전문계열화가 이루어져서 특혜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과 아울러 결정권자의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p> <p>울곡사업의 비리는 바로 국민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이며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차원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p> <p>장관은 이러한 부정의혹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p>군은 매도의 대상이어서는 안되며 국민적 사</p> | <p>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p> <p>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의장 이만섭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하순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하순봉의원 경상남도 진주출신 민주자유당의 하순봉의원입니다.</p> <p>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서 앞서 여야 세분의 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p> <p>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와 한 인간의 만남이라는 사실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p> <p>세계는 지금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소냉전체제의 붕괴는 세계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이러한 질서는 구소련이나 유고의 인종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에 의한 정치단위체의</p> |
|---|---|

<응용해설>

- 1) 방법을 찾아야 하고 : 
- 2)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 3) ○의장 이만섭 : 이미 의장이름이 파악된 상태이므로  으로만 표기한다.
- 4) ○하순봉의원 : 「~의원」은 자연히 붙으므로 이름만 쓴다. 
- 5)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 | |
|---|---|
| <p>있다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계는 바뀌어 가는데 신사고로 접근하는 외교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VV](이만섭의장, 황낙주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의 <u>출범과 더불어</u> 거센 개혁의 물결로 이 <u>나라 곳곳을</u> 씻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대통령은 제2의 건국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국정에 강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이 때 이 나라 외교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4년 뮌헨올림픽과 브란트의 동방정책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경우 88서울올림픽을 통한 외교적인 도약기를 가졌으면서도 그 황금같은 절호의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이룬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u>황인성 국무총리!</u>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6공의 외교정책의 허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u>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u>
 문민정부 탄생과 더불어 펼쳐는 우리 정부의</p> | <p>통일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u>한승주 외무부장관!</u> 사실상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이 나라 외교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탈퇴선언으로 국제정치환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환경에 있어서 핵의 등장은 힘의 우위로 운영되는 국제정치질서에 많은 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핵무기의 정치·군사·외교적 효용성이 소멸되지 않는 한 국제정치질서에서 소위 핵의 남북갈등은 계속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이미 핵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핵강국의 힘에 의한 외교의 산물이고 지난 6공화국의 비핵화선언은 이러한 패권주의적 핵외교에 굴복한 하나의 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핵사찰을 끝내 거부하거나 아니면 은닉된 핵시설을 이용하여 핵개발을 강행할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정책의 딜레마는 북의 핵위협에 어떠한 핵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u>설상가상으로</u> 우리는 준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잠재 핵군</p> |
|---|---|

<응용해설>

- 1) [VV] : 속기록에 두 자 들여쓰다.
- 2) 출범과 더불어 :
- 3) 나라 곳곳을 :
- 4) 88서울올림픽 :
- 5) 황인성 국무총리 : ...이름을 알고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 6)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 : ...이름을 알고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 7) 한승주 외무부장관 : ...이름을 알고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 8) NPT :
- 9) 가져왔습니다 :
- 10)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
- 11) 설상가상으로 : 설왕설래 :

| | |
|---|--|
| <p>사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까지 와 있습니다.</p> <p>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p> <p>총리는 지난 91년 11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비핵화공동선언을 재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북한의 NPT 탈퇴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p> <p>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p> <p>외무부장관이 북한의 NPT 탈퇴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21일 방콕에서 한·중국 외무장관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4월 23일 청와대 이경재공보수석은 김영삼대통령이 청와대를 예방한 미국무부 정무차관에게 “한·중 회담에서 중국을 통한 대북설득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p> <p>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한 설득카드로서 중국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방콕의 한·중 외무장관회담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p> <p>다시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p> <p>북한의 NPT 탈퇴선언 해결방법의 하나로 북</p> | <p>한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미·북한 고위접촉설이 꾸준히 우리 주변에 나돌고 있습니다. 장관이 보는 미·북한 접촉의 수준은 무엇이고 이것을 수용하고자 제의한 쪽이 과연 우리 한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p>또 이 접촉이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된 접촉인지 아니면 그동안 북한이 쪽 항상 추구해 왔듯이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목적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이것은 앞으로 미·북한간의 협상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 단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p> <p>다음은 방위비분담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p> <p>동북아 신질서에 대해 미국이 구사하는 대외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신질서를 형성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이것은 곧 새로운 세계질서를 가늠케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회의 역동성은 기존의 단순한 군사동맹체로서의 한·미관계보다는 동등한 정치·군사·경제적 동반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p> |
|---|--|

<응용해설>

- 1) 가진 것으로 : ... 「것」 생략법
- 2) 사실이라면 :
- 3) 수준은 : ... 엉뚱하게 「사정」과 혼동을 일으킨다.

이것은 나아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분담 규모를 확대하고 한·미간의 경제적 정치적 협상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한 방위비분담에 관련한 에스핀 미 국방장관의 의회발언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의 유지비 가운데 금년에는 78%의 부담으로 한국의 방위비분담 수준은 세계 제1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해 만족을 표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장관은 이와 같은 미국방장관의 증언에 꼭 같이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어디 가셨어요?

(○장석화의원 의석에서 - 장관, 당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관 들어오라고 하세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위비분담 비율계산은 그 적용방식에 따라서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미국 측이 구태여 분담액 비율이 자기들의 산출방식보다 높은 우리 한국측 산출방식을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측 산출방식이 앞으로 한·미방위비분담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장관은 보십니까? 또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95년 이후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논의 재촉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의 핵보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일본은 NPT 체제에 참여하면서도 핵폭탄 제조를 제외한 모든 핵능력을 적극 개발해서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준핵보유국으로서 세계적인 핵강대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20년동안 100t의 플루토늄 수입 계획을 발표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플루토늄의 양은 일본의 핵제조 기술로 써는 한달내로 1만개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만 바꾸면 언제든지 핵무기보유국가로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응용해설>

- 1) 주한미군 :  ...사자성구 형태로 처리되어 있다.
- 2) 방위비 :  유지비 : 
- 3) 가셨어요? : 
- 4) : 속기록에서 두 자 들여쓴다.
- 5) 보십니까? : 
- 6) 플루토늄 :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일본의 핵에 대한 집착을 억제할 우리의 외교적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미 87년 GNP 1% 한도에 묶여 있던 방위비상한선을 철폐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방위비 지출이 300억달러를 넘는 일본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동북아지역의 미국의 점차적인 영향력 감소로 초래될 힘의 공백을 메우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92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보듯이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방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UN평화유지군활동 PKO에 협력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꾸준히 정치·군사적인 팽창의욕을 키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로서는 대단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방부장관!

정부는 일본의 이와 같은 정치·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차 대두될 한·일양국의 군 인사교류 군사정보 교환 그리고 합대상호방문과 같은 한일안보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신임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서 최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국내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은 그동안 UN회원국이 대폭 늘어났고 냉전 이후 UN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UN안보리도 변화된 국제현실에 맞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본의 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는 앞으로 세계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로서는 대단히 더욱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장관은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이라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응용해설>

1) GNP 1% :

2) PKO :

3) 대두될 :

4) 되었던 것입니다 :

5) 미칠 수 있는 : 상선

공노명 주일대사는 사전임을 전제로 해서 “설사 거부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겠다...” 장관하고 정상반되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주재국 대사의 이와 같은 의사표명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본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보고 신정부의 외교와 관련된 국정운영 형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신외교의 성격은 당당하고 의연하나, 외교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질적이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외교,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 제일주의 지역·국가이기주의라는 냉엄한 국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세일즈맨 외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게 지금 우리 대외정책팀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실과 대단히 거리가 먼, 유리된 듯한, 협상과 좀 능력이 모자라는 듯한 교섭력,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 외교가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감성적인 외교감각으로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외교가 없다라고까지 질책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무경력이 전혀 없는 학계출신들로서만 구성된 새 정부의 외교팀입니다. 대외정책팀입니다.

이 대외정책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일부의 질책과 지적을 총리와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받아들일시겠습니까?

본의원은 이제 우리의 환경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노선은 남·북한 UN가입과 같은 소모지향적인 외교형태에 치우쳐서 환경외교는 전혀 소홀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해양자원의 보호와 개발

〈응용해설〉

1) 세일즈맨 : 약자가 없다. 기본문자로 쓴다. 이와 같이 약자가 있을 법한데 없는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기본문자로 쓰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2) 지나치게 :

3) 감성적인 :

감상적인 :

4) 없다라고까지 :

없으라고까지 :

5) 받아들일시겠습니까? :

6) 지내왔습니다 :

그리고 남극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한발 늦은 출발을 보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적으로 각종 환경산업과 환경첨단기술의 저조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의식의 한계성을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에의 외경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외교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대기나 대양은 분명히 우리 인류공동의 자원이며 이것을 오염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촌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신들만은 세계의 환경문제와 무관하다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각종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대기·해양오염 등 환경악화가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과 개방의 시대를 맞는 중국의 동부 해안지대에 밀집된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와 매연은 우리 한반도의 대기오염과 산성비, 황해의 수질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한반도보다 넓은 지역을 오염시켰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로사고, 최근에는 러시아 중부 톰스크시에 있는 비밀무기공장에서 흘러나온 심각한 방사능 누출사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국내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핵폐기물을 동해에 폐기하는 등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우리를 대단히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외교의 골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우열이 없고 그 자체로서 존경과 아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은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묻은 과일을 먹어도 괜찮고 또 어떤 국민은 먹어서는 안된다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사고와 정책을 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응용해설>

1) 무책임한 :



2) 보여왔던 것 또한 :



3) 우크라이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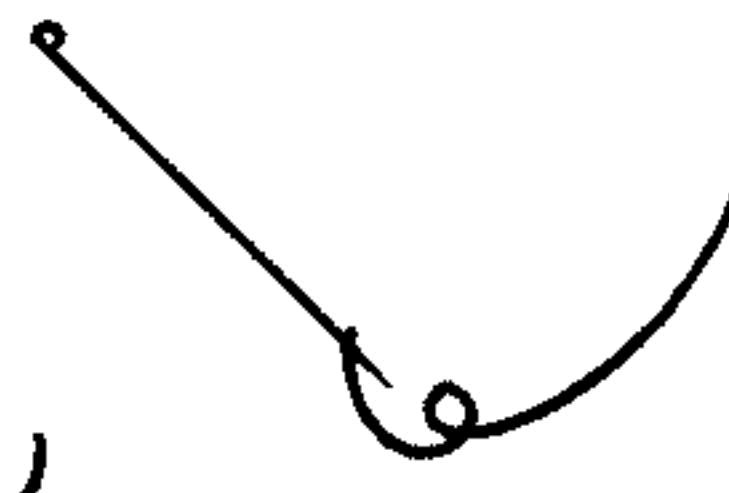


...앞자 쓰고 뒷자 생략하기 응용. 단,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4) 이율배반적인 :



| | |
|---|---|
| <p>대단히 <u>부끄럽게도</u>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약 70여개국이고 우리는 그 중에 넷째번으로 많은 곡물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p> <p>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올 때 녹색카드 즉 Green Card제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92년에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p> <p>국무총리!</p> <p>이게 근간에 시행이 뭐 별로 시원치 않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p> <p>이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지구를 살리자는 <u>환경보전운동</u>은 이제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정치문제로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p> <p>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p> <p>환경보전운동이 지구환경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환경관세, 무역장벽과 같은 환경의 경제화 움직임 그리고 환경문제를 축으로</p> | <p>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환경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외교적 대책을 묻습니다.</p> <p>다음은 정부의 북방외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90년 9월 한·소 국교 수립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작년 11월 엘친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제 기반확립 단계에서 <u>실질적인</u>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p> <p>우리에게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 또 방대한 자원과 수준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경제협력의 대상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주변정세의 안정과 그리고 개혁과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협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p> <p>특히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관한 공동의 인식과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p> <p>외무부장관!</p> |
|---|---|


<응용해설>


- 1) 부끄럽게도 : 상선 
- 2) 환경보전운동 : 
- 3) 되어 왔고 : 
- 4) 실질적인 : 


| | |
|---|--|
| <p>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간에 어떠한 수준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국방부장관!</p> <p>지난 92년 11월 옐친대통령 방한시에 한국과 러시아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체결된 93년도 한·러시아 군사교류 양해각서 내용이 양국간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p> <p>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국무총리!</p> <p>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현안문제인 경제협력자금 집행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대(對)러시아 경제협력이 양국간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p> <p>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제공된 차관과 채무상환계획 그리고 잔여금 집행에 대한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지적을</p> | <p>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러시아 차관규모의 내용, 러시아 정부의 차관상환 이행약속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차관제공을 할 경우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p> <p>다음은 중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p> <p>지난 92년 한·중국교수립은 동북아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p> <p>외무부장관!</p> <p>최근 황병태 주중대사는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등거리에 놓는 외교정책을 펴겠다”는 논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임지에 부임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외교정책의 기초는 한·미맹방체제 중심으로 그 골간을 이루어 왔습니다.</p> <p>장관은 황 대사 말처럼 중국이 우리의 현실적인 외교 파트너로서 현재 미국과 같은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와 같은 황 대사의 발언은 우리 외교정책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p> <p>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외무부장관!</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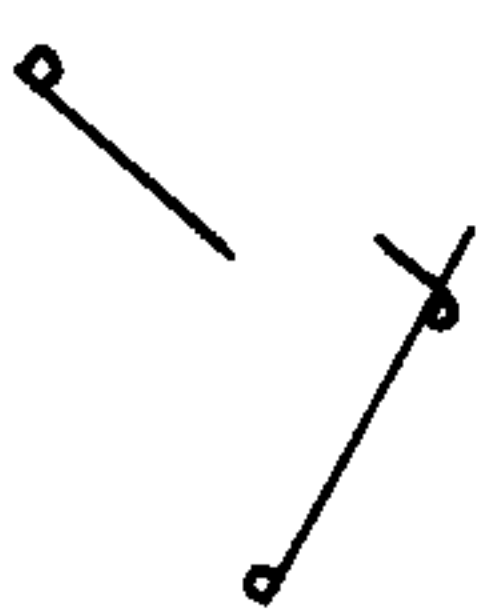
<응용해설>

1) 국방장관 :  국무장관 : 

2) 말씀드리면 : 

3) 보다 : 보다=본다 

4) 러시아 정부의 : 

5) 바꾼다 하는 뜻이 : 

지난 9월 한·중국교수립을 두고 북경외교가에서는 “중국은 한국을 얻었지만 한국은 대만을 잃었다”는 말로써 한국외교의 미숙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양국은 오랜 신뢰 축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였습니다. 대만은 지난 4월 27일 중국과 민간 최고위급회담을 열어 적대상태 종결을 시도하고 있고 급기야는 그들이 사용하던 국호마저 포기하고 UN 재가입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통상외교에 관해 묻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경제생활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그 나라 대외통상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선진과학기술과 경제력이 국제정치행태의 패턴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추세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EC통합에 따른 구라과 시장의 여건 변화와 NAFTA 협정 타결로 악화된 대미시장 진출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키팅 호주 수상이 지난 4월 시드니 소재 호주-아시아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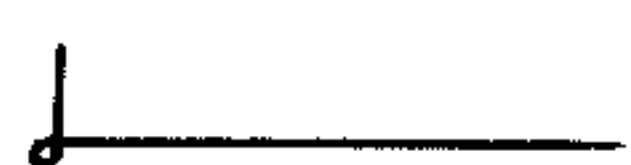



본의원은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인 지역블록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의 앞으로의 APEC 업무 추진 방향은 무엇이며 어떤 활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외교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각 국가간의 정치·경제·사회 등 오히려 여러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정부의 공식외교 채널과는 별도로 민간외교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 문화적 삶을 설계하는 문명정부로의 지름길은 정치·경제·외교

<응용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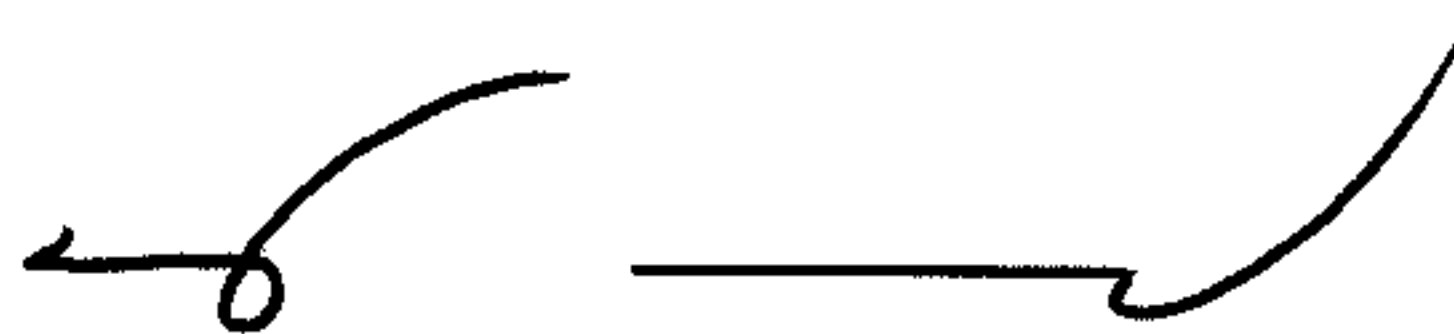
- 1) 얻었지만 : 상선  ...기본문자 얻  은 변문혼동이 많다.
- 2) 이해관계 :  이권 : 
- 3) 우루과이라운드 : 
- 4) APEC 정상회담 : 

| | |
|--|---|
| <p>정책에 못지 않게 문화외교정책의 활성화에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p> <p>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p> <p>세계정치와 경제 운영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UNESCO와 같은 UN산하기구에 인력파견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외무부산하 민간국제교류 전담기구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확대개편 운영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p> <p>존경하는 황인성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p> <p>“도전과 응전”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나라, 한 민족의 흥망과 성쇠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p> | <p>단)</p> <p>(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p> <p>천연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지혜롭고 내용 있는 대외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p> <p>새 문민정부에서 대외정책을 맡고 있는 관계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퀴바디스 도미네”</p> <p>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조순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p> |
|--|---|

<응용해설>

1) UNESCO : U

2)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



3)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 발언시간을 제한했을 경우의 속기록 작성법이다. 위와 같이 표기한다.(참조 ... 회의록 작성법)



제 4 장

•

일반응용약자 일반응용기

이 약기법은 우리말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모아 가급적 규칙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1. 일반응용약자

1-1. ~권 : 특별문자 「권」을 응용한다.

선거~ 선수~

| | | | |
|-----------|----------|---------|-----------|
| 예> 기~
 | 기득~
 | 소유~
 | 수도~
 |
| 영주~
 | 영업~
 | 공~
 | 공민~
 |
| 특~
 | 특허~
 | 특별~
 | 주~
 |
| 조사~
 | 비상대~
 | 저작~
 | 지적소유~
 |
| 투표~
 | 청구~
 | 묵비~
 | 시민~
 |

참고 : 첫자가 같고 다음 자가 다른 단어는 약기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기권」과 「기득권」의 경우 「기」자 다음에 「~권」을 붙여 응용하는데 「기권」처럼 기본문자에 「~권」이 오는 경우는 정측으로 돌리고, 「기득권」처럼 말이 생략이 되는 경우는 반측으로 돌려서 구별한다.

1-2. ~금 : 끝에서 「이」나 「가」를 2mm 정도로 막아서 응용한다.

기부~ 교부~

| | | | |
|------------|-------------|---------|------------|
| 예> 입학~
 | 보험~
 | 적립~
 | 전입~
 |
| 전출~
 | 매입~
 | 매출~
 | 양곡기~
 |
| 지방교부~
 | 지방재정교부~
 | 원리~
 | 원리금 상환
 |

1-3. ~가 : 「가격」을 응용한다.

| | | | | | |
|---------|--|-------|--|-------|--|
| 하곡~ | | 하곡수매~ | | 수매~ | |
| 추곡~ | | 추곡수매~ | | | |
| 예> 엽연초~ | | 고시~ | | 도매~ | |
| 공장도~ | | 도매가격 | | 소매가격 | |
| | | | | 소비자가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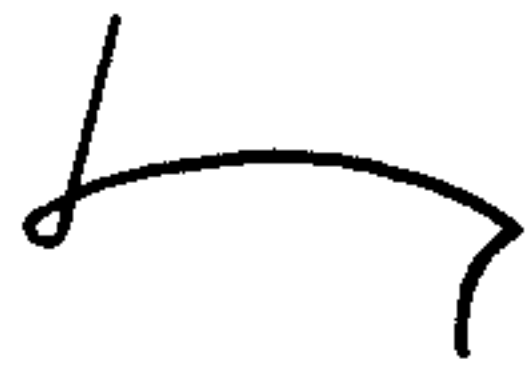
1-4. ~당 : 「다」를 응용한다.

| | | | | | |
|------------------|--|---------|--|--------|--|
| 민주자유~ | | | | | |
| 예> 민자~ | | 민주~ | | 민정~ | |
| 신민~ | | 보수~ | | 집권여~ | |
| 자유당정부 | | 자민당 정권 | | 무소속 | |
|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아니하는 | | 새정치국민회의 | | 자유민국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물가~ : 약자 「물가」를 응용한다.

| | | | | | | | |
|--------|--|------|--|--------|--|-----|--|
| 예> ~지수 | | ~안정 | | ~양등 | | ~상승 | |
| ~상승률 | | ~오름세 | | ~오름세심리 | | ~폭등 | |
| ~등귀 | | ~체계 | | ~억제 | | | |

도매~지수



소비자~지수



1-6. ~비 : 반소원을 응용한다.

예비~



소~



예> 유지~



생계~



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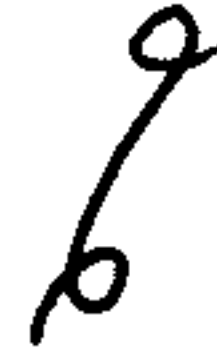
기밀~



2. 일반응용약자

2-1. ~성 : 「생」을 응용한다.

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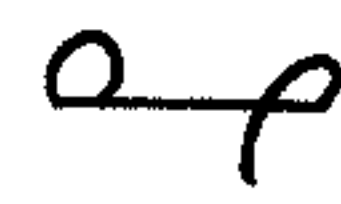
경제~



채산~



공통~



탄력~



타당~



국민~



특수~



필요~



가능~



불확실~



2-2. ~시 : 「이」를 걸쳐서 응용한다.

서울~



예> 서울특별시



부산~



부산직할~



인천광역시~



2-3. ~시일내 : 밑줄을 그어 응용한다.

짧은~



예> 조속한~



빠른~



5일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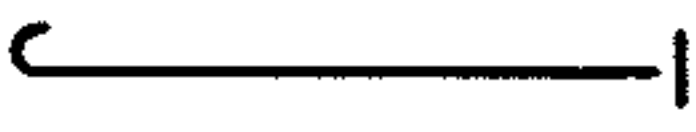
















단시일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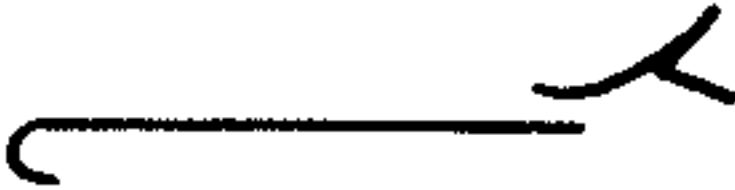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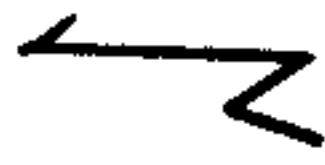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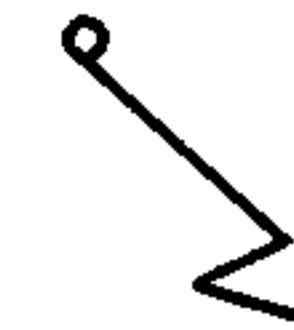









2-4. ~원 : 「이」를 문자 끝에서 막아 응용한다.


공무~ 

| | | | |
|---|---|--|--|
| 예> 교육공무~
 | 국가공무~
 | 지방공무~
 | 경제기획~
 |
| 재정경제~
 | 재경~
 | 대법~
 | 고등법~
 |
| 가정법~
 | 지방법~
 | 서울지방법~
 | 민사지방법~
 |
| 형사지방법~
 | 군사법~
 | 공무원처우개선
 | |

2-5. ~위원회 : 「다하」를 응용한다.

위원회 < 

| | | | | |
|---|---|--|--|--|
| 예> 국회운영~
 | 위원회
 | 위원장
 | 위원
 | 통일외무~
 |
| 행정~
 | 법제사법~
 | 내무~
 | 법사~
 | 국방~
 |
| 문화체육공보~
 | 문체공~
 | 건설교통~
 | 농림수산~
 | 보건복지~
 |
| 환경노동~
 | 통상산업~
 | 통신과학기술~
 | 농림수산위
 | 정보~
 |
| 특별~
 | 예산결산특별~
 | 상임~
 | 예산결산
 | 예결~
 |

| | | | |
|--|--|--|--|
| 예결위
 | 올림픽~
 | 올림픽조직~
 | 조직~
 |
| 특별조사~
 | 진상조사특별~
 | 진상조사~
 | 남북조절~
 |
| 남북조절위
 | 중앙선거관리~
 | 행정쇄신~
 | 금융통화운영~
 |
| 윤리~
 | 군사정전감시~
 | 심사~
 | 전형~
 |
| 해당~
 | 분과~
 | 국사편찬~
 | 편찬~
 |
| 주비~
 | 선거관리~
 | 공정거래~
 | 교육개혁~
 |

참고 : 속기사를 가장 리듬 있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떤 명칭이 정식명칭으로 쓰이기도 하고 약칭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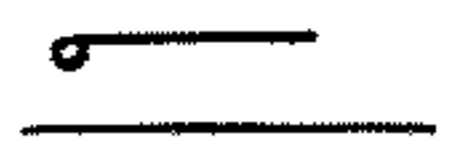

예컨대 「행정대신위원회」를 「행대위」, 「교육개혁위원회」를 「교개혁위」 등으로 말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갑작스러운 약칭의 사용, 그것도 발음상 「행세이」, 「교기이」 등으로 들려 알아듣을 수가 없다는 것과 약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다.

3. 일반응용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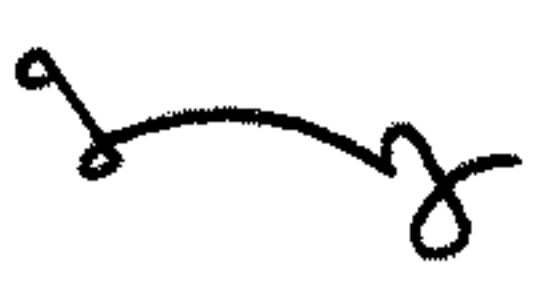




3-1. ~지방 : 밑줄을 그어서 응용한다.


서울~ 

| | | | |
|---|--|--|--|
| 예> 중부~
 | 남부~
 | 북부~
 | 영남~
 |
| 호남~
 | 영동~
 | 관동~
 | 관서~
 |

3-2. ~협정 : 「협정」을 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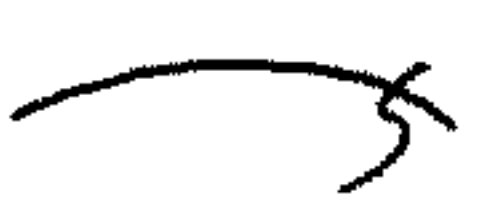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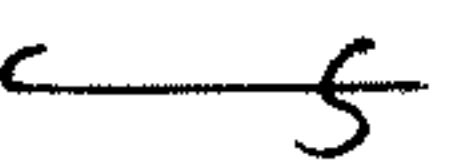








통상~ 

| | | | |
|--|---|--|--|
| 예> 무역~
 | 문화~
 | 휴전~
 | 방위~
 |
| 한일~
 | 한미~
 | 행정~
 | 한미행정~
 |
| 전략무기제한~
 | 불가침~
 | | |

참고 : 핵협정 

3-3. ~회의 : 약자 「회의」를 응용한다. S

국무~ 

| | | | |
|---|---|--|--|
| 예> 국가안전보장~
 | 경제과학심의회
 | 민주평화통일자문~
 | 협의회
 |
| 국정자문~
 | 무역진흥확대~
 |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
| 청년회의소
 | 기술진흥확대~
 | 국회본~
 | 비동맹~
 |
| 본~
 | 임시~
 | 연석~
 | 오전~
 |
| 한미안보협의~
 | 한미안보협의회
 | | |

3-4. ~회담 : 약자 「회담」을 응용한다.

남북적십자~



고위~



고위급~



예> 적십자~



예비~



정상~



외무장관~



남북~



남북정상~



실무~



영수~



총무~



당국자~



최고책임자~



최고당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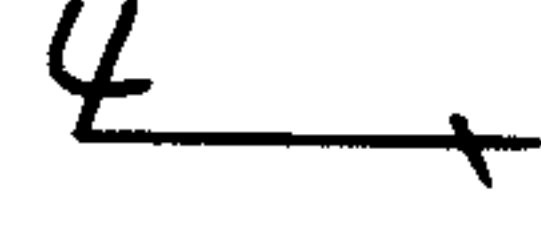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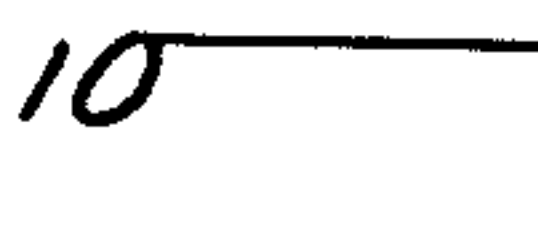








제 5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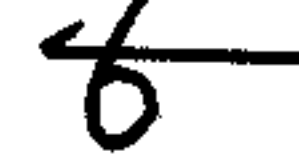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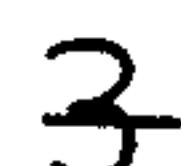



기타 응용약자

이 약기법은 분류하기가 곤란하거나 최근의 약자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뚜렷한 규칙이 없는 실용적인 약자이다.

1. 특정일 약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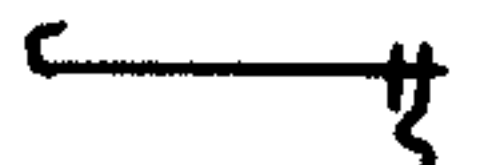


| | | | |
|---|--|--|---|
| 8·15
 | 8·15해방
 | 6·25
 | 6·25사변
 |
| 6·25동란
 | 6·25전란
 | 6·25남침
 | 4·19
 |
| 4·19혁명
 | 4·19의거
 | 4·19학생의거
 | 5·16, 5대양6대주
 |
| 5·16혁명
 | 5·16군사혁명
 | 5·16군사쿠데타
 | 10·26
 |
| 12·12
 | 12·12사태
 | 5·17
 | 5·18
 |
| 6·29
 | 6·29선언
 | 7·7
 | 7·7선언
 |

2. 숫자응용

| | | | |
|--|---|---|---|
| 제5공화국
 | 제6공화국정부
 | 4대군사노선
 | 6개국
 |
| 6개국가
 | 사이비
 | 삼위일체
 | 삼권분립
 |
| 노사분규
 | 이중삼중
 | 이율배반
 | |

3. 회 견

회 견 ||

| | | | |
|---|---|--|--|
| 회견석상에서
 | 기자회견에서
 | 국내외기자회견에서
 | 기자단회견에서
 |
|---|---|--|--|

내외신기자회견



연두기자회견



특별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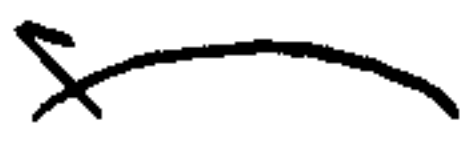


외신기자회견



4. 핵

핵무기



핵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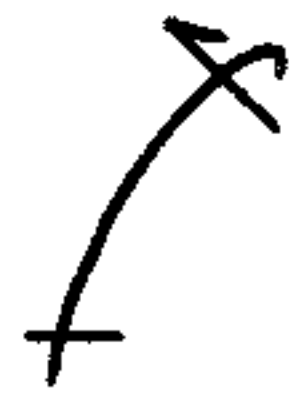
핵실험



핵실험중지



핵실험금지



핵확산금지



핵확산금지조약



핵사찰



5. 산 물

농산물



농수산물




농수축산물



수산물



축산물



농작물



6. 동 포

동포형제



애국동포



재일동포



재미동포



해외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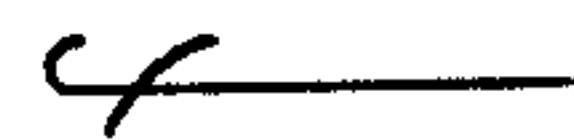
북한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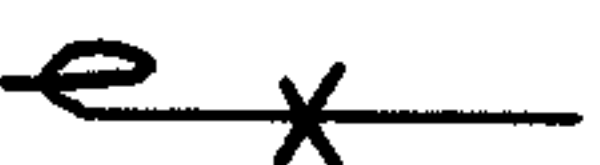






재일교포






재미교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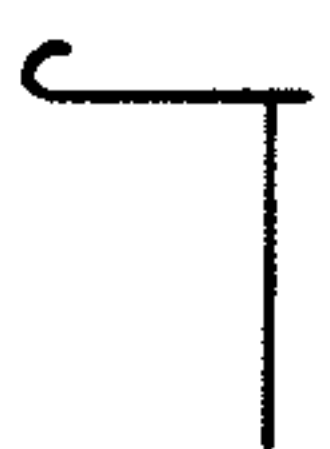













7. 정 권

| | | | |
|---|--|---|---|
| 정권, 증권 | 김일성정권 | 정권교체 | 평화적 교체 |
| X |  |  |  |
| 평화적 정권교체 | 평화적인 정권교체 | 평화적인 교체 | 증권시장 |
|  |  |  |  |

8. 공 업

| | | |
|---|---|---|
| 중화학공업 | 중공업 | 중화학 |
|  |  |  |

9. 시 사

| | | | |
|---|---|---|---|
| 철의 장막 | 죽의 장막 | 인의 장막 | 노농적위대 |
|  |  |  |  |
| 붉은청년근위대 | 교도대 | 비무장지대 | 민방위 |
|  |  |  |  |
| 민방위대 | 민방위훈련 | 학도호국단 | 특파원 |
|  |  |  |  |
| 발표를 | 소식통 | 대변(인) | 시대 |
|  |  |  |  |
| 수단을 | 수단방법을 | 수단과 방법을 | |
|  |  |  | |

10. 도 입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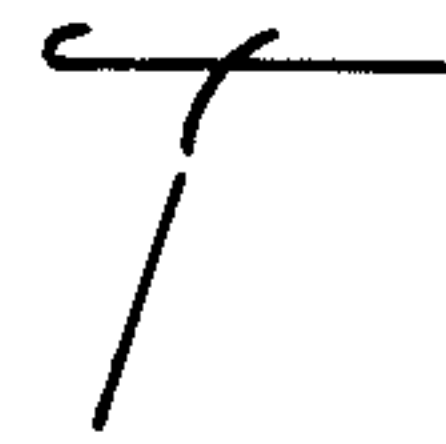
원자재 도입



외자도입



기술도입



자본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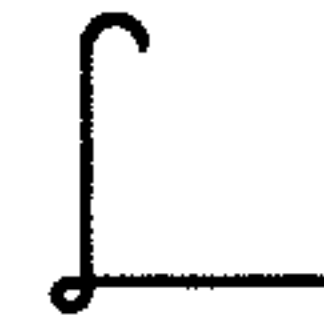
차관도입



외화보유고



외환보유고



11. 방 위

향토방위



대한방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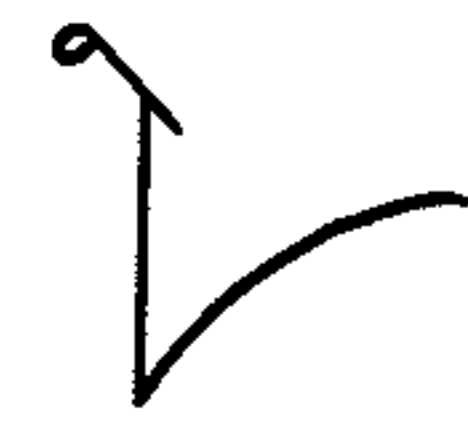
대한방위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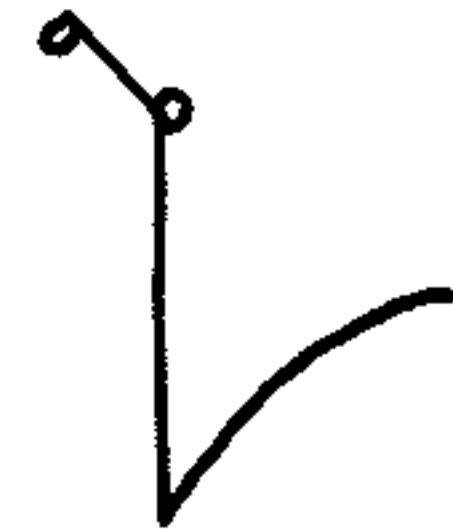
대한방위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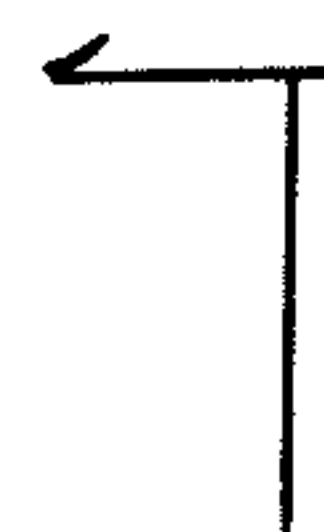
한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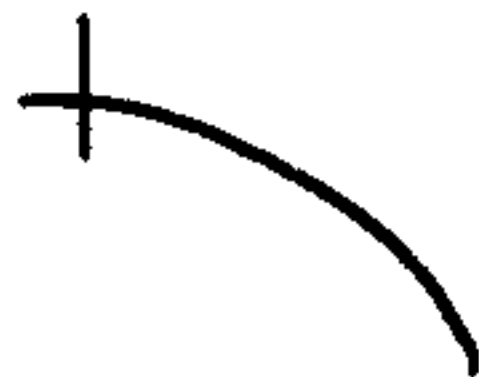


국토방위(국고채무부담행위)



12. 이 자리를 ~

~통해서



~통해



~통하여



~빌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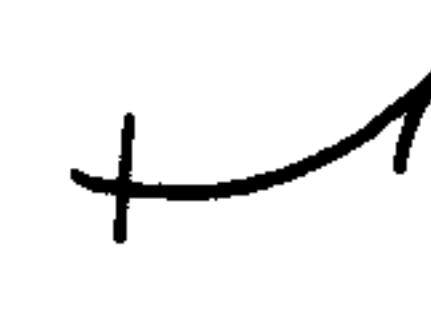
~빌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13. 이러한 ~

~뜻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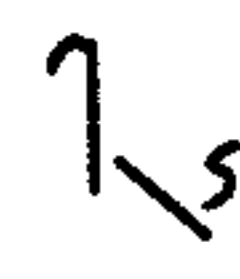
~자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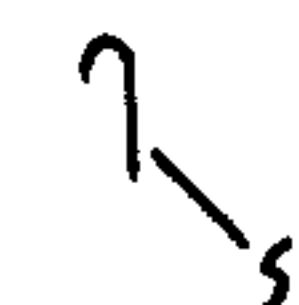
~시점에서



~관점에서



~맥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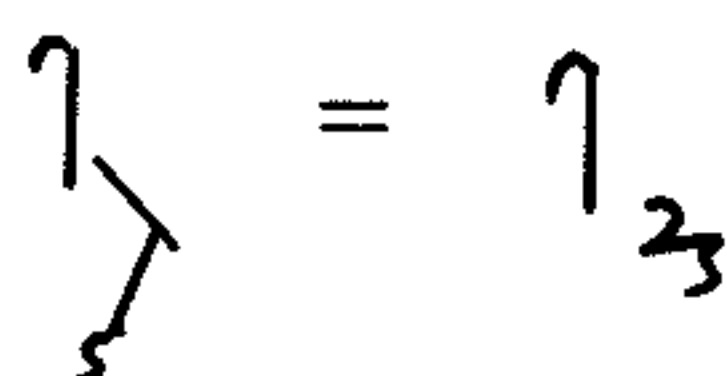
이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참고 : 이러한 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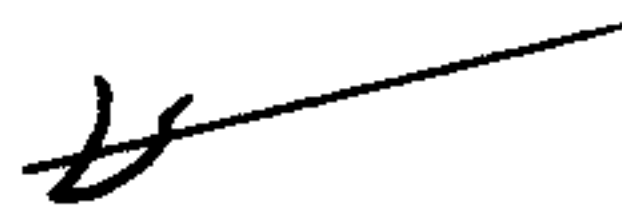


14. 속 어

여야 할 것 없이



여야를 초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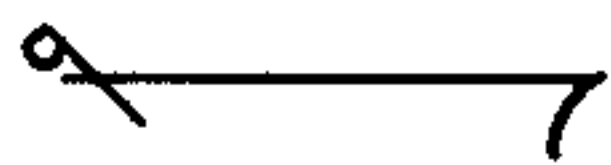
이 시점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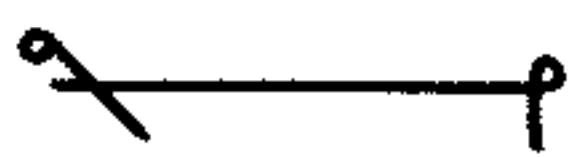
즈음하여



한걸음 나아가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어차피



할머니



소용돌이 속에서



여야 할 것도 없이



두말할 것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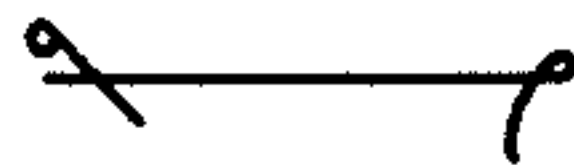
이 마당에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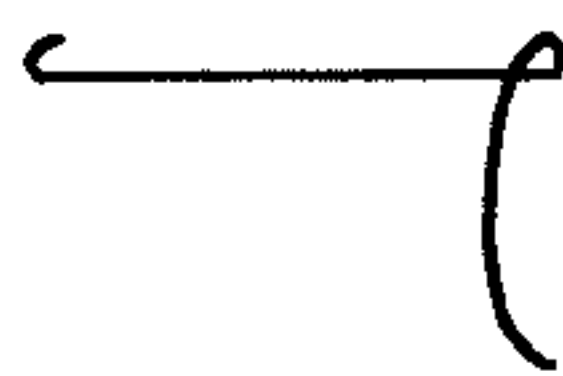
한걸음 더 나아가서



피비린내나는



기필코



아버지



마침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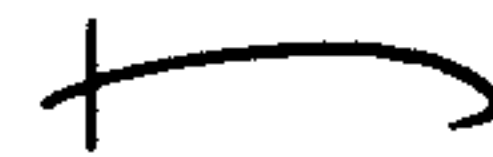
여야 가릴 것 없이



두말할 필요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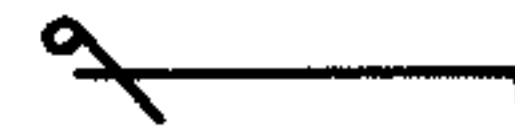
이 마당에



종지부를 찍고



한걸음 나아가



언필칭



할아버지



어머니



한마디



15. 형 태

| | | | |
|---------------|------------|---------------------------|----------------|
| 허리띠를 졸라매고
 | 물샬틈없이
 | 머리를 맞대고
 | 뒤집어 씌우고
 |
| 둘러씌우고
 | 뒤집어 쓰고
 | 둘러쓰고
 | 얹히고 설켜서
 |
| 공공요금
 | 한마음
 | 한마음 한뜻
 | 빙산의 일각
 |
| 하루이틀
 | 넘어, 너머
 | 균형, 과연, 깨끗
 | 의의, 일일, 회견
 |
| 현행, 회원
 | 현황, 화합
 | 불요불급, 불가침,
어깨를 나란히
 | 불과한
 |
| 등등, 떳떳
 | 따뜻
 | 아주머니
 | 호주머니
 |
| 안주머니
 | | | |

16. 「 | 」 모음형

| | | | |
|----------|---------|---------|---------|
| 살림살이
 | 일제히
 | 일찍이
 | 갑자기
 |
|----------|---------|---------|---------|

쓰레기



슬며시



셋방살이



하루살이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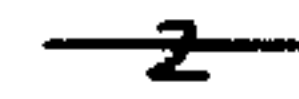
송사리



피라미



구렁이



간단없이



끊임없이



설새없이



쉬임없이



하염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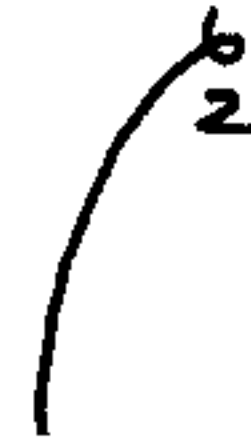
여지없이



여지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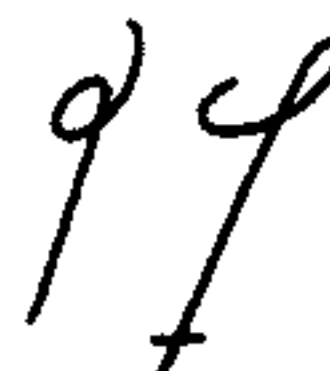

슬그머니



〈속기록〉 ...속기술의 향상은 지속적인 연습이 비결이다. 써 보는 데 임하자.

| | |
|---|--|
| <p>○ 조순환의원 오늘 아침에 일정표를 보니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조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p> <p>송파갑의 국민당 조순환입니다.</p> <p>그리고 각별히 새로이 선임된 이만섭의장께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저를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게 여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또 앞으로 많은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도 소수자들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국민당 의원 또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기를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p> <p>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p> <p>많은 의원들이 여당 야당의원들이 외교·안보·통일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질문들을 했습니다.</p> <p>제가 보기에 14대 국회의원들은 제가 어제 정치문제에도 하나도 빠뜨림없이 들었습니다마는 외교·안보 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나와서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신문기자 출신으로 평소에 국회</p> | <p>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평소에 신문기자 하면서 느꼈습니다.</p> <p>그래서 오늘 여러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 정말 무한히 기뻐합니다. 다만 제가 갑자기 의장단에서 저보고 우리당을 통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 스스로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또 중복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소실력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p> <p>평소실력으로요. 평소실력은 없습니다마는...</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웃음소리)</p> <p>제 힘껏 하겠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p> <p>우리가 흔히 오늘의 세계를 얘기할 때 대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냉전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경제경쟁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한반도가 이 냉전시대가 지나가고 경제경쟁시대냐 말이야.</p> <p>그것은 소련과 대결했던 미국이나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보았던 일본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소련이 붕괴하니까 이제 냉전시대는 지나갔다</p> |
|---|--|

〈응용해설〉

- 1)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 
- 2)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 
- 3) 상임위원회 : 
- 4) 여당 야당의원 : 
- 5) 들었습니다마는 : 
- 6) (「평소실력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 <부록 회의록 작성법> 참조
- 7) (웃음소리) : <부록 회의록 작성법> 참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지금 한반도는 다른 또 하나의 군사위협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소련이 지금도 구소련이 말입니다. 그대로 존재해 있었다면 북한의 NPT탈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냉전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이 한반도에는 이제 경제경쟁시대가 왔다 이것이 아니고 경제경쟁시대... 우리 세계는 경제경쟁해야지요. 미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북한과는 군사경쟁을 더 위험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매우 위험한 군사각축 혼란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냉전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경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좀 안해 주시기를, 적어도 우리 한국의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려면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경쟁시대에다가 군사적으로는 위험한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민자당의원들 또는 민주당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고 특히 민자당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외교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교가 대한민국외교가 없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말할 수가 없고 저는 무엇인가 30년만에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문민정부, 지금 여기 30년만에 문민정부를 가져오는 데 노력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30년만에 문민정부를 가져온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장관님들 총리 이 30년만의 문민정부에 상응하는 외교의 얼굴은 무어냐 이거예요. 저는 외교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위험한 이 시점에서 개혁바람, 개혁해야지요.

엄청난,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무슨 안영모 동화은행 무슨 총재입니까 뭐니까? 무슨 몇 억의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데요, 이 단위가 너무 큼니다. 저는 특파원을 해보아서 선진국의 부정부패도 보았는데 단위가 너무 커요.

이 부정부패 척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의 척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외교에 소

<응용해설>

1) 얘기를 할 겁니다 : ㄹ

2) 동남아시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 「동남아시아」에 「해야」를 이어 써서는 번문이 어렵다. 따

라서 ㄱ으로 표기한다.

3) 접어들었다, 그래서 : ㄷ ... 「었다」가 길면 「었습니다」가 된다.




4) 좀 안해 주시기를, 적어도 : ㄹ

5) 무어냐 이거예요 : ㄴ

6) 개혁해야지요 : ㄹ

| | |
|---|---|
| <p>홀히 해 가지고는 이것 안 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아까 어느 민자당의원께서
 는 환경외교까지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외교가 없이 개혁만 해 가지고 안 됩니
 다. 우리의 개혁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잘 알
 려지기 위해서도 외교가 있어야 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김영삼정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u>얘기할 거예요</u>. 개혁이다, 뭐 아직 개
 혁이라고 저는 말하기보다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이 무슨 개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요 안티커럽션(Anti Corruption) 이
 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 아직은 그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혁으로 가겠지요.
 이 부정부패 척결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부정부패 척결이 외교적으로 세계사람들에게 알
 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에 알려야 합
 니다. 얼마나 우리가 민주적이고 좋은 일을 하
 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김영삼정치의 외교얼굴이 <u>뭐냐</u> 한 마디로 얘
 기를 해서 외교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외무부장
 관께 묻겠습니다. 30년만에 등장한 이 문민정부</p> | <p>에 상응하는 외교의 얼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u>얘기합시다</u>.
 우리 외교가 한 마디로 뭐냐 이것을 묻겠습니
 다.
 그 다음에 역시 통일원장관께 마찬가지로 우
 리에게 외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역시 통일정
 책 아니겠습니까? 이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뭐냐 새로운 것이 있느냐 권위주의정치 얘기하
 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민정부다 그렇
 게 지금 장관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민정부에 상응하는 새로운 통일정책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치문제의 답변에서 통일원장관
 께서 간략하게 우리 통일정책의 요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금세기내에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
 다. 금세기내에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
 저는 귀가 번쩍 했습니다.
 저는 금세기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만 되어
 도 저는 참 이것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 이
 것이 좋은 일인데 말이에요. 금세기내에 통일된
 선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p> |
|---|---|

〈응용해설〉

- 1) 얘기할 거예요 : 
- 2) 뭐냐 : 
- 3) 얘기합시다 : 「~ㅁ시다」 응용 

했는데 참 국민들에게 고무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금세기내에 통일된 선진국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는 당연히 구체적인 단계적인 정책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일원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원장관께서는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한테는 정말로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그 이후에 우리 총리 또 통일원장관 뭐 우리 국무위원들 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고생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모든 4천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염원일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북한이 국제적으로도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해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또 우리 정

부도 지난번 외무통일위원회의 외무부장관이나 통일원장관의 증언에서도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핵폭탄을 하나쯤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루토늄입니까? 무슨 재료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이고 1·2년내에는 핵폭탄을 적어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통일원장관이나 외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많은 의원들이 핵문제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저지하겠다는 것은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냐? 이러한 근본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목표가 서 있느냐 이것을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핵폭탄을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북한이 NPT에서 탈퇴를 선언하니까 초창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추측에 미국이 무력을 쓸 것이다, 미국이 무력을 안 쓸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강대국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현저한 이미지의 타격이 온다 이것입니다. 강대국의 위신에 굉장

〈응용해설〉

- 1) 경우라도 :
- 2) 하시리라고 :
- 3) 말씀한 걸로 :
- 4) 되겠어요 : 되겠어 :
- 5) 써서라도 :
- 6) 하겠다는 거냐? :
- 7) 무력을 쓸 것이다, 미국이 :

한 타격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무력공격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내에서는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물론 UN에서 경제제재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본적인 국가목표는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반대하지 않아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통일원장관의 생각이나 그리고 이것이 통일원장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김영삼정부의 30년만에 등장한 문민정부의 국가전략이나 하는 것도 아울러서 통일원장관께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분명하게 안 밝히면요 어제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상호간에 시간 많이 가고 하니까 처음부터 보충질문을 제가 안 하도록 처음부터 좀 구체적으로 분명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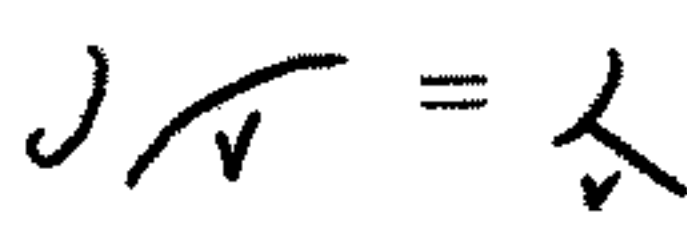



그리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평가대로 1·2년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북한과 공존해 가겠다는 것인가 그 점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강대국의 위신과 핵의 확산을 방지하는 강대국 차원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북한에 어떠한 무력공격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은 우리 정부하고 상의를 할 것으로 보는가? 이것은 외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의를 할 것으로 보는가? 지금 외무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가지고 미국의 요로들과 많이 이 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만약에 무력사용을 미국이 하려고 할 때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는가?

아마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국의 고관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협의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이 협의를 할 때 우리 김영삼정부의 입장은 무력을 해도 좋다 묵인 시인을 할 것인지 또는 절대로 무력의 사용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무부장관은 김영삼정부를 대표해서 미국에게 얘기를 할 것인지 그 점을 역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용해설>

- 1) 안 밝히면요 :  된다고요 :  주니까요 : 
- 2) 보충질문 : 
- 3)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 
- 4) 밝혀 주십시오 : 
- 5) 하려고 할 때 : 
- 6) 협의를 할 것으로 보는가? : 
- 7) 하지 말아라 : 

그 다음에 역시 제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제가 신문기자를 한 30년하고 특파원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북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역시 저에게 가장 알기 어려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문민정부는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 것도 감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도로 중요한 국가의 기밀에 대해서야 역시 아무리 문민정부라 하더라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있겠지요.

제가 우선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4·5년전부터 있어 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4·5년전에 북한의 식량부족 그래도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아, 북한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북한이 탈퇴선언하고 나서 세계적인 권위있는 여러가지 신문, 잡지들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에서 북한의 식량부족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뉴스위크지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어느 재일교포출신의 학자가 북한을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북한에 갔다고 그러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북한의 식량부족이라는 것이... 그 사람도 역시 한국사람의 피를 타고 있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북한의 식량부족이라는 것이... 북한의 식량은 배급을 하지 않습니다. 비밀경찰은 배급해야 할 식량들을 비밀리에 가져 갑니다. 그 다음에 고위당료들 그러니까 집권당이 북한의 공산당이 되겠습니까! 북한의 당료들은 공공연히 배급해야 할 식량을 가져 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자(字)가 붙는 북한의 실세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안된 상태에서 식량을 가져 간다,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 식으로 하면 서민입니까? 힘없는 국민들은 굶주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일교포 학자가 한 10개월 되니까 북한당국에서 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자기가 양심껏 쓰자니 식량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응용해설〉

1) 잘 모르겠어요 :

2) 있겠지요 :

3) 있어 온 :

4) 읽는 : 「러」 받침은 「ㄱ」 받침으로 써야 번문에 좋다.

5) 심각하구나 :

되는데 그러자니 추방이 될지 역류가 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어서 그 보고서를 양심상 쓰지 못하고 자기는 1년 동안 북한에 있고 싶은데 연구를 중단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뉴스워크지에 실려있는 것을 보고 참 북한의 식량사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나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다행히 총리께서는 과거에 농림수산부장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식량부족을 구조적으로 통계적으로 수년 동안에 왜 이렇게 북한이 식량사정이 나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통일원장관계서는 북한에 대해서 훤히 손바닥 위에 북한의 실상을 알고 계실테니까 북한의 서민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밥을 몇 끼를 먹고 있는지? 흔히 두끼 먹는다 한끼 먹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있고 한끼 먹는 밥상에 밥은 옥수수가 되는 것인지 개떡이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고 아직도 북한사람들이 김치를 공장에서 만들어 먹는 것인지 자기네들이 담아 먹는 것인지 이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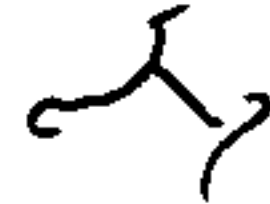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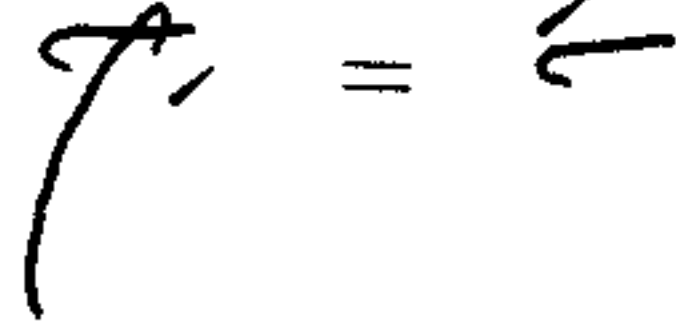


까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북한 동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 의원들 어떤 분은 웃고 계시는데 참 우리 한국사람으로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다 떠나고 북한동포는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음식점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의 쓰레기들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차원으로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 우리 동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면 지금 문민시대라는 것이 뭘니까? 어제 공보처장관도 얘기했어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라고 했어요. 이 문민정부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 방청석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민시대의 우리 국민들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 사람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응용해설>

- 1) 그러자니 : 상선 
- 2) 나쁘구나 : 상선 
- 3) 얘기를 해 주세요 : 
- 4) 계실테니까 :  = 
- 5) 이런 것까지 : 상선 

그 실상을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에는 북한의 문제를 다 감추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위주의 정부들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소상하게 이것은 통일원장관계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농림수산부장관을 지내신 총리께서도 구조적으로 통계적으로 왜 북한이 이렇게 식량부족의 상태에 있는가?

제가 듣기로는 이 북한의 식량부족은 단순한 인권차원의 문제이고 인도주의차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지난 4월까지의 북한의 일반국민들의 비축식량이 다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비축식량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씹니까? 군량미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나 군량미를 북한동포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왔다는 것, 매우 심각한 인도주의, 인권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보다 또 한반도의 위기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북

한에 대해서 5억 8,000만 달러의 무기를 팔았다 하는데 이것이 저로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이래서 과연 미국이 5억 8,000만달러의 무기를 북한에 판 것인지 무엇인가 설명이 제 스스로 잘 안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또 미국은 왜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고 무기는 북한에 팔고 또 어떤 무기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만이 네 마리의 용에서... 이제 싱가포르와 대만은 선진국이 되었다고 얼마전에 세계은행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만 탈락했어요. 그런데 왜 탈락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총리께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문제, 외교문제 다 겹치는 문제이니까... 왜 탈락이 되었는가 하고 이 탈락이 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 정치의 지금 문제점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의 하나로 세계가 한국에 대해 80년대에는 극찬을 했는데 왜 대만과 싱가포르는 선진국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탈락됐

<응용해설>

- 1) 그러지 말고 : 상선 ㄴ
- 2) 듣기로는 : 상선 ㄹ
- 3) 알기로는 : ㄹ
- 4) 개발하려고 하는 거나 : ㄷ ㄹ
- 5) 팔았다 하는데 : ㄴ \ 판 것인지 : ㄴ
- 6) 이런 것도 : 상선 ㄴ
- 7)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8) 강조하고 싶은 것은 : ㄹ ...조사가 붙을 때는 쓰면서 조사를 붙인다.
- 9) 탈락이 된 데 대해서 : ㄹ

고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5공이 책임지는 것이냐 5공때 집권당인 민정당이 책임지는 것이냐 그것을 이어받은 30년만의 문민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냐 말입니다. 문민정부가 책임지면 그 중에 또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말입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문제를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어서는 장래적으로 우리가 네 마리 용에서 선진국에서 탈락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말이지요 중국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은행의 보도인데요, 제가 한 5·6일 전에 IPU회의를 참석하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일본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계은행의 보도내용이 뭐냐하면 시간도 다 되어서 간단히 제가 얘기하면 중국이 9년 후에는 홍콩, 대만을 합친 중국권 그러니까 대륙중국과 홍콩과 대만을 합친 이 중국권이 9년 후에는 그래서 2002년에는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규모를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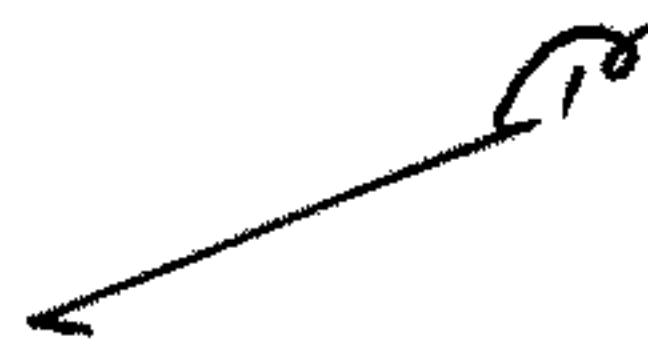
월한다 그래서 그 총 규모는 중국이 9조 8,000억 달러가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은 9조 7,000억달러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대국이라고 하고 있는 일본은 4조 8,000억달러 이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 일본을 능가한다니 그것도 먼 장래가 아니고 9년 후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2000년대 초에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군사 정치 외교적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외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앞으로 9년 후에 미국을 실질적인 규모에서 능가하고 일본도 능가하고 이런데 우리 이제 통일원장관계서도 금세기내에 이것이 선진 통일국가목표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민족이 지금 7,000만 넘지 않습니까? 해외동포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우리 한민족은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까? 30년만에 등장한 이 문민정부가 30년이 걸리건 50년이 걸리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장기계획을 이 문민정부

<응용해설>

1) 책임지는 것이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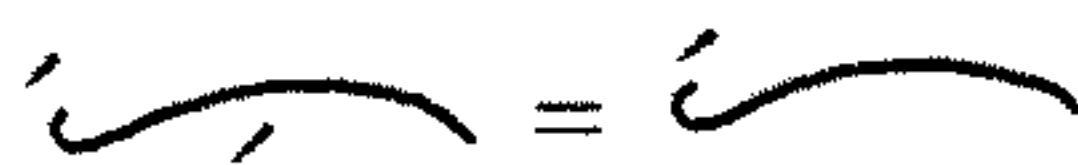
2) 말이지요 :



3) 보도인데요 :



4) 뭐냐하면 :



5) 된답니다 :



6) 능가한다니 :



7) 넘지 않습니까? : 너머 ㄱ 를 활용 ㄱ ... 넘다 / 남다 구별

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구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선이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이렇게 교섭단체에 속하지도 않는데 이런 발언권을 주셔서 정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동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 김동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김동근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여야의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셨습니다라는 이것이 그 사안으로 봐서 매우 중대한 것이고 설사 제가 이제 부터 간략히 심도없이 이모저모 말씀드린다고 하는 제반 문제점들이 아울러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각계각층에서 불어오는 개혁 바람에 온 국민은 지지와 갈채를 보내고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바람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세계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이 같은 분위기는 본의원이 얼마전 참석했던 IPU총회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와는 달리 북한은 NPT탈퇴선언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행보를 견고 있어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탈 냉전시대로 접어들어 과거 양대구심세력 중심의 대립적 균형체제에서 과도기적 혼란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민족주의 갈등과 내란 그리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세계질서는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이중적 상황만을 노정시켜 한반도와 같이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안보의 중요성

〈응용해설〉

1) 조선이다 보니까 :

2) 교섭단체에 속하지도 않는데 :

3) 제기하셨습니다 : 말씀하셨습니다 :

4) 이모저모 :

5) IPU 총회 :

의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선언을 한 바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밝혀 과거의 대결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우리의 기대만큼 성큼 바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보의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동서냉전은 끝났지만 남북한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기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전망에 기초해서 신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안보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통일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국민들 사이에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0년 9월 한·소수교, 91년 9월 남북한 UN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및 부속합의서와 비해

공동선언의 발효, 한·중수교,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개선 모색 등으로 극단적 냉전논리하의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해 왔던 한반도에서 외형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아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고수는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탈군사화 조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질적 개방,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다른 공산국들과 같이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서 개방, 개혁을 실시할 경우 그 동안 경제적 낙후현상과 세습독재체제를 지상낙원으로 기만해온 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 폭발로 동구권 국가들과 같이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경제개방 등 유화정책을 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유지를 위한 폐쇄정책과 핵무기개발정책 강행을 고수하는 등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제보존을 위한 군사력강화에 박차를

<응용해설>

1) 생각을 밝혀 : U U

2) 한반도를 둘러싼 :

3) 한마디로 : ㄱ

4) 탈이데올로기 : ㄱ

5) 이어질 것이라는 : ㄱ

| | |
|--|--|
| <p>가해 최신에 MIG-29, 그리고 잠수함, SCUD미사일, 화학무기 등 무기증강 및 핵무기 개발에 여념이 없는 <u>상황입니다.</u></p> <p>이상과 같은 제반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 안보상황은 단기간내에는 남북대결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p> <p>그런데 이에 비해 최근 우리 국민의식은 동서 냉전종식, 동구권화해, 안보 및 시국사범사면 등의 영향을 받아 통일열기가 확산되면서 무절제한 통일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보의 식도 현저하게 퇴색되어 북한을 그동안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던 것에서 이제는 무조건 동반자로만 받아들여야 하고 있습니다.</p> <p>총리께서는 이같이 안보의식이 희석되어 가는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으로는 새정부의 통일정책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p> <p>새정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통일정책의 기조를 묻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상황을</p> | <p>고려할 때 통일정책의 기본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p> <p>노태우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안과 최근 통일원장관계서 제시한 민족우선 통일정책이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앞으로 우리의 통일정책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양을 갖추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높여 북한이 진지한 통일 논의의 장으로 나오도록 북한 자체의 내외여건을 변화시켜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p> <p>즉 우리의 통일정책 초점은 우선 내부 통일역량 축적에 바탕을 두면서 북한의 변화를 꾸준히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p> <p>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통일기금 확충방안과 북한의 체제변화시 우리가 취할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리고 통일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들을 어떻게 균형있게 수렴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응용해설>

- 1) 상황입니다 : Q 운필응용약자 상황 : Q
- 2)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 상선 Q
- 3) 비해 : Q
- 4) 동반자로만 : Q
- 5) 희석되어 가는 : Q

니다.

다음으로 기타분야와 마찬가지로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국방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상군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군비구조의 개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걸프전에서도 보았듯이 현대전 양상은 최신예무기를 갖춘 특히 해군과 공군의 화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우리의 군구조는 6·25 당시 병력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육군이 54만명인 82%, 해군이 6만명인 10%, 공군이 5만 4,000명인 8% 수준입니다.

최근 동북아 여러 나라 그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해군과 공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최신예전투기를 비롯해 신형미사일과 전자장비를 갖춘 프리키프함과 구축함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등 현대전에 대응하는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현행 군구조를 육·해·공 3군의 균형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하에 그동안 낙후되어 왔던 해군력과 공군력

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인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의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해군의 전력증강비용은 구축함 1척에 1,635억원, 잠수함 1척에 1,400억원이 소요된다는 사실로 볼 때 제한된 국방예산 범위내에서 해·공군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장관계서는 군구조 개편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이 증액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하여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담액이 앞으로는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최근 미 애스핀

〈응용해설〉

1) 현행 : //

현황 : //

2) 보았듯이 :

3) 충당할 것이냐가 :

4)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

5)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

「~만」, 「~마는」은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주로 「~마는」

으로 변문한다.

6) 이루어져야 한다고 :

국무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이 78%로서 일본의 76%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 기구 NATO회원국이 분담하고 있는 25%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높은 세계 최고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미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 방위비 분담비율의 기준과 계산근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따라 방위비 분담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 국민들은 부정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 21세기 선진국 진입과 조국통일을 뒷받침하는 국방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위산업의 위상과 정책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및 관리우선순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안보상황의 전환기인 현시점에서 정부는 신한국 건설측면에서도 새로운 방위산업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93년도 정부 기술개발 예산내역을 보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44%나 되는 2,700억원 규모를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국방관련 기술은 선진국수준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수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예산의 절대액이 선진국보다는 적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그것보다는 국방부문의 연구개발 사업이 폐쇄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위주로 수행되고 있고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군비 자급자족 및 전력증강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산업인데 그 이후 주변상황이 크게 변화되어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없이 출발단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고 새로운 진단과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위산업을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업계의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쟁

<응용해설>

- 1)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 2)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3)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
- 4) 희생 : 희생 :

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계열화작업을 산업정책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방향이 수립되어야만 방위산업체 역시 이에 상응한 장기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방관련 연구개발을 국방부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처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연구개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그 연구결과가 군수전용 기술로써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네기재단의 「신사고와 미국의 국방기술」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민수에 뿌리 내리는 방위산업만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에 관한 전세계적 조류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국방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군인사문제 등 군관련 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사정과 개혁작업이 추진되면서 군내에도 인사 비리 등 해묵은 각종 비리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진급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많은 국민들을 충격속으로 몰아갔으며 과연 이런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에도 아랑곳없이 폐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맞서 하루도 제대로 편안히 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의 절대다수 장병들은 현재 군 소수의 인원이 관련된 부패 및 치부와는 달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각종 비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려내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의원은 60만 대군인 군조직에 대한 지도체제의 확립 및 군의 사기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의혹규명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에게 우리의 전력만 노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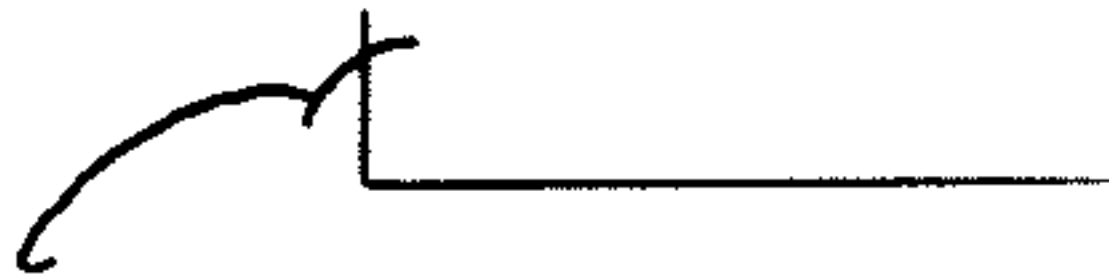




<응용해설>

- 1) 추진할 것이 아니라 :
- 2)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
- 3) 갖게 하고 있습니다 :
- 4) 아랑곳없이 :
- 5) 강조하는 바입니다 :

추진할 것 아니라 :

| | |
|---|--|
| <p>킨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점을 <u>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u></p> <p>따라서 군은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군인사비리 및 방산관련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서 엄벌을 하되 누적된 군대의 부정부패를 <u>효율적으로</u>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을 비롯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p> <p>예를 들면 인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급심사를 비롯한 인사관리제도상의 보완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각군 총장에게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는 진급권한과 직업군인의 직업보장차원에서의 정년 상향조정문제 그리고 치열한 진급 경쟁비율의 하향조정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앞으로 군은 가능한 조기에 군내 부정비리 파문을 매듭짓고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군의 기본임무인 국방태세 강화를 위해서 군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장병들의 단결과 사기양양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제기한 문제들</p> | <p>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으로 국제안보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께 드리겠습니다.</p> <p>우선 국제질서의 재편기를 맞아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해 지역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p> <p>이는 지역내 특정국가가 안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지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p> <p>특히 소련해체와 미군사력의 감축을 틈타 지역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이 급속히 군사력 증강을 하여 주변국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는 <u>위협이라</u> 하겠습니다.</p> <p>최근 일본은 15t 규모나 되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도입하는 등 2010년까지는 총 85t 규모의 플루토늄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 교토통신에는 아오모리시에 세계 최대규모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될 핵연료재처리 공장 건설이 착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p> |
|---|--|

<응용해설>

- 1)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2) 효율적으로 : 
- 3) 예를 들면 : 
- 4) 매진해 줄 것을 : 
- 5) 위협이라 하겠습니다 : 

| | |
|---|---|
| <p>습니다.</p> <p>이같은 내용을 감안한다면 유사시 일본이 재무장과 함께 아시아에서 신지역패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p> <p>이같은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p> <p>최근 군비현대화와 군비증강을 위해 과거에 비해 2배의 예산을 군비에 쓰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 얼마전 뉴욕타임즈지가 1월11일 북경발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 수호이-27전투기 26대를 구입했으며 MIG-31기 구입에도 관심을 갖고 또 러시아제 소형 항공모함도 구입하거나 자체 건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보도를 <u>빌리지 않더라도</u> 중국이 다양한 첨단무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p> <p><u>이렇게 볼 때</u> 동북아지역 정세는 상호갈등이 심화되어 군비증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p> <p>국방부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현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장기적인 민족안보 즉 통일 후 안보정책까지 연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p> | <p>니다.</p> <p>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시각도 과거 대북한 관계에 국한시켰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과 세계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체적 입장에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p> <p>또한 우리는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p> <p>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UN회원국중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고 미국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고 안보리 개편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마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 이전에 일본은 우선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p> <p>그러나 최근 부임한 공노명 주일대사는 오히려 일본입장을 <u>두둔하는 듯한</u>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p> <p>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차제에 외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
|---|---|

<응용해설>

1) 빌리지 않더라도 :



2) 이렇게 볼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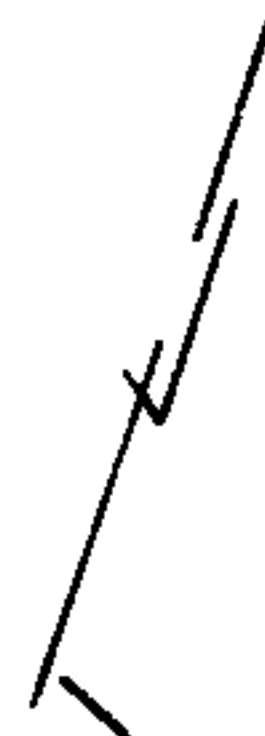
3) 밝혀 주기 바랍니다 :



4) 미국정부 :



5) 두둔하는 듯한 :



합니다.

다음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남북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키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포기하고 핵부재 선언을 했는가 하면 남북한이 공히 한반도에서 핵물질의 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한반도비핵화선언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응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선언을 하는 등 핵무기개발 가능성이 명확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개발을 통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아울러 대남 대미전선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갖고 국제관계를 풀어가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외무부장관계 묻습니다.

먼저 북한 핵개발에 대응해서 한·미간의 공조체제가 원활하고 이견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비추어진 것으로 보면 미국은 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표명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보다 유화적이고 온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계서는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남북한문제이기도 하지만 명확히 기본적으로 국제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국제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와 핵무기 개발 저지수단을 쓰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장관계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하여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국제기구나 국제사회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남북한간의 관계를 통해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시고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해설〉

1) 저지키 위해서 :

저지하기 위해서 :

2) 이견이 :

의견 :

3) 문제이기도 :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의하면 외무부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협상으로써 남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확대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의 축소 등 5개항의 반대급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관께서 제기한 이 내용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며 국제사회와의 협의결과에 의한 것인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북의 핵문제는 민족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만큼 확고한 원칙을 갖고 북한을 채찍과 당근으로 설득하는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NPT 탈퇴와 유사한 시간지연책을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핵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 우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국 핵우산 속에서 계속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그밖의 적절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구체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공화국의 치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북방정책을 새 정부는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

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6공화국에서 추진해 왔던 북방정책은 한·소 수교 및 한·중수교를 이룩해 냄으로써 그 결과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점은 북방정책의 성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하게 가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한 나머지 경제적 낭비가 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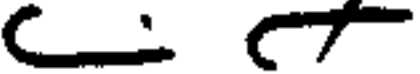
이제 북방정책도 내실화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새 정부에서는 북방정책 내실화 작업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는 내부변화 못지 않게 안보정책에 있어서나 통일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안보정책은 통일지향적으로 수립하되 통일정책은 반드시 안보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된 시각에서 우리의 정책의지와 능력을 펼쳐가며 그 시각도 과거 북한에 국한시켰던 폭좁은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이제는 동

<응용해설>

- 1) 워싱턴 포스트지 : 
- 2) 팀스피리트 : 
- 3) 둘러싸고 있는 : 
- 4) 복안(腹案) :  ...속 생각
- 5) 갖고 계신지 : 

| | |
|--|---|
| <p>북아 또는 전세계에 그 범위를 넓혀가고 21세기
의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자세로써 외교·안보
·통일정책을 <u>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u>
리면서 본의원의 <u>대정부질문</u>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p> <p>감사합니다.</p> <p>○ <u>부의장 황낙주</u> 정부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
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p> <p>그러면 <u>정회를 선포합니다.</u></p> <p style="text-align: right;">(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p> | <p>○ <u>의장 이만섭</u>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p> <p>회의를 속개합니다.</p> <p>국무총리 먼저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u>국무총리 황인성</u>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p> <p>오전에 질문하신 이우정의원, 김중위의원, 나병
선의원, 하순봉의원, 조순환의원, 김동근의원, 여
섯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p> |
|--|---|

〈응용해설〉

- 1)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
- 2) 대정부질문 : ...본회의용어로는 「질문」, 위원회용어로는 「질의」를 쓴다.
- 3) ○부의장 황낙주 } : 〈부록 회의록 작성법〉 참조
○의장 이만섭 }
- 4) 정회를 선포합니다 :
- 5) 회의중지, 계속개의 : 〈부록 회의록 작성법〉 참조



제 6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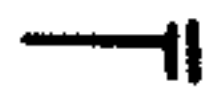
사자성구 및 회의용어약기

사자성구 약기법은 우리말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자성구를 약자화 하는데 하나의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암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회의용어 약기법은 속기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용어를 취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요령까지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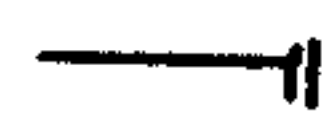
1. 사자성구(四字成句)

1-1. 첩어형...앞 두 자가 겹쳐 나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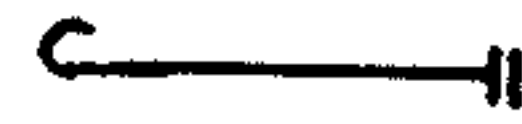
가가호호
家家戶戶



구구절절
句句節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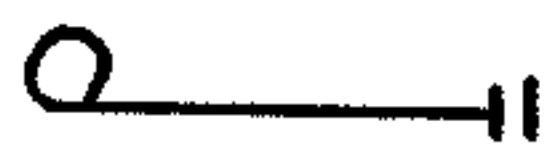
기기묘묘
奇奇妙妙



경경열열
哽哽咽咽



궁궁업업
兢兢業業



대대손손
代代孫孫



뛰뛰뽕뽕
뛰뛰뽕뽕



만만세세
萬萬歲歲



명명백백
明明白白



방방곡곡
坊坊曲曲



사사건건
事事件件



시시비비
是是非非



삼삼오오
三三五五



유유낙낙
唯唯諾諾



연년세세
年年歲歲



울울창창
鬱鬱蒼蒼



자자손손
子子孫孫



전전궁궁
戰戰兢兢



정정당당
正正堂堂



層層겹겹
層層結結



허허실실
虛虛實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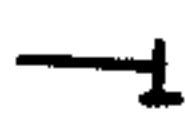
희희낙락
喜喜樂樂



형형색색
形形色色



가가대소
呵呵大笑



낙락장송
落落長松



남남북녀
南南北女



다다익선
多多益善



묵묵부답
默默不答



망망대해
茫茫大海



수수방관
袖手傍觀



섬섬옥수
纖纖玉手



승승장구
乘勝長驅



유유자적
悠悠自適



전전반측
輾轉反側



침침산중
疊疊山中



탄탄대로
坦坦大路



호호백발
皓皓白髮



헐헐단신
孑孑單身



1-2. 앞 뒤 말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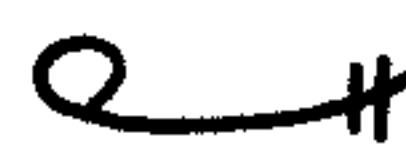
갈팡질팡
갈팡질팡



난형난제
難兄難弟



능수능란
能手能爛



대자대비
大慈大悲



매점매석
買占賣惜



무궁무진
無窮無盡



막상막하
莫上莫下



비일비재
非一非再



반신반의
半信半疑



불요불굴
不撓不屈



백발백중
百發百中



사시사철
四時四節



상부상조
相扶相助



설왕설래
說往說來






















오손도손
오손도손











우왕좌왕
右往左往



| | | | |
|---|---|---|---|
| 이심전심
以心傳心 | 요산요수
樂山樂水 | 애국애족
愛國愛族 | 옥신각신
玉歆各歆 |
|  |  |  |  |
| 원리원칙
原理原則 | 연전연승
連戰連勝 | 알쏭달쏭
알쏭달쏭 | 얼룩덜룩
얼룩덜룩 |
|  |  |  |  |
| 왈가왈부
曰可曰否 | 일희일비
一喜一悲 | 자급자족
自給自足 | 자화자찬
自畫自讚 |
|  |  |  |  |
| 전술전기
戰術戰技 | 전지전능
全知全能 | 진선진미
盡善盡美 | 중언부언
重言復言 |
|  |  |  |  |
| 치산치수
治山治水 | 철두철미
徹頭徹尾 | 티격태격
티격태격 | |
|  |  |  | |

참고 : 중간에 조사가 나올 때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 | | |
|---|---|---|---|
| 공리공론
空理空論 | 공리와 공론
공리와 공론 | 당리당략
黨利黨略 | 당리와 당략
당리와 당략 |
|  |  |  |  |
| 부정부패
不正腐敗 | 부정 및 부패
부정 및 부패 | 사리사욕
私利私慾 | 사리와 사욕
사리와 사욕 |
|  |  |  |  |

1-3. 중간생략형...중간에 조사가 끼어들 소지가 거의 없는 단어에 적용, 암기해야 하는 것이 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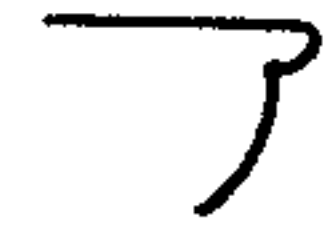
기진맥진
氣盡脈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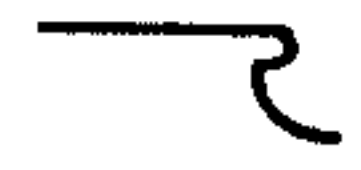
계급투쟁
階級鬪爭



고속도로
高速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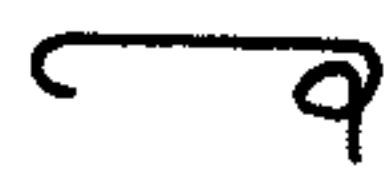
고속버스
高速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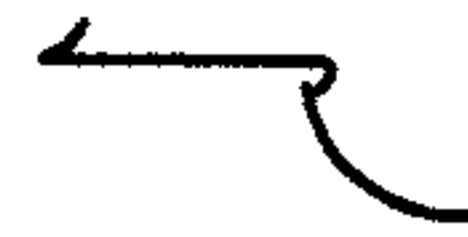
고속전철
高速電鐵



과잉충성
過剩忠誠



국리민복
國利民福



긴장상태
緊張狀態



공명정대
公明正大



대동소이
大同小異



대의명분
大義名分



명약관화
明若觀火



물심양면
物心兩面



백절불굴
百折不屈



복잡다난
複雜多難



복잡다단
複雜多端



불철주야
不撤晝夜



사고방식
思考方式



쑥덕공론
쑥덕空論



순국선열
殉國先烈



신상필벌
信賞必罰



아전인수
我田引水



어불성설
語不成說



우여곡절
迂餘曲折



우유부단
優柔不斷



유비무환
有備無患




























유효적절
有效適切



의정단상
議政壇上



| | | | |
|---|--|---|---|
| 의정사상
議政史上 | 애매모호
曖昧模糊 | 영망진창
영망진창 | 연구검토
研究檢討 |
|  |  |  |  |
| 용두사미
龍頭蛇尾 | 일벌백계
一罰百戒 | 일사천리
一瀉千里 | 일언반구
一言半句 |
|  |  |  |  |
| 일인일기
一人一技 | 일조일석
日朝一夕 | 자주국방
自主國防 | 조령모개
朝令暮改 |
|  |  |  |  |
| 조삼모사
朝三暮四 | 조세감면
租稅減免 | 지지부진
遲遲不進 | 전제조건
前提條件 |
|  |  |  |  |
| 총력안보
總力安保 | 침소봉대
針小棒大 | 허심탄회
虛心坦懷 | 호언장담
豪言壯談 |
|  |  |  |  |
| 호시탐탐
虎視眈眈 | 흑백논리
黑白論理 | 흑묘백묘
黑貓白貓 | 헌정사상
憲政史上 |
|  |  |  |  |
| 혼연일체
渾然一體 | | | |
|  | | | |

1-4. 뒤 두 자 생략형 ... 그 외의 사자성구에 적용한다. 암기한 약자가 생각나지 않거나 없을 때, 조사가 중간에 들어올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담보융자
擔保融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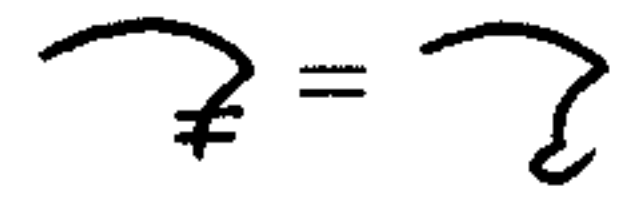
동족상잔
同族相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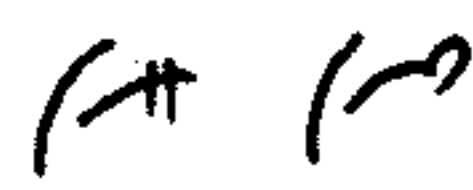
동족상쟁
同族相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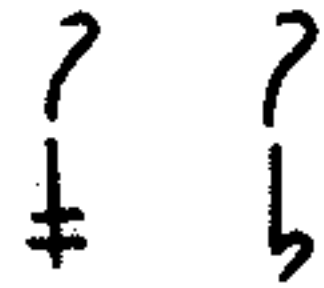
무사안일
無事安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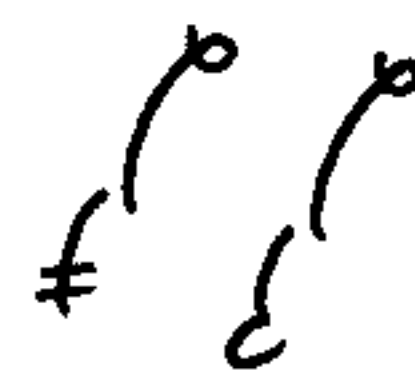
서정쇄신
庶政刷新



세입세출
歲入歲出



솔선수범
率先垂範



심기일전
心機一轉



외자도입
外資導入



안전보장
安全保障



인권유린
人權蹂躪



인권옹호
人權擁護



질서유지
秩序維持



증거인멸
證據湮滅



예> 약자가 생각나지 않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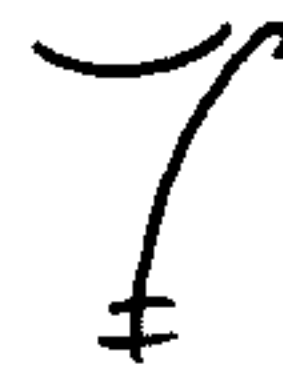
기조연설
基調演說



공명정대
公明正大



노심초사
勞心焦思



시종일관
始終一貫



삼척동자
三尺童子



유사이래
有史以來



일로매진
一路邁進



일석이조
一石二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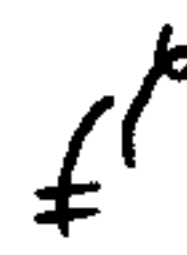
허무맹랑
虛無孟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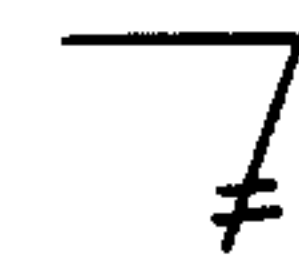
자포자기
自暴自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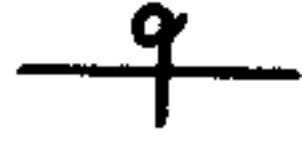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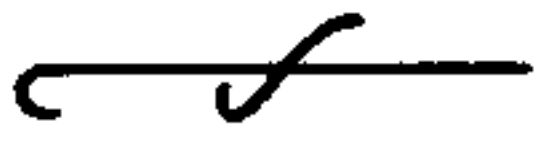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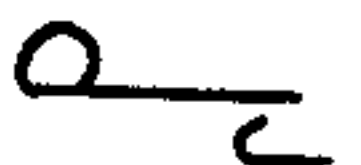









설상가상
雪上加霜




고도성장
高度成長



1-5. 기타 ... 아무런 규칙은 없지만 실용에 좋은 약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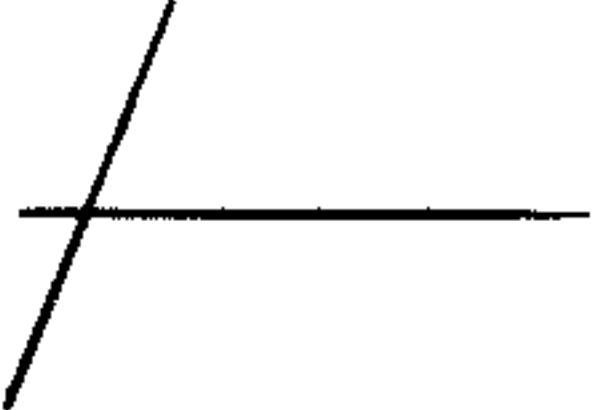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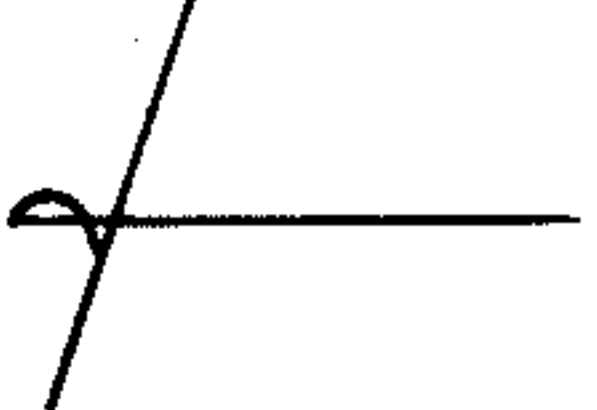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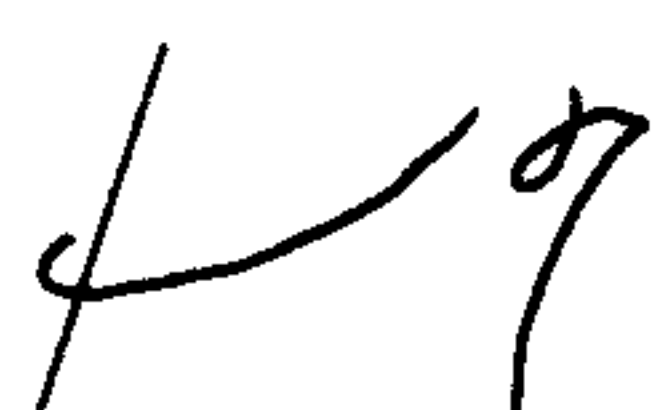


| | | | |
|---|---|---|---|
| 구사일생
九死一生 | 귀속재산
歸屬財產 | 공명선거
公明選舉 | 부정선거
不正選舉 |
|  |  |  |  |
| 이구동성
異口同聲 | 완전무결
完全無缺 | 주먹구구
주먹九九 | 주민등록
住民登錄 |
|  |  |  |  |
| 국력배양
國力培養 | 내자동원
內資動員 | 내자조달
內資調達 | 호지부지
호지부지 |
|  |  |  |  |


2. 회의용어약기

2-1. 말씀~ 

| | | | |
|---|---|---|---|
| ~해 주십사 | ~하셨습니다 | ~이더군요 | ~이 계셨습니다 |
|  |  |  |  |

2-2. 대단히~ 

| | | | |
|---|--|---|---|
|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유감입니다 | ~죄송합니다 |
|  |  |  |  |
| ~유감스럽습니다 | ~죄송스럽습니다 |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
|  |  |  | |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
|  |  |  | |
| 유감천만입니다 | | | |
|  | | | |

2-3. 바쁘신 중에~ 

~와 주셔서



~와 주십사 해서



2-4. 회의용어(1)

의사일정



議事日程 第3項



의사일정변경



보충질문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제안이유



보충설명



심사보고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방해



의사진행발언신청



자구수정



자구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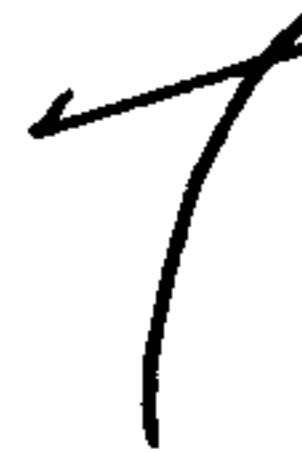
대체토론



난상토론



축조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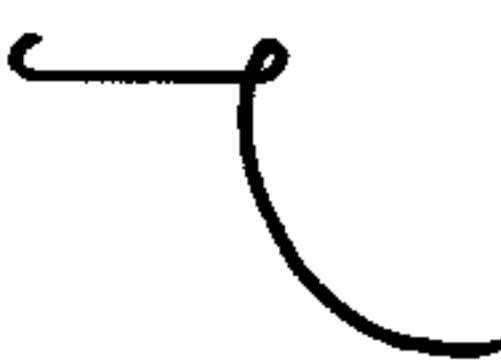
수정안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안심의



긴급동의



다수결



거수표결



과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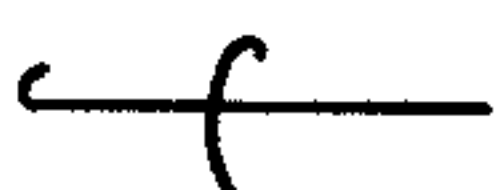
가부동수



기립표결



기명식투표



무기명투표



무기명비밀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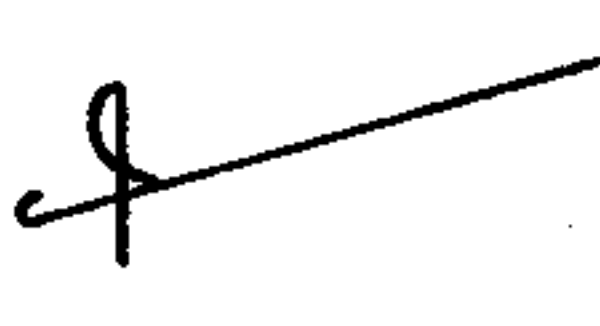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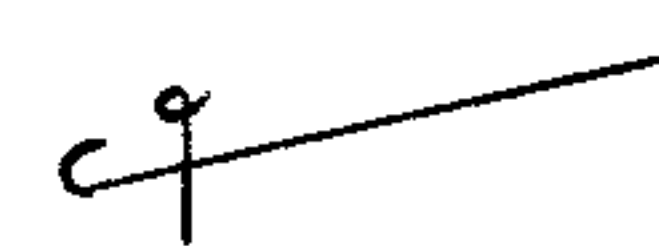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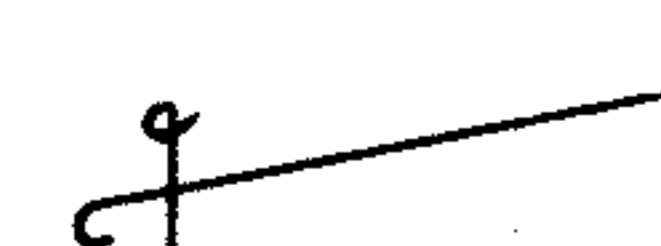




경과보고



| | | | |
|---|---|---|---|
| 제1호의안 | ~건을 상정합니다 | 이의없습니까? | 이의없으십니까? |
|  |  |  |  |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  |  | | |
| 제안 | 제의 | 제기 | 제출 |
|  |  |  |  |
| 낭독 | 개정법률 | ~중개정법률(이어쓰기) | |
|  |  |  | |
| ~에 관한 법률 | 원내투쟁 | 원외투쟁 | 원내외투쟁 |
|  |  |  |  |
| 장외투쟁 | 원내총무 | 대정부질문 | |
|  |  |  | |

2-5. 회의용어(2)

| | | | |
|---|--|---|---|
| 가결 | 부결 | 표결 | 결렬 |
|  |  |  |  |
| 임시총회 | 정기총회 | 임시주주총회 | 정기주주총회 |
|  |  |  |  |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불신임 | 불신임결의안 |
|  |  |  |  |

만장일치



만장일치 승인



원안대로 승인



만장일치 가결



이의없이 통과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



만장일치 통과



원안대로 통과



만장일치 채택



원안대로 가결




2-6. ~선포합니다

가결된 것을 ~



가결되었음을~



2-7. 상황묘사   ... 번문시에는 두 칸을 들여 쓴다.

(박수)



(박수 많음)



(만장의 박수)



(일동박수)



(웃음소리)



(웃음 많음)



(만장의 웃음)



(폭소)



(폭소, 박수)



(장내소란)



(의사봉 3타)

참고 : 속기록에서의 상황묘사는 매우 중요하다. 회의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회에서는 주로 총리급의 회빈의 연설 등에는 (박수), 국가원수급의 입장과 퇴장시에 (일동기립박수)를 기록한다.

(의사봉 3타)는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하여 국회나 대부분의 의회에서 기록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기록하는 등 약간씩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또 (일동기립), (일동착석), (일동묵년), (애국가제창) 등 속기록에는 기재가 되나 실제적으로 속기록 수 없는 경우의 상황묘사가 있다. 왜냐하면 속기사도 국면의례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처리방법은 부록편에 실려 있다.

2-8. 의석발언

2-8-1. ~하는 이 있음 ... 변문시에는 두 칸을 들여 쓴다.

(「의장!」~)

①

(「재청합니다」~)

2

(「삼청합니다」~)

3

(「재청이오」~)

2

(「삼청이오」~)

3

(「웁소!」~)

①

(「이의없습니다」~)

└

(「의의가 없습니다」~)

└

(「의의 있습니다」~)

└

2-8-2. ~하는 이 많음

(「의장!」~)

①

(「재청합니다」~)

2

(「이의없습니다」~)

└

참고 : 회의장에서 누군가 발언을 얻기 위하여 「의장」하고 많을 하면 속기록에는 줄을 바꾸어 “ (「의장!」하는 이 있음)”으로 표기한다. 여기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의원」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로 바꾸는 등 회의 구성원의 명칭에 맞게 바꾸어 주면 된다.

2-9. 발언자 구분

2-9-1. 발단부(말을 시작할 때 표시)

○의장 최다선 의사일정 제1항...

○신정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고단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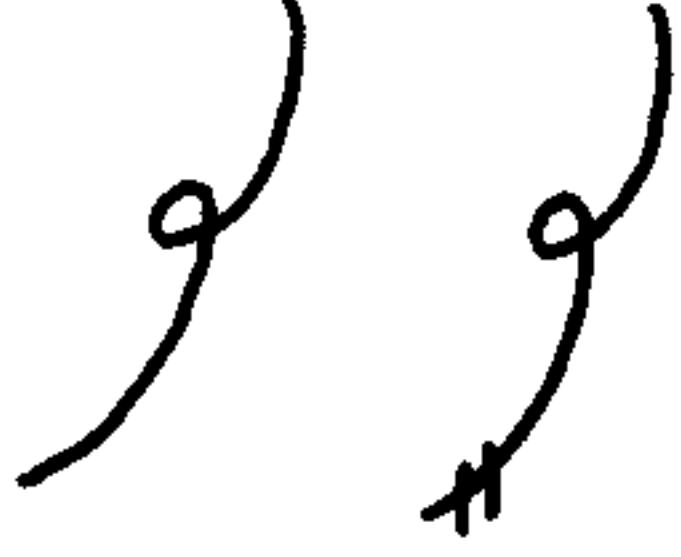
☑☑(○현실정의원 걸어나오면서 - 의장!)

☑☑(○정치란의원 등단하면서 - 제대로 해요.)

☑☑(○진정해의원 하단하면서 - 진정들 하세요.)

참고 : 발언자의 표기는 매우 중요하다. 평소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실무상에서 는 속기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이다. “쓰기도 바쁜데 언제 발언자 구분은...” 하고 생각하면 안된다. 발언자 구분을 하기도 전에 발언이 시작되면 일단 속기하면서 틈을 보아 발언자의 이름을 적어야 할 것이다. 미리 좌석배치도를 작성하고 숫자 등으로 약기를 하여 두었다면 더 편리하게 발언자를 구분할 수 있다. 발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요한 발언은 속기하되 괄호 속에 넣어준다.

2-9-2. 종결부(완전히 속기를 마쳤을 때) ...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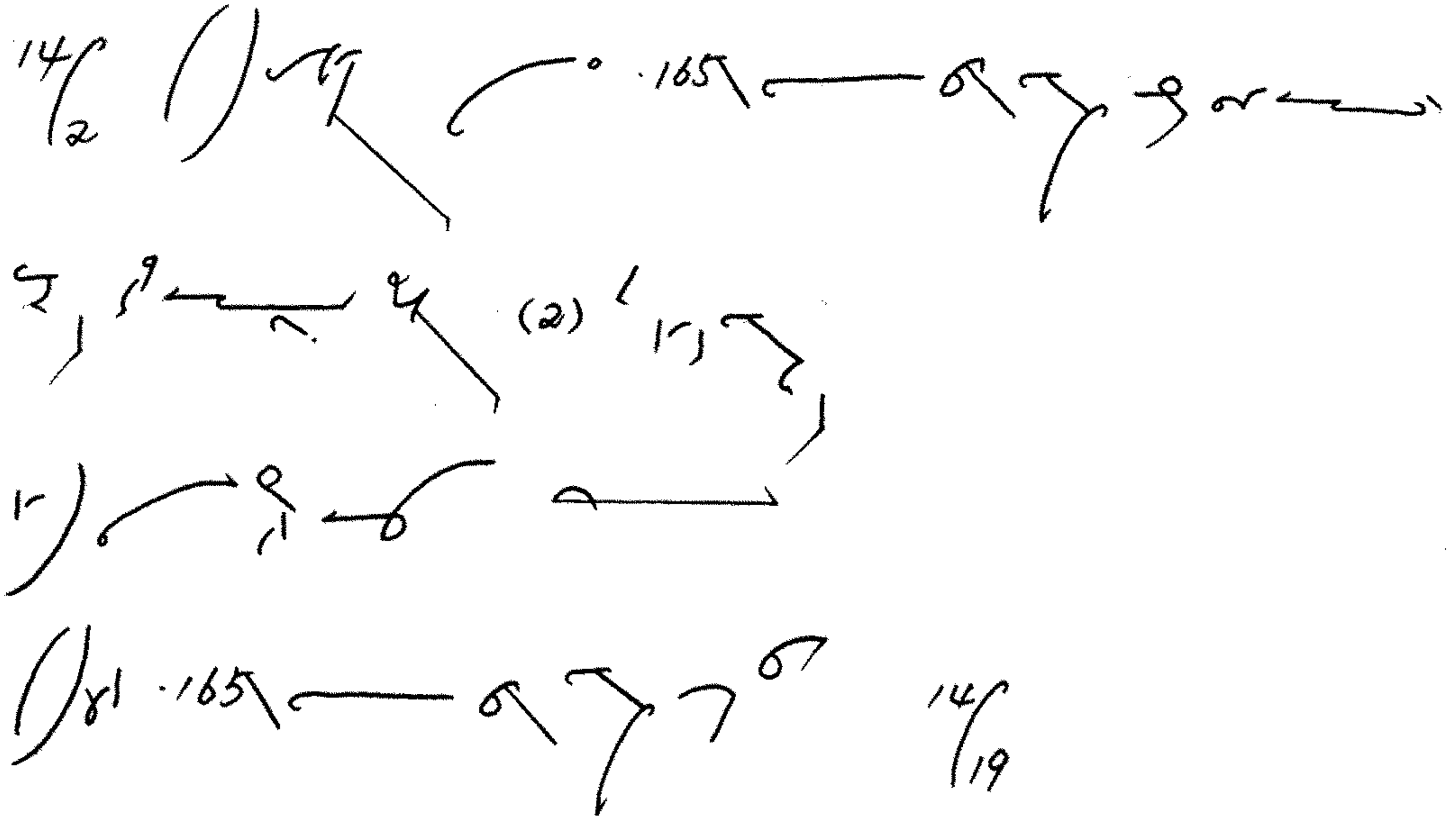
참고 : 본 장에서 다루는 회의용어약기 관련하여 의회에서 회의록작성법을 부록으로 구성하여 놓았다. 회의록 작성법을 알면 굳이 속기문자로 상형을 표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번문해 낼 수 있는 요령을 깨우치게 된다. 회의용어약기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은 부록에서 다룬다.

속기를 하는 목적이 속기책을 만드는 데 있는 이상 회의록작성법을 알지 못하면 속기사로서의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참고와 연습이 있기를 바란다.

시간의 기제

| | |
|--|---|
| <p>제165회국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민국국회사무처</p> | |
| <p>1993년 9월 10일 (금) 오후2시 개식</p> | |
| <p>제165회국회(정기회) 개회식순</p> <p>1. 개 식</p> <p>1. 국기에대한경례</p> <p>1. 애국가제창</p> <p>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p> <p>1. 개 회 식</p> <p>1. 폐 식</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섭외국장 : 정부영)</p> | |
| <p style="text-align: right;">(14시02분 개식)☑</p> <p>○ 섭외국장 정부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지금부터 제165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p> <p>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습니다.</p> <p>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p> <p>☑☑(일동기립)</p> <p>☑☑(국기에대한경례)</p> <p>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애국가제창)</p> | <p>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습니다.</p> <p>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일동묵념)</p> <p>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p> <p>☑☑(일동착석)</p> <p>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p> <p>○ 의장 이만섭 존경하는 황인성 국무총리!</p> <p style="text-align: center;">---- (중략) ----</p> <p>감사합니다.</p> <p>○ 섭외국장 정부영 이상으로 제 165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4시19분 폐식)☑</p> |

<속기노트>...속기사는 ① 그날의 의사일정과 식순 및 진행안, 사회자, 의장의 이름을 알고 있으므로 약기해도 속기록 작성에 문제가 없다. ② 국민의례시 일어서 있는 상태이며 현장에서의 속기문자란 있을 수 없다. 착석한 이후에 다시 기록한다. 따라서 상황을 알면 쓰지 않고도 번문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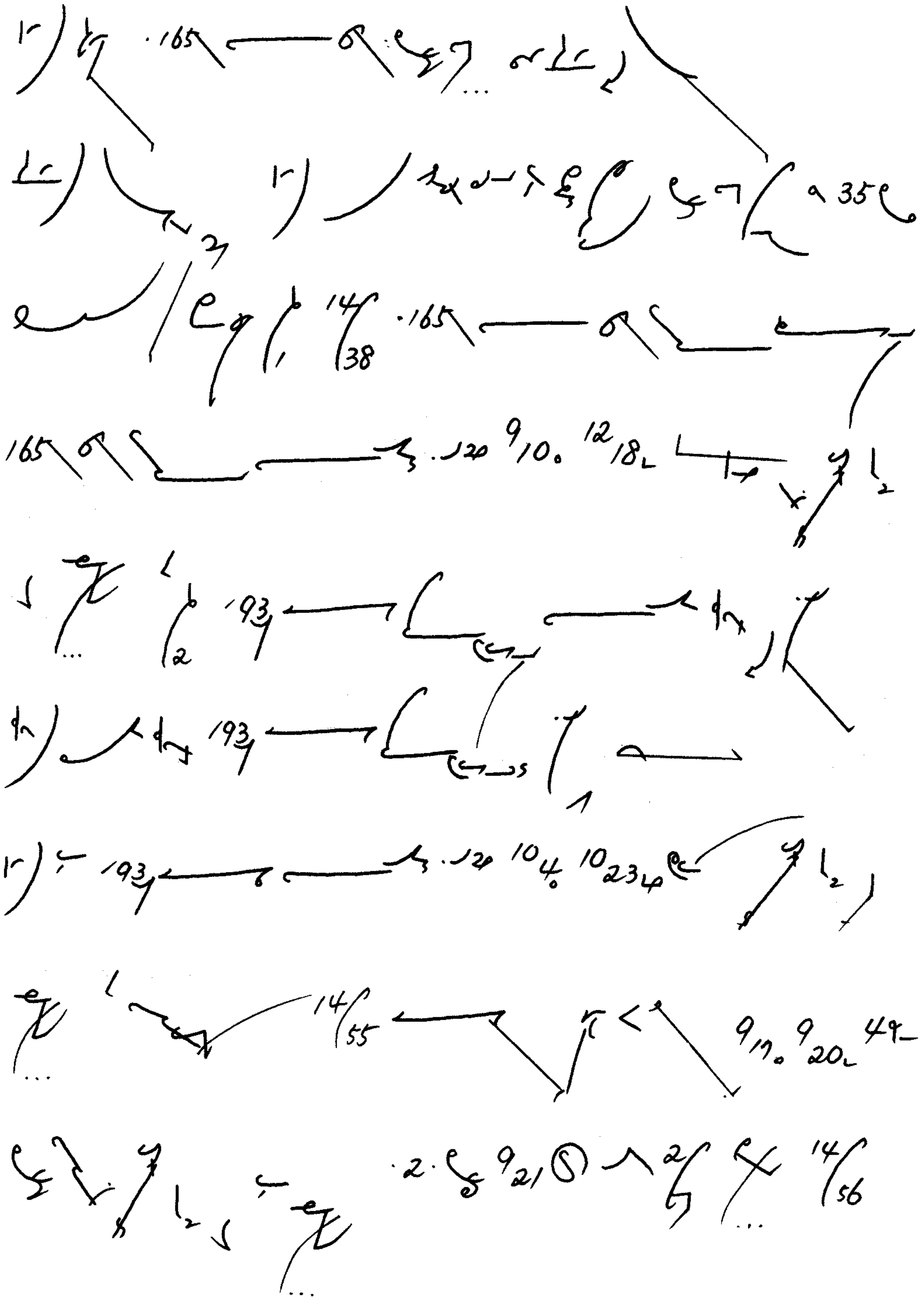


시간외 기재

(제165회-제1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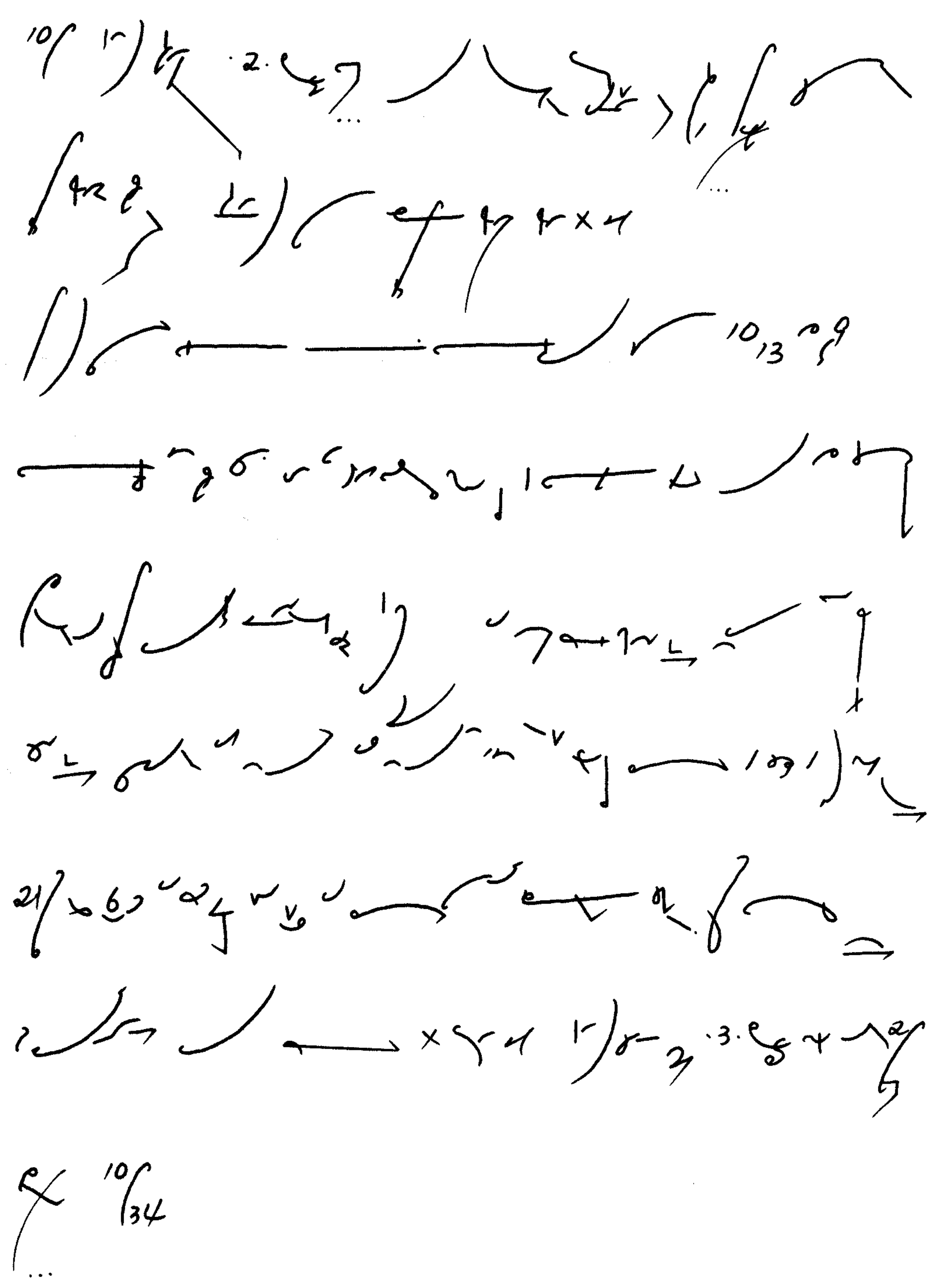
| | |
|--|--|
| <p style="text-align: right;">(14시34분 개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 의장 이만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의사국장 강천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 의장 이만섭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시간보다 한 35분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p> | <p>국회운영위원회 이원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p>○ 이원형의원 운영위원회 이원형의원입니다.
1993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략) ----</p> <p>감사합니다.</p> <p>○ 의장 이만섭 그러면 199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4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제165회국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국회운영위원장 김영구 제출)</p> <p style="text-align: right;">(14시38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국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65회 정기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휴회의건(의장제의)</p> <p style="text-align: right;">(14시55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 의장 이만섭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작성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17일부터 9월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4시56분 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p>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2. 1993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국회운영위원장 김영구 제출)</p> <p>○ 의장 이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p> | <p>○ 출석의원수 273인</p> |

<속기노트>...회의시작(개의)과 산회시간을 기록하고 의사일정이 바뀌면 시간을 기록한다.
 시간은 24시간제로 표기하고 1분 미만인 때는 표시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right;">(10시 개의)☑</p> <p>○ 의장 이만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p> | <p>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더 멀리 더 크게 내다봅시다.
21세기는 바로 6년 앞에,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우리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새역사를 창조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p>☑1. 대통령연설</p> <p>○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셔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p> <p>○ 의사국장 강천구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p> <p>☑☑(대통령 입장)
☑☑(일동기립·박수)
☑☑(일동착석)</p> <p>○ 대통령 김영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 10월13일, 저는 9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마치고, 제 정치역정의 애환이 배어 있는 이 국회의사당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해온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략) ----</p> <p>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마침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집시다.</p> | <p>☑☑(일동기립·박수)
☑☑(대통령 퇴장)
☑☑(일동착석)</p> <p>○ 의장 이만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0시34분 산회)☑</p> | | | | | | | | | | | | | | | | | | | | |
| | <p>○ 출석의원수 278인</p> <p>○ 출석국무총리및국무위원</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국 무 총 리</td> <td style="width: 10%;">황</td> <td style="width: 10%;">인</td> <td style="width: 10%;">성</td> </tr> <tr> <td>부 총 리 겸</td> <td></td> <td>이</td> <td>경 식</td> </tr> <tr> <td>경제기획원장관</td> <td></td> <td></td> <td></td> </tr> <tr> <td>부 총 리 겸</td> <td>한</td> <td>완</td> <td>상</td> </tr> <tr> <td>통 일 원 장 관</td> <td></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하략) ----</p> | 국 무 총 리 | 황 | 인 | 성 | 부 총 리 겸 | | 이 | 경 식 | 경제기획원장관 | | | | 부 총 리 겸 | 한 | 완 | 상 | 통 일 원 장 관 | | | |
| 국 무 총 리 | 황 | 인 | 성 | | | | | | | | | | | | | | | | | | |
| 부 총 리 겸 | | 이 | 경 식 | | | | | | | | | | | | | | | | | | |
| 경제기획원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부 총 리 겸 | 한 | 완 | 상 | | | | | | | | | | | | | | | | | | |
| 통 일 원 장 관 | | | | | | | | | | | | | | | | | | | | | |

<속기노트>...국가원수급 귀빈의 입장과 퇴장시에는 기립박수하는 것이 의전관례이다.



10/34

보고사항

| | |
|--|--|
| <p>(14時05分 開議)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議長 朴浚圭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어제 밤에는夜深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일을 모두 참았습니다마는 國政이 하루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議事進行에 協調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成員이 되었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第7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먼저 議事局長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p> <p>○議事局長 姜天求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議長 朴浚圭 開院初에 오늘의 議事日程이 미리 與野 合意下에 運營委員會에서 決定이 된 事項이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하락) ----</p> |
|--|--|

<속기노트>...보고사항은 번문하지 않고 유인물 그대로 회의록의 말미에 실는다.

Handwritten notes in Korean script, likely a transcription of the meeting minutes or a summary of the report.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and includes various symbols and characters, possibly representing the original handwritten notes or a specific shorthand used in the meeting.

정회

| | |
|---|--|
| <p>○ 副議長 金在光 세 분 議員의 質問이 끝났습니
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음은 政府側 答辯順序입니다마는 答辯은 停
會를 했다가 午後會議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러면 午後 2時에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
布합니다.</p> | <p>(11時35分 會議中止)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時05分 繼續開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副議長 趙尹衡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
開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午前에 質問하신 세 분 議員의 質問에 行政...
 **주의!! 「停會」라고 표기 하지 않음</p> |
|---|--|

<속기노트>...정회는 「회의중지」로, 속개는 「계속개의」로 시간과 같이 표기한다.

The image shows handwritten shorthand notes for '정회' (meeting suspension) and '속개' (meeting continuation). The notes use various symbols, numbers, and arrows to represent the text in the table above. For example, '정회' is represented by a large '3' with a checkmark and a curved line, and '속개' is represented by a large '14' with a checkmark and a curved line.

사회자 교대

| | |
|---|---|
| <p>...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趙尹衡副議長, 朴浚圭議長과 司會交代)</p> | <p>世界는 지금 東·西 對立關係에서 이룬바...
 --- (하락) ---</p> |
|---|---|

<속기노트>...사회자가 교대되면 기록한다.

The image shows handwritten shorthand notes for '사회자 교대' (socialist exchange). It uses a large '14' with a checkmark and a curved line, followed by a horizontal line and another large '14' with a checkmark and a curved line, indicating the exchange of the socialists.

의석발언

| | |
|--|---|
| <p>…改正規則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있으십니까?</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異議 있어요」하는 議員 있음)</p> |
|--|---|

<속기노트>...의석에서 한 발언을 기재할 때는 (「...」하는 의원 많(있)음)으로 표기한다.

Handwritten shorthand for the above example: "의석에서 한 발언을 기재할 때는 (「...」하는 의원 많(있)음)으로 표기한다." The shorthand uses symbols like '의', '석', '에서', '한', '발언을', '기재할', '때는', '「...」', '하는', '의원', '많(있)', '음' with arrows pointing to the corresponding parts of the text above.

장내소란

| | |
|--|---|
| <p>○議長 朴浚圭 조용히 해 주세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金泳鎮議員 단하에서-지금 進行해 주세요. 答辯書 다 가져 왔어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蔡映錫議員 의석에서 - 民主議長의 權威를 回復을 하세요.)</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내소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金泳鎮議員 발언대에서-靑瓦臺 文書 봐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내소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協議를 해 보세요.</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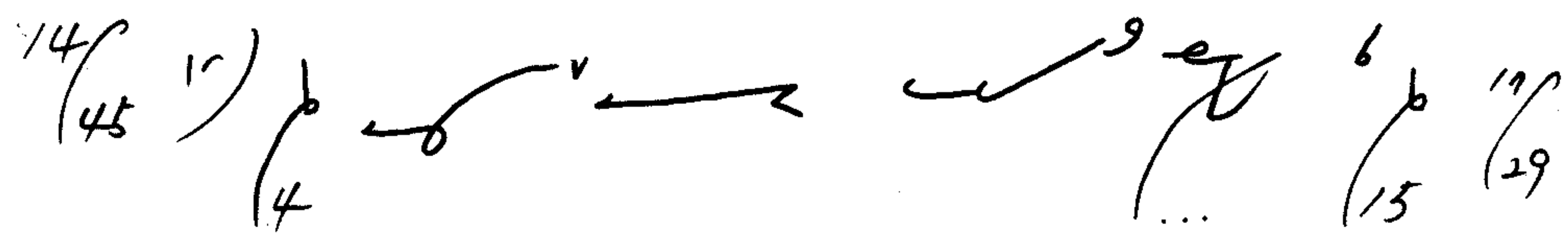
<속기노트>...장내가 여러 사람의 말로 소란할 때는 (장내소란)으로 표기하고 회의 진행과 관련있는 발언은 기록한다.

Handwritten shorthand for the above example: "장내가 여러 사람의 말로 소란할 때는 (장내소란)으로 표기하고 회의 진행과 관련있는 발언은 기록한다." The shorthand uses symbols like '장내', '소란', '여러', '사람의', '말로', '소란할', '때는', '(장내소란)', '회의', '진행', '과', '관련', '있는', '발언은', '기록', '한다' with arrows pointing to the corresponding parts of the text above.

의사일정 타이틀

| | |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5. 國務總理및國務委員出席要求의件(5件)
 (金東英議員 金令培議員外 285人·285人·285人·285人·285人 提出)
 (14時45分)<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議長 朴浚圭 議事日程 第4項 國務總理및國務委員...</p> | <p>...規則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 在日韓國人後孫에 대한 法的地位保障 促求 決議案(外務統一委員長 金顯煜 提出)
 (17時29分)<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議長 金在淳 다음에는 議事日程 第15項...
 ---- (하락) ----</p> |
|---|---|

<속기노트> ...번문시 발언을 기록하기 전에 의사일정 타이틀과 제안·제출자를 표기한다.



무기명 비밀투표

| | |
|--|---|
| <p>…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다음은 常任委員長選舉가 되겠습니다마는 準備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 <p>니다.</p> <p>○ 議事局長 姜天求 投票方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p>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4. 常任委員長(文教體育·文化公報)選舉 (15時01分)<input checked="" type="checkbox"/></p> <p>○ 副議長 金在光 議事日程 第2項 常任委員長選舉를 上程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이 案件은 國會法이 改正됨에 따라 文教公報委員會가 文教體育委員會와 文化公報委員會로 分離 新設됨에 따라 新設된 兩 委員會 委員長을 選出하기 위한 것입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常任委員長選舉는 國會法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해서 無記名投票로 實施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이번 投票는 한 장의 投票用紙에 두 分의 委員長을 選出하는 連記名式投票로 實施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그러면 監票委員을 指名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金炳龍議員, 李康熙議員, 李仁濟議員, 李澤錫議員, 辛卿植議員, 朴泰權議員, 姜金植議員, 金忠兆議員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指名되신 監票委員께서는 監票委員席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投票에 대해서 議事局長으로부터 投票方式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投票로 들어가겠습니다.</p> | <p>이번 投票도 전과 마찬가지로 中央通路를 중심으로 해서 左右 양쪽에서 實施하게 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投票方法은 한 장의 投票用紙에 두 分의 委員長을 同時에 選出하게 되는 連記名式投票로 實施하게 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委員長은 當該委員會 所屬委員中에서 選出하게 되므로 當該委員會 所屬委員 이외의 議員姓名을 記載하시거나 委員長으로 選出하고자 하는 議員의 姓名을 잘못 記載한 投票는 無效로 處理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따라서 文教體育委員長은 文教體育委員會 所屬委員中에서 文化公報委員長은 文化公報委員會 所屬委員中에서 委員長으로 選出하실 議員의 姓名을 投票用紙 記名欄에 한글이나 漢字로 記載하시면 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呼名을 시작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5時04分 投票開始)<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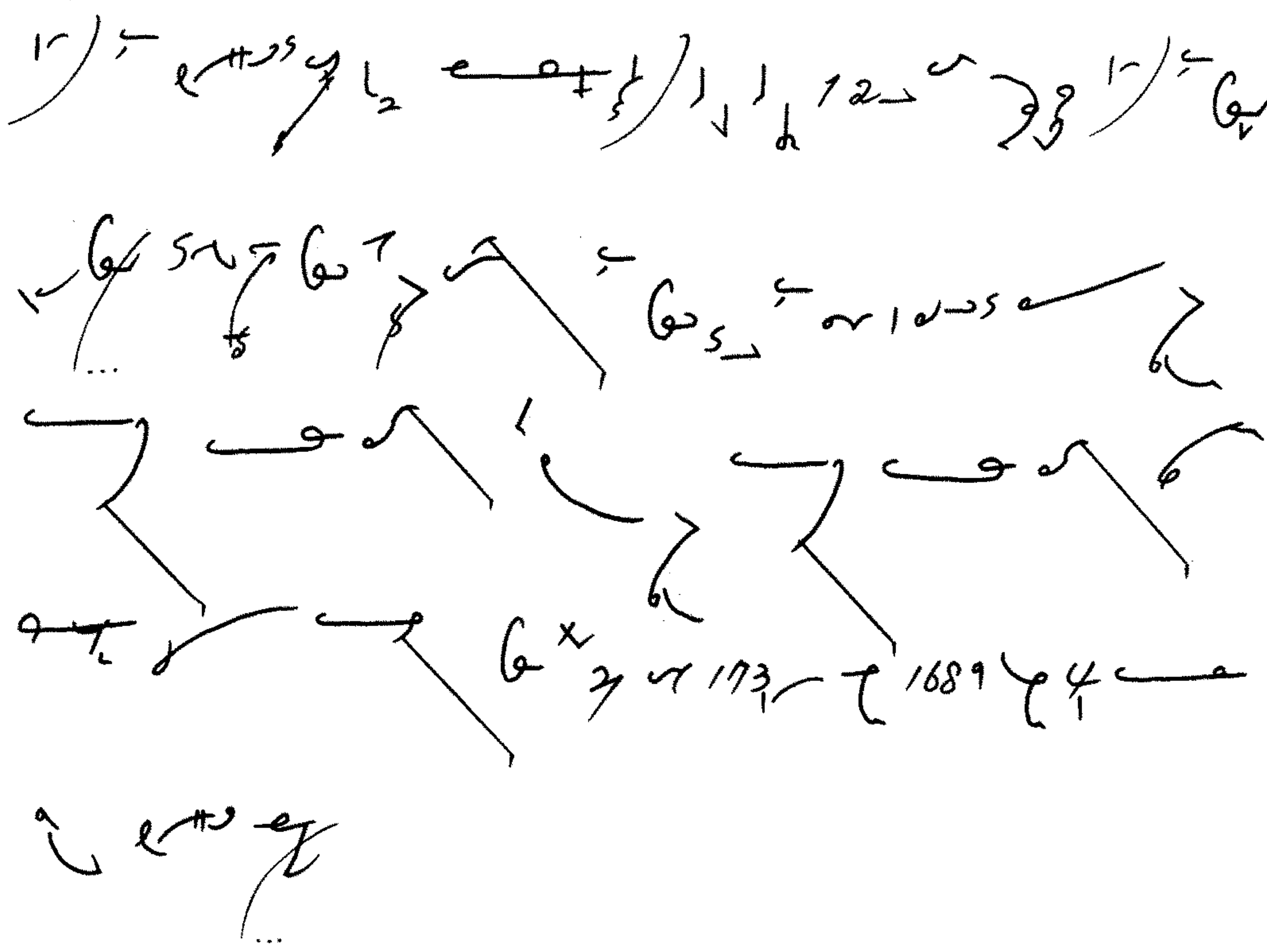
무기명 비밀투표

| | |
|--|---|
| <p style="text-align: right;">(15時24分 投票終了)☑</p> <p>○ 副議長 金在光 投票를 다 마치셨으면 開票에 들어 가겠습니다.</p> <p>☑☑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실질적인 폐함이므로 기재함</p> <p>☑ 먼저 名牌函을 열겠습니다.</p> <p>☑☑ (명패함 개함)</p> <p>☑☑ (명패수 점검)</p> <p>☑ 名牌數를 計算한바 268枚입니다.</p> <p>☑ 다음은 投票函을 열겠습니다.</p> <p>☑☑ (투표함 개함)</p> <p>☑☑ (투표수 점검)</p> <p>☑☑ (金在光副議長, 趙尹衡副議長과 司會交代)</p> <p>○ 副議長 趙尹衡 投票數가 268枚로써 名牌數와 똑같습니다.</p> <p>投票結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p> <p>☑☑ (개 표)</p> | <p>☑ 會議場 밖에 계신 議員들께서는 곧 開票 結果를 發表하기 때문에 會議場으로 入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p>☑ 먼저 文教體育委員長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 總 投票數 268枚中 金元基議員 223票, 李 哲議員 4票, 劉基天議員 3票, 朴錫武議員 2票, 金東英議員 1票, 朴寬容議員 1票, 李相玉議員 1票, 崔 薰議員 1票, 棄權 12票, 無效 20票로써 國會法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서 金元基議員이 文教體育委員長으로 當選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p> <p>☑ 다음은 文化公報委員長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 總 投票數 268枚中 李敏燮議員 255票, 金載九議員 2票, 金仁甲議員 3票, 棄權 3票, 無效 5票로써 國會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李敏燮議員이 文化公報委員長으로 當選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
|--|---|

기립표결

| | |
|--|--|
| <p>○議長 金在淳 그러면 **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p> <p>☑☑(○金光一議員 의석에서-異議 있습니다. 異議 있는 것은 딱 두 件입니다. 우리가 討論은 생략합니다.)</p> <p>☑그러면 表決을 하도록 하지요. 表決을 宣布합니다.</p> <p>☑會議場 밖에 계신 議員께서는 表決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坐定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러면 表決에 들어 갑니다.</p> <p>☑그러면 먼저 이 案件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기립표결)</p> <p>☑앉아 주시기 바랍니다.</p> | <p>☑다음은 反對하시는 분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기립표결)</p> <p>☑앉아 주시기 바랍니다.</p> <p>☑集計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p>☑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在席 173人中 可票가 168人, 否票가 4人, 棄權한 분입니다.</p> <p>☑**法中改正法律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
| | <p>☑5.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代案) (文教公報委員長 鄭大哲)</p> <p style="text-align: right;">(15時44分)☑</p> |

<속기노트>



퇴장 상황

| | |
|---|--|
| <p>그래도 우리 黨은 이제 이에 구애되지 않고 憲特
 委를 통해 合意改憲에 全力投球하는 한편 內閣
 制 實施準備를 위한 弘報에 總力을 기울여 왔습
 니다.</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장내소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일부의원퇴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그러나 4·13斷案 바로 직전의...
 ---- (하락) ----</p> |
|---|--|

<속기노트>

Handwritten notes in shorthand script, including the date '4.13'.

장내소란

| | |
|---|--|
| <p>○ 副議長 趙尹衡 總理! 總理! 國務總理께서...
 가만히 계세요.
 ○ 國務總理 姜英勳 앞으로 具體的 非違事實이
 確認되어 措置가 이루어지면 그 結果가 國民에
 게 알려질 것입니다. 特命司正班의 解體問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特命班의 活動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장내소란)</p> | <p>○ 副議長 趙尹衡 總理! 總理!
 ○ 國務總理 姜英勳 年末까지 운영하기로...
 ○ 副議長 趙尹衡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기다
 리세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장내소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總理! 가만히 계세요.
 ---- (하락) ----</p> |
|---|--|

<속기노트>

Handwritten notes in shorthand script.

웃음

| | |
|---|--|
| <p>一國의 國會議員의 형님이 指紋이 없어질 정도로 農土를 지키며 정직한 民衆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兄弟도 선비의 志操를 지키며 落鄉한 李朝 中宗祖에 領議政을 지내신 慎守勤 어르신의</p> | <p>直系15代 後世로서의 자존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웃음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다음을 들어 보세요.
 ---- (하락) ----</p> |
|---|--|

〈속기노트〉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웃음' section, consisting of several lines of notes and rests, indicating a specific melody or rhythm.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 | |
|---|--|
| <p>...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停會를 宣布합니다.</p> | <p>(23時27分 會議中止) <input checked="" type="checkbox"/>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p> |
|---|--|

〈속기노트〉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section, showing notes and rests, likely representing the spoken words or a specific musical cue.

발언제한시간초과 (발언 못한 부분을 속기록에 실을 때)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의 冷戰的 思考의 급격한 變化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國民의 意識構造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統一에 대한 熱望도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 (중략)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오늘을 責任지고 있는 與野議員 여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앞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 副議長 金在光 다음은 ***所屬 정**... |

〈속기노트〉...점선 속의 내용은 나중에 편집되므로 속기의 대상이 아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 (발언 못한 부분을 실지 않을 때)

| | |
|--|--|
| ...民生을 위함일 것이고 國民 모두에게 꿈과 希望을 심어 주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내소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議長! 總理의 謝過와 注意를 촉구하세요」하는 議員 있음)
○ 議長 朴浚圭 議事進行입니까? 또 議事進行하시려면 또 하세요. |
|--|--|

〈속기노트〉

유회

| | |
|--|--|
| <p>...제1차 본회의는 성원 미달로 인하여 유회를 선택
포함니다.</p> <p>(10時21分 流會)☑</p> | |
|--|--|

<속기노트>

1. 동방속기 10/21

■ 주주총회 속기록 ■

의회 속기록 작성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그 뜻을 유지한다.

(오전 10시 개회)

○진행(총무부장 고수익) :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세통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남기세 대표이사 사장께서 의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대표이사 남기세 사장 의장석에 등단)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다음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본인출석주주수는 33명으로써 그 소유주식수는 76만 3,896주이고 위임출석주주수는 16명으로써 그 소유주식수는 81만 7,616주입니다.

따라서 총 출석주식수가 158만 1,512주으로써 당사가 발행한 총주식수 237만 8,000주의 67%가 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총회성립선포가 있겠습니다.

<속기노트> ...회의 전에 의장과 진행자의 직책과 이름, 유인물의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1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의장 남기세 : 지금 총무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석주식수가 당사 발행 총주식수의 과반수에 달하므로 오늘의 총회가 상법 제368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총무부장 고수익) : 다음은 의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남기세 :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새로 모신 주주님도 계시고 해서 당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원 소개, 인사)

(주주 일동 박수)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사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주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략)----

끝으로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2월 28일

주식회사 세 통
대표이사 남 기 세

(주주 일동 박수)

<속기노트> ...의장인사말씀은 가급적 유인물대로 싣는다.

1) ... 368

2) ... 21

3) ...

4) ...

195228 ...

- 진행(총무부장 고수익) : 다음은 보고사항으로서 먼저 영업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주주 있음)
- 의장 남기세 : 예, 말씀하십시오.
- 주주 유인물 : 오늘 본주주가 주식회사 세통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맞이해서 첫번째로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총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영업보고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의장께서 인사말씀에서 상세히 언급이 계셨고 이미 우리 주주들에게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업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주주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주주 있음)
- 의장 남기세 : 예, 지금 영업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계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주주 많음)

〈속기노트〉 ...발언자의 파악 :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부무속기사가 발언이 끝난 뒤 직접 찾아가서 이슌을 적어오거나 미리 주처측 직원에게 그 책임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 이슌에 발언내용을 요약해 두면 쉽게 채워넣을 수 있다.

The image shows four lines of handwritten Korean text, which are shorthand notes. The first line starts with a circled '10'. The second line starts with '31'. The notes appear to be a summary or shorthand of the meeting transcript provided above.

그러면 상법 제4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총무부장 고수익) : 다음은 고대로 감사로부터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략)----

○진행(총무부장 고수익) : 다음은 회의목적사항인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호의안 :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장 남기세 : 그러면 제1호의안인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하는 주주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주주 함승인 : 지난 1년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기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니 94년도 매출액은 430억원으로 미미한 신장을 보였지만 11억원이라는 순이익을 냈다는 데 대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사실 우리 주주들의 관심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당금에 있습니다.

<속기노트>

Handwritten notes in Korean, including the number 4492 and various symbols and arrows, likely representing a shorthand or mnemonic system for the meeting content.

그런데 오늘 집행부가 제시한 주식배당 4%, 현금배당 1%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금 배당으로 환산하여 볼 때 10% 배당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정진해서 내년에는 우리 주주들에게 흡족한 배당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호의안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주주 있음)

○의장 남기세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호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계셨는데 주주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주주 많음)

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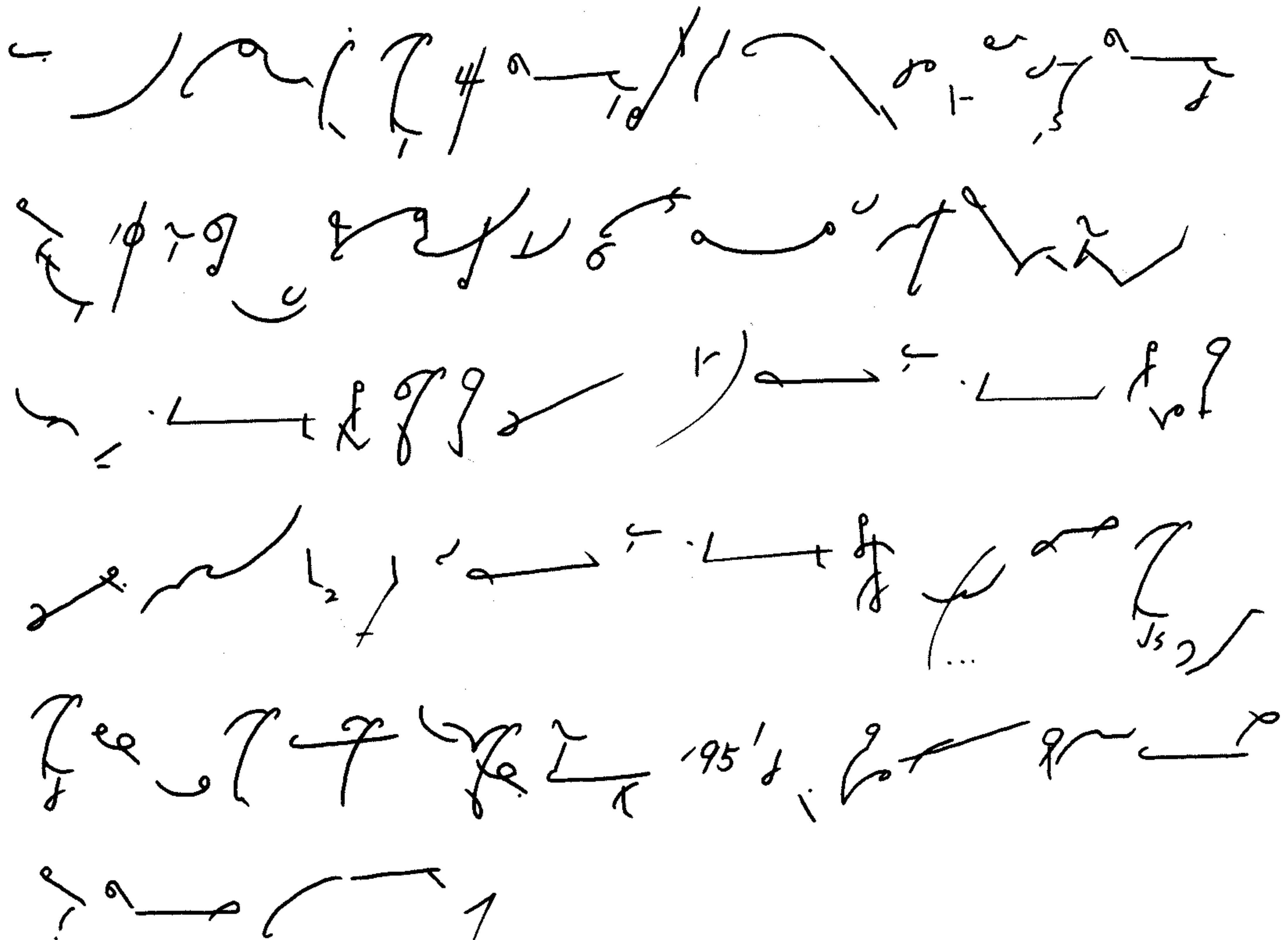
그러면 제1호의안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략)----

참고로 주식배당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발행하고 배당기산일은 1995년 1월 1일로 하며 단수주는 주주총회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속기노트>



기타 자세한 것은 주식명의개서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과 협의하여 4월 10일까지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안건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폐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주일동 박수)

- 진행(총무부장 고수익) : 이상으로 주식회사 세통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주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24분 폐회)

<속기노트> ...일반적인 회의의 시작은 「개회」, 끝은 「폐회」로 기록한다.

The handwritten notes illustrate the symbols used for meeting start and end. The top line shows a sequence of symbols representing the start and end of a meeting. The middle line shows '31' followed by symbols for '개회' and '폐회'. The bottom line shows '31' followed by symbols for '개회' and '폐회' with '10/24' written below.



제 7 장

•

고유명사 및 외래어약기









이 약기법은 자주 쓰이는 국명과 지명, 외래어를 표기하는 것으로 사자성구에서 배운 여러 가지 형태의 약기법을 활용한다.

1. 국명약기...첫자를 쓰고 뒷자는 꺾어서 응용한다.

| | | | |
|---|---|---|---|
| 미국 | 북미합중국 | 영국 | 프랑스 |
|  |  |  |  |
| 불란서 | 불가리아 | 중국 | 일본 |
|  |  |  |  |
| 이탈리아 | 이태리 | 이란 | 이라크 |
|  |  |  |  |
| 아프가니스탄 | 스위스 | 스웨덴 | 체코 |
|  |  |  |  |
| 러시아 | 루마니아 | 구소련 | 미국정부 |
|  |  |  |  |

참고 : 약기법의 문제는 첫자가 같은 경우가 둘 이상인 때이다. 이 때는 자주 쓰이는 용어를 우선하여 첫자 쓰고 꺾어서 응용하고, 덜 쓰이는 용어는 달리 처리한다.

2. 중요지명약기

| | | | |
|---|---|---|---|
| 뉴욕 | 워싱턴 | 샌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 |
|  |  |  |  |
| 제네바 | 모스크바 | 블라디보스톡 | 사할린 |
|  |  |  |  |

시베리아

아메리카

아메리카합중국

아프리카

인도지나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인도차이나

캄차카반도

참고 : 대체로 지명과 국명은 아는 범위 안에서 즉각적으로 만들어 쓰지 않으면 안된다.
어떻게 다 약자화하고 읽기하겠는가?

3. 외래어약기

AID
(국제개발처)

AID자금

AID차관

APEC
(아·태경제협력체)

ASEAN
(동남아국가연합)

ASEAN 6개국

아시안게임
(Asian Game)

디플레이션
(defla)

디플레이션
(deflation)

인플레
(infla)

인플레이션
(inflation)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EU
(유럽연합)

그린라운드
(Green Round)

IAEA
(국제원자력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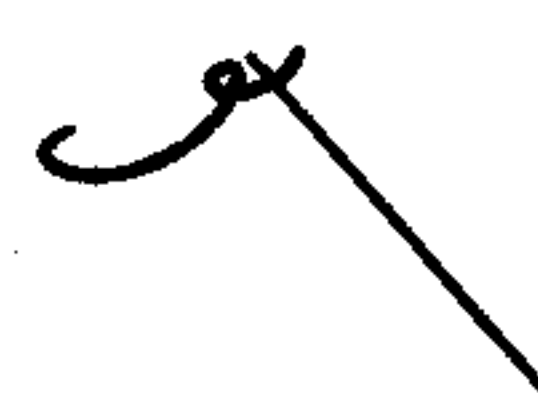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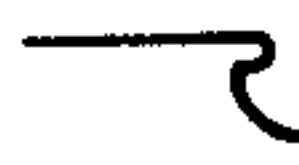



IDA
(국제개발협회)

ILO
(국제노동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IPU
(국제회의연맹)

| | | | |
|---|--|---|---|
|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NPT
(핵확산금지조약)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올림픽
(OLYMPIC) |
|  |  |  |  |
| OPEC
(석유수출국기구) | PKO
(유엔평화유지군활동) | GNP
(국민총생산) | 팀스피리트 |
|  |  |  |  |
| UN본부 | UN총회 | UN사무총장 | UN상임이사국 |
|  |  |  |  |
| UN현장 | UN회원국 | UN정치위원회 | UN신탁통치이사회 |
|  |  |  |  |
| UN안보리 | 유엔안보리이사국 |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
|  |  |  |  |
| 안전보장이사회 | UN안전보장이사회 |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UN테두리 안에서 |
|  |  |  |  |
| TV | 텔레비전 | VLSI
(초대형 직접회로) | 플루토늄
(Plutonium) |
|  |  |  |  |
| WHO
(세계보건기구) | WTO
(세계무역기구) | 고르바초프
(Gorbachev) | 구라파 |
|  |  |  |  |
| 구라파제국 | 그린벨트
(greenbelt) | 내셔널리즘
(nationalism) | 내셔널리티
(nationality) |
|  |  |  |  |

동ASIA

동북아

이퀄
(equal)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케이디램
(KD RAM)

미스프린트
(missprint)

병커C유
(bunker-c oil)

서방, 서비스

동남ASIA

라디오
(radio)

플러스
(plus)

매스커뮤니케이션
(mass ~)

바그다드조약

바로미터
(barometer)

부르주아
(bourgeois)

서방 3개국

동남아

마스터플랜
(master plan)

매스미디어
(mass media)

메카니즘
(mechanism)

바르샤바조약

바이아메리칸
(BuyAmerican)

블루칼라
(blue collar)

서방측, 스포츠

동북ASIA

마이너스
(minus)

매스컴
(mass com)

메가디램
(MD RAM)

바르샤바조약기구

밸런스, 바이러스
(balance, virus)

화이트칼라
(white collar)

세미나
(seminar)

| | | | |
|-----------------------------|---------------------------|-------------------------|---------------------------|
| 센세이션
(sensation) | 스캔달
(scandal) | 스탈린
(Stalin) | 스포츠맨
(sportsman) |
| ㄱ | ㄱ | ㄱ | ㄱ |
| 스포츠맨십
(sportsmanship) | 스피드
(speed) | 슬로건
(slogan) | 시멘트
(cement) |
| ㄱ | ㄱ | ㄱ | ㄱ |
| 시스템
(system) | 심포지엄
(symposium) | 아이디어
(idea) | 아이러니
(irony) |
| ㄱ | ㄱ | ㄱ | ㄱ |
| 아이러니컬
(ironical) | 아파트
(apart) | 맨션아파트
(mansion ~) | 호화아파트 |
| ㄱ | ㄱ | ㄱ | ㄱ |
| 애프터서비스
(afterservice) | 알리바이
(Alibi) | 앙케트
(enquete) | 에너지, EC
(energy) |
| ㄱ | ㄱ | ㄱ | ㄱ |
| 엘리트
(elite) |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Round) | 워커힐
(Walkerhill) | 워드프로세서
(wordprocessor) |
| ㄱ | ㄱ | ㄱ | ㄱ |
| 워싱턴포스트
(Washington Post) | 뉴욕타임즈
(NewYork Times) | 코리아타임즈
(Korea Times) | 코리아헤럴드
(Korea Herald) |
| ㄱ | ㄱ | ㄱ | ㄱ |
| AP(미) | AFP(프) | UPI(미) | 로이터
(Reuters, 영) |
| A | A | U | R |

중앙통신(대만)

원자, ASIA

이니셔티브
(initiative)

컴퓨터
(computer)

코스트푸시
(costpush)

프로테이지로
(protage)

프로젝트
(project)

할슈타인독트린
(Hallstein~)

신화사통신(중)

원자력

이데올로기
(ideology)

케이스
(case)

테러리즘
(terrorism)

프라이버시
(privacy)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t)

할슈타인원칙

타스통신(러)

워터게이트
(Watergate)

인터뷰
(interview)

코리아, 코스트
(Korea, cost)

테스트, 테러리스트
(test, terrorist)

프라이어리티
(priority)

필리버스터
(filibuster)

헬리콥터
(helicopter)

KBS

연합통신

유니버시아드
(Universiad)

카프라치
(camouflage)

코뮤니케
(communique)

퍼센테이지로
(percentage)

패리티지수
(parity~)

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멀티미디어
(multimedia)

| 하드웨어
(hardware) | 소프트웨어
(software) | SOC
(사회간접자본) | NCND |
|--------------------|---------------------|-----------------|------|
| h | s | ⑤ | ㄱ |

*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시인도 부인도 아니함. 특히 핵문제

응용

외래어약기는 대개 속성상 두 가지로 활용되는데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라고 하기도 하고 「WTO」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의미야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속기하는 입장에서는 구별을 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면서 바꿔 쓰면 된다.

예> 약자 WTO에 밑줄을 그으면 「세계무역기구」 WTO
 약자 IAEA에 밑줄을 그으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참고 : 외래어는 무식할 때 들어와서 유식해져서 외국어로 변한다. 그러니 특별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많이 써야 바른 자세일 것이다. 어떤 이는 그야말로 별말을 다 외국어나지는 외래어를 사용해서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물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었다는 뿌듯함을 가지겠지만.

아무튼 외래어약기는 어느 나라 속기사든 다 알아듣기가 매우 쉽다. 그렇지만 속기사가 간단한 외래어도 알아듣지 못해 망신을 당한다면 기록 자체는 물론 인격적인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는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인정받는 속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장연습 및 모의시험

이 교재에는 평소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이나 자격시험 등에 많이 출제되는 국회속기록, 대통령 연설, 명연설, 명사설 등을 실어 실질적인 속기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이 외에도 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사설이나 각종 간행물을 보면서 속기문자로 옮기고 번문하는 연습 ② 녹음기에다 속도에 맞추어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여 속기하고 번문하는 연습을 매일 할 것을 권한다. 또 가까운 동방속기학원에는 많은 녹음교재가 있으니 문의하면 된다.

〈문장연습 1〉

▲ 다음의 내용을 속기문자로 옮긴 후 번문하라. (총 자수 445자)

▶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하는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② 3·15 정·부통령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다. ③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④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나 이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 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이승만대통령 퇴임사, 1960. 4. 26)

〈문장연습 2〉

▲ 다음의 내용을 속기문자로 옮긴 후 번문하라. (총 자수 899자)

▶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순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1972년 7월 4일

이 후 락 김 영 주 ◀

(7·4남북공동성명)

〈문장연습 3〉

▲ 다음의 내용을 속기문자로 옮긴 후 번문하라. (총 자수 1,169자)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각국은 자신에게 맞는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아·태지역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태평양시대」를 논하는 것은 자유와 번영이라는 인류의 커다란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태지역은 앞으로 세계의 중심으로서, 전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선도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면서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이룩되었으나, 앞으로는 역내국가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그 같은 발전전략을 계속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협력 없는 경쟁」으로부터 「협력 있는 경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태평양시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태평양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보다도 다음의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3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연내에 타결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참다운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내에서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태지역의 다양성을 공동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가 다른 역내국가들간에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국 상호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확대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지도자들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실업증가, 그리고 무역불균형의 심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경제정책의 협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APEC이 「아·태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의 효율적 추진이 그리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지도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해 내야만 합니다.

제 필생의 경험은 난관을 극복해 대의를 이룩해 내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첫 모임을 통해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개막이라는 목표의 반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아·태지역의 새롭고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삼 대통령 APEC지도자회의 발제연설)



▶ 공청회 속기장면(국회의사중계방송에 관한 공청회)

〈문장연습 4〉

▲ 다음의 내용을 속기문자로 옮긴 후 번문하라.

| | |
|---|--|
| <p style="text-align: right;">(10시 개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의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p> <p>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보궐선거는 국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위가 된 부의장 한 분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p> <p>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영배의원, 구용상의원, 김태호의원, 안영화의원, 신순범의원, 유준상의원, 김형광의원, 신민선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p> <p>표결사는 감표위원을 좌석으로 안내해 주세요. 감표위원의 좌석이 안정되었으므로 곧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p> <p>의원 여러분께 투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의장 선거때 또 지난번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표결에 있어서 명패보다 투표용지가 하나씩 더 나왔습니다. 감표위원들은 명패함에 명패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꼭 넣고 그리고 물려서시도록... 그렇지 않을 적에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감표위원에게는 부탁을 드립니다.</p> <p>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즉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국장 말씀해 줘요.</p> <p>○의사국장 진재훈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p> <p>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p> | <p>좌우 양쪽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한 분만 기재해 주시기 되겠습니다.</p> <p>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5시24분 1차투표 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p> <p>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재형의장, 최영철부의장과 사회 교대)</p> <p>○부의장 최영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아직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p> <p>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5시37분 1차투표 종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p> <p>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패함 개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패수 점검)</p> <p>명패수를 계산한바 265매입니다.</p> <p>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표함 개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표수 점검)</p> <p>투표수도 26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 표)</p> <p>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총 투표수 265표 가운데 이용희의원 92표, 조연하의원 68표, 김형광의원 38표, 김옥선의원 34표, 박해충의원 12표, 고재청의원 1표, 박한상의원 1표, 이기택의원 1표, 기권 10표, 무효 8표로써 국회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투표를 하겠습니다.</p> |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로부터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잠시 정회한 뒤에 2차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광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내용을 보니까 국회부의장후보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되어있는데 부의장선거에 있어서는 특별한 후보가 있지 아니하고 의원 각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부의장을 투표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에 대한 2차투표를 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감표위원들로 지명된 위원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진재훈 호명을 하겠습니다.

(17시15분 2차투표 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최영철부의장, 이재형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재형 투표함을 단겠는데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시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투표하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29분 2차투표 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6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6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 표)

2차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조연하의원 139표, 이용희의원 90표, 김옥선의원 12표, 박해충의원 4표, 이기택의원 1표, 이철승의원 1표, 기권 9표, 무효 5표, 국회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조연하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조연하의원! 신민당의 조연하의원 나와서 당선인사를 해주세요.

☑☑(일부의원 퇴장)

조연하의원이 지금 장내에 없습니다.

다음번 운영위원장선거를 하고 연락을 해서 인사는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당의원이 상당히 충격적인 심정이 있어서 자리를 모두 뜨셨는데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회를 하고...

☑☑(「정회할 필요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정회하는 거요, 무슨 소리를 자꾸 떠들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곧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형 그러면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문장연습 5〉

▲ 다음의 내용을 속기문자로 옮긴 후 번문하라.

○의장 이재형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이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마는 신민당소속 총무 김동영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당의 총재이신 이민우 총재님의 대표연설을 속기록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포된 속기록중 우리 당 이민우총재의 대표연설이 두 곳에 걸쳐서 자의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내용 인즉 - . . . -이라는 대목과 사법부의 도덕적 권위 상실 부분에서 - . . . -이라는 구절입니다.

본의원은 사초가 되는 속기록이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정권의 기분대로 자의적으로 삭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마음가짐에 대해 진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연설을 삭제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은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의 민의를 원내로 수렴하는 신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당의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삭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반민주적이었던 유신시대조차도 국회에서 야당대표가 행한 연설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와 정의를 부르짖는 제5공화국 정권이 야당대표의 국회본회의 연설을 몇대로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것을 보

니 현 집권여당의 본질을 보는 듯하여 슬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의회의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과 권위를 깎아내리는 이와 같은 자세야말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야의원 여러분!

조선왕조실록도 당시 임금이 한 일이나 사관들의 관료들의 부정부패 기록을 삭제할 때도 그 부분이 그대로 봐서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법으로도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더욱 너무 명백한 사실이므로 구구한 설명을 생략하고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속기록은 연설문이 그대로 담겨지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어떠한 권한으로 이 속기록을 삭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야의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의사진행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12대 국회 개원 당시에 정부의 국무총리 이하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으로서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이곳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허경구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정부의 처사를 보니까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개원 국회에서 하는 때나 어제 정기국회에서 하는 이 답변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경구의원께서 열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이 장소에서 답변하기를 여섯 가지만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우리 국회의원으로 의석에 앉아서 듣기

가 거북할 정도로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자리에 국민의 대표기관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표를 찍어 준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이하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질의한 답변을 명쾌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의사 진행으로써 요청을 드립니다.

더욱이 본의원은 의회주의의 신봉자로서 더욱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의장과 여당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두 가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사진행을 끝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형 지금 신민당 국회 대표의원인 김동영 총무께서 지난 10월 14일 4차 본회의에서 행한 신민당 총재인 이민우의원 속기록 삭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의 취지가 의장이 월권을 했다든지 법률에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면 법률적인 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속기록을 꺼떡하면 삭제하고 하는 의장의 정치 도덕성, 국회의 운영되는 모습에서 더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크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너무 크게 하면 귀가 아파서... 김동영의원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우리 조상들은 이조 시절의 속기록에 해당하는 이조실록이라든지 궁중일지에 대해서 기막힌 제재를 가하면서 점 하나, 파임 하나를 고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역사상에 가장 빛나는 자랑으로 간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서 많은 부분을 의장이 이 이유를 달아서 저 이유를 달아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법에 주었나 하는 데 대해서 너무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응분의 경의를 표해야 할 제1야당의 총재의 정치적 소신의 발표인 정치에 관한 연설을 그렇게 많이 손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못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김동영 총무 이상으로 소위 의장이라는 사람의 가슴에 와서 닿는 그런 심정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의장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분은 국회법 회의규칙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문장 연습 6〉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 후 번문하라. 녹음할 때나 낭독할 때는 손가락으로 써 가면서 속도조절을 한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주의 아픔을 씻어내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때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80년 5월의 민주화운동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민 민주화를 향해 우리가 걸어온 고난에 찬 역정에서 볼 때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뚝한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80년 5월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항쟁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이 땅에 문민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처절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때 야당총재로서 맨 처음 군부정권 당국에 정면으로 항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비극적 사태를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3년에 걸친 가택연금을 당해야 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3주년이 되는 1983년 5월 18일 가택연금중에 저는 23일간 생명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광주의 유혈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복권과 명예회복, 그리고 그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광주시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서서 고뇌하는 정부입니다. 또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개혁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광주문제는 더 이상 양금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올바르게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아픔은 치유되고 명예회복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광주의 고통은 온 국민이 함께 나누고, 광주의 민주정신을 전국적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에서, 그리고 광주시민이 원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광주시민과 온 국민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기념일을 먼저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망월동 묘역은 민주성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묘역의 확장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의사에 따라 현재 광주시내에 있는 전남도청을 전남도 관내로 이전하고, 당시 민주화운동의 현장이었던 현 도청 위치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상무대 부지의 일부를 광주시에 추가로 무상사용케 함으로써 시민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억울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중에서 아직까지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추가 신고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시 연행·구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복권된 분들에 대하여 전과기록을 완전히 말소, 그 명예가 회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당시 부상을 당하신 분 중,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지명수배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해제하고 해직된 분들에 대한 복직 역시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법체계 안에서 가능하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암울했던 시절의 치욕을 다시 들추어내어 갈등을 재연하거나 누구를 벌하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를 높이 세우는 일입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이제, 미움과 갈등의 고리를 바로 우리 모두의 손으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다시 보복적 한풀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잊지는 말되, 과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하는 것만큼 큰 용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13년전의 악몽과 멍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시대가 남겨 준 양금과 한을 훌훌 털고 일어나 신한국 창조의 저 넓고 큰길로 나섭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신한국 창조를 향한 참여와 창의를 열린 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신한국 창조를 향한 변화와 개혁에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기꺼이 동참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광주가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 이름처럼 빛을 비추는 도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밝은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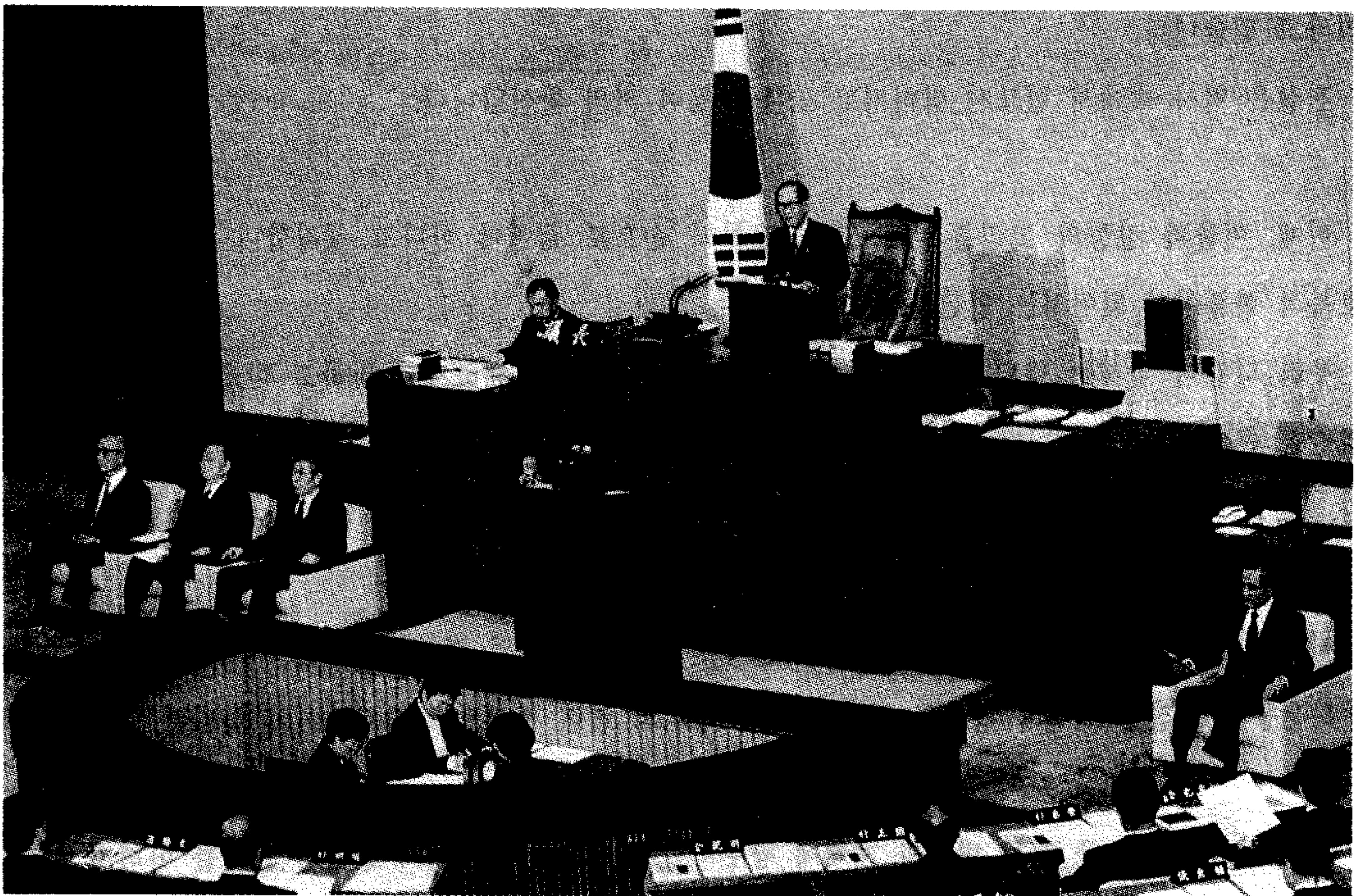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동서의 화해와 정의로운 국민 내부의 화해를 이룩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다져 놓고야 말겠습니다. 제2의 건국을 한다는 각오로 앞장서 뛰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새롭게 일어난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내고 싶습니다.

대통령인 저와 함께 힘을 합해 신한국을 창조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과 긍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더불어 함께 잘사는 우리의 조국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화문)



▶ 국회본회의 개회식 속기장면

〈문장 연습 7〉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후 번문하라. 녹음할 때나 낭독할 때는 손가락으로 써 가면서 속도조절을 한다.

민족국가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나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할 것이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나 하는 세째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칠십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 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다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칠십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제상이, 『내 차라리 계림의 개, 도야지가 될지언정 왜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제상은 왜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을 물리치고 달게 죽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함이었다.

근래에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를 어느 큰 이웃나라의 연방에 편입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으려 아니하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러한 자가 있다 하면 그는 제 정신을 잃은 미친 놈이라밖에 볼 길이 없다.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지만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댄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 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움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지만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내에서도 혹은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인하여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곁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한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홍망의 공동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나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내오 내오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일귀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할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하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리 삼천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의 전체의 운명

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삼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희랍민족이나 로마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종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 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겨루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댄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괘목상대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정치 이념

나의 정치 이념은 한 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야 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제대로 각 개인이 제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하면 이것은 나라가 생기기 전이나 저 레닌의 말 모양으로 나라가 소멸된 뒤에나 있을 일이다. 국가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이러한 무조건의 자유는 없다. 왜 그런고 하면 국가란 일종의 규범의 속박이기 때문이다. 국가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로.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데 달렸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일 개인 또는 일 계급에서 온다. 일 개인에서 오는 것을 전제 또는 독재라 하고 일 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독재라 하고 통칭 파쇼라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되면 그만이지만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니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반정치도 일종의 계급독재이거니와 이것은 수백 년 계속하였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스의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계급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독재다. 수백년 동안 이 조 조선에 행하여 온 계급독재는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사상, 학문,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였었다. 이 독재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었다.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니 이 영향은 예술, 경제, 상업에까지 미쳤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잔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왜 그런고 하면 국민의 머리 속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경륜이 생기더라도 그가 집권계급의 사람이 아닌 이상, 또 그것이 사문난적이라는 범주 밖에 나지 않는 이상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싹이 트려다가 눌러 죽은 새 사상, 싹트지 못하고 밟혀 버린 경륜이 얼마나 많았을까.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나 중요한 것임을 통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시방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이러한 독재정치 중에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즉 헤겔에게서 받은 변증법, 포이엘바하의 유물론 이 두 가지와 아담 스미드의 노동가치론을 가미한 마르크스의 학설을 최후의 것으로 믿어 공산당과 소련의 법률과 군대와 경찰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에 일점일획이라도 반대는 고사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엄금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청으로써 대하니 이는 옛날의 조선의 사문난적에 대한 것 이상이라, 만일 이러한 정치가 세계에 퍼진다면 전 인류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하나로 통일될 법도 하거니와 설사 그렇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히 잘못된 이론일진댄 그런 큰 인류의 불행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학설의 기초인 헤겔의 변증법의 이론이란 것이 이미 여러 학자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전면적 진리가 아닌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는가. 자연계의 변천이 변증법에 의하지 아니함은 뉴우턴 아인슈타인 등 모든 과학자들의 학설을 보아서 분명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다.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

움을 이루고 백 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 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으로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러하고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 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나는 노자의 무위를 그대로 믿는 자는 아니지만 정치에 있어서 너무 인공을 가하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는 자이다. 대개 사람이란 전지전능할 수가 없고 학설이란 완전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생각, 한 학설의 원리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일시 속한 진보를 보이는 듯 하더라도 필경은 병통이 생겨서 그야말로 변증법적인 폭력의 혁명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생물에는 다 환경에 순응하여 저를 보존하는 본능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길은 가만히 두는 길이다. 적은 피로 자주 건드리면 이익보다도 해가 많다. 개인 생활에 너무 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은 군대의 병정도 아니요 감옥의 죄수도 아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호령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극히 부자연하고 또 위태한 일인 것은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스 독일이 불행하게도 가장 잘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미국은 이러한 독재국에 비겨서는 심히 통일이 무력한 것 같고, 일의 진행이 느린 듯하여도 그 결과로 보건댄 가장 큰 힘을 발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의 효과이다. 무슨 일을 의논할 때에 처음에는 백성들이 저마다 제 의견을 발표하여서 헨헨효효하여 귀일할 바를 모르는 것 같지마는 갑론을박으로 서로 토론하는 동안에 의견이 차차 정리되어서 마침내 두어 큰 진영으로 포섭되었다가 다시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 결론에 달하여 국회의 결의가 되고 원수의 결재를 얻어 법률이 이루어지면 이에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어 요지부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양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는 한 절차 또는 방식이요, 그 내용은 아니다. 즉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에 복종---이 세 가지가 곧 민주주의다. 국론 즉 국민의 의사의 내용은 그때그때의 국민의 언론전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어느 개인이나 당파의 특정한 철학적 이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특색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 투표, 다수결 복종이라는 절차만 밝으며 어떠한 철학에 기초한 법률도 정책도 만들 수 있으니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그 헌법의 조문뿐이다. 그런데 헌법도 결코 독재국의 그것과 같이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절차로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민주 즉 백성이 나라의 주권자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론을 움직이려면 그 중에서 어떤 개인이나 당파를 움직여서 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 국민의 의견을 움직여서 된다. 백성들의 적은 의견은 이해관계로 결정되거나 큰 의견은 그 국민성과 신앙과 철학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생긴다.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의 힘이요, 산업의 방향도 문화와 교육으로 결정됨이 큰 까닭이다. 교육이란 결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이다. 어떠한 철학의 기초 위에 어떠한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국민 교육이다. 그러므로 좋은 민주주의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에 해가 된다. 인류 전체로 보아도 그러하다.

이상에 말한 것으로 내 정치이념이 대강 짐작될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결코 독재정치가 아니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십분의 언론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천지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설하자고.

그렇다고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직역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련의 독재적인 「민주주의」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자유적인 민주주의를 비교하여서 그 가치를 판단하였을 뿐이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기초로 한 자를 취한다는 말이다.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반드시 최후적인 완성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인생의 어느 부분이나 다 그러함과 같이 정치형태에 있어서도 무한한 창조적 진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반만년 이래로 여러 가지 국가 형태를 경험한 나라에는 결점도 많으려니와 교묘하게 발달된 정치 제도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가까이 이조 시대를 보더라도,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같은 것은 국민 중에 현인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맛있는 제도요, 과거제도와 암행어사 같은 것도 연구할 만한 제도다. 역대의 정치제도를 상고하면 반드시 쓸 만한 것도 많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좋은 것을 취하고 내 나라의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나라에 독특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세계의 문운에 보태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

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12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의 세계 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의 탄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양식의 건립과 국민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달할 민족은 일언이폐지하면 모두 성인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 데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었거니와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버리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이 태당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되고 그러한 정신의 교육으로 영속될 것이다.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원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

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우리 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정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드는 일은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네가 좋아하던 인후지덕이란 것이다.

이러하므로 우리나라의 산에는 산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품백과가 풍등(豊登)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덕의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하여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법이다. 일본의 이번 당한 보복은 국제적 민족적으로도 그러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실례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의 일단을 그린 것이거니와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될진대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네 자손을 이러한 나라에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토의 기자(箕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 사는 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으니 예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대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칠십이 넘었으니 몸소 국민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거니와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나의 소원, 김 구)

〈문장 연습 8〉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 후 번문하라. 녹음할 때는 자신의 속기실력보다 약간 빠른 속도를 유지하라. ■ 부분은 50자씩 끊은 곳이다(총 3,072자).

▶ 전 세계는 21세기 「세계화시대」라는 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세기의 「공업화시대」·「근대화시대」를 ■나 21세기의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양적인 변화가 아■라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질적인 변화이다.

세계화시대가 등장하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제2차 ■계대전 이후 격화되어 온 동서 양진영의 체제 경쟁이 구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끝나고 이제는 체제통합의 시기로 들어가 세계■한 식구가 되고 있다.

둘째, 최근 수십년간의 급속한 정보통신 및 항공·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시간적으로는 동시■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하고 있다.

셋째, WTO체제의 성립을 계기로 국가간·국민간·지역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크게 ■대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로 인하여 세계화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화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현상이 동시에 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에서의 영토 주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에 관한 영■ 주권의 개념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특히 WTO체제 성립 이후 자본·기술·상품·용역에 관한 국가간 이동이 급속하게 자유화■고 있으며, 이제 명실공히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보의 양과 흐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가 지식■되고 정보집약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의 정보·지식·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부를 결정짓는 지식사회의 시대가 되며, 따라서 ■ 사회 전체의 학습능력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교통과 통신혁명에 따른 국제간 인적·물적 교류의 폭발적 증가와 전 ■구의 동시방영권화 등으로 세계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족의 고유문화와 세계문화와의 갈등·긴장관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기 고유의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세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시■가 되었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정부보다는 개인과 기업이, 중앙정보보다는 지방행정이 보다 중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부조직도 과거의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 수직구조를 탈피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대의제 ■회민주주의 속에도 당사자들이나 유관 사회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적 요소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개인이 ■구하는 가치가 보다 다양화·감성화·소프트화하면서 선택과 욕구가 크게 다원화되고 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근대화 시대가 생산자중심의 소품종·대량화의 시대였다면 오늘날■ 소비자중심의 다품종·소량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냉전시대의 예측가능성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경제·안보문제 등에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상호협력과 조정 메카니즘은 아직 미흡하다.

환경·핵·평화·■AIDS·기근·난민·인권 등 전 인류의 공동협력과 공동노력이 필요한 지구화 차원의 과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변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과격하고도 혁명적인 변화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와 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 우리는 어떠한 대응자세를 가져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19세기말에서 20세기로 접어들 때에도 우리는 오늘■과 유사한 혁명적 도전의 시대를 경험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과제 내지 민족적 과제는 봉건유제(封建儒制)를 타파하고 실질개화와 공업■를 서둘러 하루바삐 근대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 시작된 우리의 개화·개방은 자력에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지도층은 개화파와 수구파로 분열되어 개혁과 변화에 대하여 국가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과 관은 한마음이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개방과 공업화하는 시대적 과제해결에 실패하였고 결국 나라를 잃는 치욕■ 고통의 역사를 겪게 되었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국가목표에 대한 민관간의 확고한 합의도 없었고, 공업화·산업화시대에 ■는 국가발전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그리고 국력을 집결시킬 지도층의 올바른 국가발전전략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에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근대화 노력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경제의 고■성장·압축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성장뿐 아니라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하여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제■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민족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되고 ■으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다.

첫째, 개발독■하의 성장우선주의는 불가피하게 경제력 집중과 분배의 불평등, 지역간·계층간 갈

등의 증대, 기초질서의 이완 그리고 경제·사회적 경기규칙의 문란 등을 초래하였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성장과 정신적·문화적 성숙간의 괴리가 발생하였고 국제적으로는 경제활동의 대외개방성과 의식문화의 대외폐쇄성과의 사이에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과거 근대화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유산을 가능한 빨리 해결·극복하면서 21세기 세계화시대라는 새로운 혁명적 변화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가야 한다.

20세기를 잘못 대처하여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라, 21세기에는 반드시 빛나는 성공의 역사·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확고한 국가목표와 국가비전(Vision)을 세워야 하고

둘째, 세계화시대에 맞는 국가발전원리를 파악·이해하여야 하며

셋째, 그 위에 올바른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국력을 총결집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의 국가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이다.

세계주변국가에서 세계조정국가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하여 나아가야 한다. 「공업화와 근대화」의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조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보화와 세계화」에 성공하여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민족통일은 복원적이고 복고적인 통일이 아니라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세계중심국가로의 발전과정, 세계중심국가로의 남북간 협력과정이 곧 통일이다.

그럼 세계중심국가란 어떠한 나라인가?

첫째,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나라, 가 보고 싶고 투자하고 살고 싶고 아보고 싶은 나라, 즉 모두가 동경하고 선망하는 나라이다. 세계의 경제적·기술적 번영과 인류의 정신적·문화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 인류적 양심과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양과 덕이 넘치는 일류국가이다.

둘째, 대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풍요롭고 살기가 편안한 나라이다. 세계중심국가란 과거 근대화시대처럼 「부국강병」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부민안국」의 나라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야 하고 동시에 한사람 한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환경오염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실업·질병 등의 위협으로부터

터 벗어난 나라이어야 한다.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는 근대화·공업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근대화·공업화시대와는 달리 정부주도만으로는 국가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경기규칙의 감시자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여야 하고 환경·노동·소득분배·사회보장 등의 사회개발분야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정부만 잘하여서는 아니되고 개개 기업,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잘하여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이제 국가의 부, 삶의 질의 수준은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정보·기술 등 지적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 근대화시대의 생산성이 기능노동집약적이었다면 세계화시대의 생산성은 지식노동집약적이다. 따라서 훌륭한 지적노동과 고도의 정보인력을 많이 가진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시대이다.

셋째, 법과 제도가 공정·투명하여야 하고 민간의 자율과 지방의 자치가 최대한 보장되어 국가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하에서만 민간과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와 정부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민간, 지방과 지방이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과 지방의 성장잠재력의 활성화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



▶ 국정감사 속기장면

모 의 시 험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3급 연설체(270자×5분=1,35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35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3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아울러 신경제5개년계획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경제 순환과정에서 산업구조는 자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재벌그룹의 존재가 산업구조의 자율적 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진입과 탈출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현상과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수요패턴의 변화 그리고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종래의 조립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저 코스트의 기술산업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별로 중장기 산업구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민간기업과 특히 비효율적인 재벌그룹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조 혁신과 수입 대체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정거래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서 상호출자 순환보증 등 내부거래를 축■■■하고 재벌그룹의 소유분산을 촉진함으로써 전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재벌그룹을 전문대기업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미 발전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재벌 기업인보다는 의욕이 넘치는 중소기업인에게서 찾아야 한다■■■ 봅니다.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행정규제 완화, 공직자 의식개혁,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1조 4,200억원 자금지원, 대금 결제기간 단축, 금융관행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오래간만에 칭찬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자본금 증액, 중소기업 도산 방지 공제기금의 정부 출자금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신용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기술인력 확보와 개발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여러 연구 ■■■관을 시켜서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정부출자연구기관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도 전문기구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계획 생산을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유휴여성인력의 활용, 해외교포인력을 포함한 외국인력의 도입 등■■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입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 처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오늘■■■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입니다.

신경제계획이 지나치게 상세한 부분까지 언급함으로써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지표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불로소득은 물론 부정과 병폐를 척결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잘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치단결하여 의욕■■■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번문시간

자격시험-1시간 이내에 원고지에 흑·청색 볼펜이나 만년필을 이용하여 번문할 것(속기시간의 12배)
 국회시험-1시간 15분 이내에 원고지에 흑·청색 볼펜이나 만년필을 이용하여 번문할 것
 (속기시간의 15배, 속도 320자~330자)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3급 논설체(240자×5분=1,20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20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3급 논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이 세상에서 한국 젊은이들처럼 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들에게 기대는 의존 기간이 긴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소학생부터 남의 집 아이 보아주는 베이비 시터나 남의 집 앞 눈이나 가랑잎을 쓸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란다. 그리하여 고등학생만 되면 자립하는 것이 상식이다. 잘 ■다는 스위스, 그 스위스의 부잣집 딸이라 해도 의무교육만 끝나면 부모에게 기차삿만타 들고 도시에 나가 제가 벌면서 제 공부한다.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해서 장가갈 때까지 부모 그늘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늙은 어린이'로 반평생을 살므로써 무책임하고 무기■하고 무관심한 의존적 인간을 양산해 왔던 것이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 같은 의존 인간을 어른되는 것을 유예시켰다는 뜻에서 '모러토리엄 인간'이라 부르고 사회 침체나 퇴폐의 큰 원인으로 병리시하기까지 한다. 더욱이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고되게 일만 하며 ■았던 과거를 자기 혈육인 자녀들로 하여금 보상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내 새끼만은 그러한 일이 다시 없어야 한다는 한 맺힌 심정에서 애지중지 과보호를 해 왔기에 모러토리엄 증상을 가속시켜 왔던 것이다.

사자는 제 새끼를 천길 벼랑에서 떨어뜨려 곤궁 속에서 스스로 살아나는 지혜를 가르친다 ■고, 독수리도 먹이로써 새끼를 유도하여 깃(巢)에서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곤경을 개척하는 힘을 길러준다 했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사자나 독수리만도 못하게 자녀를 위해 교육적으로 미진했다 할 수 있다.

자녀들은 잘나건 못나건 또 잘 하건 못 하건 유능하건 무능하건 아랑곳없이 무한히 감싸■ 모성 원리와 잘잘못을 가리고 선악을 분간시키며 상하를 따져 능력과 개성을 가리는 부성 원리의 조화 아래서 건전하게 자란다. 한데 한국의 자녀들은 부성 원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모성 원리 아래에

서만 자라기에 사회에 나가 자립해서 떳떳이 살아날 소양과 자질을 부여받지 못하고 자란다.

이것이 현대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병폐요 역사에 대해 현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이기도 한 것이다. 이 무기력, 무책임, 무관심의 삼무인간(三無人間)을 탈피하고 모러토리엄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안간힘이 학생들 내부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이 싱그러운 싹수를 바로 이 아르바이트에서 보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체험에서 얻는 교육 효과는 그 개인의 건전한 여생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또 독서에서 배우는 교육의 질에 비겨 한결 웃도는 양질의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머니한테 얻었을 때의 돈 100원, 돈 1,000원이 한날 기와 조각 같았다면 내가 번 돈 100원, 돈 1,000원은 금쪽만 같은 그 가치 감각의 변화도 그렇고 밥 그릇 값이 얼마만한 땀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인가의 가치 체험이 그러하며 또 다중 속의 자신의 좌표며 남들과의 조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 체험이 또한 그러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낸다면 부모가 주었을 때보다 더 많이 착실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도 자연적으로 우러날 것이다.

또한 TV 등 정보화 사회의 급진적인 출현으로 모든 아이들이 많은 것을 간접 체험하고 또 대리 체험하면서 자랐기에 실생활과는 유리되어 생각하고, 유리되어 행동한다는 현대의 병폐를 아르바이트로 직접 체험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각자의 일이 아니라 사회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성세대들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이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수용하고 또 일을 주는 사람도 품을 산다는 경제적 목적에 교육적인 덤을 얹어야 하겠고, 아르바이트를 둔 사회 인식이며 또 아르바이트를 둔 부모의 태도도 이번 방학을 계기로 크게 달라져야 하겠다. 보다 많은 직장에서 보다 많은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제공해 주어야겠고, 보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안타까운 마음 없이 일자리로 내보내야만 하겠다.

올 방학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주로 대학생이었지만 그 연한도 고등학생 수준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일거리와 아르바이트 무드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

끝으로 아르바이트 품만 사고 교묘히 샀을 주지 않거나 깎거나 하는 악덕 아르바이트 업주는 법을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당국자에게 신신당부하고자 한다.

(조선일보 사설, 「아르바이트 풍조- 학생, 부모, 사회의 새로운 인식을 위해」 중에서 1984. 8. 26)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3급 연설체(270자×5분=1,35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35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3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국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1995년은 문민정부 출범 중반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새해, 국정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신한국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이 모든 것은 과거에는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민족의 정기가 되살아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여 온 적폐를 짧은 기간내에 털어내고 밝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반사회적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선진국 대열에 선 당당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개혁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년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를 냉철히 돌아보고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점검하여 희망의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할 때입니다.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를 건설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안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단순히 새로운 한 세기의 출발 이상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과 선진경제권 진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몇 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운을 가늠할 중차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1995년 새해를 세계와 미래를 향한 개혁과 전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저는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도전을 민족진운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이끌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우리 헌정사의 오랜 숙원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국력을 소진하는 갈등의 정치로 인해 정치불신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 정치의 모습은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가 스스로 대담한 정치개혁에 나서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정치혁신의 거보를 내딛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정치의 도덕성과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터전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8월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 관권개입 시비도, 흑색선전도 사라졌습니다. 온 국민이 그토록 소망해 온 선거혁명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3급 논설체(240자×5분=1,20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20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3급 논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평생토록 하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생활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속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업과 직장을 바꾸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연결과 접속이 순탄하다면 큰 탈이 없겠으나, 중간에 잠시라도 쉬게 되면 실업의 괴로움과 실직자[■] 설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고통과 비애를 전혀 느껴보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보람을 느끼며 한평생을 일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누구나 이런 천직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고도로 산업화되고 과학화된 현대 사회의 직업은 미세하게 세분화되고 분업화[■]어 있으며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되는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경험의 축적이 없이는 부단한 경쟁의 도전을 받게 마련이며 천직으로서 자리를 지켜 나가기 어려운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 각계각층의 그리고 각양각색의 직업, 직종, 직위에 종사하는 모두가 각자의 [■]은 바 소임을 능력껏 완수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때 그 사회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과 직장에 대한 안전 보장이 없는 사회일수록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불안정하게 마련이다.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고 자의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 그 업에만 전 인생을 내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선택된 행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둔하고 우직했다는 객담을 듣기도 하지만 '외길인생'이니 해서 남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자영하는 농업이나 상업으로 평생을 바치거나, 예술가,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고급 자유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전직[■] 긴박성은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정액 보수를 받는 태반의 봉급생활자는 언제나 실업의 가능성을 지니고 실직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천직으로 알고 평생토록 고수하고 싶어도 자리를

놓고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은 직장을 거두어 간 데¹¹에 수명을 길게 주셨던 까닭이다.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계급정년, 연령정년 등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계속 공무를 담당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 해도 자동 퇴직하게 되어 있다. 설혹 부정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능' 또는 후진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한 '용퇴'의 명목으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근자에 있었던 관가의 대폭적인 숙정 선포나 행정기구의 축소 등 예기치 않았던 돌풍이 몰아쳐 휩쓸려 나가는 액운을 겪기도 한다. 군인의 경우도 ROTC 출신 전역 장교는 바로 사회의 신입사원¹²로 연결이 되지만 고급장교 출신일수록 전업의 폭은 좁아지고 어려워진다. 대체로 만 50세부터 시작되는 공무원의 퇴직연한은 교육공무원의 65세가 최고 상한선이다.

전문직업이고 성스러운 천직으로 추앙을 받는 교사직의 유일한 매력은 제일 오래도록 직장이 보장된다는 점 하나뿐으로 ¹³약되고 있다. 이나마도 야심 있고 패기 많은 젊은이들은 마다하며 사범 대학 졸업자까지도 교사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취직 전선을 관망하는 고등학력 소지자일수록 한꺼번에 높이뛰기로 옮겨 앉을 궁리를 한다는 것이다.

관가에서 퇴직하면 산하 국영 기업체나 관련 기업체로 낙하산식 인사로 ¹⁴용된다.◀ 고급 장성의 경우도 이처럼 전업하는 수가 많았다. 반대로 연구 기관에서 관계로 발탁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천직으로 평생을 바칠 수 없을 바엔, 그때 그때의 줄타기와 선대기를 잘하여 중단 없는 상향성 전직을 거듭하여야 한다는 출세 풍조가 일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전문적인 의견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자리에 앉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당사자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불평등하고 인화를 깨는 일이 되는 것이다. 때로는 연공서열형의 질서를 무시하고 유능한 인사를 발탁 기용함으로써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신상필벌이며 관료제도의 메리트 시스템과 같은 효용론을 거론하는 것이 본란의 의도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인사 제도와 관습에 국민들이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외국과 같이 노후의 사회 보장 제도가 완벽하여 정년 퇴직 후의 걱정을 안해도 되는 처지도 아니다. 일본처럼 종신 고용제도 아니다.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근로자가 공무원보다도 장래 문제에 걱정을 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봉급만으로 그달 그달 살기도 어려운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받았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 않는다. 만 50세부터 시작되는 정년 퇴직자의 태반은 새로운 직업과 직장을 구해야 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꾸미지 않을 수 없다.

40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50세 미만이었다. 지금은 70세에 육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8%이다. 55세 이상은 344만 명에 달한다. 노령 인구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년 퇴직해서 실업 중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가족 계획을 20년동안 실시했어도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선 배에 가까운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터에 약년 인구의 취업이 더욱 큰 사회 문제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나이 먹은 사람의 직장을 빼앗아 젊은이에게 준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교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요금 할인을 해 주며 좌석에 앉도록 하는 경로우대제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한 경로사상과 노인에 대한 대접은 노인에게 알맞은 천직을 찾아 주는 일일 것이다. 그런 노인이 되기 이전인 55세 이상의 퇴직자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필요가 있다. 은퇴하여 연금이나 이자소득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 수 있다는 퇴직 근로자가 몇이나 될 것인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앉아서 놀고먹기는 지겨운 인생이라고 느낄 것이다. 매일 같이 일한다는 것은 식사나 잠자는 것과 똑같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회 보장 제도가 완벽하고, 그 이전에 잉여 인력의 여지가 없을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일자리가 많다면 두말할 여지없이 해결될 문제이다. 또한 일찍이 정년 퇴직하여 젊은 후진에게 양보하고도 퇴직금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지금의 성급한 인사 관리 제도에 불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 형편은 마치 흡스가 말하듯 '만인 대 만인의 투쟁'처럼 밀고 밀어내기의 약육강식형 출세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 같다. 좀더 출세의 성장 템포를 늦춰서 여유 있게 제2의 인생 설계 곧 천직의 전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내고 끝을 터 주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 누구나 늙게 마련이고 정년 퇴직의 고비는 겪는 것이니 모두가 내가 해야 할 일처럼 제2의 인생에 보람과 영광이 깃들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누구나 늙는다-고령화 사회의 정책개발을」, 1981년 12월 14일)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3급 연설체(270자×5분=1,35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35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3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 물가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는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하는 등 재정면에서도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산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등 부문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첫째,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세제·재정 등 각 분야의 제도개혁²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걸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우리에게 보람찬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4%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기술개발과 함께 11개 핵심 선도 기술개발³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인력육성에 있어서도 기술·기능인력에 중점을 둬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열기 위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은 내년의 시범사업을 시발점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⁴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의 한국경제를 설계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자본의

국제화 등 경제국제화 12대 과제를 설정, 적극적으로 추진■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부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민정부 출범이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록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의 형식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행정정보의 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의 향상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접자본에 대한 국가예산 배분상의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제정된 민자유치법을 토대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6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철도를 2001년까지 완공하여 전국■송량의 6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축의 운송난을 타개하고 호남고속철도도 차질 없이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물론 전국적인 반나절 생활권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 중심의 대량수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철도의 확충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신공항을 차질■이 건설하여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추공항이 되도록 할 것이며, 지방공항도 중·장기 공항 개발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2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중점 개발하겠으며, 서해안시대와 지방교역의 증대에 대비하여 거점별 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물유통체계도 근■적으로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일관수송을 위한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조성하고 물류종합정보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2급 연설체(300자×5분=1,50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50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2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수입부문을 보면 연평균 9.2% 증가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94년에 경상수지흑자 전환과 98년에 104억불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빈약성, 가격경쟁력의 열세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요 부품소재 자동화시설 등을 볼 때 수입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무역수지 흑자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엔고의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서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나 수입증가요인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의존품목의 국산화 성공 여부가 흑자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물가를 평균 3.6% 안정시키는 구체적 대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합니다. 임금상승, 엔화강세 기조의 지속, 부동산 투기, 농수산물 수급의 불안정, 공공요금의 인상 등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비와 주거비가 안정되어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근 노사대표간에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4.7% 내지 8.9%로 합의함으로써 노사협조 무드가 모처럼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임금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임금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91년도 제조업 임금 인상률은 16.9%인데 비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4%였으며, 92년도 각각 15.7%와 9.3%로 나타나서 오히려 임금상승률에 비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현저히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원자재와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해외자원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부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⁰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우려가 없거나 또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부동산 투기도 억제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모두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로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공산품 가격과 공공요금 동결을 정부는 ⁰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단기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구조의 왜곡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합능력 투자 확대는 지속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고 임금 구조와 노동조합 부족 등을 감안하면 생산성 제고라든지 산업구조의 조정과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설비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의 고정투자는 7.6% 증가하는 것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87년도와 91년도간 총투자가 평균 16.5% 증가해서 8.9% 경제성장⁰ 이룩했습니다. 계획기간 중 소비증가율 6.1%보다 1.5%가 상회하는 7.6% 투자 증가만으로 7%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부존자원은 우수한 인적자원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은 부족해서 과잉인구 속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구직난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참 이상한 현실⁰입니다.

전문기술 인력과 기능인력의 부족은 결국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개발을 해낼 수 있는 인력이 적다는 증거로써 우리 산업 경제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정보화 첨단화를 포괄하는 기술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인문 교육 중심의 중등교육 제도를 기술교육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2급 논설체(270자×5분=1,35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35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2급 논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 국토는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그 국토 안에 사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만들고 가꾸는 것이다. 적어도 국토가 좁고 메마른 위에 그나마 그 7할이 산지로 구성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전제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없는 중대 의미를 지닌다. 좁고 메마름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있는 한 좁은 국토는 더욱 좁아지고 메말라 **꺾** 수밖엔 없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구가 급증 추세를 거듭해 나가는 한 머지않아 새로 태어나는 인구를 미처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국토의 협소성을 극복하면서 풍요하게 가꾸고 최대한의 경제적 이용을 기하는 것이 갈수록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경제적 시각**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국토를 비좁고 메마른 것으로만 한탄하는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애착심인들 제대로 우리날 리가 없다. 애국심이 어디 별것인가. 국토가 있고 국가가 있다. 국토를 비좁고 메말라 쓸모 없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마음가짐으로써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 또한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 놓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그 곳을 둘러싼 아랍 민족과 종말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애국심을 불태우고 있다. 네덜란드 민족은 좁은 국토를 넓히기 위해 아득히 멀리까지 바다를 메우고 또 메워, 한때 바다였던 옥토 위에 풍요를 과시하고 있다. 국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땅을 넓히고 가꾸며, 인간의 목적을 위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거기에서 애국심이 우러나며 풍요가 기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 확장 사업과 그 장기 개발 이용 계획의 내용을 논급함에 앞

서 그 사업 계획 속에 넘치는 의욕을 먼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매사에 있어서 의욕만으로 다 잘 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높은 경륜과 의욕을 사상(捨象, 특성을 버림)한 채로는 더욱 잘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좁고 메마른 국토를 넓고 풍요한 국토로 개조할 것을 꾀하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적어도 제 나라의 국토와 자원을 업신여기는 지금까지의 정신 풍토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국토를 넓히고 개발 이용만 하면 최선인 것은 아니다. 넓은 서남 해역 간석지를 메워 농경지로 전환하되 경제성을 따져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외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일부 서남 해안을 두고 문전 옥답이라 부러워했듯,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양식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논밭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해안 또는 간석지도 얼마든지 있다. 매립을 하되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감안한 추진이 소망스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어려운 자금의 최대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한층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긴다. 실인즉 지나치리만큼의 거창한 국토 계획은 그것이 그대로 자금 문제라 할만큼 자금 염출문제가 지난지사(至難之事)일 것이 분명하다. 인플레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아울러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지나친 압박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요체인데, 그럴 수 있는 방도가 어떤 것인지를 사업 추진의 가장 중대한 일환으로 제시해 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힘겨운 자금 염출로 국토를 확대하며 개발·이용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은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을 다다익선으로 여기며 호왈(號曰, 큰소리 치) 비교우위론이 지배하는 개발 전략적인 차원과는 엇갈려 가는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확대되고 개발된 국토가 제대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수 있게끔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경제개발 전략과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국토 확장 계획이 장기 국토개발 계획과 ▲저어(齟齬, 어긋남)가 없게끔 사전적인 충분한 조정을 피해야 할 줄 여긴다.

매마침 중동 건설 붐의 위축에 따른 인력과 유휴 장비를 국토 계획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국토 확장 사업의 한 계기로 된 것이 야닌가고 여겨지는 바 물론 탓할 수 없는 일이다.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는 이상, 그것을 이용하여 국토 개발을 꾀하는 것은 전화위복의 의미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남아돌게 된 중동 인력과 건설 장비의 이용을 국토 계획과 직결시키기에는 후자의 의미와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감안, 국토계획은 국토 자체의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아울러 특하면 투기가 먼저 이는 경제 풍토에 대비하는 데도 유감없기를 기해 줄 것을 우선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국토개조의 대역사-서남해안 매립사업의 의미와 과제」 중에서 1983년 6월 8일)

모 의 시 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2급 연설체(300자×5분=1,50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50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2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내년 6월의 4대지방선거는 정치 선진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불법·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명선거 풍토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민주화의 마지막 주요 ■제가 실천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될 것이며 국가발전은 새로운 활력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정부는 내실 있는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를 지역발전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지방행■의 전문화와 지역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에 우려되는 지역이기주의와 행정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려는 것입니다. 금년초부터 추진한 33개 시·군 통합에 이은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은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과밀한 부산·대구·인천직할시의 구역 확장과 자치단체간 경계 조정, 그리고 과대 자치구의 분구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 반세기를 맞고 있는 오늘 우■의 통일환경은 중대한 전환기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과 이에 따른 북한의 권력승계를 비롯한 여러 움직임들은 남북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통일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통일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내년이면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7,000만의 한민족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래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미·북한간 합의는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본목표하에 한·미양국이 일관성 있게 기울여 온 공동노력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북한은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수용하고 모든 핵활동을 즉각 동결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은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사업에 있어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북한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대화는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과 남북가족과 남북 억류자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통일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새로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

우리는 불원간 들어서게 될 북한의 새 지도부가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한 통일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2급 논설체(270자×5분=1,35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35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2급 논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수탉이 새벽에 우는 까닭은 슬퍼서가 아니다. 새벽마다 슬피 울어야 할 사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밝은 하루의 아침을 맞기 위한 찬송— 선언이다. 남에게도 깨우치고 스스로도 다짐하는 시보성의 울음이다. 1일지계의 으뜸은 수탉에 앞서 왔던 듯싶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1년지계를 세우는 원단에 어떤 외침으로 새해를 맞아야 할 것인가?

문명을 깨치고 문화를 일구어 온 인간의 역사는 험하고도 벽찬 것이었다. 갈수록 발전과 변화의 템포는 가속화되고 있다. '좀더 잘 살겠다'는 인간의 높은 의지는 적응력이 뒤따를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의 질과 양을 바꿔 놓고 있다. 우리의 사상이나 의식도 낡은 틀 속에서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언제나 새로운 발상과 개념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우리 세대가 오늘을 '단절의 시대'라고도 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런 폭발적인 변화의 시대에 찾아드는 '제3의 물결'은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찾아들어 미래의 영입을 촉진케 하고 있다. 다만 너무 빨리 찾아온 미래가 밝은 것이냐, 아니면 어두운 것이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집단마다 또는 개인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까지 한국형 미래를 따로 떼어 논의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미래는 국제의, 세계의, 지구촌의 미래와 일치하는 오늘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분단과 같은 국제 정치의 영향권 내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시장이 되어 버린 국제 경제의 큰 틀 속에 한 몫을 톡톡히 차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사활을 거기에 걸고 있기도 하다.

핵무기에 의한 전쟁이나 지나친 공업화에 의한 생활 환경의 오염과 파괴 등은 인류 공통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질적인 문화의 무분별한 전파에 의한 충격도 우리들을 어리둥절케 하는 것들이다. 한마디로 파괴와 황폐의 위협 속에 불안해 하면서도 내일 아침에도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고

오늘을 그럭저럭 넘기는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다.

종교의 신앙심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천재 지변에 사람들은 시달림을 받았다. 지진, 화산 폭발, 해일, 홍수, 가뭄 등으로 지난 해에도 희생은 컸었다. 좁아진 지구촌에서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게 가까이 느껴진다. 선진 과학의 힘으로도 예방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인재만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며, 사고 없는 미래를 위해서 예방에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변수가 잘 통한다고 한다. 합리보다는 무리가 앞서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때가 많다. 공식보다는 비공식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가 없는 변수 때문에 통계도 부정확할 뿐 아니라 최신 경영 기법도 맥을 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요령이 재주를 피우는 임기응변이 활개를 치게 된다. 결과만이 중시되고 과정은 무시되기 때문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기회 만능주의가 판을 친다. 이런 무질서가 경쟁적 의미에선 성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안정에는 크게 저해가 된다.

질서란 무엇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질서이다. 바로 조물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연의 섭리는 곧 자연의 질서이다. 인간 사회의 질서도 순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재 때문에 기존의 순서가 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새치기, 끼어들기, 옆치기, 가로채기 등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한 걸음 한 발짝씩 구분하고 꾸준한 이어 감을 뜻한다. 그런 것이 질서이고 안정이다. 유리창 밖으로 내다 보듯이 앞이 훤히 바라보이는 것이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사회이다.

설혹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있고 약육강식으로 도태되는 경쟁 사회가 현실일지라도, 그 나름의 질서가 형성되고 도덕 규범이 태어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첨단 기술과 새로운 지식이 속출한다고 해도 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엮을 수는 없는 것이다. ◀ 내일은 어제와 오늘의 이어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행 착오로 얼룩진 과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 후회를 되풀이 말아야 한다.

멀리도 말고 최근의 어제를 돌이켜만 봐도 회한의 꺼리를 너무나 많이 겪었다. 특용 작물에 재미를 못 붙이고 축산 장려 덕분에 소값 파동을 겪은 농민들은 이제 당국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쏠대도 안 믿으려 한다. 투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땅이나 아파트에 손댄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정실을 좇아다닌 자가 배격한 자보다도 출세를 했다. 통행금지 해제의 대영단만 빼고는 '획기적 시책'의 거의가 원점으로 회귀하여 자율화가 무색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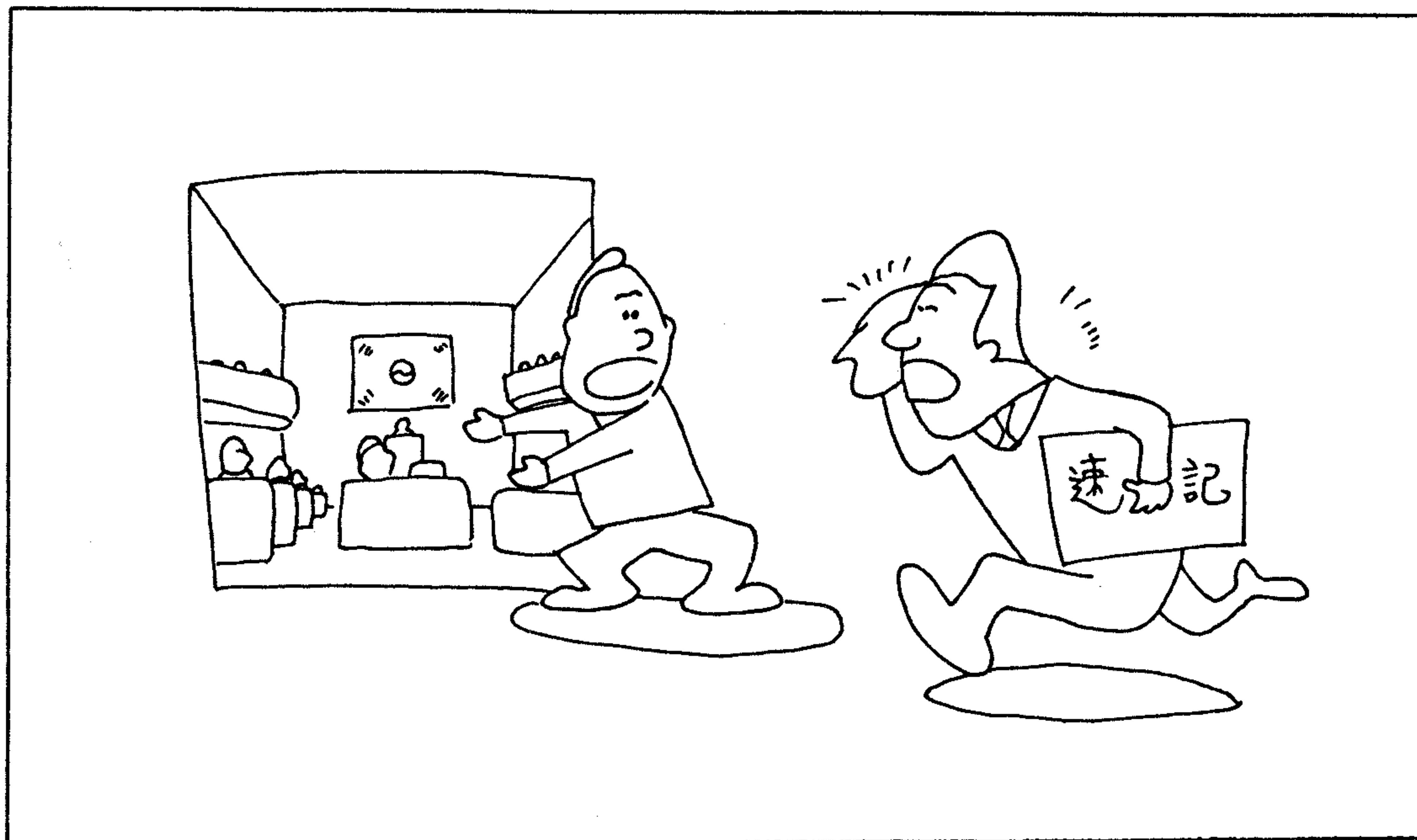
성현의 가르침이나 책대로 또는 웃어른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왔다고 평가되는 사회는 그 미래가 어둡다. 오히려 거꾸로 갔던 것이 다행이었다고 판단된다면 시작이 아니라 끝장

일 뿐이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야말로 잘못된 집단화와 대중화가 이뤄지고 파멸에로의 가속화가 닥쳐 온다. 더구나 앞길이 안개에 가려서 한 치도 내다보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는 서로를 탓해 봤자 헤어날 길은 없다.

여느 해도 그러했듯이 올해도 어느 달의 위기설이 낭설로 떠돌며 우울하고 어두운 가능성만이 유난히 돋보이기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가는 세월을 한탄만 할 것인가고 답답한 수탉은 고함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겐 일거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콩밭에 콩을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고, 팥밭에 팥을 심은 사람은 팥을 수확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섭게 변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경험으로 깨우쳐야 한다.

불안은 질서와 안정이 없는 곳에서 자란다. 흔들리는 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안할 때는 행동보다는 사고하는 것이 안전한 진정 효과를 보게 된다. 혼자가 아니고 여럿일수록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찾는 지혜를 같이 짜내야 한다. 교육 망국 소리가 나올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내 것을 바치는 오늘의 세대는 불행한 역사의 십자가를 메는 불운한 세대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불안을 씻고 아침을 설계하자는 것이다. 그 아침은 깨어 있어야만 보인다.

(조선일보 사설, 「깨어야만 아침을 본다 - 꿈은 안정 속에서 성취되는 것」 1986년 1월 1일)



▶ 회의장에는 속기사없이 대기하는 의원님들... 국회법 "국회의 모든 의사(기록)은 속기법에 의하여야 한다."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2급 연설체(300자×5분=1,50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50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2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의원 여러분!

정부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농림수산업을 지키고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농림수산업을 근대적 복합산업으로 개편시키고, 농어촌의 생활환경과 농어민의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범부처적 차원의 「신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신농정」을 더욱 보완 발전시켰으며, 농촌수산제도의 혁신을 위한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마련한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계획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예산은 8조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시·도 농어촌 개발계획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산 및 유통사업에 대한 예산은 63.1%나 증가시켜 농어민 자율사업의 획기적인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계화 등 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인력난 완화를 위한 자동화사업을 지원하고, 판로확대, 입지조성, 기능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생활편익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모든 복지시책을 국민편익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합니다.

먼저, 내년중 국민연금을 농어민에게도 확대하고 고용보험제를 실시하는 ■ 선진수준의 복지제도를 떠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20만호 건설 등 총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주택가격의 안정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핵가족화, 노령화에 대비하여 민간참여하에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노인성 병환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혼여성■ 취업을 돕기 위하여서는 '97년까지 보육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육아보육시설을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면서 학자금 및 생업자금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시작한 의료보장개혁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겠■며,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와 지도·감시기능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날로 높아가는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환경투자 확대와 제도개선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97년까지는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수질관리업무를 환경처■ 일원화하고 수계별로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광역상수도의 확충과 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한 생활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어촌 상수도시설도 적극 개량해 나갈 것입니다.

쓰■기는 수수료 종량제를 전국에 확대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에 힘쓰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청정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으며, 지역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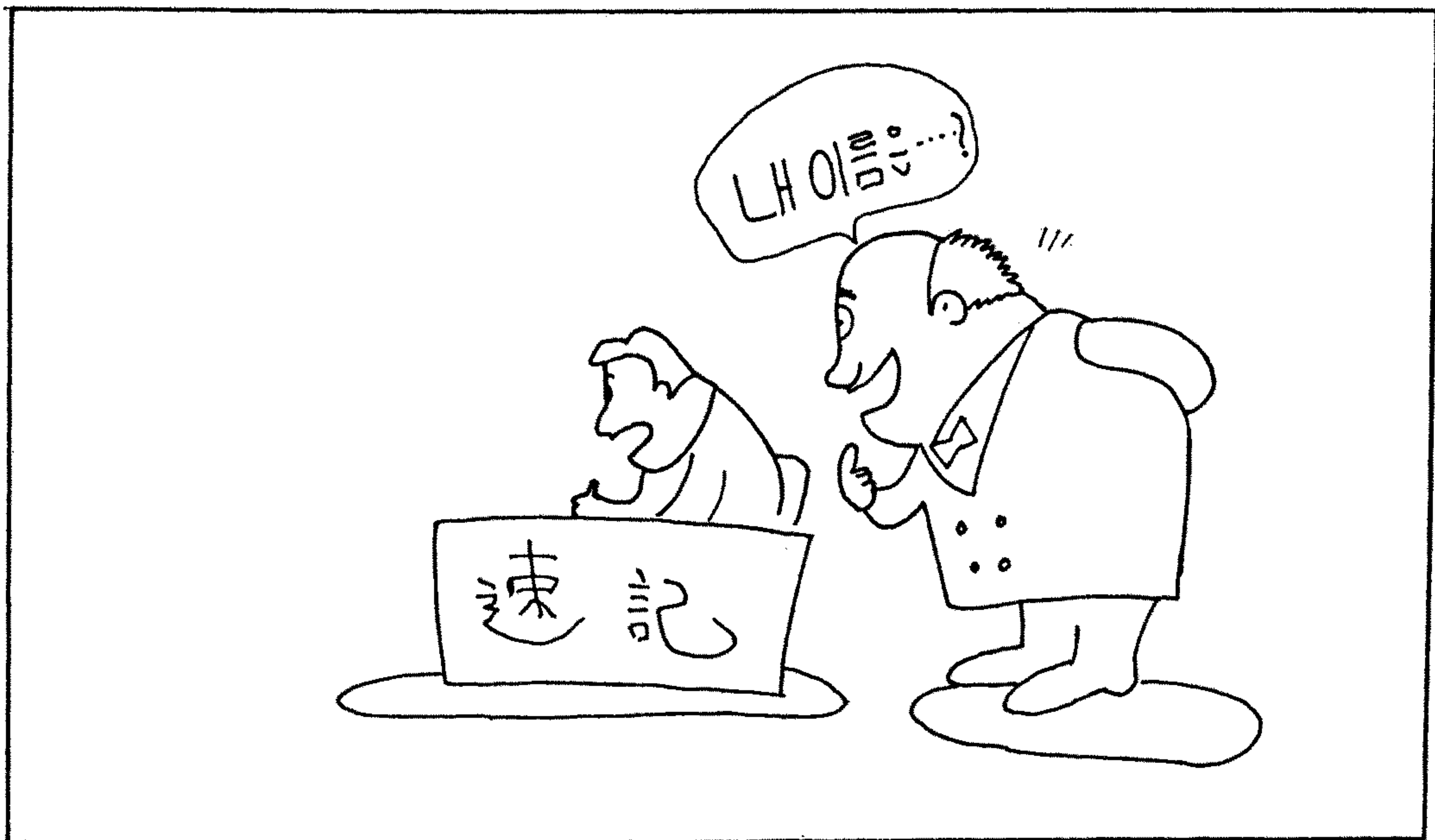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보다 노사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노사관계는 이제 점차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올해 노사관계는 철도·지하철 태업과 일부 대기업의 장기파업 등 다소 불안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연초에 임금과 주요 노동시책에 대하여 중앙노사단체간 합의를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분규가 줄어들어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분규에 대처하여 가급적 자율적으로 타결되도록 노력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원칙 확립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등을 통해 성숙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노사문제는 노사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장기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면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건전한 노사관행을 확립하는데 노사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건강증진, 작업환경개선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속기하라 손은 바쁘는데 내이름은 어떻게 쓰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는 어찌해야 할까?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1급 연설체(320자×5분=1,60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60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1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본의원은 새정부의 출범과 국정을 첫번째 논의하는 본회의에서 경제전반에 걸친 운영기조를 논의하면서 정부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표와 이상은 선진시민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주체가 새로운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의사 결정으로 무리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제도와 구조의 끊임없는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 가지고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정부,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의 결과로 증진된 사회적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향유하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한국 창조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한 시장경쟁체제가 확립된 바탕 위에서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 질서를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해 온 관리 통제의 관습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 후발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기술제국주의와 통상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유효경쟁의 촉진, 기업능률의 향상, 이노베이션의 확산 등으로 자생적 성장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자생적 성장은 정부의 간섭과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민간 경제주체의 창의적 노력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규칙을 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이**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경제철학과 목표에 기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체질을 강화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경기구조와 질서를 구축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새 정부의 경제철학과 경제발전의 목표는 무엇이며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새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시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새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경제정책 운영 기초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경제**예측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계획수립은 민간 기업과 국민들이 사업계획을 설정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구조를 개혁해서 새롭고 효율적인 경제**체**전 메카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신경제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기존 경제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과 이미 추진하고 있는 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이미 7차**계**획을 추진한 지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양 계획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석해야 될지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는 교육, 문화, 사회발전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나 하는 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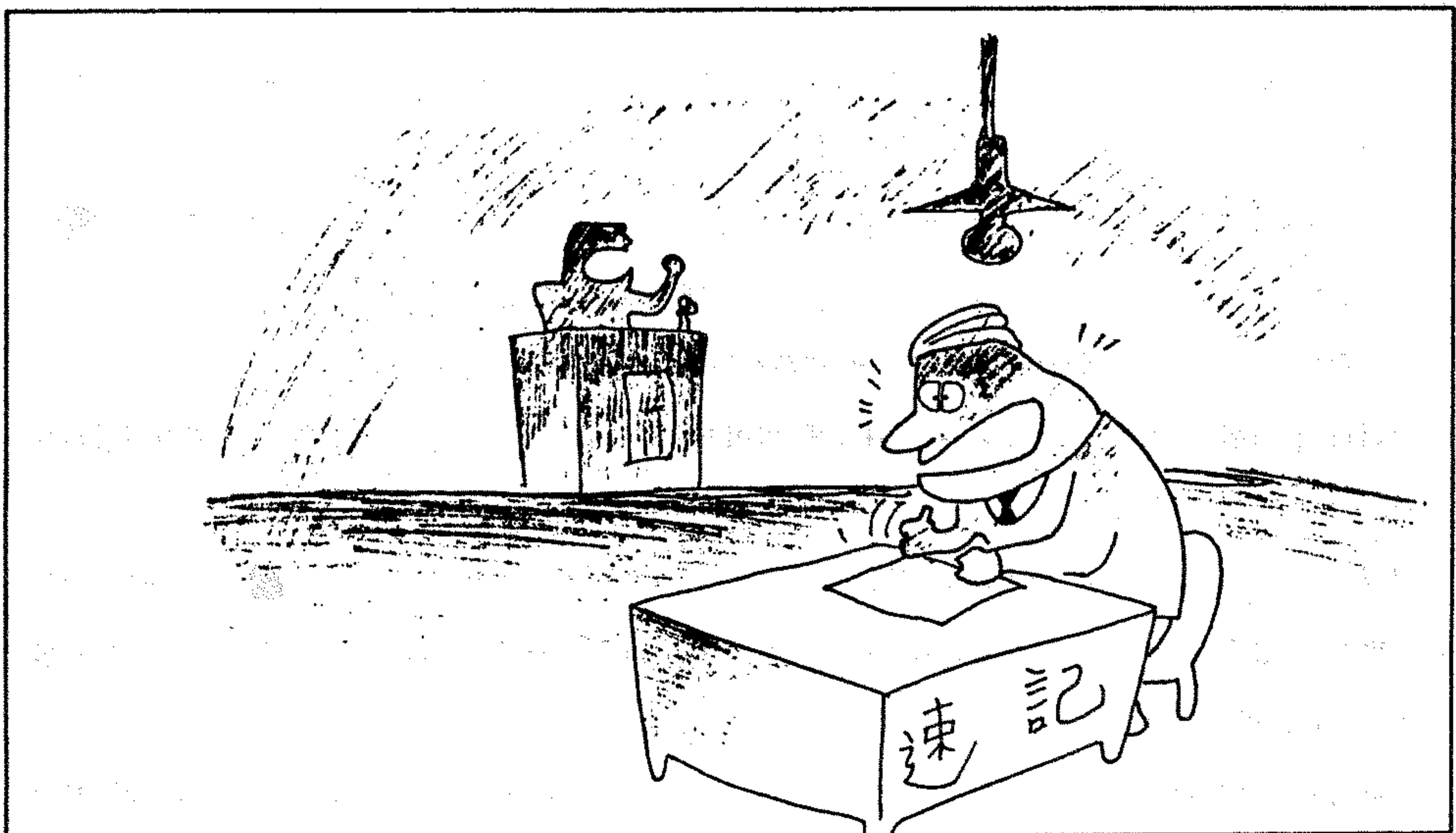
모든 경제계획은 계획과 집행결과를 매년 평가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나 제3기관을 통해서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평가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제계획의 심사 평가를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예상 총량 지표를 보면 계획기간 중 실질 GNP는 매년 7% 증가하고 있고 수출은 평균 11.6% 증가하여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6% 증가하는 선에서 유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IMF IBRD 등의 경제예측 발표를 보면 93년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G7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금년도 1.9% 향후 10년간 2.7% 선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경제여건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주력시장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정부의 거시적 견해는 무엇인지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도 계획기간 중 연평균 11.6%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낙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블록의 가속화, 후발개도국의 급성장, 국제환경규제, 국제경쟁력의 약화, 사회간접 자본 투자의 부족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수출역량이 크게 약화되어 있으며 또한 수출물량 증가율이 교역상대국 성장률의 3%에 달하고 있어서 다소 무리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 정전속에서도 발언의 열기는 식을 줄 몰라 속기사는 속수무책. 이럴 땐 눈에 불을 켜면 되지.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1급 논설체(290자×5분=1,45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45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1급 논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우리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도전과 갈등의 시대’로 인식한다. 민족 국가의 성립 이후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갈등의 고비를 넘어왔지만 오늘에 와서 또 다시 겪고 있는 도전과 갈등의 의미는 왕조 시대나 전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그것들과는 성격상 판이하다. 오늘의 갈등은 우선 그 구성인자가 너무도 복잡적이다.

서구의 계몽 시대 이후 백화제방(百花齊放)했던 이념의 갈등에서부터 초기 상업 자본화 시대의 계층적 갈등과 유사한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안으로는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신중상주의와 국가 이기주의로 인한 마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측면은 이 모든 형태의 갈등과 도전이 상업 자본주의의 완숙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정보화시대 한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보다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이상과 삶의 질을 열망하고 추구하면서 갈등의 진폭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보다 향상된 삶과 공정한 룰의 확립을 갈망한다. 권위주의 정치를 옹호했던 경제 제일주의는 기업화로 가는 원시 자본 축적을 이루어냈지만 그 후유증은 우리 사회에 깊은 골을 남김으로써 오늘의 갈등을 씨뿌렸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시대의 도전과 갈등은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 체제나 경제 구도는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발전시켜 온 자유 자본제는 결코 그 자체로서 완성된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인 적이 없으며, 오늘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허점들과 마찬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 경제 발달사에 나타난 생생한 증언들이다.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장점으로 인해 채택한 제도라 해도 끊임없이 자기 수정과 개혁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서구의 완숙한 자본주의가 얼마나 장■한 세월을 통해 자기 수정의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파탄이 결코 자본주의의 무류(無謬)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지금 극복해야 할 갈등과 도전의 해소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여유가 남아 있지 않다. 시간이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은 결국 변화와 개혁의 적극적 수용으로 극복될 ■밖에 없다. 사회주의 체제가 지금 개혁하려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자본제(資本制)와 자유시장 체제의 결합은 수정돼야 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본류가 다른 아닌 구조적 결합과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그리고 이 같은 자기 수정은 오늘의 갈등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이념적 갈등이나 계층■ 갈등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개혁의 중요성 못지않게 경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개혁은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이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경제 정의의 실현이 최우선 과제라고 확신한다. 공업화 초기의 '에토스'가 효율적이었다면 지금의 그것은 형평과 정의라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때문에 우리는 불공정과 불형평의 시정이 경제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하며, 경제발전의 방향이나 정책 또한 이 점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양한 경제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그 불공정과 불균형의 측면이 두드러지는 토지 제도의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지금의 토지 제도는 이대로 방치될 경우 그 가용성 ■ 급속도로 축소되어 더 이상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없게 되고, 부의 편재와 소득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며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기본 수요인 주택 문제마저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때문에 토지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여 사적 소유권과 공■재적 효용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식의 일대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 토지의 공공재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결코 사유재산권의 전면 부정이 아니며, 더더구나 자본주의의 기초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취약화된 기반을 재구축하는 자기 수정의 길임을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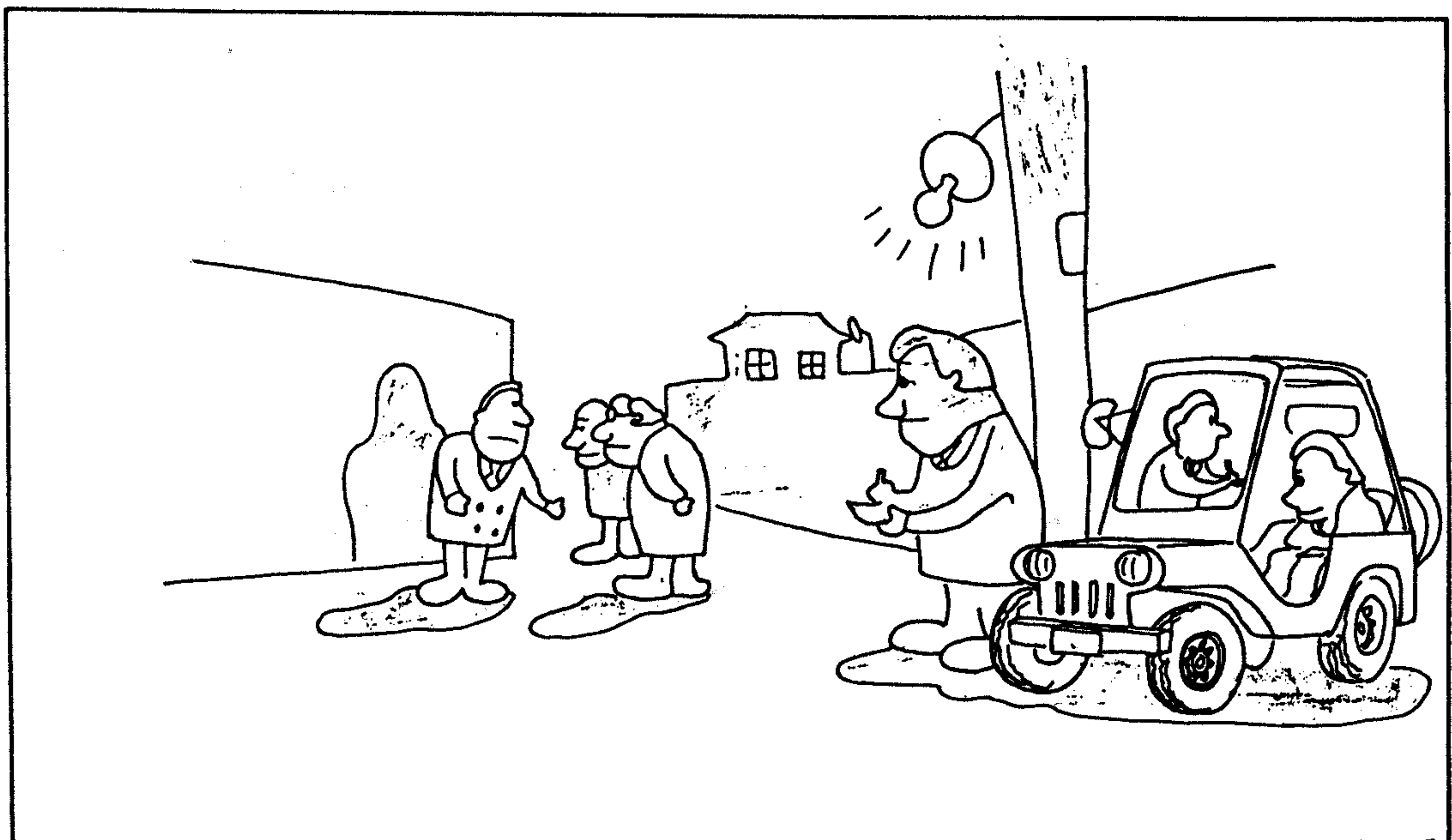
토지는 사적 재산임과 동시에 공적 이익에도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토지의 사적 상품화에서 비롯된 갖가지 병폐들은 시정되어야 하고, 토지를 기초로 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는 공공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따라서 토지 이용을 제약하는 독과점을 막아야 하고, 과

다 보유와 거래에 따른 자본 이득은 공정하게 공적 목적으로 환수돼야 하며 토지재산가에게 유리하게 방치되어 온 토지 관련 조세는 형평에 맞게 과세돼야 하고, 개발과 투기에 따른 편승 이득은 토지개발 이익세 등으로 흡수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토지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토지 과세 표준의 현실화가 필수적 전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토지의 공공성 제고는 토지기본법의 형태로 제도화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현행 헌법 정신과도 일치된다.

경제정의의 실현과 결부된 또 하나의 중요한 개혁은 금융거래실명제 도입과 형평을 중핵으로 한 조세 체계의 전면 개혁이다. 이들 세 가지 개혁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도전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이자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오늘의 복합적인 이념적, 체제적 혼란에 대응하고 자유민주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사설, 「개혁해야 자유 민주 지킨다」 1989. 8. 25)



▶ 특별조사위원회의 현장검증 속기...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모든 말을 척척 기록하는 속기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1급 연설체(320자×5분=1,60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60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1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의원 여러분!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 구축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WTO 출범을 앞두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날로 깊어지면서 모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편, 국가간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외교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한반도⁹¹ 평화정착과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우리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4각 외교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양국간 문제뿐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⁹² 있어서도 광범위한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변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협력관계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과는 문민정부 출범이래 몇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린우호협력의 기반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와는 고위급 ⁹³ 인사 상호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진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아·태시대에 대비하여 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PEC지도자회의를 계기로 역내국가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역내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EU와의 협력기반 강화에 더 노력을 경주하는 등 우리 외교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리외교도 더욱 내실 있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OECD 가입이 '96년에 예정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력신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도 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인권·군축문제 등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00여만명에 이르는 해외교포들이 현지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의 현대화와 각종 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군의 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의 위계질서와 지도권을 확립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편, 장병들의 복지증진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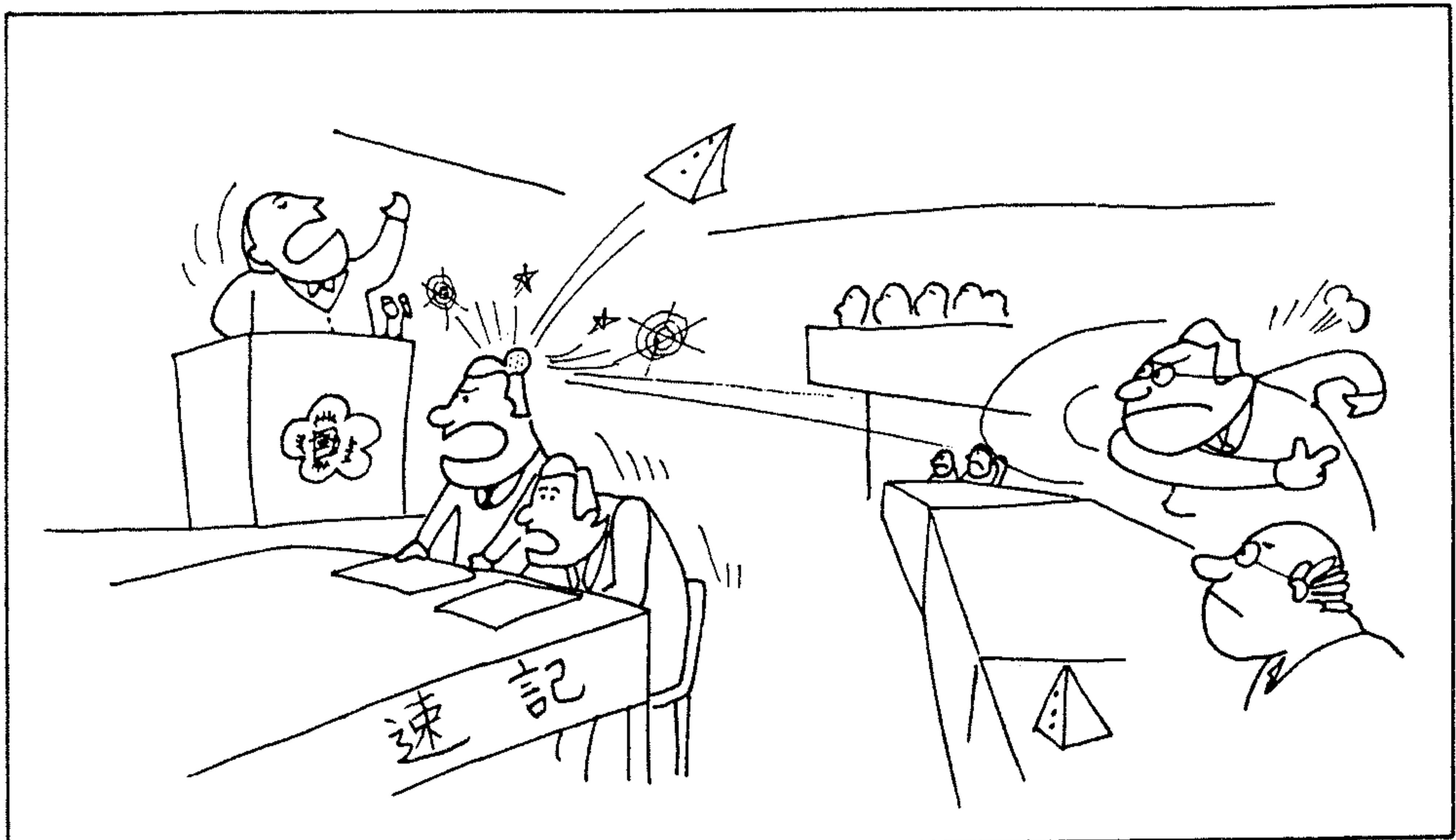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황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그 내용도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있는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경기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뭄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과 일부 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불안했던 물가도 이제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와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굳건히 다져가는 가운데 농산물, 서비스 등 개별품목의 안정대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금년 소비자물가를 6% 선에서 안정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활발한 설비투자와 수출을 뒷받침하는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고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켜 국제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속기석은 회의장의 중심부에 있어 의외의 피해자로 가끔 등장. 하필이면...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1급 논설체(290자×5분=1,45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45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1급 논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 말을 해야 할 때와 자리에서 꼭 해야 할 말만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다. 혼히는 때와 자리를 가리지 못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아 말 아니한 것만 같지 못한 결과를 빚는다. 또는 상대방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자기 기분에만 도취해서 떠벌리는 경우도 있어, 차라리 침묵이 금이란 잠언이 잘 들어맞는다 할 것이다. 이처럼 **말**이란 하기도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란 서로 주고받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회화나 대화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인격이 나타나고 만나는 교류라 할 것이다.

개인끼리의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사교나 국교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이어 주는 것은 말의 오고감이다. 특히 자유스럽고 평등한 민주 **사**회일수록 말의 비중은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높게 마련이다. 또한 말씨가 부드럽고 세련되었으며 간결 명료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때로는 유머가 담겨 있어 화기가 도는 대화를 나눈다. 이런 대화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영원한 목표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평등한 대화에 익숙한 분위기에 살지 못했다.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받는 것으로 족했다. 상의의 하달은 쉬웠으나 그 역은 어려웠던 것이다. 합의나 화의는 충분한 대화나 논의가 없이도 성립되는 것이 예사였다.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는 이런 근원적인 인간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대화를 통한 정치와 문제의 해결이란 방식이다.

말하고 싶을 때 참여의 기회를 갖고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의 논리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국정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원리에는 지극히 찬동하며, 지켜 나가려는 의지는 강한 데

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숙하기 짝이 없다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말하고 듣는 훈련과 교육이 모자랐고 사회에서조차 **회**의진행법에 순치(馴致)나 계발(啓發)이 안된 탓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원숙한 토론의 광장이라 할 국회에서의 오는 말 가는 말의 과정을 우리는 모범적인 예시로 지켜보게 된다. 이번 제108회 정기국회의 경우에서도 옛날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의정 녹음이라고 신문 지상이나 전파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이 거두 절미한 것이어서 소상한 것을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의정 단상에 앉아 본 다선 의원이나 역대 의회를 취재해 온 기자들은 한결같이 그전만 나올 것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많은 제11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이기 때문이라든가, 예산 심의권이 없는 상임위에서의 정책 질의가 예전처럼 차분할 수 있겠는가 등등 소명의 구실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래도 국회가 열려 있음으로 해서 국민이 궁금해 온 바거나 가려워 했던 문제들이 크게 부각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국회 의원들 자신도 대의 정치의 일단을 맛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문현답형 또는 동문서답식의 질의응답이 계속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씻기 어렵다. 이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문제를 가지고 뒷북을 치듯 어_조를 높이는 질의라든가 항용 쓰는 ‘...할 용의는 없는가?’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장군명군 격의 답변이 흔하다. 또한 남의 발언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되풀이 질문하거나, 답변자나 답변 자체를 의식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질문 아닌 답변을 대변하는 수도 있다.

정책상의 본질적 의견 차이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말꼬리를 잡거나 순_간적인 구분과 재치로 임기응변의 발언이 너무 흔하다. 여·야간의 격돌도 정책상의 대립 때문이 아니라 과격한 어휘나 어구를 잘못 택했거나 제스처의 잘못 사용으로 정회를 거듭하며 수습에 시간을 보내고 속기록에서 발언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일 등은 전에 흔치 않던 일들이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줄줄 읽어 내려가다가 묻지도 않은 것을 답변한 무신경한 **장**관도 있었다. ◀

통계 숫자의 계수에 밝은 행정 관료의 답변 한 마디면 후속 질문이 봉쇄되고마는 단선형 정책 질의가 고작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숫자의 마술에 정치가 숨죽여 있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정치가 웅변으로 이끌어 가던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을 하다가 보면 웅변조의 연설이 장황하게 서론을 장식하여 결국은 신상발언에 그치고 본론은 쥐꼬리만큼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비단 의정 단상에서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흔히 보게 된다. 말 한 마디 못하는 병어리 의원이라는 불명예의 낙인을 찍힐까 겁나서 한 마디 거든다는 것이 오발탄이 되고마는 경우처럼, 어느 회의나 심포지엄 같은 데서 발언 앓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다. 토론 과정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

인 자기 소견을 장황하게 피력하는 자기 존재 과시형의 인사들이 언제나 회의장의 물을 흐려 놓는다.

자기의 주견이나 주관에 있건 없건 간에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떤 지침과 방향이 내려지면, 이것만을 고수하고 옹호하는 의론(議論)만이 눈에 띄고 귀에 들어오며, 그 반대의 견해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봉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이나 행정 책임자도 그렇고, 정치 세계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풍조는 산견(散見)된다. 대화의 논리나 윤리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듣기 싫은 말을 듣는 아량을 가져야 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듣기 싫어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점잖음도 갖춰야 한다.

말은 혀로써 발생되지만 실은 두뇌의 운동인 것이다. 생각이 없고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떠벌리는 경향은 일종의 열등 심리의 보상 작용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말해야 할 때와 자리에서 할 말을 삼키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금은커녕 은도 생산치 못하는 것이다. 자존과 겸손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한번 쏟아 놓은 말은 되담지 못하지만, 말해야만 할 때 안 하고 접어 둔 말을 두 번 다시 되찾을 길은 없다. 때문에 언제 어떤 말을 적절히 할 것이냐는 판단이야말로 명석한 두뇌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개개인의 지성과 인격의 결정을 용기와 슬기로 배출해 내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와 언론에 기대하는 바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 정치나 자유 언론이 바로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바일 것이다. 민주주의 실현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것은 결코 낭비도 아니며 허비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36년 동안 이상과 목적에만 연연했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낭비와 허비가 많았다고 여겨진다. 말하고 듣는 데 등한했다는 것이다. 진실만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말하며 이를 끝이끝대로 듣는 관습이 자리잡히지 않는다. 간결하고 명쾌하게 묻고 답하는 버릇이 없다. 요즘 TV를 통해 듣고 보는 즉석 기자 회견이나 이른바 토크 쇼나 대담 프로를 보면 어색하고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말하는 기술과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설, 『「말」의 슬기와 기능—민주적 대화의 생활화를 위해』 1981년 11월 11일)

모 의 시 험

- ▲ 다음의 문장을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게 하고 속기한 후 번문하라. 역상문자까지를 30초내에 낭독한다.

1급 연설체(320자×5분=1,600자 이상)

합격기준 : 오자 및 탈자 160자 이내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속기1급 연설체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 완화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까지 6대도시에 지하철 544km를 추가건설하고 대도시 권역에 광역전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수요의 50%수준을 지하철이 분담하는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30%²¹ 증가한 8,000억원 이상을 지하철 건설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시내버스와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편의도 계속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는 세계 10대 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²²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을 24개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아시아·태평양 ²³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은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인간교육과 미래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 ²⁴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역점을 두고

과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대학교육은 사회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배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제와 교수평가제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전문인력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토록 하며, 대학내 산·학·연 협력연구단지의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건실화하고 학사운영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학원내에 면학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정부는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이제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나라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간과 생활체육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뉴미디어 정책을 도입하여 내년부터 종합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지역민방과 위성방송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통합의 바탕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의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외세에 의해 왜곡 단절된 민족사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구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와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신축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순국선열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독립유공자들을 대대적으로 포상하고 선열의 유골봉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번영을 다지는 문화 대축전을 민족적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복 50주년이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향해 한 걸음 도약하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7 동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청소년은 나라발전의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과 수련 프로그램을 확충·보급하겠습니다.



<참고 문장> 연설체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며 개혁과 국제화의 대열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 및 사회 기강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기강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공무원 비리사건과 갖가지 흉악범죄는 우리의 개혁의지를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파헤치고 근원적인 치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실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과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부정방지를 위해 부정축재재산 몰수, 재산등록 범위의 확대, 기관장 책임하의 비리척결 등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인사제도 그리고 근무환경 등의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의 안정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공공질서 문란행위와 탈법적인 사회부조리,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법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능력 향상 등 민생치안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력범죄자는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해 나가고, 범죄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장치도 강구·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의 건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의 동참과 호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정부와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인만큼, 우선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점진적으로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자 합니다.

정부는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율적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시민운동단체 등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혁작업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하루속히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선진사회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50조 1,411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5.9% 증가한 수준이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하면 54조 9,773억원으로서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재정이 경제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7,000억원 규모를 절약하여 이를 정부채무를 상환하는 데 충당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세출규모는 금년도보다 14.0%가 증가되는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 및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환경개선사업의 본격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것으로 지적되는 보건위생, 사회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문에도 새로운 시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의 개혁성과를 돌이켜보며 보다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시대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수십여년간 쌓여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땅에 신한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냉철한 자기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과 희망,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무한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새로운 세계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10월 18일

대통령 김 영 삼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제170회국회(정기회)>

<삼고 문장> 논설체

우리는 '민주화'하면 흔히 권력의 민주화, 정치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랜 세월 동안 왕권의 전제, 식민의 억압, 권위주의 정치의 횡행, 군사 문화의 일방통행 속에서 질식할 듯이 살아 온 우리에게 정치 권력의 상대성, 상층부의 민주화는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의 민주화는 상층 구조의 자각과 제도적 보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또 제도의 민주화는 단지 법을 고치고 관을 개조하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인가? 우리의 현실과 관련, 정치의 민주화는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들이 실천되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들이다. 특히 우리의 정치 문화가 오랫동안 지도층의 의식과 색깔에 따라 좌우되어 왔고, 우리 또한 지배자에의 복종이 체질화되어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하향적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변화는 위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바뀔 개연성을 지닌다. 열정적인 반정부 인사가 집권 후 반드시 민주 정치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화는 시혜되는 것이 아니다. 얻어먹는 민주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이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민주화 의식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주체를 민주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민주화를 권력의 민주화와 시민의 민주화로 구분해서 관찰하는 것은 때로는 불합리하다. 사실은 그것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며,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은 그 속성으로 보아 비민주적인 체질을 지녔으며 이것을 부단히 견제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시민의 민주화라는 사실이다. 시민의 민주 의식이 드세지 않은 곳에 권력의 자의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바로 여기에 시민의 민주화가 한 나라의 정치 발전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시민이 민주화되는 것일까?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듯이 시민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민주 시민의 기본 요건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정치를 하거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들로부터 그 권한을 잠정적으로 위임받은 상황에 불과하다는, 지극히 고전적인 인식에 바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전적인 인식에만 몰두한 나머지, 남에게 무엇을 요구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행세라는, 허공에 뜬 주권 의식에만 안주해 왔다. 그래서 말로만 민주화가 어떻고 우리가 주인이고 공직자들을 공복이라고 떠들어댔다. 실제로 우리 피부와 상황에 와 닿는 민주주의에는 등한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땅 위에 걸어다니는 민주주의다.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앉은 민주 의식이다. 그것은 주인의 권리와 함께 주인의 의무를 등가치(等價値)로 설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한 집안의 가장이나 기업체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 구성원에게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런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고 있다.

주인에게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직 사회를 관장하는 규범에 같이 복종하며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참으면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 시민의 자세는 민이 주인이라는 권리 의식보다 민이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조선일보사가 1988년의 주제로 '민주 시민이 이끄는 사회'를 제기한 것은 적어도 금년 동안은 권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지킬 것부터 지켜 가는 것을 익히고, 배우자는 뜻에서다.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민주 시민이다. 나의 주장에 못지않게 남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 그도 민주 시민이다. 자기 차례를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규칙을 위반해도 나만은 규칙을 지키겠다는 고집을 가진 사람, 지도자를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는 분명히 민주 시민이다.

지역 간의 갈등과 알력, 계층 간의 불화와 마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대립과 반목, 그런 사회적 국가적 문제와 모순들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아파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자세, 거기에 민주 시민의 요체가 있다.

그런 의식과 자세가 정착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권위주의 정치에 대해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한다.

중간층이 자라 압력 단체 구실을 하면서 정치 권력의 전횡적 요소에 제동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권이 절대 왕권에 도전하면서 생성된 개념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1988년의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곧 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이 있는 뒤 한바탕 노사분규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는 올림픽이라는 민족적 행사가 우리를 뒤흔들고 지나면, 어쩌면 새로운 정치 소용돌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경제적 도전도 87년처럼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노선에 집착하지 않는, 대단히 유동성 있는 국가주의가 팽배할 조짐이다. 소련의 개혁 바람은 공산권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며, 중공과 동구권은 경제적 이익, 국가적 이득이 있는 곳에 악수의 손길을 내미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관계도 보다 동일 평면상으로의 이동을 계속할 것이며, 어쩌면 이런 모든 평상으로의 이행이 한국의 방위 체제에도 어떤 변화의 기운을 조성할지도 모른다.

이런 국내외적 자극과 도전 속에 우리가 지녀야 할 위상은 더더욱 민주 시민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정치 권력과 지배 엘리트의 전횡을 막고, 권력에 대한 대항 논리로서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자구적 노력으로서의 민주 의식을, 나와 나의 주변에서 찾아 나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1988년은 참담하고 암울한 시기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권력은 또다시 우리를 앞보게 될 것이고, 세계는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수 없다. 역사는 우리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일어설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 일어서야 한다.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을 도와 줄 하늘은 없다.

(조선일보 사설, 「시민이 민주해야 권력도 민주한다—그것은 시혜되지 않는 것,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는 것이 산악인의 변이다. 이 말은 험준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험준한 만큼이나 더욱 그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커진다는 말과 통한다. 더욱 높고 험준한 산의, 그것도 하필이면 보다 험준한 코스를 골라 타고 오르는 산악인의 심정은 정말이지 산악인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

겉보기에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돈 들여 스스로 위험을 찾아 해외에까지 나가 때론 사경에서 희생을 치르는 일을 비밀비재하게 겪는가 싶을 때도 있다. 1월에는 안데스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됐고, 7월 초에는 준령 중의 준령 아이거북벽에서 두 사람이 벼락으로 희생됐다. 그로부터 보름이 못 가서 또 한 사람이 히말라야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참사를 치렀다.

한데,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르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충동은 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인지를 답답하게 여길 때가 많다. 좀 치사한 얘기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산정에 올라 정복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또 배가 불러야 하는 데야 어떻게 하나.

실인즉, 산이 좋아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또 산을 반드시 타고 오르는 대상으로만 쳐다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산악인들로서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타고 오르고 싶은 충동을 받는 산은 알프스 산맥의 준봉들이다. 산이 깎아 세운 듯 높을 뿐 아니라 아름답고 그래서 물이 또한 맑

고 깊다. 예로부터 스위스 사람들이 눈만 뜨면 그 산을 쳐다보고 잠만 나면 산을 타고 올랐다는 것이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산을 타고 오르내린 것은 결코 산정의 정복감을 즐기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산인 저들 준봉들을 어떻게 그 곳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이용할 것인가가 더 큰 관심거리로 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 훌륭히 그 암벽 투성이의 준봉들을 그들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이용함으로써 보기 드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수직으로 솟아오른 산을 계단식으로 개간, 초지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목축 국가로 군림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산을 초지로서 이용하는 슬기는 그 산에서 치는 우종(牛種)까지도 특수한 것으로 개발하여 종우(種牛)로서 각국에 비싼 값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 곳에서 개발된 시멘탈이라는 소는 유우(乳牛)와 육우(肉牛)를 겸한 이상적인 우종으로 1년 미만으로 무게가 최저 400kg이 넘게 자라고 2년이면 1,000kg이 넘게 크다. 3년을 키워도 400kg에 이르기가 힘든 한우와는 비교할 바가 못 되고 거기에 시멘탈은 우량 젖소인 홀스타인에 못지않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목장에서조차 입증되고 있다.

깎아 세운 암산을 목축지로, 또는 농경지로 개발, 이용하는 지혜와 슬기는 그것 못지않게 해발 4,000m에 이르는 산 꼭대기까지 철도와 케이블 카를 설치하고 몇 km씩이나 되는 터널을 아래서 위로 뚫어 놓고 있다. 거기에 관광 시설을 다채롭게 갖추고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큰 돈을 벌며 세계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비록 높이나 모양은 알프스에 비길 바가 못 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은 경제적 이용 가치로써는 하기에 따라 알프스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다. 낮고 둔하게 누워 있어 볼품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들여 계단을 만들 필요가 없고 평지처럼 오르내리며 개간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적어도 스위스 사람들의 알프스에 비할 땐 그렇다.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어 일등 농업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농경지에 비할 땐 우리나라의 산지는 그냥 두더라도 비옥한 편에 속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산지를 무용지물로 업신여기고만 있다. 국토의 7할인 산지를 무용지물로 여기는 인식은 우리 국토가 그만큼 쓸모 없는 땅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비약하기 일쑤다.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자원국이라는 자학적 사고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빈약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자금과 노력의 낭비를 낳아 국민 경제의 불리를 자초하는 것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활개치게 해 놓고 있다. 그러한 논리는 해외 자원에 대한 의존을 당연시하고 다다익선으로 보는 것 같은 산업 구조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토가 특히 우리의 산지가 유달리 비옥하며 풍요하다고 내세울 건덕지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헐벗겨지고 미개발·미이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까지 산의 허물로 돌리는 것은 될 말이 아니다. 헐벗기만 하고 개발·이용을 도외시해 온 것은 인간 스스로이지, 산의 책임일 수는 결단코 없는 것이다. 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용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저네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다.

산은 정직하다는 것이 등산인들의 변이다. 거기로 오르기 위한 성실하고 주도한 노력은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는 보답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응당한 자금과 노력을 기울이고 이용 방법을 과학적으로 추구해 간다면 산은 그만한 대가로써 보답해 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다.

당장 산이 우리에게 자원으로써 기여해 줄 수 있는 길은 축산원으로서이다. 단위 면적당 수익성으로 따질 때 논농사는 밭농사보다 두 배가 높고 초지 조성에 의한 목축은 논농사보다 두 배 반이 높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저 산지를 초지로 조성하여 목축을 한다면 평지의 논밭보다 몇 배의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실지로 태백산맥의 해발 1,000m 내지 1,400m에 이르는 전인 미답의 고지에다 수백만 평씩의 초지를 조성, 목축업을 하고 있는 것에서 그와 같은 계산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쇠고기 수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소 사육을 위한 사료 수입이 국제수지에 중압을 가하고 있다. 소득향상에 따른 축산물 수요의 급증 추세에 비추어 이대로 가다가는 고기를 수입하건 사료를 수입하건 도저히 국제수지가 감당해 낼 수 없는 단계가 올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때에 가서 야단을 쳐 봤자 너무 늦다. 저 광막한 산지 중의 적지를 골라 초지로 조성한다면 축산물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왜 그 가능성을 두고도 쇠고기 수급을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말이다.

산을 초지로 조성하면 평지의 전답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7할의 산지를 무용지물로 업신여길 것인가. 산의 정복은 산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산을 내 것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비로소 다 되는 것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산 산 산 - 목축 초지로의 아까운 자원」 1981년 8월 11일)

옛 우리 선조들은 물 귀한 줄을 절실하게 알고 살았었다. 하늘이 물을 내려 주지 않으면 기아와 직결되었던 수도 농경 민족이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 옛 선조들이 물 한 방울을 헛되게 버리지 않는 절수가 체질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허드렛물은 반드시 텃밭에 뿌려 농업용수로 썼고 설거지 물은 구정물 통에 담았다가 돼지 밥물로 썼다. 물을 낭비하는 빨래를 집 안에서 하면 어쭙잖은 여편네로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그러기에 빨래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해야 했다. 뒷물이라 하여 부인네들 하체를 씻은 목욕물은 반드시 받아 두었다가 감자나 마늘, 무 등 구근류의 소채밭에 뿌려야 했던 주술적인 비료였다.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우산을 받고 나가거나 도롱이갓을 쓰고 나다니면 뭇매를 맞아 죽기까지 하는 사건이 종종 있었으며 이 같은 살인은 관가에서도 방관했던 것이다. 이처럼 물에 대한 신앙적인 집착이 있었으며 절수는 한국에 사는 하나의 조건이 돼 있었다.

농사를 떠나 도시에 살고 있다 하여, 그리고 수도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여 우리 수천 년 내려온 이 절수의 관습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이 우리의 생계와 직결돼서 뿐만 아니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을 비롯, 전국 도시들은 식수 비상을 내리고 있다. 상수도원이 말라들어 시간제 급수며 격일 급수, 격사흘 급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뤄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년에 들어 잦은 기상 이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에 우리 의식 구조 속에 전통적으로 체질화된 이 절수 심리는 현대이기에 그 더욱 되찾아 누려야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동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울부터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공급한다던데, t당 연료비를 감안하면 서울에서 먹는 수도물값보다 30배나 비싸다고 한다. 반드시 물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물의 희귀성 때문에 세차하는 데 물 한 버킷 끼었으면 범률에 저촉되기까지 한다.

물론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우리 한국의 도시인들은 물 없이는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살 수 없으면서 물 문제를 거론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남들의 문제로 여긴다는 개연성에 먼저 자성을 해야 하겠다. 공해로 인한 공기오염 이전에 대기 문제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에너지 쇼크 이전에 에너지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듯이 물 문제가 현재에 그러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두 홉의 밥을 먹는다 할 때 그것이 두 홉의 쌀이 되기까지 무려 1.2t의 물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등한하고 있는 것이 된다. 달걀 1kg 생산하는 데 20t의 물이, 쇠고기 100g에는 2t의 물이, 맥주 4홉들이 한 병에만도 17l 물이 든다. 공업 분야에서는 쇠 1t 만드는 데 90t의 물이,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400t의 물이 소요된다.

흔히들 우리들은 우리 생활에 직접 쓰이는 식수, 설거지물, 빨랫물 그리고 수세식 변소의 물 등

1인당 최저 250l의 물만 있으면 산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생활주변에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선행됐으면 한다.

이 같은 보이지 않는 물 수요의 확대 인식 속에 수도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절수나 하수 이용을 각자가 체질화했으면 한다.

가정에서 꼭 써야 할 물을 최소한으로 쓸 만큼만 쓰는 그런 절수를 한다면 무려 38%나 사용량이 준다는 실험보고도 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수도꼭지 한 개당 하루에 70l만 절약하면 충주시만한 인구가 하루 먹을 10만t의 물이 남는다. 하루 서울에서 한 사람이 쓰는 물이 438l인 것을 감안하면 한 집에서 70l를 절수하는 것쯤 손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시민들의 용도별 수도물 사용 비율을 보면 음료에 1.3%, 취사에 27.6%, 세탁기에 39.3%, 목욕에 20.9%, 청소 3.9% 비율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세탁물과 목욕물 한두 바가지씩만 절약해도 수도 혜택에 굶주린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 쓰고 난 다음 수도 꼭지를 꼭 잠근 것을 확인하고, 물을 쓸 때 수도꼭지를 틀어 직접 쓰질 말고 받아 놓고 쓰며, 수세식 변기 등 위생기구의 고장 누수를 막고, 잔디나 수목 등에 주는 물만은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만 이행해도 수십만 t의 물이 절수된다고 한다. 수도물값의 절반이 전기값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물의 절약은 에너지 절약으로 직결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가 증발하고 없는 부자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 아들 놈이 화장실에 가 오줌을 누고 흘러 버리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들어와 일을 보고 함께 흘러 버린다. 자칫 아들놈에게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러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나 가족 중에 누군가 화장실을 이용할 것인 아침 나절에는 흘러 버리지 않음으로써 물을 절약하는 청교도 정신의 절감 습속인 것이다.

그로써 절약하는 양은 적다. 그러나 그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체질화됨으로써 아껴지는 물의 분량의 총화는 막대한 것이다. 또한 목욕물을 그대로 흘러 버린 것이 아깝다 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목욕물을 모아 두었다가 하수에 이용하는 간단한 구조물이 가정에 도입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절수가 아니더라도 적정 최소 한도의 물만 쓰더라도 그 총화는 전기한 대로 38%까지 절수가 되는 것이니 정신자세가 선행돼야 할 줄 안다.

이 절수에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뜻에서 공평한 사용, 공평한 절약을 하는 집에는 상을 주는 뜻에서 수도료를 격감시켜 주고 절약을 하지 않는 집에는 벌을 주는 뜻에서 가중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조선일보 사설, 「물—그 소중함을 재조명해 본다」 1982. 7. 24)

한반도를 둘러메고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일본이 열도를 거두어서 그렇게 하든지 하기 전에는 한국과 일본 관계는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어떤 '숙명성'을 저버릴 수 없는 서로간의 위치에 있고, 이것이 과거 누천 년의 한·일 관계사에 갖가지 위상으로 점철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가장 돈독한 우방의 처지에 있지만, 태평양을 격해서 수만 리나 떨어져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아무리 지구촌이라는 오늘이지만, 한자가 함축한 '선린'이란 용어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다. '선린관계'란 울타리 하나 사이의 이웃지간, 바로 국경을 접한 인접국을 두고서만 일컬어 마땅한 것으로 알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상용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선을 지도에서 지워 버리면, 우리의 인접지는 북으로 한족이 지배하는 중국 대륙이고 또 슬라브 족이 주축인 러시아 땅이다. 이들 나라들과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지금 선린관계에 있지 못하다. 반면 부산에서 그 영토가 바라보이는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거리인 일본과는 서로가 '선린 관계'를 말하는 사이가 돼 있다. 일본은 바다를 울타리 삼은 이웃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저쪽 수상이 국교 재개 후 처음으로 공식 방한하고 간 후에는 '새로운 선린 관계'가 더욱 고창되고 있다.

그러나 경험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생생한 기억의 악업을 저지른 일본과, 구호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선린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관용의 금도를 좋아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소중한 것은 일본과 일본 사람들이 최소한 지난날의 죄업을 상기시키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게 될 때, 일의대수의 참된 선린관계는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올해로 해방 39년, 대일국교 재개 19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았다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짓거리들을 더 많이 보았다 할 것인가?

얼마 전 MBC TV를 통해 일본의 한 노년이 한국 국민에 대해 '참회 고백'함을 보고 들었다. 노인은 해방 전 일본 어느 현의 '동원부장'으로 한반도에서 '노무자'와 '정신대'를 사냥해 갔다. 그는 그 죄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참회 고백으로 죄업이 없어지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닌 줄 알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심정에서 이런 기회를 가졌노라고 그는 솔회했다.

그는 그 순간 인간으로서 진실해 보였고, 그 진실성이 보는 사람의 가슴에 전달됐다. 그는 일본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가 지니고 있는 괴로움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인간으로서 진실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복수의 일본인이 그 노인과 같이, 아니 그와 가까운 자세로라도 한국인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 크게 회의하고 있다. 참회 노인은 '일본인에게 특히 젊은 일본인에게, 한국인에 대한 지난날의 죄과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글

을 쓰고 책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 증언이 한국인의 회의에 대한 유력한 반증이 된다 해서 탓하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보다 멀리 내다보고, 넓게 생각해서, 일본과의 사이에 '진정한 선린 관계'를 두터이 하고 이를 서로가 향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구호만을 앞세우는 기교가 아니라, 선린 관계 형성의 기층이 되는 양국 국민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호 정신의 배양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시 그를 위해서는 양국 관계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치를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위기와 단계를 조성하고 구축해 나가는 책임이 전적으로 그 나라의 국가적·사회적 지도층에 있다 함도 명쾌한 사리일 것이다.

일본의 지도층은 해방 39년, 국교 재개 19년에 과연 얼마만한 지성과 양식과 양심과 책임 의식을 보여 주었는가. 우리의 눈에는 오만과 무관심과, 잔재주 부리는 일본인으로, 그들의 역할은 국한돼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양태만이 도드라졌던 지난날이다.

한국에 늦게나마 '독립기념관'을 세우자는 '극일'의 열기를 일게 한 역사 왜곡 교과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고쳤는가. 작금 보도돼 만천하가 다 알게 된 그 '잔재주'의 결과를 다시 일일이 인례(引例)할 번거로움을 범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관계 기관은 자료를 갖추어 거듭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언표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상한 자료도 추적하지 못한 우리 내부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이 기회에 일침을 들리지 않을 수도 없다. 그들의 잔재주는 한걸음 더 '개악(改惡)'까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들 내부에서 고발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음에랴. 일본 문부성이 고교 교과서 재일 한국인 관계 기술을 전문 수정토록 지시했는 바, 이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집필 당사자들이 통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재일 한국인 대표들(재일 거류 민단 부인 회원)이 6월 초 뉴욕 유엔 인권 위원회로 가 우리 교포들의 일본서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시키고, 시위 어필을 시도한 국제 뉴스를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범죄인에게나 적용하는 지문 채취를 위시해서, 우리 교포들은 행정적으로 200여 가지, 정당한 취업 기회 봉쇄 등 사회적으로 100여 가지, 도합 300여 가지의 혹심한 차별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일본인과 차이 없이 전면적으로 철저히 거둬가고 있다.

일본 및 일본인의 대한 자세가 이런 등등에서만 그치는가.

(조선일보 사설, 「일본사회의 대 한국관—해방 39년·국교 19년의 백서」중에서 1984. 6. 16)

어떻게 다 벌어먹일 것인가. 가장치고 이런 질문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올망졸망 누워서 잠을 자는 자녀들을 바라보자면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이 안 오는 때가 많다.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2자녀 이상은 잘 두지 않는다. 안팎으로 벌면서도 3자녀부터는 벌써 숨이 가쁘다. 그런데도 인구 폭탄은 이미 4,000만 선에서 터졌다. 땅덩이나 넓다면야 무슨 걱정이랴만, 이대로 나가다간 아무리 선진국이 돼도 도로가 될 것 같다. 정부에선 한 자녀 갖기 운동을 고창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아들 선호에 연연하는 한,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다.

서울의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실화 하나를 들어보자. 두 내외가 슬하에 세 딸을 두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은 둘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지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님이란 분의 생각은 달랐다. 아들이 저녁에 귀가하면 속옷을 새로 깨끗하게 갈아입게 해서 그 길로 다시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라. 나가서 어디서든 다른 여자를 보아 아들 하나만 낳게 하라는 암시였다.

이렇게 하자, 그 아내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급기야 비장한 결심으로 네 번째 출산을 했는데 다행히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손자 하나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시어머님의 심정이나, 어머니의 암묵의 압력을 묵살하지 못하는 남편의 곤경,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시앗 풀만은 못 보겠다고 하는 아내의 심정, 그 어느 것이나 이해할 만하고 동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풍조가 지속되는 한, 인구 폭탄은 장차 핵폭탄 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이다.

문제는 노후에 대한 불안과, 그것을 아들에 대한 의탁 심리에서 보상하려는 집념, 그리고 이른바 대를 잇겠다고 하는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일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혼모 문제나 당장의 중절 수술비를 변동 못하는 일부의 빈곤 문제도 이유 중의 하나라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아들 선호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온통 남성 우위로 꽉 짜여져 있는 데에야 어떻게 아들 낳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딸은 낳아 남 쥐 버리면 끝나 버린다. 가계를 이을 수도 없고, 크게 출세를 시킬 도리도 없다. 시집 가기 전에 취직을 시킨다 해도 아들 벌이를 따라가진 못한다.

어쩌다가 효녀 심청이 같은 딸이 독신으로 지내며 양친 부모를 모신다 해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성화다.

가정주부가 돼서 계속 더 벌여 보려고 해도 아기를 갖거나 출산만 하면 으레껏 사표를 써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 여직원의 봉급은 남자보다 낮고, 승진도 안 되고 중요 직책엔 배치도 안 된다. 재산 상속 때는 당연히 차등이 매겨져서 불이익을 보게 되고, 호주가 되려 해도 특별한 예외만 있을 뿐 일반화되지는 않고 있다.

여자가 사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고급 전문직 여성을 빼놓고도 대부분이 사환직, 도구

적인 기능직, 비서직, 경리직, 잡급직, 생산직 정도이다.

이런 차별에 대해, 외국 논객의 말이지만, 여성계에서는 ‘여성은 남성 사회의 심부름꾼이나 성적 욕구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맹렬한 항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미상불 그런 항의를 제기할만도 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감이다.

그렇다면 논리의 순서는 자명하다. 인구 폭발의 큰 원인은 아들 선호이고, 아들 선호의 큰 원인은 여성의 지위 낮음이니, 인구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는 말이 성립한다.

사람들이 굳이 아들이 꼭 있어야겠다고 바라지 않아도 괜찮게끔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외동딸이나 두 딸만 두었어도 외아들이나 두 아들 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느긋해 할 수만 있다면 왜 굳이 아들 아들하고 안달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 법과 제도와 관행과 각 집단의 내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천하에 여자가 어찌 호주가 되고 부모를 모시고 가계를 잇는단 말이고 하고 역정을 내며 장죽을 두드릴 시대는 아니다.

듣자니 한은의 여행원들이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항의를 제기했다 한다. 어떤 교환원은 남자보다 이른 정년제에 항의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하고, 그 밖에도 소문은 안 나지만 많은 불복 사례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굳이 서구적인 여성 해방 운동의 이론을 그대로 복창하려 하진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만은 주장하고 싶다. 여성과 남성의 법 앞에서의 평등만은 꼭 실현하자는 것이다. 민법, 취직, 승진, 보수, 직업 훈련, 법익의 면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것은 조선조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면 또 현실이 여의치 못해서... 운운하는 상투적인 대답이 나오겠지만, 밤낮 현실 현실 핑계만 대다간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다. 진정코 인구 폭발을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법 앞에서 평등하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

(조선일보 사설, 「딸-인구 폭발 막자면 여성 지위 향상을」 1983. 7. 13)

백제교 위에 망연히 선 할머니의 깊게 팬 눈에는 이슬 같은 것이 피었다. 할머니는 물 속에 반쯤 잠긴 벼에서 진흙을 털어내는 아들의 손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은 긴 장대로 씨레질하듯 물 위를 밀고 다녔지만, 엉겨붙은 진흙은 쉽게 이 할머니의 눈물을 멎게 하지 못했다.

논산을 벗어나 부여 쪽으로 들어서는 길은 교통이 두절된 상태였다. “아! 강물이 저렇게 불었구나”하고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동료는 “저건 강이 아니라 들판에 물이 잠긴 것”이라고 고쳐 주었다. 부끄러웠다. 물이 있는 곳을 강이나 호수로만 알아 온, 그래서 이번 비로 인해 물이 크게 불어난 정도로만 여긴 이 희극적인 고정 관념이 부끄러웠다. 이 일대의 참상은 그저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지고 집과 논이 떠내려 갔다’는 식의 상식적 서술이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악몽의 시간이 막 지난 24일 오후 부여 시내에는 썩는 냄새가 났다. 집의 벽마다 사람 키를 넘는 높이에 누런 흙줄이 그어져 있어 집들이 얼마나 깊이 물 속에 잠겼었는가를 증언하고 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물로 집 안을 쓸어 내고 가재 도구를 말리고 있었지만, 이미 하수와 상수가 섞여 버린 이 거리에서 악취마저 쓸어 낼 수는 없었다.

지금은 호수가 된 들판에는 벼끝이 보이는 논에서부터 흙을 떨어내는 농부들이 여기저기 보였으나, 엄청난 자연의 장난 앞에 버티고 선 그들의 뒷모습은 차라리 애처로웠다.

이 참상을 보면서 한 가지 물음이 떠나지 않는다.

“과연 신의 섭리는 있는 것인가.” 이민족에게 시달리고 술한 권력의 횡포를 밥 먹듯 겪으면서, 때로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면서도 죄 하나 짓지 않고 살아 온 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무슨 업보가 남아 있길래 이런 처참한 물벼락을 내렸는가를 하늘을 향해 외치고 싶었다.

남들은 넓고 비옥한 땅에서 유복한 삶을 즐기는 동안, 이 좁고 척박한 땅덩어리마저 감사히 여기면서 그렇게 순하게 땅만 파먹고 살아 온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안기는 곳에, 과연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저 높은 곳을 향해 묻고 싶었다.

불현듯 오늘을 풍미하고 있는 개헌이니 대통령이니 민주화니 하는 등등의 용어들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 눈만 떴다 하면 벌어지는 정치적 밀고 당김들이 모두 부질없어 보였다. 인권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하며 떠들어대는 수많은 성명서들이, 옳은 삶을 향해 노력하자는 술한 설교들이 왜 소하게만 느껴졌다.

물 속에 등등 떠내려가다 살아 남은 이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살아 남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권은 없다. 산다는 것보다 더 귀중한 권리는 없다. 제발 얼마 동안이라도 부질없는 소리일랑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았으면 싶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땅을 치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신경을 건드리지는 말았으면 싶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자구의 노력은 시작됐다. 아까까지 옆드려서 울던 어머니는 일어섰다. 물에 떠내려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구해 내지 못하고 자신만 살아 남은 것을 괴로워하는 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 어제의 악몽 속에 언제까지 시달릴 수는 없다. 오늘 일어서지 못하면 영원히 주저 앉을 것 같은 두려움에 쫓긴다.

머리를 뒤로 붙들어매고 장화를 신고 삼과 장대를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진흙이 끈 농토를 향해 경운기를 몰고 나섰다.

“서울 사람들 내려와서 사진만 찍어 간다”고 고개를 돌렸다. 사진 몇 장이 그들에게 아들을 돌려주지 못한다. 몇 줄의 글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지 못한다. 정치인들의 뻔질난 위문과 악수들이 그들에게 떠내려간 논과 밭을 되돌려 주지 못한다. 관리들의 입에 발린 소리들이 그들에게 잃어버린 집과 가재들을 보상하지 못한다. 오직 스스로 구하는 노력만이 그들의 생존을 되돌려 준다는 의식이, 애써 일구는 벼포기처럼 땀땀이 일어섰다.

고통은 이제부터다. 논과 밭에서 물을 빼고 작물을 씻어 주고 다시 세우고 하는 수많은 손질은 보통 고통이 아니다. 집 안을 씻어 내고, 옷을 빨고, 가재를 말리는 일은 많은 고통의 시간을 동반한다. 먹을 물을 제대로 구하는 일, 가족들에게 수인성 병을 예방하도록 주사를 맞히는 일, 당장 먹을 것을 구하고 땀감을 찾아야 하는 일, 그리고 다시 삶의 터전 위에 두 발로 서는 일들이 이제부터 부단히 이들을 괴롭힐 것이다. 무엇보다도 침수 지역에 전염병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거리를 흐르고 있는 썩은 냄새가 무서운 탁류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을 또다시 시련의 구렁텅이로 몰아 내는 따위의 악은 있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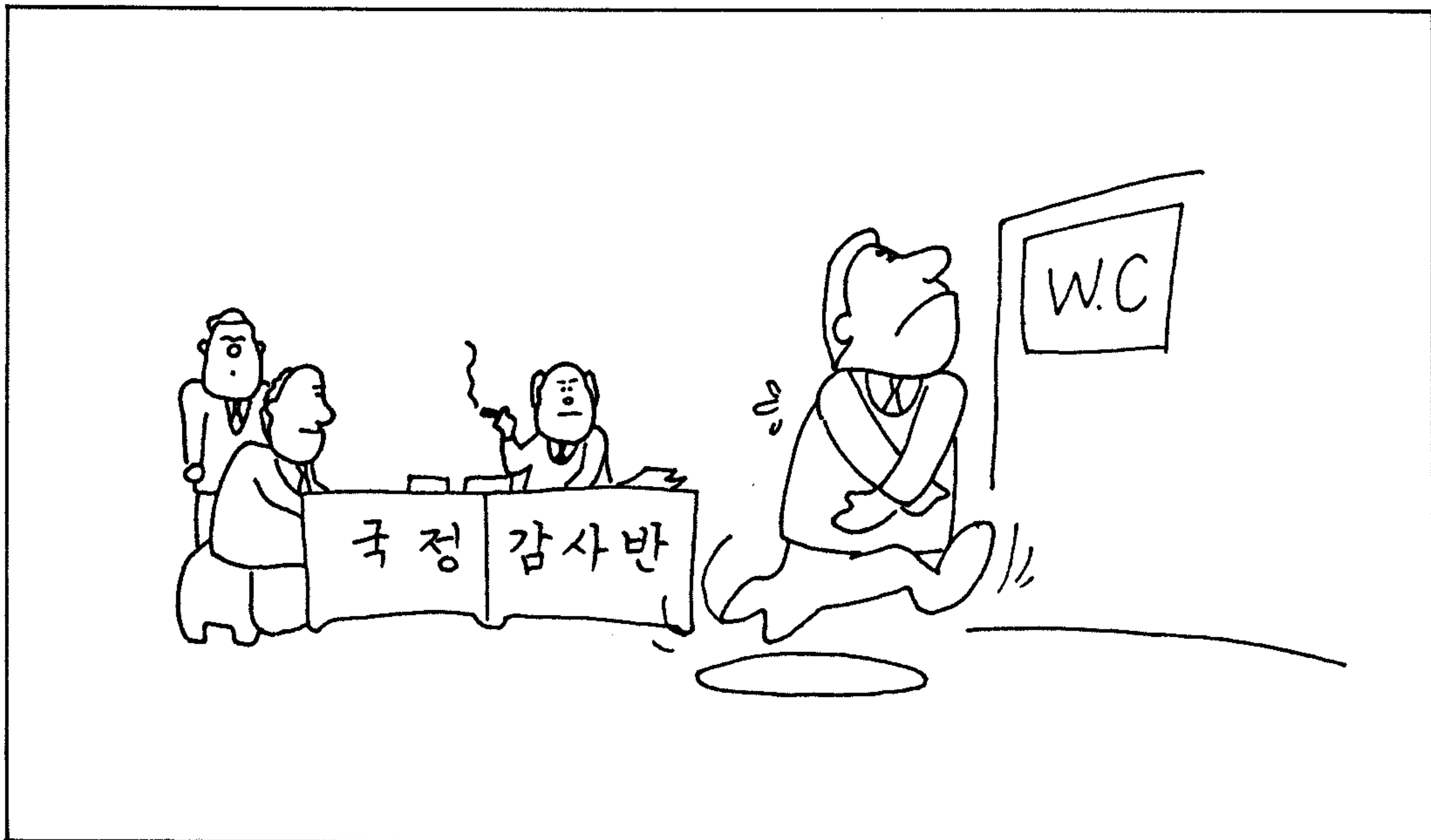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들의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세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줄 모른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과 질병은 없다. 그들의 고통을 아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물에 잠겼던 거리에는 “어른이라고 장질부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응합시다”는 방송이 울리고 있었다. 어느덧 이번 수마의 원인이 수리 조합의 잘못에 있는데도 얼굴조차 내미는 성의를 안 보인다는 노기어린 외침이 관청 주변에서 들려 오고 있었다. 자기 논이 물을 빼려고 아래 논에 물꼬를 열다가 서로 높아진 언성도 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겪은 시련을 통해 어찌면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어깨를 끼고 서로의 체온을 느껴야 하는데... 돌아오는 길,

장병들을 가득 실은 덤프차가 수해 지구로 달려가고, 구호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모두가 둥그렇게 둘러서서 손에 손에 각지를 끼고 서 있는 것 같은 흐뭇함을 느꼈다.

(조선일보 사설, 「엎드려 울던 어머니도 일어섰다—수해지에서 쓴 현장사설」 1987년 7월 25일)



▶ 인간의 생리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 속기사없이 회의를 진행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국정감사반 반장님은 정회를 선포



부 록



1. 의회속기사를 위한 회의록작성내규에 맞춘 실무 실례
2. 음이 같아 틀리기 쉬운 말
3. 음이 비슷하여 틀리기 쉬운 말
4. 우리말을 알자

속기사의 신조

1.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1.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

1. 의회속기사를 위한 회의록작성내규에 맞춘 실무 실례 ('95. 8. 1 개정)

(국회속기록을 실례로)

국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註) 국회회의록의 법규체계는 헌법 → 국회법 →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 국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 → 국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국정감사·국정조사활동의 내용을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註) 위원회회의의 기록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활동의 기록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 활동의 기록

제3조(한글·한자의 혼용) 회의록은 한글과 한자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의 사용범위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註) 국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지침

제2조 (한자의 사용범위) 국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은 한글·한자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앞으로 한글전용 및 신속발간을 위한 업무전산화에 대비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한다.

1. 標題語·小標題語

· 第170回國會 本會議會議錄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2. 시간 및 일부 상황표기(상황표기는 내규의 표기에 따른다)

· 한자 : (10時15分 開議·散會·會議中止·繼續開議 등)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參照), (報告), (報告中斷) 등

- 한글 : (청취복능), (일동기립), (장내소란) 등
- 3. 發言者의 職名·姓名 등 고딕표기
 - ○議長 黃珞周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國務總理 李洪九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 4. 인명 및 이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용어
 - 한자 : 金正喜, 秋史(體), 栗谷事業
 - 한글 : 金대통령, 金九선생(씨), 李○○양(군)
- 5. 戲畫的으로 사용된 용어
 - 한자 : 苦痛部(교통부), 地獄鐵(지하철), 空約(공약)
- 6.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용어 및 머리말로 제시된 중심용어
 - 輕水爐, 北核
 - 첫째, 聖水大橋 不實工事に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議事日程 第1項 國政에관한交涉團體代表演說을 상정합니다.
- 7. 기타 固有名詞(國名·地名·機關名·職名 등)·專門用語·同音異意語·縮約語·新造語중 한글로 표기하여 혼동의 우려 및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
 - 한자 : 對韓, 光州(廣州), 空對海미사인, 死刑(私刑), 平祝(平壤祝典)
 - 한글 : 미국, 부산,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
- 8. 議事日程, 法(案)名 및 法案原文, 議案名, 重要연설문, 서면질문·답변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등은 原文대로 표기한다.

제2장 속기 및 원고의 작성

제4조(속기조의 편성) 속기는 주무와 부무의 2인을 1조로 편성하여 동시에 기록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인을 1조로 편성할 수 있다.

註) 속기 은어로 2인(조를 “한 째”, 1인(조를 “독째”이라고 한다.

제5조(속기조의 배치) ① 첫째번 속기조와 둘째번 속기조는 개의예정시간 15분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여 대기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는 첫째번 속기조만 입장하여 대기한다.

② 첫째번 속기조는 개의 전에 회의자료 등을 확인하여 기록준비를 갖추며, 개의·계속개의 즉

시 그 시간을 속기담당에게 보고한다.

③ 속기조는 주무의 책임아래 교대하며, 앞조의 주무는 뒷조와의 연결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대후 잠시 중복하여 기록한다.

註) 시간의 연락 - 본회의 : 첫번째 속기조의 기록이 끝난 후

위원회 : 주무는 기록, 부무는 연락 책임

유인물 확보 - 2부 확보(1부 속기석 활용, 1부 편집담당에게 제출)

의사일정의 확인·작성, 특이사항 속기담당에게 보고

제6조(속기시간) 임시회의록 발간을 요하는 회의의 속기시간은 1조가 10분간, 기타 회의의 속기시간은 1조가 20분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상황에 따라 교대가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註) ◆ 임시회의록 발간을 요하는 회의 :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의(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한다)

◆ 지방의회는 인원의 부족으로 통상 임시회의록 발간요 - (조 20분간, 기타회의록은 1조 40분간 기록한다.

◆ 교대가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 개회식, 투표중인 때, 대통령연설, 외국국가원수 등의 국회연설, 기타 필요한 경우

제7조(원고작성) ① 속기종료후에는 주무와 부무가 기록내용을 대조한 후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기록내용이 다를 때에는 주무의 기록에 따른다.

② 작성한 원고는 주무가 기록내용 및 앞·뒤조와의 연결부분을 검토한 후 서명하여 속기담당에게 제출한다.

註) 원고 첫머리 기재서식

| | | |
|-----------------------|--------|-------------|
| 순번: | FD NO: | 파일명: |
| 월 일() | 속 기 조 | FD 제출 일 시 분 |
| 제 차
본 회 의
위 원 회 | 속 기 | 검 토 일 시 분 |
| | 시 간 | FD 결합 일 시 분 |
| | FD 보 정 | 주 무 담 당 |
| 계속 | 사회: | |

제8조(원고의 이송) 속기담당은 속기조가 제출한 원고를 검토·결합한 후 원고전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과정표를 첨부하여 편집담당으로 이송한다.

註) 별지 제1호서식 참조

제3장 본회의회의록의 작성

제9조(표지의 작성) 개회식은 별지 제2호서식, 본회의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첫째번 속기조가 원고전면에 첨부한다.

註) 별지 제2호, 제3호서식 참조

제10조(부의안건의 표시) ① 안건이 부의될 때에는 —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의사일정의 항번호와 부의안건명을 쓰고 괄호 안에 안건의 제출자를 표기한다. 다만,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을 상정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항번호 대신 고딕체로 “○”표를 한다.

② 부의된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고 다른 안건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보류되었던 안건을 다시 심의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항번호와 그 부의안건명을 다시 표기하고 부의안건명 끝에 “(계속)”이라 표기한다.

註) ◆ 실선(—) : 안건과 안건의 명확한 구별

◆ 안건제출자의 표기 : 동일안건의 제출자가 각각일 때 그 구별

◆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는 예산안·동의안 등은 제출자 표기 생략

◆ 제출자와 “(계속)”이 중복될 때는 “(제출자)(계속)”으로 표기

◆ 의사일정 없이 개의된 경우나 부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난을 공간으로 비워둔다.(의사일정
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제11조(사회자의 표기) ① 사회자의 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장의 사회는 “議長 ○○○”으로 한다.
 2. 부의장의 일상적인 사회는 “副議長 ○○○”으로 한다.
 3. 의장이 직무대리로 지정한 부의장은 “議長職務代理 ○○○”으로 한다.
 4.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선출된 의장직무대행은 “臨時議長 ○○○”으로 한다.
 5.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행할 때와 같이 최연장자의 의직직무대행은 “議長職務代行 ○○○”으로 한다.
- ② 부의안건을 달리하거나 계속개의하는 때에는 사회자의 직함·성명을 다시 표기한다.
- ③ 회의도중 사회자가 교대되면 줄을 바꾸어 “(○○○議長, ○○○副議長과 司會交代)” 등으로 표기한다.

다. 이 경우 먼저 사회자·나중 사회자 순으로 표기한다.

註) ◆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국회법 제12조)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임시의장(국회법 제13조)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국회법 제18조) :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석의원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3.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계속개의되어 사회자가 바뀔 때에는 사회교대 표기를 하지 않는다.

제12조(발언자의 표기) ① 모든 발언자의 직함·성명 앞에는 고딕체로 “○”표를 한다.

②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발언은 “○○○議員”으로 표기한다.

③ 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委員長 ○○○”, 위원장직무대리로 지정된 의원은 “□□委員長職務代理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長代理 ○○○”으로 표기한다.

註) 위원장직무대리 : 위원회에서의 사회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의 일상적인 업무권한까지를 대리한다.

④ 의원이 동성동명일 때에는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선거구를 표기한다.

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은 직함 다음에 성명을 표기한다.

註) ◆ 의원 : 성명-직함순, 기타 : 직함-성명순

◆ 본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의원은 “□□委員長 ○○○”, “□□委員長代理 ○○○”으로 표기한다.

◆ ○姜慶植議員(釜山東來甲) : 선거구는 9포인트 명조체를 사용한다.

○姜慶植議員(全國區)

◆ 총선후 의원전원의 선서(☑는 띄어쓰기나 붙여쓰기의 표시임)

| | |
|---|---|
| <p>○議長 ○○○ “宣誓.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노력하며 國家利益을 우선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 年 月 日</p> <p><input checked="" type="checkbox"/>國會議員</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p> <p style="text-align: center;">----(하락)----</p> |
|---|---|

◆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의 선서

| | |
|--|--|
| <p>○○○○議員 “宣誓.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노력하며 國家利益을 우선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p> | <p style="text-align: right;">19 年 月 日</p> <p>國會議員 ○ ○ ○</p> <p>國會議員 ○ ○ ○</p> <p>國會議員 ○ ○ ○</p> |
|--|--|

제13조(보고사항) ① 일상적인 보고사항은 별도로 작성하고 줄을 바꾸어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이라 표기하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사항란에 게재한다.

② 보고사항의 작성방법 등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註) 국회의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지침 제4조 참조

예)

| | |
|--|--|
| <p style="text-align: right;">(14時05分 開議)</p> <p>○議長 朴○○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어제 밤에는 夜深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일을 모두 참았습시다마는 國政이 하루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議事進行에 協調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成員이 되었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第7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먼저 議事局長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p> <p>○議事局長 姜○○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사항은 끝에 실음)</p> <p>○議長 朴○○ 開院初에 오늘의 議事日程이 미리 與野 合意下에 運營委員會에서 決定이 된 事項이 있습니다.</p> |
|--|--|

제14조(시간의 표기) 시간의 표기는 24시간제로 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기재한다.

1. 개의

註1) 회의의 시작에는 開議 (14時12分 開議)

개원식에는 開式 (10時05分 開式)

註2) 의장이 개의를 알리기 전 감사나 의사국장이 안내할 때에는 시작시간(10時01分)만 적어
주고 의장이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부터 (10時02分 開議)로 표기한다.

2. 안건의 부의

예) 3.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59分)

3. 회의중지와 계속개의

예)

| | |
|---|--|
| <p>○副議長 金○○ 세 분 議員의 質問이 끝났습니
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음은 政府側 答辯順序입니다마는 答辯은 停
會를 했다가 午後會議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러면 午後 2時에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p> | <p>(11時35分 會議中止)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時05分 繼續開議) <input checked="" type="checkbox"/>
○副議長 趙○○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
開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午前에 質問하신 세 분 議員의 質問에 行政…
* * 주의!! 『停會』라고 표기하지 않음</p> |
|---|--|

4. 기록중지와 기록개시

예)

| | |
|---|---|
| <p>○委員長 權○○ 이 문제는 委員님들과의 상의
가 필요합니다. 速記士는 記錄을 中止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5時59分 記錄中止)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時04分 記錄開始) <input checked="" type="checkbox"/></p> | <p>○委員長 權○○ 速記士는 記錄을 繼續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委員 質疑를 계속하시지요.
○張○○委員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p> |
|---|---|

5. 비공개회의의 개시와 종료

예)

(11時02分 非公開會議開始)

(19時34分 非公開會議終了)

6. 투표의 개시와 종료

註1) 1차투표로 결정이 되었을 때

(14時02分 投票開始)☑

(14時23分 投票終了)☑

註2) 1차투표에서 결정이 안되고 2차, 3차로 이어질 때

(14時02分 1次投票開始)☑

(14時23分 1次投票終了)☑

(14時42分 2次投票開始)☑

(15時02分 2次投票終了)☑

7. 산회

註) 회의의 종료에는 散會 **주의!!:의회에서는 閉會라고 표기하지 않음

회의의 종료(마지막회기일 폐회도 포함)에는

(20時05分 散會)☑

개원식때는 閉式

(10時42分 閉式)☑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註) 슬라이드의 상영개시·종료 등 속기사가 시간을 기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재하도록 용통성욱 둔 때를 말한다.

예)

| | |
|---|---|
| <p>○委員長 柳○○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03分 슬라이드上映開始)☑
(15時20分 슬라이드上映終了)☑</p> | <p>○委員長 柳○○ 슬라이드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委員 좋은 자료를 보았습니다.</p> |
|---|---|

다만, 부의안건이 개의·계속개의 시간표기 다음 1분 이내에 부의안건이 상정되거나 앞·뒤 부의안건의 상정시간이 1분미만인 때에는 뒷 부의안건의 상정시간 표기를 생략한다.

註) ◆ 모든 시간과 분은 두 자리수로 표기한다. (11時09分)☑

◆ 하루의 시작점은 (00時00分 開議)☑, 종료점은 (24時 散會)☑

◆ 개의 예정시는 국회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午前·午後로 표기한다.

| |
|--|
| <p>第177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號</p> <p style="text-align: right;">大韓民國國會事務處</p> |
| <p>1995年9月12日 (火) 午前10時</p> |

◆ 비공개회의록은 다음 서식을 작성, 원고전면에 첨부한다.

| |
|---|
| <p>第172回國會 國防委員會會議錄 第5號</p> <p style="text-align: center;">(非公開部分)</p> <p style="text-align: right;">大韓民國國會事務處</p> |
| <p>日時 19 年 月 日 ()</p> <p>場所 委員會會議室</p> |
| <p>議事日程</p> <p>1.</p> |
| <p>審査된案件</p> <p>1.</p> |

◆ 비공개회의록에 중첩표기되는 시간과 내용

| | |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1. 現況報告</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 □□部(一部非公開)</p> <p style="text-align: right;">(10時01分)□</p> <p>○委員長 洪○○ 議事日程 第1項 □□部 現況報告를 상정하겠습니다.</p> <p>現況報告에 앞서서 오늘 있을 □□部 現況報告 내용이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國家安全保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國會法 第75條에 의거해서 非公開로 會議를 진</p> | <p>행하고자 합니다.</p> <p>이 점 여러 委員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러면 지금부터 非公開로 會議를 진행할 것을 宣布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0時04分 非公開會議開始)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 style="text-align: right;">(11時09分 非公開會議終了)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委員長 洪○○ 그러면 지금부터 會議를 公開하겠습니다.</p> |
|--|--|

제15조(확실하지 아니한 의사내용 등의 표기) 장내소란 등으로 발언을 듣지 못한 부분의 보완이 불가능한 때에는 줄을 바꾸어 “(청취불능)”이라 표기한다. 다만, 의사결정사항의 기록이 불가능한 때에는 “(청취불능)” 다음에 줄을 바꾸어 ……선을 긋고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이라 표기한 후 당시의 사회자에게 회의경과 및 의사결정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할 수 있다.

註) ◆ 의사결정사항의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 : 회의장의 소란, 정전, 마이크의 고장 등(보조녹음, 관계자료 확인, 발언자에게 확인하여 “(청취불능)”이란 표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 | |
|--|---|
| <p>○劉○○議員 議事進行發言 주세요.
○議長 朴○○ 이제 그만 합시다.
☑☑(장내소란)
代表議員끼리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 주세요.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10分 會議中止)☑
(15時23分 繼續開議)☑
○議長 朴○○ 會議를 續開합니다.
☑☑(장내소란)
白○○議員外 2人으로부터 새해 豫算案에 대한 修正動議案이 提出되었습니다.
☑☑(장내소란)
油印物을…
☑☑(장내소란)
…通過…</p> | <p>☑☑(장내소란)
☑☑(청취불능)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議長 朴○○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白○○議員外 2人으로부터 새해 豫算案에 대한 修正動議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豫算案에 대한 修正動議案과 기타 議案의 原案에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24分 散會)☑</p> |
|--|---|

제16조(상황의 표기) ① 의식이나 회의장의 분위기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줄을 바꾸어 (주악), (애국가 제창), (묵념), (만세삼창), (웃음소리), (박수), (장내소란), (일부의원퇴장), (일동기립), (일동착석) 등으로 표기한다.

註) ◆ (議事棒3打)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 |
|---|--|
| <p>(10時 開式)☑</p> <p>○議事局長 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지금부터 제177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행하겠습니다.</p> <p>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p> <p>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p> <p>☑☑(일동기립)</p> <p>□□(국기에대한경례)</p> <p>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p>☑☑(애국가제창)</p> <p>이어서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일동묵념)</p> <p>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p> <p>☑☑(일동착석)</p> <p>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p> <p>○議長 黃○○ 존경하는 ○○○대법원장, ○○</p> <p>○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p> <p>친애하는...</p> <p>----(하락)----</p> |
|---|--|

| | |
|---|---|
| <p>○議長 金○ 大統領께서 入場을 하십니다.</p> <p>☑](대통령입장)</p> <p>☑☑(일동기립·박수)</p> <p>☑☑(일동착석)</p> <p>議事日程 第1項 大統領의國政演說을 상정합니다.</p> <p>☑☑(일동박수)</p> | <p>○大統領 金○○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p> <p>----(중략)----</p> <p>감사합니다.</p> <p>☑☑(일동기립·박수)</p> <p>☑☑(대통령퇴장)</p> |
|---|---|

| | |
|---|--|
| <p>그래도 우리 黨은 이제 이에 구애되지 않고 憲特</p> <p>委를 통해 合意改憲에 全力投球하는 한편 內閣</p> <p>制 實施準備를 위한 弘報에 總力을 기울여 왔습</p> <p>니다.</p> | <p>☑☑(장내소란)</p> <p>☑☑(일부의원퇴장)</p> <p>☑그러나 4·13斷案 바로 직전의...</p> |
|---|--|

| | |
|---|---|
| <p>○副議長 趙○○ 總理! 總理! 國務總理께서...</p> <p>가만히 계세요.</p> <p>○國務總理 姜○○ 앞으로 具體的 非違事實이</p> <p>確認되어 措置가 이루어지면 그 結果가 國民에</p> <p>게 알려질 것입니다. 特命司正班의 解體問題는</p> <p>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特命班의 活動이...</p> <p>☑☑(장내소란)</p> | <p>○副議長 趙○○ 總理! 總理!</p> <p>○國務總理 姜○○ 年末까지 운영하기로...</p> <p>○副議長 趙○○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p> <p>세요.</p> <p>☑☑(장내소란)</p> <p>☑總理! 가만히 계세요.</p> |
|---|---|

| | |
|---|--|
| <p>一國의 國會議員의 형님이 指紋이 없어질 정도로 農土를 지키며 정직한 民衆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兄弟도 선비의 志操를 지키며 落鄉한 李朝 中宗祖에 領議政을 지내신 愼○○ 어르신의</p> | <p>直系15代 後世로서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웃음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다음을 들어 보세요.
 --- (하략) ---</p> |
|---|--|

◆ 幹部 및 職員 등의 紹介

| | |
|---|---|
| <p>○○○部長官 韓○○ 報告에 앞서 저희 幹部와 傘下團體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本部 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입니다.
 ○○局長 李○○입니다.
 ○○局長 朴○○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부인사)</p> | <p>다음은 傘下團體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公社社長 全○○입니다.
 ○○公社社長 田○○입니다.
 ○○公社社長 鄭○○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하단체장인사)
 이상으로 幹部 및 傘下團體長 紹介를 마치겠습니다.</p> |
|---|---|

② 회의장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의원이 “이의없습니다”, “좋습니다” 등 간단한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줄을 바꾸어 “(「……」하는 의원 있음)”으로 표기한다.

예)

| | |
|--|---|
| <p>…改正規則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있으십니까?</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異議 있어요」하는 議員 있음)</p> |
|--|---|

註) 상황을 표기할 때 “(사진을 보이면서)”, “(도표를 가리키면서)”, “(고개를 끄덕임)”, (應答하는 의원 없음) 등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간단히 표기한다.

③ 의장의 명에 의하여 속기를 중단하거나 계속할 때에는 줄을 바꾸어 “(○○時○○分 記錄開始)”라 표기한다.

註) 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69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나 본회의는 국회법 제115조제2항에 의거, 기록 생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록중지와 기록개시를 표기할 경우가 없다.

④ 회의가 중지된 다음 계속개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의중지시간표기 다음에 줄을 바꾸어 “(繼續開議되지 않았음)”이라 표기한다.

註) 1日1次の 원칙에 따라 정회를 하고 24時가 넘도록 續開하지 않을 경우이다.

| | |
|--|---|
|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停會를 宣布합니다. | (23時27分 會議中止) <input checked="" type="checkbox"/>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때에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이라 표기한다.

註) ◆ 발언원칙

국회법 제104조 ① 정부에 대한 질문회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 4분자유발언

국회법 제105조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언,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이내의 발언(이하 “4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예1) 〈본회의에서〉 못 다한 발언을 회의록에 실어줄 것을 의원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실을 것을 명한 경우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의 冷戰的 思考의 급격한 變化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國民의 意識構造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統一에 대한 熱望도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 (중략)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오늘을 責任지고 있는 與野議員 여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앞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副議長 金○○ 다음은 ***所屬 정*** |

예2) 〈본회의에서〉 못 다한 발언을 회의록에 실어줄 것을 의원이 요청한 적이 없거나 의장이 실을 것을 명하지 않은 경우

| | |
|--|--|
| <p>…民生을 위함일 것이고 國民 모두에게 꿈과 希望을 심어 주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내소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議長! 總理의 謝過와 注意를 촉구하세</p> | <p>요」하는 議員 있음)
 ○議長 朴○○ 議事進行입니까? 또 議事進行하시려면 또 하세요.
 ----(중략)----</p> |
|--|--|

예3) 〈위원회에서〉 마이크중단 이후의 발언이 인정되는 경우 : 마이크가 중단되면 속기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은 발언을 계속하고 그 발언은 인정되는 수가 많다. 따라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둘 필요가 있다.

| | |
|--|---|
| <p>○姜○○委員 姜○○委員입니다.
 추곡가 수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농민의 아우성을 듣지 못합니까?
 수매량과 수매가를 대폭 인상해서 우리의 뿌리인 농촌과 농민의 마음이 기쁨에 가득할 때 우리는 정치하는 보람과 희열을 비로소 느낄 수 있</p> | <p>을 것이 아닙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드센 태풍의 피해로부터 벗어났다고 좋아...</p> |
|--|---|

⑥ 당일의 회의가 개의되지 아니하고 유회된 때에는 다음에 개의된 회의의 회의록 제호 아래 별란에 “(××××年 ××月××日의 本會議는 사정에 의하여 開議되지 않았음)”이라 표기한다.

註) 위의 조항은 본회의의 경우이며 위원회의 경우는 유회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 하루동안 유회된 경우

| |
|--------------------------------------|
| 第 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號 |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
| (19××年××月10日의 本會議는 사정에 의하여 開議되지 않았음) |
| 19××年××月11日(火) 午前10時 |
|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
| 1. 政治·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
| 附議된 案件 |
| 1. 政治·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1面 |

예) 한 회기동안 유회된 경우(소수당의 국회소집 요구로 공전된 경우 등): 이 때는 다음에 소집된 국회의 제1차본회의회의록 제호아래에 별란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
|--|
| 第 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
| (第 回國會(臨時會)19××年××月××일부터 19××年××月××일까지의 本會議는 사정에 의하여 開議되지 않았음) |
| 19××年××月11日(火) 午前10時 |
|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
| 1. 政治·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
| 附議된 案件 |
| 1. 政治·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1面 |

제1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게재할 때에는 의원의 발언이 중단된 다음에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라 표기하고 게재한다.

註)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의장(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을 의장(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게재할 때에는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할 것이어야 한다.

☞ 국회의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 제16조제5항 참조

제18조(투표상황의 표기) ① 기립표결을 할 때에는 표결과정을 기록하고 줄을 바꾸어 각각 “(기립표결)”이라 표기한 후 표결결과를 기록한다.

②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의 개시·종료시간 및 투표과정·결과 등을 표기한다.

③ 기명·전자투표의 표결결과는 찬성·반대의원 등으로 구분하여 성명을 각각 표기한다.

④ 호명투표를 할 때에는 호명에 따라 그 투표자를 “○○○○議員”이라 표기한 다음 찬성 또는 반대의 사표시의 전부를 기록한다.

註) 국회법상의 투표방법

제112조(투표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전자·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묻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9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예)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

| | |
|--|---|
| <p>○議長 黃○○ 그러면 **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異議없으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 <p>다음 **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異議없으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
|--|---|

예) 기립에 의한 표결방법

| | |
|---|---|
| <p>○議長 金○○ 그러면 **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金光一議員 의석에서 - 異議 있습니다. 異議있는 것은 딱 두 件입니다. 우리가 討論은 생략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러면 表決을 하도록 하지요. 表決을 宣布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會議場 밖에 계신 議員께서는 表決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坐定해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러면 表決에 들어 갑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러면 먼저 이 案件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립표결)</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음은 反對하시는 분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p> | <p>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립표결)</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集計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在席 173人中 可票가 168人, 否票가 4人, 棄權 한 분입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따라서 **法中改正法律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hr/> <p><input checked="" type="checkbox"/> 5.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代案) (文教公報委員長 鄭大哲)</p> <p style="text-align: right;">(15時44分)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 style="text-align: center;">----(하락)----</p> |
|---|---|

예)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

| | |
|---|---|
| <p>…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다음은 常任委員長選舉가 되겠습니다라는 準備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 <p>員姓名을 記載하시거나 委員長으로 選出하고자 하는 議員의 姓名을 잘못 記載한 投票는 無效로 處理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4. 常任委員長(文教體育·文化公報)選舉 (15時01分)<input checked="" type="checkbox"/>
 ○副議長 金○○ 議事日程 第2項 常任委員長選舉를 上程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이 案件은 國會法이 改正됨에 따라 文教公報委員會가 文教體育委員會와 文化公報委員會로 分離 新設됨에 따라 新設된 兩 委員會委員長을 選出하기 위한 것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常任委員長選舉는 國會法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해서 無記名投票로 實施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이번 投票는 한 장의 投票用紙에 두 분의 委員長을 選出하는 連記名式投票로 實施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그러면 監票委員을 指名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金○○議員, 李○○議員, 李○○議員, 李○○議員, 辛○○議員, 朴○○議員, 姜○○議員, 金○○議員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指名되신 監票委員께서는 監票委員席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投票에 대해서 議事局長으로부터 投票方式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投票로 들어가겠습니다.
 ○議事局長 姜○○ 投票方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이번 投票도 전과 마찬가지로 中央通路를 중심으로 해서 左右 양쪽에서 實施하게 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投票方法은 한 장의 投票用紙에 두 분의 委員長을 同時에 選出하게 되는 連記名式投票로 實施하게 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委員長은 當該委員會 所屬委員中에서 選出하게 되므로 當該委員會 所屬委員 이외의 議</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따라서 文教體育委員長은 文教體育委員會 所屬委員中에서 文化公報委員長은 文化公報委員會 所屬委員中에서 委員長으로 選出하실 議員의 姓名을 投票用紙 記名欄에 한글이나 漢字로 記載하시면 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呼名을 시작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時04分 投票開始)□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 checked="" type="checkbox"/><input "="" checked="" type="checkbox"/>먼저 名牌函을 열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 checked="" type="checkbox"/><input "="" checked="" type="checkbox"/>名牌數를 計算한바 268枚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다음은 投票函을 열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 checked="" type="checkbox"/><input "="" checked="" type="checkbox"/><input "="" checked="" type="checkbox"/>投票結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 checked="" type="checkbox"/>會議場 밖에 계신 議員들께서는 곧 開票結果를 發表하기 때문에 會議場으로 入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먼저 文教體育委員長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

| | |
|--|---|
| <p>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總 投票數 268枚中 金○○議員 223票, 李○○議員 4票, 劉○○議員 3票, 朴○○議員 2票, 金○○議員 1票, 朴○○議員 1票, 李○○議員 1票, 崔○○議員 1票, 棄權 12票, 無效 20票로써 國會法 第41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서 金○○議員이 文教體育委員長으로 當選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다음은 文化公報委員長 投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總 投票數 268枚中 李○○議員 255票, 金○○議員 2票, 金○○議員 3票, 棄權 3票, 無效 5票로써 國會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李○○議員이 文化公報委員長으로 當選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먼저 文教體育委員長으로 當選되신 *** **의 全北 井州·井邑 出身이신 金○○委員長 나오셔서 人事를 해 주사기 바랍니다.</p> <p>○文教體育委員長 金○○ 文教體育委員長으로 當選된 金○○올시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두 번이나 常任委員長으로 選任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는 指導鞭撻 바라마지 않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감사합니다.</p> <p>○副議長 趙○○ 다음은 文化公報委員長으로 當選되신 ****의 江原 春城·楊口出身이신 李敏燮委員長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文化公報委員長 李○○ 初代 國會文化公報委員長으로 當選시켜 주신 李○○입니다.</p> <p>----(중략)----</p> <p><input checked="" type="checkbox"/>대단히 감사합니다.</p>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5. 常任委員長(文教體育 金○○·文化公報 李○○)人事</p> <p style="text-align: right;">(15時46分)<input checked="" type="checkbox"/></p> <p>○副議長 趙○○ 다음에는 委員長으로 當選되신 두 議員들로부터 當選人事가 있겠습니다.</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6. 議事進行의件</p> <p style="text-align: right;">(15時48分)<input checked="" type="checkbox"/></p> |

예)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기재방법(다수당→가나다순)

| | |
|--|---|
| <p>...憲法改正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投票者 및 贊反議員)</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贊成議員</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중략)----</p> | <p style="text-align: right;">(이상 ××人)<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反對議員</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중략)----</p> <p style="text-align: right;">(이상 ××人)<input checked="" type="checkbox"/></p> |
|--|---|

예) 호명에 의한 표결방법

| | |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1. 檢察總長(○○○)에대한彈劾訴追의件(○○○議員外 100人 發議)
(14時35分)□</p> <p>○議長 朴○○ 그러면 檢察總長(○○○)에대한彈劾訴追의件을 처리하겠습니다.
△△黨의 徐○○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議員 △△黨所屬 徐○○議員입니다.
----(중략)----</p> <p>○議長 朴○○ 이 案件에 대하여는 國會法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成○○議員外 60人으로부터 呼名投票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呼名投票로 表決하겠습니다.
----(중략)----
(10時10分 投票開始)<input checked="" type="checkbox"/></p> <p>呼名은 좌측 앞줄부터 하겠습니다.</p> | <p>金○○議員...</p> <p>○金○○議員 贊成합니다.
○議長 朴○○ 李○○議員...
○李○○議員 反對합니다.
○議長 朴○○ 崔○○議員...
○崔○○議員 贊成이오.
○議長 朴○○ 孫○○議員...
○孫○○議員 나는 反對합니다.
----(중략)----</p> <p>○議長 朴○○ 呼名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投票를 마치고 잠시후 集計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11時40分 投票終了)<input checked="" type="checkbox"/></p> <p>○議長 朴○○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략)----</p> |
|---|---|

제19조(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의 표기)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이라도 의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議員의석에서—……) 등으로 표기한다.

註) 등단(하단)하면서—……, 단상(달하)에서—……, 발언대에서—…… 등등

예)

| | |
|--|--|
| <p>○議長 朴○○ 조용히 해 주세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金○○議員 단하에서— 지금 進行해 주세요. 答辯書 다 가져 왔어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蔡○○議員 의석에서— 民主議長의 權威를 回復을 하세요)</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장내소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金○○議員 발언대에서— 靑瓦臺 文書 봐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장내소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協議를 해 보세요.</input></input></p> |
|--|--|

제20조(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의 표기) 의장이 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으로 표시하고,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줄을 바꾸어 “(—·—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

로 한 부분을 게재하되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산회시간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國會法 제 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註) - · -는 발언의 삭제시, ○○는 비밀의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

국회법 제118조(會議錄의 配付·頒布)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밖에게 배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배부회의록

| | |
|---|---|
| <p>○李○○議員… 本議員은 80년초에 있었던 民族의 비극이요 民主化의 前途를 가로막은 - ·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장내소란)
- · -</p> <p>감사합니다.</p> <p>○議長 朴○○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李○○議員께서 말씀하신 - · -이라는</p> | <p>부분과 - · -이라는 부분은 李○○議員의 양해를 얻어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05分 散會)✓</p> <p>✓✓(- ·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p> |
|---|---|

예) 보존회의록 : 원문 그대로 기재하고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 | |
|---|--|
| <p>○李○○議員… 本議員은 80년초에 있었던 民族의 비극이요 民主化의 前途를 가로막은 <u>말말</u>
<u>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u>
<u>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u>
<u>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u>
<u>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u>
<u>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u>
<u>말말</u></p> <p>감사합니다.</p> <p>○議長 金○○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李○○議員께서 말씀하신 <u>말말말</u> <u>말말</u></p> | <p><u>말말</u> <u>말말말말</u> <u>말말</u> <u>말말말말</u> <u>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u>
<u>말</u>이라는 부분과 <u>말말말</u> <u>말말말</u> <u>말말말말말말말</u>
<u>말말말말</u> <u>말말말말</u> <u>말말말말</u> <u>말말말말</u> <u>말말</u>
<u>말말</u> <u>말말말말말말말</u> <u>말말말</u> <u>말말말말</u> <u>말말말</u>
<u>말말말말말말</u> <u>말말말말</u> <u>말말말말말말</u> <u>말말말</u> <u>말</u>
<u>말말말</u>이라는 부분과 李○○議員의 양해를 얻어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05分 散會)✓</p> <p>✓✓(밑줄 친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p> |
|---|--|

제21조(숫자·단위·법조문 등의 표기) ①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단위 이상은 “만·억·조”로 표기한다. 다만, 불확정숫자로서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

한다.

註) ◆ 발 언 : 오십삼조 사천오백육십칠억 팔천구백오십사만 일천이백삼십사원

회의록 : 53조4,567억8,954만1,234원

◆ 유인물을 그대로 실을 경우는 유인물 그대로 게재한다.

유인물 : 989,654,321 원 / 5千萬원

회의록 : 989,654,321 원 / 5千萬원

◆ 불확정숫자와 특정개념을 의미하는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 수십만, 기천명, 칠팔명, 오륙십만 원 / 삼천리, 칠천만 동포 등

② 각종 단위는 기호로 표기하되 기호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註) ◆ 발 언 : 12점5퍼센트, 12점5프로/평방미터, 제곱미터

회의록 : 12.5% /m²

발 언 : 미리, 밀리미터/센치, 센치미터

회의록 : mm /cm

발 언 : 키로

회의록 : km/㎏, kg, kw/㎏, kℓ (의미를 파악하여 단위를 정확히 적는다)

◆ 한글 표기가 적당한 단위

불(\$)=불, 달러(\$)=달러, 엔(₩)=엔 등 화폐단위와 Mega DRAM=메가D램, 평(坪)=평, 인치(in), 온스(oz), 파운드(♠) 등

③ 법조문 및 외국어는 꺾음괄호 안에 표기하되 외국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표기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註) 법조문 : 국회법 제115조제2항에 의하면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어 : 「데모크라시」, 「매뉴얼」,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등

④ 각종 영문의 약어는 영문자로 표기한다.

註) UN, NPT, IAEA, WTO, EU 등

제22조(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등의 표기) ① 명사·법조문·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다른 발언자의 정정 발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 발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강조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번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註)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제23조(외국국가원수 등의 연설문 게재) 외국국가원수 등의 국회연설문을 회의록에 게재할 경우에는 그 연설일로부터 가까운 날의 회의록 끝에 별면으로 게재하며 연설의 개시·종료시간을 각각 표기한다.

註) 외국국가원수 등의 국회연설은 대개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는 날에 행해지며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에도 의사일정과 별도로 진행된다. 이때는 연설한 날 이후에 열리는 회의록 끝에 별면으로 그 연설문을 게재하는 바 개시·종료시간을 표기하고 번역문·원문의 순으로 실는다.

예) 표지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第 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號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大韓民國國會事務處 </div> |
| 19××년××月11日(火)午後2時 |
|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
| 1. 政治·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
| 附議된 案件 |
| 1. 政治·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1面 |
| ○美合衆國大統領(빌 클린턴)演說 39面 |

예) 본문 게재

| | |
|---|---|
| ○美合衆國大統領(빌 클린턴)演說
日時: 1993年7月10日(土) 17時27分 <input checked="" type="checkbox"/>
場所: 國會本會議場 | |
| ○美合衆國大統領(빌 클린턴)演說
○議長 黃○○ 美合中國「빌 클린턴」大統領 閣下 내외분, 존경하는 訪問團 일행과 內外貴賓 여러분!
--- (중략) ---
「힐러리 로덤 클린턴」女史께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따뜻한 歡迎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동박수)
여러분, 그러면 美合衆國의 「빌 클린턴」大統領을 소개합니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동박수)
○美合衆國大統領 빌 클린턴 의장님, 의회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의 목표인 민주주의를 위해 이 곳에 모인 각 정당 국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중략) ---
감사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동기립·박수)
(17時54分)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번역문을 (당으로 실는다)) | |

제24조(보고서의 게재) ① 법 제11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과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경우에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參照)”라 표기한 다음 보고서가 부록에 게재됨을 표기하고 부록에 게재한다.

註) ◆ 부록에 게재됨을 표기하는 경우

| | |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委員長 高○○ …아무쪼록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參照)
<input checked="" type="checkbox"/> ▽▽▽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委員會)<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상 1件 附錄에 실음)<input checked="" type="checkbox"/></p> |
|---|---|

◆ 부록에 게재하는 방법 (목록의 작성·첨부)

(第 回—第9次附錄)

| | | |
|---------------------------|-----------------|-------------------|
| <p>第 回國會</p> | <p>國會本會議會議錄</p> | <p>第 9 號 (附錄)</p> |
| <p>大韓民國國會事務處</p> | | |
| <p>目 次</p> | | |
| <p>1. △△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p> | <p>.....</p> | <p>3面</p> |
| <p>2. △△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p> | <p>.....</p> | <p>4面</p> |
| <p>3. △△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p> | <p>.....</p> | <p>45面</p> |
| <p>4. △△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p> | <p>.....</p> | <p>54面</p> |

◆ 부록에 게재하는 방법 (본문)

(第 回—第9次附錄)

| | |
|--|--|
| <p>1. △△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p> | <p>1995. 12. .</p> |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委員會</p> |
| <p>1. 審査經過</p> | |
| <p>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5年10月20日, 政府</p> | |
| <p>나. 回附日字 : 1995年10月21日</p> | |
| <p>다. 上程日字 : 第177回國會(定期會)</p> | |

제25조(발언보충서의 게재) 법 제115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경우에는 산회시간표기 다음에 —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發言補充書)”라 표기하고 게재한다.

註) 발언보충서 게재

| | |
|------------------------------------|---|
|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01分 散會)☑ | 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국가의 하나가 되려면…
———(중략)——— |
| 【發言補充書】
○洪○○議員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가가 | ○出席議員數 299人 |

제26조(서면질문·답변서 등의 게재) ① 법 제11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과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경우에는 산회시간 표기 다음 또는 부록에 게재한다. 이 경우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게재할 때에는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제3항의 표기를 한 다음 게재하며, 부록에 게재할 때에는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參照)”라 표기한 다음 서면질문·답변서가 부록에 게재됨을 표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2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는 보고사항란에 제출된 사실을 각각 기재하며, 답변서의 제출사실기재 끝에 줄을 바꾸어 “(質問書와 함께 附錄에 실음)”이라 표기한 후 그 질문서와 답변서는 부록에 게재한다.

③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를 동시에 게재하는 경우 줄을 바꾸어 “【서면질문·답변서】”라고 표기한 다음 “(質問書)”와 “(答辯書)”로 구분하여 게재하고, 서면질문서 또는 답변서를 각각 게재하는 경우 줄을 바꾸어 “【서면질문서】”, “【서면답변서】”라고 표기하고 게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질문서 또는 답변서는 원고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질문·답변서 중 신문·서신·통계자료 등 각종 참고자료는 그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고자료의 제목을 기재한 다음 줄을 바꾸어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이라 표기한다.

註) 서면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본회의중에 구두로 한 질문의 보충, 위원회에서 구두질문에의 대체
2. 국회법 제122조에 의거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회시간 표기 다음에 게재하는 것이 원칙

◆ 부록에 게재할 경우 - 게재량의 과다, 답변서 제출의 지연에 따른 신속한 회의록 발간이 어려워 부록에 게재한다.

| | |
|-------------------------------|------------------------|
|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01分 散會)☑ | ☑書面質問·答辯書
(附錄에 실음)☑ |
| ☑(參照) | ○出席議員數 294人 |

◆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를 동시에 게재하는 경우

| | |
|--|---|
| 【書面質問·答辯書】
(質問書)
○韓○○議員 대북 쌀지원...
(答辯書)
○○○部長官 洪○○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 (韓○○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
대북 쌀지원...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韓○○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
부산 앞바다 유조선 침몰...
--- (하략) --- |
|--|---|

☞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의 구분이 어려울 때는 (質問要旨)(答辯)으로 구분한다.

◆ 서면질문한 것을 구두로 답변하였을 경우는 서면질문서만 게재한다.

◆ 구두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였을 경우는 서면답변서만 게재한다.

◆ 질문서 및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사항란에 기재할 때

| | |
|---|--|
| <p>【報告事項】</p> <p>○書面質問書提出</p> <p><input checked="" type="checkbox"/>대미자동차협상에관한질문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9月25日 梁○○議員 제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9月26日 政府에 移送</p> | <p>○書面答辯書提出</p> <p><input checked="" type="checkbox"/>대북경협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태풍피해복구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이상 2件 9月25日 정부제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이상 2件 質問書와 함께 附錄에 실음)</p> |
|---|--|

제27조(청원처리결과보고서 등의 게재) 법 제115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와 국정감사·조사결과처리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사항란에 기재한 후 줄을 바꾸어 “(附錄에 실음)”이라 표기한 다음 부록에 게재한다.

註) ◆ 보고사항 게재요령은 질문서·답변서와 같다.

| | |
|---|--|
| <p>○報告書</p> <p><input checked="" type="checkbox"/>○○○請願處理結果報告書</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月××日 政府提出)</p> <p><input checked="" type="checkbox"/>○○○請願處理結果報告書</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月××日 政府提出)</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위 件에 대한 報告書가 아래와 같이 각각</p> | <p>提出되었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년××월××일 ○○○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년××월××일 ○○○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委員會에 回附하겠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input checked="" type="checkbox"/>(이상 2件 附錄에 실음)</p> <p>——(하략)——</p> |
|---|--|

◆ 부록 게재요령

| | |
|--|----------------------------------|
| <p>○○○請願處理結果報告書</p> <p>請願者：</p> <p>紹介議員：廉○○議員外 1人</p> <p>請願의 要旨：</p> | <p>19××.××.××.</p> <p>提出者：政府</p> |
|--|----------------------------------|

제28조(참고문서의 게재) 법 제116조와 규정에 의한 참고문서는 산회시간 다음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參考文書)”라 표기하고 게재하거나 부록에 게재한다.

註) ◆ 산회시간 다음에 게재

| | |
|--------------------------|--|
| …散會를 宣布합니다.
(21時 散會)☑ | (洪○○議員 게재신청)
○○○에관한설문조사
--- (내용) --- |
| 【參考文書】 | |

◆ 부록에 게재함을 표기

| | |
|--|---|
| …散會를 宣布합니다.
(21時 散會)☑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에관한설문조사
(附錄에 실음)☑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參照) | <input type="checkbox"/> 出席議員數 196人 |

제29조(마감표시와 산회시간 표기 다음의 게재순서) ① 회의록에 ……선을 긋고 일정한 사항을 표기하거나 게재한 다음 발언이 계속된 경우에는 다음 발언과의 식별을 위하여 ……선으로 마감한다.

註) ◆ 점선(……)으로 마감 표시를 하는 경우(회의가 계속될 때)

| | |
|--|--|
|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附錄에 실음)☑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參照)
<input checked="" type="checkbox"/>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法制司法委員會)☑ | <input type="checkbox"/> 議長 黃○○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報告…
--- (하락) --- |

◆ 실선(—)으로 마감 표시를 하는 경우(산회된 경우)

| | |
|--|-------------------------------------|
|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散會)☑ | (法制司法委員會)☑
(附錄에 실음)☑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參照)
<input checked="" type="checkbox"/>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input type="checkbox"/> 出席議員數 267人 |

②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게재할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 내규의 조문순서에 따른다.

註) 위원회에서의 각종 발언보충서, 서면질문·답변서, 참고문서 등은 국회의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 제 25조(발언보충서), 제26조(서면질문·답변서), 제28조(참고문서)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제33조(사회자의 표기) 사회자가 위원장인 때에는 “委員長 ○○○”으로, 위원장이 아닌 때에는 “委員長代理 ○○○”으로 표기한다.

註) ◆ 국회법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국회법 제50조(간사)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의 사회 : ○委員長 金○○ 그러면...

◆ 위원장과 사회교대한 간사의 사회 : ○委員長代理 李○○ 이상으로...

◆ 국회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직무대리의 사회 : ○委員長職務代理 朴○○ 회의록 속개...

◆ 국회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직무대행의 사회 : ○委員長職務代行 崔○○ 부득이제가...

◆ 국회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는 사회 : ○委員長職務代行 尹○○ 제가 나이가 많다는...

☞ 현황보고 도중에 사회자의 교대가 이루어지면 그 보고·설명내용을 점선(……)으로 마감하고 사회교대 표기를 한다.

제34조(발언자의 표기) ① 당해 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委員”으로, 당해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 또는 당해 위원회 위원이라도 의안의 제안자나 청원의 소개의원 등 의원의 자격으로 발언한 경우에는 “○○○議員”으로 표기한다.

註) 국회법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위원장은 “□□委員長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長代理 ○○○”으로 표기한다.

註) ◆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위원장

| | |
|--|--|
| <p>○委員長 鄭○○ 議事日程 第5項 關稅法中改正法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委員會 成○○委員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p> | <p>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成○○ 關稅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
|--|--|

◆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는 간사나 소속의원

| | |
|---|---|
| <p>○委員長 鄭○○ 議事日程 第5項 關稅法中改正法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委員會所屬 河○○議員 나오셔서 提案說</p> | <p>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河○○ 關稅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
|---|---|

③ 소위원회의 보고는 소위원장인 때에는 “小委員長 ○○○”, 소위원장이 아닌 때에는 “小委員長代理 ○○○”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명칭은 생략한다.

註) 공청회 : ○陳述人 朴○○

청문회 : ○證人 崔○○, ○鑑定人 宋○○, ○參考人 申○○ 등으로 표기한다.

제35조(개의시간과 기록시간이 다른 경우의 표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의된 이후에 기록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이라 표기한 다음 개의시간과 회의경과 및 의사결정사항을 당시의 사회자에게 확인하여 기재하고 기록개시시간을 표기한다.

註) 특수한 사정 : 장소 · 시간, 위원회의 기록생략 의결의 번복 등의 연락착오

| | |
|--|---|
| <p>(회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p> | <p>(보고사항은 끝에 실음)☑</p> |
| <p>☑☑(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10時31分 開議)☑
○委員長 方○○ 지금부터 第3次 □□委員會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立法調査官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 <p>(10時39分 記錄開始)☑
☑1. 現況報告
☑☑가. □□部
○委員長 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部 現況報告를 상정하겠습니다.
----(하략)----</p> |

제36조(유인물에 의한 보고 등의 기재) ①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설명이 있을 때에는 유인물로써 회의록에 기재하되 그 보고 · 설명내용은 모두 속기한다. 다만, 유인물로써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때에는 속기한 내용을 번문하여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註) ◆ 간단한 유인물을 상세히 보고할 때는 속기하여 번문한 내용을 게재한다.

| | |
|--|--|
| <p>○委員長 丁○○ 議事日程 第1項 △△에관한報告를 상정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部長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部長官 朴○○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委員長님</p> | <p>과 委員長들께 저희 部 所管의 △△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하 보고한 내용을 속기·번문한 것을 게재한다)</p> |
|--|--|

② 유인물에 의한 현황보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報告)”라 표기한 다음 게재하며 보고가 중단된 때에는 “(報告中斷)”이라 표기하고 다시 보고가 시작될 때에는 “(報告繼續)”이라 표기한다.

註) ◆ 유인물에 의한 보고중의 질의·답변

| | |
|---|---|
| <p>...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음은 □□部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部 所管과 □□廳所管에 대한 豫算의 概要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部企劃管理室長 金○○ 企劃管理室長이 19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概要를 설명드리겠습니다.</p> | <p><input type="checkbox"/> □□2. 농림수산부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조 장기채 상환 부족액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지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예산단가와 집행단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 '90봄마무리(34천ha)사업비 부족액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자금 지원
 (報告中斷)□</p> |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報告)
 <input checked="" type="checkbox"/> I.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국가전체예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도시 교통난 완화, 민생치안, 환경보전 등 5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예산중점 지원으로 국민생활안정 도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무상환경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재해대책비 등 '95년내 지원이 불가피한 추경소요의 조기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교부금의 정산</p> | <p>○辛○○委員 중국어선의 불법어업문제가...
 --- (중략) ---
 ○□□部企劃管理室長 金○○ 해마다 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 (중략) ---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報告繼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국유림 매각수입증가분을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한 민유림 매수자금을 활용</p> |

☞ 유인물에 의한 보고서는 생략한 부분도 유인물 순서에 따라 게재한다. 다만, 유인물 전체를 생략한 경우에는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게재한다.

③ 유인물에 의한 보고중 생략한 부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구두보고 끝에 ……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參照)”라 표기한 다음 게재한다.

註) ◆ 유인물에 의한 보고중 생략한 부분을 게재하는 경우

| | |
|--|--|
| <p>(② 항과 같이 보고내용을 기재한다)</p> <hr/> <p>지금까지 시간관계상 主要骨子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략한 부분은 油印物로 代替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參照)
(생략한 부분의 유인물대로 기재한다)</p> <hr/> <p>○委員長 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가 있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하략)---</p> |
|--|--|

제37조(출석상황 등의 게재) ① 회의의 마지막 속기조는 위원회로부터 출석자 명단을 수령하여 원고후면에 첨부한다.

② 산회시간을 표시한 다음에는 —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및입법심의회관, 출석국무위원, 출석정부위원, 기타참석자, 출석증인·감정인·진술인, 보고사항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註) 출석위원의 표기는 위원장 -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순(가나다순)으로, 위원아닌출석의원은 가나다순으로만 표기한다.

| | |
|---|--|
| <p style="text-align: right;">(15時 散會) <input checked="" type="checkbox"/></p> <hr/> <p>○出席委員
 <input checked="" type="checkbox"/> 丁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具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盧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委員아닌出席議員
 <input checked="" type="checkbox"/> 簡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input checked="" type="checkbox"/> 專 門 委 員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p> | <p><input checked="" type="checkbox"/> 立 法 審 議 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出席國務委員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部 長 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出席政府委員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部 次 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廳 長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其他參席者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公 社 社 長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報告事項】</p> |
|---|--|

제38조(폐회중 회별 표기) 폐회중 개의한 위원회는 폐회전의 회별로 표기하며, 첫째번 속기조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원고전면에 첨부한다.

註) 폐회전의 회별로 표시한다.(별지 제5호서식)

(第 回-第 次)

| | | | |
|-----------------|----|--------|-----|
| 第 回國會
(閉會中) | □□ | 委員會會議錄 | 第 號 |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 | | |
| 日時 19 年 月 日 () | | | |
| 場所 委員會會議室 | | | |
| 議事日程 | | | |
| 1. | | | |
| 審査된案件 | | | |
| 1. | | | |

제39조(연석회의 회의록)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연석회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의 회의록으로 발간하며, 첫째번 속기조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원고전면에 첨부한다.

註) 국회법 제63조(연석회의) ③ 연석회의는 양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소관위원회의 회의차수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 | | | | |
|-----------------|----|------------------|--------|-----|
| 第 回國會
(閉會中) | □□ | [□□委員會와
連席會議] | 委員會會議錄 | 第 號 |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 | | | |
| 日時 19 年 月 日 () | | | | |
| 場所 委員會會議室 | | | | |
| 議事日程 | | | | |
| 1. | | | | |
| 審査된案件 | | | | |
| 1. | | | | |

제40조(소위원회 회의록)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 보관한다.

註) 국회법 제68조(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위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69조(위원회회의록) ④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

제41조(준용규정) 위원회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국정감사회의록 및 국정조사회의록의 작성

제42조(표지의 작성)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회의록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첫째번 속기조가 원고전면에 첨부한다.

註) ◆ 국정감사 표지(별지 제7호서식)

(199 年度國監-000)

| | | |
|-----------------|------------|-----|
| 199 年度
國政監查 | □ □ 委員會會議錄 | 第 班 |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 | |
| 被監查機關 | | |
| 日時 19 年 月 日 () | | |
| 場所 | | |

◆국정조사 표지(별지 제8호서식)

(第 回○○○國調—第 班)

| | | |
|-----------------|----------------|-----|
| 第 回國會 | □□國政調查□□委員會會議錄 | 第 班 |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 | |
| 被調查機關 | | |
| 日時 19 年 月 日 () | | |
| 場所 | | |
| 調查日程 | | |
| 1. | | |

제43조(감사회의록의 발간) 감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회의록은 감사반에 따라 피감사기관별·일자별로 발간한다. 다만, 여러 기관을 동시에 감사한 경우와 당일의 감사가 자정을 경과하여 종료한 때에는 하나의 감사회의록으로 작성한다.

註) ◆ 같은 날 시간을 따로 정하여 기관별로 감사를 할 때는 국감회의록을 따로 작성한다.

◆ 여러 기관을 동시에 감사할 경우는 하나의 국감회의록으로 작성한다.

◆ 감사가 자정을 넘겨 계속되어도 하나의 국감회의록으로 작성하고 “(24時 經過)”라 표기한다.

| | | |
|--|---|-----|
| 199 年度
國政監查 | <h1 style="margin: 0;">□ □ 委員會會議錄</h1> | 第 班 |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 | |
| 被監查機關 □□□□□□ · □□□□□□ | | |
| 日時 1995年 10月 28日(木)
場所 □□□□□□ 委員會會議室 | | |
| (10時05分 監查開始)□
○委員長 金○○ 지금부터 憲法 제61조, 國會法 제127조와 國政監查및調查에관한法律에 의해서 □□□□□□와 □□□□□□에 대한 1995年度 國政監查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國政監查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被監機關인 □□□□□□의 선서... | --- (중략) ---
(24時 經過)☑
○委員長 金○○ 자정이 넘었습니다마는 監查를 계속해서 마무리짓...
--- (중략) ---
(10月29日 00時59分 監查終了)☑ | |

◆감사회의록 시간의 표기

| | |
|--|---|
| 일반적 시간표기
(○○時○○分 監查開始)☑
(○○時○○分 監查中止)☑
(○○時○○分 監查繼續)☑
(○○時○○分 監查終了)☑
비공개회의의 시간표기
(○○時○○分 非公開監查開始)☑ | (○○時○○分 非公開監查中止)☑
(○○時○○分 非公開監查繼續)☑
(○○時○○分 非公開監查終了)☑
감사중지후 속개되지 않았을 때의 시간표기
(○○時○○分 非公開監查中止)☑
(繼續監查되지 않았음)☑ |
|--|---|

제44조(사회자의 표기) ① 위원전원 감사시 사회자가 위원장인 때에는 “委員長 ○○○”, 위원장이 아닌 때에는 “委員長代理 ○○○”으로 표기한다.

② 분반 감사시 사회자가 반장(위원장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班長 ○○○”, 반장이 아닌 때에는 “班長代理 ○○○”으로 표기한다.

註) 국정감사회의록의 사회자 표기

| | |
|---|------------------------------------|
| 위원전원 감사시의 사회자
○委員長 吳○○
○委員長代理 禹○○ | 분반감사시의 사회자
○班長 安○○
○班長代理 全○○ |
|---|------------------------------------|

제45조(선서자의 표기) 피감사기관장,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할 경우 낭독자의 직함·성명을 발언자의 표기와 같이 선서 앞에 기재하고, 선서에 참여한 모든 선서자의 직함 및 성명을 선서가 끝난 다음에 기재한다.

註) 감사를 실시할 때는 피감기관의 장,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선서를 받는데 위원장(반장, 전문위원, 입법심의회관 등)이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을 설명할 발언은 속기하여 게재한다.

◆ 위원장(반장)이 선서의 취지·처벌규정을 설명할 때

| | |
|--|--|
| <p>(15時03分 監査開始)☑</p> <p>○委員長 吳○○ 지금부터 憲法 제61조, 國會法 제127조와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에 의해서 □□□□□□에 대한 1995年度 國政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p> <p>순서에 의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p> <p>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199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p> <p>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증인들을 대표해서 □□□□□□社長께서 선서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p> | <p>선서가 끝나면 각 증인들께서는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러면 □□□□□□社長께서 선서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社長 崔○○ “宣誓. 본인은 國會가 憲法 제61조, 國會法 제127조, 國政監査및 國政調査에관한法律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國政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年××月××日☑</p> <p style="text-align: right;">□□□□□□</p> <p style="text-align: right;">社 長 ○ ○ ○☑</p> <p style="text-align: right;">監 事 ○ ○ ○☑</p> <p style="text-align: right;">理 事 ○ ○ ○☑</p> <p style="text-align: right;">理 事 ○ ○ ○☑</p> |
|--|--|

◆전문위원(입법심의관) 등이 관계법조문을 낭독할 때

| | |
|--|--|
| <p>○委員長 吳○○ 지금부터 憲法 제61조, 國會法 제127조와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에 의해서 ...</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증인선서에 앞서 專門委員의 關係法 條文 낭독이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田○○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제12조(不出席 등의 罪)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3조(國會侮辱의 罪) 증인이 증언을 함에</p> | <p>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4조(僞證 등의 罪)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감면할 수 있다.</p> <p>○委員長 吳○○ 그러면 지금부터 장관 및 관계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p> <p>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하략)---</p> |
|--|--|

제46조(출석상황 등의 게재) ① 감사의 마지막 속기조는 위원회로부터 출석자명단을 수령하여 원고후면에 첨부한다.

② 감사종료시간을 표기한 다음에는 — 선을 긋고 줄을 바꾸어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및입법심의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출석증인·참고인 순으로 게재한다.

註) 출석감사위원 : 위원장(반장)→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가나다순)

출석전문위원및입법심의원→피감사기관참석자→출석증인→참고인 순

(내규 39조 참조)

제47조(준용규정) 감사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편집·발간·배부·보존 등

제48조(부록표지의 작성) 본회의회의록 부록은 별지 제9호서식, 위원회회의록 부록은 별지 제10호서식, 감사회의록 부록은 별지 제11호서식, 조사회의를 부록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원고전면에 첨부한다.

註) ◆ 본회의회의록 부록(별지 제9호서식)

(第 回—第 次附錄)

| |
|---|
| <p>第 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號</p> <p style="text-align: right;">大韓民國國會事務處</p> |
| <p>目 次</p> <p>1. 面</p> <p>2. 面</p> <p>3. 面</p> |

◆ 위원회회의록 부록(별지 제10호서식)

(第 回—第 次附錄)

| |
|---|
| <p>第 回國會 □ □ 委員會會議錄 第 號(附錄)</p> <p style="text-align: right;">大韓民國國會事務處</p> |
|---|

◆ 국정감사회의록 부록(별지 제11호서식)

(199 年度國監—□□□□第 班附錄)

| |
|--|
| <p>199 年度 □ □ □ □ 委員會會議錄 第 號(附錄)</p> <p>國政監查</p> <p style="text-align: right;">大韓民國國會事務處</p> |
| <p>被監查機關</p> |
| <p>日時 19 년 月 日 ()</p> |
| <p>場所</p> |

◆국정조사회의록 부록(별지 제12호서식)

(第 回— □□國調第 班附錄)

| |
|--|
| 第 回國會 □□國政監查□□委員會會議錄 第 號(附錄) |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
| 被監查機關 |
| 日時 19 년 月 日 () |
| 場所 |

제49조(편집체제) ① 회의록은 4·6배판 9포인트 횡조2단 5포인트 행간으로, 부록 및 목차·색인은 4·6배판 9포인트 횡조전단 5포인트 행간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체제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사회자·발언자·의사일정의 항번호와 부의안건명(제출자를 포함한다)·산회시간 표기 다음이나 부록에 게재하는 문서의 제명 등은 9포인트 「고딕」체로 표기한다.

③ 각종 상황표기·참조·보고(중단·계속)·시간표기 등의 표기방법과 제24조·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록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방법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0조(편집·교정) ① 편집담당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과정표에 업무의 진행상황을 기재한다.

② 편집담당을 속기담당으로부터 이송된 원고를 회의록 체제에 맞추어 편집·교정한 다음 인쇄소에 송부한다.

제51조(회의록의 검토) 인쇄중인 회의록은 편집담당 및 속기담당에서 최종 교료전에 이를 검토한다.

제52조(보존회의록의 서명·날인) 보존회의록에는 회의록 제본이전에 회의록 끝 여백에 법 제69조제3항 및 제115조제3항에 의한 서명·날인을 받는다.

註) 국회법 제69조(위원회회의록)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국회법 제115조(회의록)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 원고로 보존하는 비공개회의록도 해당된다.

◆ 보존회의록의 서명·날인(회의록 말미 여백에)

| | |
|--|---|
| 본회의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議長 (서명) (개인날인)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事務總長 (서명) (개인날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委員長 (서명) (개인날인) |

제53조(비공개회의록의 보관) 비공개회의록과 그 속기원문은 별도로 보관한다.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을 포함한다)은 발간 후 신속히 이를 배부한다.

제55조(원고 등의 보존기한) 회의록원고와 그 속기원문은 회기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제56조(참고자료 등의 보존) 제26조제5항에 의해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각종 참조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제57조(회의록의 제본 및 목차·색인) ① 회의록은 대별·회의별·회별로 제본하되 책의 두께를 고려하여 합하거나 나누어 제본할 수 있다.

② 매권의 제본회의록에는 목차·색인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이 경우 목차는 회의별·회별·차수별에 따라 부의(심사)된 안건 순으로, 색인은 “가나다순” 및 “안건별”로 작성한다.

註) 안건별순 색인작성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 ① 법률(규칙)안
- ② 예산안·결산·승인
- ③ 청원
- ④ 동의(動議)·동의(同意)건의·결의안
- ⑤ 의사(회기·휴회·의사진행)
- ⑥ 보고·질문
- ⑦ 연설
- ⑧ 인사(임명동의·당선인사·임명인사·선서및인사·사직·징계·추천·체포동의·탄핵소추·해임 등등 인사관계 전부)
- ⑨ 선거·선출(인사 내용중 선거·선출(간사선임)은 이 항목에 포함)
- ⑩ 국정감사(보고·본회의의결·기간결정·변경)
- ⑪ 신상발언
- ⑫ 축석요구
- ⑬ 기타

☞ 이 분류에 없는 사항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8조(컴퓨터의 활용) ① 원고의 작성은 컴퓨터로 번문하여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원고의 열람·복사를 신청한 경우 그 원고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으로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배부회의록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은 속기1과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제59조(관례의 적용) 이 내규에 정한 외의 사항은 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1>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배부·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종류)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국정감사회의록
4. 국정조사회의록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각각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 : 법 제69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2. 배부회의록 : 법 제118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해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
3. 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
4. 비공개회의록 : 법 제7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제재한 회의록

제3조(회의록 작성) ① 본회의회의록은 법 제11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위원회회의록은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국정감사회의록 및 국정조사회의록은 이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회의록 원고가 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발간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보고서·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4조(임시회의록의 발간·배부) ① 본회의·국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한다.

② 임시회의록이 발간된 후 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배부를 보류하거나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① 보존회의록은 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해 배부 회의록(임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② 보존회의록은 기록편찬국 속기1과(이하 “속기1과”라 한다)에서 영구 보존한다.

③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의장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고 위원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열람)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서 보존하되 법 제69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속기1과에서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① 의원이 법 제116조 또는 제115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문서 또는 발언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또는 발언에 관계되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115조제1항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의록에 게재될 수 있는 사

항에 대하여 그 게재요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한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기타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임시회의록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고, 배부회의록이 발간된 후의 경우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18조제1항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녹음) 회의록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제12조(폐지된 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등) 법률 등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국회 이전의 위원회회의록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허가 등은 의장이 행한다.

제13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발간·배부·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처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2>

국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 제3조(한글·한자의 혼용), 제13조(보고사항의 작성방법 등), 제49조제3항(각종 상황표기·시간표기·부록계재방법)에 의한 위임사항의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회의록작성의 통일화와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자의 사용범위) 국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은 한글·한자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전용 및 신속발간을 위한 업무전산화에 대비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한다.

1. 標題語·小標題語

- 第170回國會 本會議會議錄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2. 시간 및 일부상황표기(상황표기는 내규의 표기에 따른다)

- 한자 : (10時15分 開議·散會·會議中止·繼續開議 등)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參照)(報告)(報告中斷) 등
- 한글 : (칭취불능) (일동기립) (장내소란) 등

3. 發言者의 職名·姓名 등 고딕표기

- ○議長 黃珞周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國務總理 李洪九 국무총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 人名 및 이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용어

- 한자 : 金正喜, 秋史(體), 栗谷事業
- 한글 : 金대통령, 金九선생(씨) 李○○ 양(군)

5. 遊戲的으로 사용된 용어

- 한자 : 苦痛部(교통부), 地獄鐵(지하철), 空約(공약)

6.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용어 및 머릿말로 제시된 중심용어

- 輕水爐, 北核
- 첫째, 聖水大橋 不實工事に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議事日程 第1項 國政에관한交涉團體代表演說을 상정합니다.

7. 기타 固有名詞(國名·地名·機關名·職名 등)·專門用語·同音異意語·低俗語·新造語중 한글로 표기하여 혼동의 우려 및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

· 한자 : 對韓, 光州(廣州), 空對海미사일, 死刑(私刑), 平祝,(平壤祝典)

· 한글 : 미국, 부산,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

8. 議事日程, 法(案)名 및 法案原文, 議案名, 重要연설문, 서면질문, 답변, 유인물에 의한 보고 등은 原文대로 표기한다.

제3조(보고사항의 게재방법) 보고사항의 게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사항의 제명은 9「포인트」 「고딕」체로 “【報告事項】”이라 표기한다.
2. 큰 항목(예 : 議員登錄·報告 등)에는 앞에 “○”표를 하며 9「포인트」 「고딕」체로 표기한다.
3. 큰 항목에 속하는 안건명은 8「포인트」 「고딕」체로 표기하며 줄을 바꾸어 큰 항목의 첫 글자로부터 한 글자 띄어서 기재한다.
4. 내용의 설명문은 9「포인트」 명조체로 표기하며 줄을 바꾸어 안건명의 첫 글자로부터 한 글자 띄어서 표기하고, 설명문의 내용이 바뀔때 따라 줄을 바꾸어 앞 설명문 첫 글자보다 다시 한 글자를 띄어서 기재한다.

제4조(보고사항의 작성요령)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다만, 다음의 작성요령에 없는 새로운 사항을 게재할 경우에는 적절한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報告事項】 註) 실제와 같이 9포인트 / 8포인트로 작성함

[議員]

○ 議員登錄 (9포인트)

| 議員名 | 選舉區 | 所屬政黨 |
|-----|-----|------|
| | | |

(××년 ×월 ×일字)

○ 議席承繼

| 議員名 | 選舉區 | 所屬政黨 |
|-----|-----|------|
| | | |

(××년 ×월 ×일字)

○ 議員辭職書提出

| 議員名 | 選舉區 | 所屬政黨 |
|-----|-----|------|
| | | |

(××년 ×월 ×일字)

○議員辭職

| 議員名 | 選舉區 | 所屬政黨 |
|-----|-----|------|
| | | |

(××년 ×월 ×일字)

(×월 ×일 議長이 허가함)

○議員死亡

| 議員名 | 選舉區 | 所屬政黨 |
|-----|-----|------|
| | | |

(××년 ×월 ×일字)

○議員退職

| 議員名 | 選舉區 | 所屬政黨 |
|-----|-----|------|
| | | |

(××년 ×월 ×일字)

○議長職務代理指定

議長職務代理 副議長 ○ ○ ○

×월 ×일

×월 ×일 (×일간)

(×월 ×일字)

[委員]

○特別委員長選任

□□特別委員會

委員長 ○ ○ ○

(×월 ×일字)

○常任(特別)委員長職務代理指定

□□(特別)委員會

委員長職務代理 幹事 ○ ○ ○

- × 월 × 일 (× 일간) 또는
- × 월 × 일
- × 월 × 일부터
- 위원장귀국시까지(위원장 께위기간중)
- (× 월 × 일字)

○ 常任(特別)委員選任(解任)

- (特別)委員會
- 黨(交涉團體)
-
- (× 월 × 일字)

○ 幹事選任(辭任)

| 委員會 | 委員名 | 交涉團體 |
|-----|-----|------|
| | | |

(× 월 × 일字)

○ 幹事改選

| 委員會 | 委員名 | 交涉團體 |
|-----|-----|------|
| | | |

(× 월 × 일字)

○ 常任(特別)委員長辭任書提出

- (特別)委員會
- 委員長 ○ ○ ○
- (× 월 × 일字)

○ 常任(特別)委員辭任

| 委員會 | 委員名 | 交涉團體 |
|-----|-----|------|
| | | |

(× 월 × 일字)

○常任(特別)委員補任

| 委員會 | 委員名 | 交渉團體 |
|-----|-----|------|
| | | |

(×월 ×일字)

○常任(特別)委員辭任및補任

| 委員會 | 前任幹事 | 交渉團體 |
|-----|------|------|
| | | |

(×월 ×일字)

| 委員會 | 前任幹事 | 交渉團體 |
|-----|------|------|
| | | |

(×월 ×일字)

[交渉團體]

○交渉團體代表議員變更

○○○黨

舊代表議員 ○ ○ ○

新代表議員 ○ ○ ○

(×월 ×일字)

○交渉團體所屬議員名簿提出

○○○黨

○ ○ ○ ○ ○ ○ ○ ○ ○ ○
(이상 ×人)

(×월 ×일字)

○交渉團體加入

○○○黨

○ ○ ○ ○ ○ ○ ○

(×월 ×일字)

○交渉團體所屬議員除籍

○○○黨

○ ○ ○

(×월 ×일字)

○交渉團體解體

○ ○ ○ ○ 黨

(×월 ×일字)

[議案]

○議案提出(回附)

△△△法律案(豫算案·同意案·決議案·建議案, △△의件 등)

(×월 ×일 ○○○議員外 ×人 發議) (기타 제안자 표기) (8포인트)

×월 ×일 □□委員會에 回附 (또는)

委員會에 回附하겠음

第 ×回國會(○○會)會期決定의 件

(×월 ×일 國會運營委員長 提出)

×월 ×일 (×일간)

×월 ×일

休會의 件

(×월 ×일 議長提議)

×월 ×일 (×일간)

×월 ×일

○議案審査

△△△法律案(豫算案·同意案·決議案·建議案, △△의件 등)

(×월 ×일 ○○○議員外 ×人 發議) (기타 제안자 표기)

(×월 ×일 □□委員長 報告)

原案대로 議決(修正議決) (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

로 議決하고 이에 대한 代案을 提出

○議案撤回

△△法律案(同意案·決議案·建議案, △△의件 등)

(×월 ×일 ○○○委員會 ×人 發議) (기타 제안자 표기)

×월 ×일 發議者 (提出(案)者) 撤回要求

<委員會에서 사용하는 議案回附 등의 작성>

○議案回附(통상의 경우)

△△△法律案(豫算案·建議案·決議案·同意案, △△의件 등)

(×월 ×일 ○○○議員外 ××人 發議) (기타 제안자 표기)

×월 ×일字 회부됨

○議案回附(關聯委員會에 意見提示期間을 정하여 回附하는 경우)

△△△法律案(豫算案·建議案·決議案·同意案, △△의件 등)

(×월 ×일 政府提出) (기타 제안자 표기)

×월 ×일, 關聯委員會로서 ×월 ×일까지(또는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 議決提示期間을 정하여 回附됨

○議案回附(審査期間을 정하여 回附하는 경우)

△△△法律案(豫算案·建議案·決議案·同意案, △△의件 등)

(×월 ×일 政府提出)

×월 ×일, 審査期間을 ×월 ×일까지로 정하여 回附됨

○意見提示(審査期間을 정하여 回附하는 경우)

△△△法律案(豫算案·建議案·決議案·同意案, △△의件 등)

(×월 ×일 政府提出)

×월 ×일, ×××委員長으로부터 關聯委員會로서 意見を 提示함

○審査期間指定(議案이 回附된 다음 審査期間을 지정하는 경우)

△△△法律案(豫算案·建議案·決議案·同意案, △△의件 등)

(×월 ×일 政府提出) (기타 제안자 표기)

×월 ×일, 審査期間을 ×월 ×일까지로 指定함

○審査期間變更(指定된 審査期間을 변경하는 경우)

△△△法律案(豫算案·建議案·決議案·同意案, △△의件 등)

(×월 ×일 政府提出) (기타 제안자 표기)

×월 ×일, 審査期間 ×월 ×일까지를 ×월 ×일까지로 變更함

[請願]

○請願提出

△△△請願

(××년 ×월 ×일 ○○市(道)○○區(郡)○○洞(里) ××番地 ○○○外

×人으로부터 ○○○議員의 紹介로 提出)

×월 ×일 □□委員會에 回附 (또는)

□□委員會에 回附하겠음

○請願回附

△△△請願

(××년 ×월 ×일 ○○市(道)○○區(郡)○○洞(里) ××番地 ○○○外

×人으로부터 ○○○議員의 紹介로 提出)

×월 ×일字 回附됨

○請願審査

△△△請願

(××년 ×월 ×일 ○○市(道)○○區(郡)○○洞(里) ××番地 ○○○外

×人으로부터 ○○○議員의 紹介로 提出)

(×월 ×일 □□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請願撤回

△△△請願 (××년 ×월 ×일 ○○○協會長 ○○○外 ×人으로부터 ○○○議員의 紹介로 제출) ×월 ×일 청원자와 소개의원 철회요구

○請願移送

△△△請願 (××년 ×월 ×일 ○○市(道)○○區(郡)○○洞(里) ××番地 ○○○外 ×人으로부터 ○○○議員의 紹介로 提出) (×월 ×일 第次本會議採擇) ×월 ×일 政府에 移送

[要求書]

○要求書提出

緊急懸案質問要求書 (×월 ×일 ○○○議員外 ×人 提出)△△△에대한國政調査要求書 (×월 ×일 ○○○議員外 ×人 提出)△△△에대한本會議附議要求書 (×월 ×일 ○○○議員外 ×人 發議)

[書面質問·答辯書]

○書面質問書提出

△△△에관한質問書 (×월 ×일 ○○○議員 提出) ×월 ×일 政府에 移送

○書面答辯書提出

△△△에관한質問書에대한答辯書

×월 ×일 政府提出)

×건 質問書와 함께 附錄에 실음)

[報告]

○報告

國政에관한報告

×월 ×일, 大統領으로부터 國務總理로 하여금 ×월 ×일 國會 本會議에 출

석케 하여 國政에관한報告를 하겠다는 通知가 있었음

△△△에관한報告

×월 ×일, 大統領으로부터 國務總理로 하여금 △△△에 관하여 報告케 하

겠다는 通知가 있었음

[報告書]

○報告書

△△△에관한報告書

×월 ×일 政府提出)

□□委員會에 回附 (또는)

□□委員會에 回附하겠음

△△△請願處理結果報告書

×월 ×일 政府提出)

×건 附錄에 실음)

△△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

×월 ×일 □□委員長 提出)

△△年度國政監査結果處理報告書

×월 ×일 政府提出) (또는)

위 件에 대한 報告書가 아래와 같이 각각 提出되었음

19××년 ×월 ×일 ○○○部

- 19××년 ×월 ×일 ○○○處
 委員會에 회부하겠음 (또는)
 이상 ×건 해당 委員會에 回附하겠음
 (이상 ×건 附錄에 실음)

- △△△에 관한 國政調查結果處理報告書
 (××월 ×일 政府提出)
 委員會에 回附하겠음
 (附錄에 실음)

[通知]

○通知

- △△△에 대한 通知
 ×월 ×일, ○○○으로부터 위 件에 대한 通知가 있었음

제5조(보고사항의 게재순서) 보고사항은 議員, 委員, 交涉團體, 議案請願, 要求書, 書面質問·答辯書, 報告, 報告書, 通知 등의 순서로 게재하되, 제4조 보고사항은 작성요령에 “○”표를 한 큰 항목만을 기재된 순서에 의해 게재한다. 다만, 제4조의 작성요령에 없는 새로운 사항을 게재할 경우에는 유사항목의 선후에 삽입하여 게재한다.

제6조(투표과정의 표기) 내규 제18조제2항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할 때에는 (의사국장: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등의 투표과정을 표기한다.

제7조(각종 상황 등의 표기) 다음에 열거하는 각종 상황 등의 표기는 앞에서 두글자 띄어서 표기한다.

1. 내규 제11조제3항의 “(○○○議長, ○○○副議長과 司會交代)” 등의 표기
2. 내규 제15조의 (청취불능) 및 동조단서·제35조의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의 표기
3. 내규 제16조제1항의 각종 상황표기와 동조제2항의 “(「…」하는 議員 있음)” 표기 및 동조제5항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표기
4. 내규 제17조의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표기
5. 내규 제18조제1항의 “(기립표결)” 및 본지침 제6조에 의한 투표과정의 표기
6. 내규 제19조의 “(○○○○議員 의석에서 -……)” 등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의 표기

7. 내규 제20조의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한 부분임)” 및 “(밑줄 친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의 표기
8. 내규 제26조제5항의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의 표기
9. “(간부인사)”등 이 조문에 열거하지 아니한 모든 상황표기

제8조(참조·보고 등의 표기) 다음에 열거하는 참조·보고 등의 표기는 앞에서 한글자 띄어서 표기한다.

1. 내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상정할 경우 의사일정 항 번호와 그 부의안건명
2. 내규 제24조·제26조제1항후단·제36조제3항의 “(參照)” 표기
3. 내규 제36조제2항의 “(報告)”, “(報告繼續)”의 표기
4. 참조란에 표기하는 안건명

제9조(시간 등의 표기) ① 다음에 열거하는 각종 시간 등의 표기는 뒤에서 한글자 띄어서 표기한다.

1. 내규 제13조제1항의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의 표기
2. 내규 제14조·제16조제3항·제23조·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간의 표기
3. 내규 제16조제4항에 의한 “(繼續開議되지 않았음)”의 표기
4. 내규 제36조제2항의 “(報告中斷)”의 표기
5. 내규 제45조에 의한 선서일자와 선서자의 직함 및 성명표기
6. 참조란의 안건의 제출자·보고자 및 “(이상 ××件 附錄에 실음)”의 표기

제10조(부록게재 방법) 내규 제24조·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록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내규 제24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각종 보고서는 게재하는 순서의 번호, 건명, 「페이지」를 표기한 목차를 작성하여 표지에 첨부하고, 내용의 게재에 있어서는 게재순서의 번호와 건명은 9「포인트」 「고딕」체로, 나머지 부분은 9「포인트」 명조체로 유인물대로 게재하되 매건마다 별면으로 게재한다.
2. 내규 제26조제1항의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는 사회시간 표기 다음에 게재할 경우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가. [書面質問·答辯書]·(質問書)·(答辯書)·[書面質問書]·[書面答辯書]와 질문자 및 답변자의 표기는 9「포인트」 「고딕」체로 표기한다.

나. 답변서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부분〉과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부분〉으로 나누어 제출된 경우 9「포인트」 명조체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며 답변서 내용에 따라 9「포인트」 명조체로 “(○○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이라 표기하고 게재한다.

(1) 書面質問書와 答辯書を 동시에 게재하는 경우

【書面質問・答辯書】

(質問書)

○○○○議員……………(질문서 내용 생략)……………

(答辯書)

○○○○部長官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부분>

(○○○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부분)

……………(답변서 내용 생략)……………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부분>

(○○○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

……………(답변서 내용 생략)……………

※ 단, 質問要旨와 答辯內容의 구분이 안될 경우에는 (質問要旨) (答辯)으로 구분표시한다.

(2) 口頭答辯을 한 書面質問書を 게재하는 경우

【書面質問書】

○○○○議員……………(질문서 내용 생략)……………

(3) 口頭質問에 대한 書面答辯書を 게재하는 경우

【書面答辯書】

○○○○部長官 ○○○

(○○○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

……………(답변서 내용 생략)……………

3. 내규 제26조제2항의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는 제1호의 위원회의 각종 보고서의 게재방법과 같다. 다만, 건명의 표기는 “○○○에 관한 書面質問書와答辯書”로 표기하고 질문서와 답변서를 나누어 게재하되 9「포인트」 「고딕」체로 “(質問書)”, “(答辯書)”라 표기한다.
4. 내규 제27조에 규정한 청원처리결과보고서 등은 제명은 9「포인트」 「고딕」체로 표기하고 다른 부분은 9「포인트」 명조체로 제출된 보고서 내용대로 게재한다. 다만, 국정감사결과처리보고서는 기관별 목차를 작성하여 표지에 첨부할 수 있다.
5. 내규 제28조에 의한 참고문서는 9「포인트」 「고딕」체로 【參考文書】라 표기한 다음 9「포인트」 명조체로 “(○○○議員 게재신청)”이라 표기하고 제명은 9「포인트」 「고딕」체로 표기하며 다른 부분은 9「포인트」명조체로 제출된 참고문서 내용대로 게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附表 각종 상황 · 시간 표기

◆ 앞에서 한 글자 띄어서 표기하는 경우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參 照)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조란 내의 안전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報 告) | <input checked="" type="checkbox"/> (報告繼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일정항번호와 그 부의안전명 |
|--|--|

◆ 앞에서 두 글자 띄어서 표기하는 경우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동기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동착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동묵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동박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기에대한경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애국가제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 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만세삼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웃음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내소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부인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의원퇴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취불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립표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패함 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패수 점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표함 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표수 점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 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議長, ○○○副議長과 司會交代)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속기중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위원회의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위원회의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議員 의석에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議員 등단하면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밑줄친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
|---|---|

◆ 뒤에서 한 글자 띄어서 표기하는 경우

| | |
|-------------------|-------------------------|
| (××時××分)☑ | (××時××分 調査終了)☑ |
| (××時××分 開式)☑ | (××時××分 檢證開始)☑ |
| (××時××分 閉式)☑ | (××時××分 檢證終了)☑ |
| (××時××分 開議)☑ | (××時××分 投票開始)☑ |
| (××時××分 散會)☑ | (××時××分 投票終了)☑ |
| (××時××分 會議中止)☑ | (24時 經過)☑ |
| (××時××分 繼續開議)☑ |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
| (××時××分 記錄中止)☑ | (繼續監査되지 않았음)☑ |
| (××時××分 記錄開始)☑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時××分 非公開會議開始)☑ | (報告中止)☑ |
| (××時××分 非公開會議終了)☑ | 선서일자와 선서자의 직함 및 성명표기☑ |
| (××時××分 監査開始)☑ | 참조란의 안건의 제출자·보고자☑ |
| (××時××分 監査終了)☑ | 참조란의 (이상 ××件 附錄에 실음)☑ |
| (××時××分 監査中止)☑ | |
| (××時××分 監査繼續)☑ | (보고사항란의 "(이상××件 附錄에실음)" |
| (××時××分 調査開始)☑ | 표기는 보고사항작성방법에 의함) |

2. 음이 같아 틀리기 쉬운 말

이 내용은 속기사교육을 위해 기초에서 중간 수준정도의 용어를 취급하였으며 전문용어는 취급하지 않았다.

[용례]

>는 의미상 포괄적이고 큰 의미임을 나타냄 예) 協調 > 協助

⇔는 반대어 내지 서로 대하는 말 예) 專用 ⇔ 共用

<無>, <X>는 사전이나 현실적으로 없는 말을 잘못 듣고 표시한 경우임

가교 架橋 : 다리를 놓음

假橋 : 임시로 놓은 다리

예) 이것은 양국간 우정의 架橋이다.

도하작전을 위해 설치한 假橋...

가열 加熱 :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함

苛熱 : 가혹하고 맹렬함

가제 加除 : 보탬과 뺌

假題 : 임시 제목

감사 監査 : 감독하고 검사함(일)

監事 :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직책)

예) 監事가 監査한 결과를 보고한다.

결의 決意 : 뜻을 굳힘

決議 : 의안을 결정함

예) 국회에서 쌀수입개방반대를 위한 決意案이 만장일치로 可決되었다.

회의용어에서 議決하는 것을 決議라고 한다.

- 경주 傾注 : 기울여 쏟음
 競走 : 서로 빨리 달음질치기를 다투는 육상경기의 하나
 예) 노력을 傾注하다/ 자동차競走
- 공단 公團 : 일정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
 工團 : 공업단지의 준말
 예) 輸出工團/ 九老工團/ 管理公團
- 공약 公約 : 공중에 대한 약속
 空約 : 헛된 약속
 예) 무성한 公約은 空約으로 그쳤다.
- 공언 公言 : 공평한 말
 空言 : 실속없는 빈 말
 예) 그가 공언한 것은 空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 공적 功績 : 쌓은 공로. 애쓴 보람
 公敵 : 公共의 敵
 예) 오늘의 영광은 여러분의 功績에 의한 것이다.
 公害는 公敵이다.
- 과료 科料 : 경범죄에 과하는 財産刑
 過料 : 행정벌. 過怠料의 구용어
- 과실 果實 : 열매. 성과
 過失 : 잘못함
 예) 경제성장의 果實은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성장위주의 정책은 공해문제 등의 過失도 가져왔다.

과하다 課 : 조세 현금 금품을 부과(행정)

科 : 벌금 처벌의 추상 표현(법)

군기 軍紀 : 군대의 기율

軍機 : 군사상의 비밀

기구 機構 : 엮어 잡은 구조·조직

機具 : 기계와 기구

器具 : 세간, 그릇, 연장 등의 총칭. 간단한 구조의 기계

예) 農機具/ 제조器具/ 실험器具/ 전기器具

기기 器機 : 기구·기계의 총칭

機器 : 기구·기계의 총칭

예) 조명器機/ 조명機器 둘 다 씀

기능 機能 : 어떤 기관의 활동 능력

技能 : 기술적인 능력 또는 재능 機能 > 技能

예) 정부機能/ 개인의 技能

기초 基礎 : 일이나 물건의 밑바탕이나 밑자리

起草 : 글의 초안을 잡음

예) 基礎의회/ 헌법을 起草하다.

난국 難局 : 어려운 고비. 어려운 국면

亂局 : 어지러운 판국. 요란한 시대(잘 사용하지 않음)

難國 : 어지러운 나라(잘 사용하지 않음)

예) 현재의 難局을 타개할 길은 ...

노력 努力 : 힘을 씀

勞力 : 힘을 들이여 일함(노동력)

예) 더욱 努力하겠다/ 건설현장의 勞力 부족

대국 大局 : 대체의 국면

大國 : 크고 강한 나라

對局 : 어떤 국면을 당함. 바둑이나 장기판을 맞대하여 앓음 또는 둠

예) 모든 것을 大局적으로 보고 행동하자.

經濟大國인 일본이... 신춘대국(新春對局)

대망 待望 : 기다리고 바람

大望 : 큰 희망

예) 待望의 2000년대/ 젊은이는 大望이 있다.

대명 大命 : 임금의 명령

待命 : 대기 명령. 명을 기다림

대수 代數 : 世代의 수효

對數 : 『로가리즘(Logarithm)』의 구용어

대체 代替 : 다른 것으로 바꿈

對替 : 어떤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에 옮겨 적는 일

大體 : 요령만 따 줄거리. 요점만 말하자면

예) 유인물로 代替하다.

前 計定에서 對替하다.

대체로... (속기록 작성시 한글)

도시 都市 : 도회지

都是 : 도무지. 전연 (속기록 작성시 한글)

圖示 : 도표나 그림으로 보임

예) 지금 圖示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都是 알 수가 없다.

동의 動議 : 회의중에 토의에 부치기 위하여 예정된 의안 이외의 사항을 회원이 제출함

同意 : 같은 뜻. 재청

예) ...통과할 것을 動議합니다.

...하자는 動議에 대해서 저도 同意합니다.

민원 民願 : 국민의 소원이나 청원

民怨 : 국민의 원망

예) 集團民願을 방치하면 民怨이 쌓인다.

미제 美製 : 미국에서 만들어낸 물품

美帝 : 미제국주의

방정 方正 : ~하다 ;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짚잡다.

방정 : ~맞다 ; 말이나 하는 짓이 몹시 경망스럽고 주책없다.

방화 放火 : 불을 지름

防火 : 불을 예방함

병원 病院 : 의료기관

病原 : 병의 근원. 病原

病源 : 병의 근원. 病根, 病原

兵員 : 군사. 또, 그 수효

보상 補償 : 남의 손해를 메꾸어 갚아 줌(법)

報償 :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물건을 갚아 줌

예) 피해補償/ 일한 만큼의 報償이 있다.

부동 不動 : 움직이지 않음

浮動 : 떠서 움직임

예) 市中 浮動資金이 不動産으로 몰린다.

부상 浮上 : 표면으로 떠오름

負傷 : 몸에 상처를 입음

부정 不正 : 올바르지 않음

否定 : 그렇지 않다고 단정함 ⇔ 肯定

不定 : 일정하지 않음. 정해지지 않음

예) 不正행위/사실을 否定한다/住居가 不定한 사람

비정 非情 : 인정이 없음

秕政 : 나쁜 정치

예) ...공화국의 秕政으로 國民이 도탄에 빠졌다.

사단 師團 : 군대편성의 한 단위

社團 : 社會團體

私團 : 개인이 편성한 단체

事端 : 사건의 단서. 일의 실마리

예) 황기성私團이 만든 영화/이번 사건의 事端이 잡혔다.

사례 事例 : 일의 실례

史例 : 역사상의 실례

예) 이상과 같은 事例들을 史例로써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병 士兵 : 장교가 아닌 모든 졸병

私兵 : 개인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양성한 병정

예) 국군은 특정인의 私兵이 아니다.

사실 事實 : 실제로 있었던 일

史實 : 역사상에 있었던 일

예) 이러한 事實은 史實에서도 입증됩니다.

사용 使用 : 물건을 쓰거나 사람을 부림

私用 : 공공물을 사사로이 사용함

예) 官用車를 公務에만 使用하지 않고 가족의 나들이 등에 私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사전 辭典 : 그 발음과 뜻 등을 풀어 새긴 책

事典 : 여러 가지 사항을 모아 그 하나하나에 해설을 베푼 책

예) 國語辭典/ 百科事典

사채 私債 : 개인 사이의 빚

社債 :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공중에게 모집하는 채무. 會社債

예) 當社가 資金難으로 인하여 市中 私債를 끌어쓰다 보니 資金負擔이 과중하므로 금번 理事會에서 社債를 發行할 것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사형 死刑 : 범인의 목숨을 끊는 형벌

私刑 : 국가 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私人이 함부로 행하는 제재

예) 법치국가에서 私刑은 금지되어 있다.

상금 償金 : 갚는 돈. 보상하여 주는 돈. 賠償金

賞金 : 상으로 주는 돈. 賞與金

소리 : 소리

小利 : 작은 이익

예) 자신의 小利에 눈이 어두워...

소수 小數 : 작은 수 * 小數點

少數 : 적은 수 ⇔ 多數

素數 : 1 및 그 자신외의 정수로는 똑떨어지게 나눌 수 없는 수

예) 少數黨/ 少數意見

소실 消失 : 사라져 없어짐

燒失 : 불에 타 없어짐

* 분명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표기에 신중해야 함

소액 少額 : 적은 액수 * 少額株主/ 少額審判

小額 : * 「小額換」에만 사용

訴額 : 소송물의 價額

소음 騒音 : 시끄러운 소리

消音 : 소리를 없앴

수상 受賞 : 상을 받음 * 受賞者

授賞 : 상을 줌 * 授賞式

예) 제가 이 영예로운 상의 受賞者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용 收容 : 거두어서 넣어둠. 사람이나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넣어둠

收用 : 거두어 들여 씀. 국가에서 私人的 權리를 공익을 위해 변동 귀속시킴

受容 : 받아들임 감성을 받아들여 즐김

水溶 : 물에 녹음 * 水溶性 비타민

需用 : 구해 씀 * 內需用/ 軍需用

예) 죄수를 收容하는 시설/ 토지를 국가가 收用하다/ 야당의 요구를 受容하다.

수익 收益 : 이익을 거둠 * 收益價值/ 收益資產

受益 : 이익을 얻거나 받음 * 受益證券/ 受益者

수해 水害 : 홍수로 인한 해

受害 : 해를 입음

시작 始作 : 새로이 어떤 동작을 개시함

試作 : 시험적으로 만들어 봄 * 試作品/試製品

시정 市政 : 시의 행정

是正 :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

施政 : 정무를 시행함

市井 : 시가, 시정아치 * 市井雜輩

실명 實名 : 본명

失名 :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아는 이가 없음

예) 金融實名制는 失名 상태에서 實名을 찾아가고 있다.

실정 實情 : 실제의 형편

失政 : 정치를 잘못함

예) 정치인들의 失政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재의 實情은...

역사 歷史 : 인류 사회의 과거에 있어서의 변천. 흥망의 기록

役事 : 국가와 민족 또는 공공을 위한 큰 일

力士 :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

예) 하나님의 役事が.../ 이 댐은 민족의 大役事로서...

연습 練習 : 되풀이하여 익힘

演習 : 군에서 실전하듯 하는 훈련

연타 連打 : 연이어 침. 야구 등에서 안타가 연이어짐

軟打 : 가볍게 침. 배구 등에서 가볍게 쳐 공격하는 것

연패 連敗 : 잇달아 짐

連霸 : 잇달아 우승함

* 분명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표기에 신중해야 함

이의 異議 : 달리하는 주장. (법)어떤 행위가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 반대하여, 그에 대한 불복 및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회의장에서는 주로 「異議」를 사용)

예) 異議없으십니까? /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意 : 다른 의견. 謀叛하려는 경향

異義 : 다른 뜻 ⇔ 同義 예) 異義語와 同義語

인재 人材 :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elite의 의미

人才 : 재주가 놀라운 사람, 천재의 의미

人災 :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

예) 人材銀行, 人材育成

전국 全國 : 온 나라

全局 : 전체의 판국

戰局 : 전쟁이 되어가는 판국

戰國 : 영웅이 할거하여 서로 싸우는 나라들

전매 專賣 : 어떤 물건을 혼자서만 맡아놓고 팔

轉賣 : 샀던 물건을 돌려 팔

예) 專賣公社 / 인삼, 담배 등은 정부에서 專賣한다 / 부동산 轉賣

전문 全文 : 문장의 전체

前文 : 앞에 기록한 문서

電文 : 전보의 글귀

傳聞 : 소문으로 전해 들음

예) 헌법 全文을 통해 흐르는 정신...

헌법 前文에 보면 「유구한 역사…」
 위의 명령을 電文으로 보내 왔습니다.
 시중에서 나도는 傳聞에 의하면…

전세 專賃 : 약정한 기간 그 사람에게만 빌려주어 타인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

傳賃 :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남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빌어씀

예) 專賃(貸切) 버스/傳賃로 든 집

전역 全域 : 구역의 전부

轉役 : 군대에서 제대함

전용 專用 : 혼자서만 씀 ⇔ 共用

轉用 : (쓰기로 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돌려서 씀

예) 버스專用차로제/ 예산轉用

전적 戰績 : 상대와 겨뤄 올린 실적

轉籍 : 호적·학적·병적 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

전향 前向 : 긍정적인 방향

轉向 : 현실사회와 배치되는 자기의 사상을 그 사회와 맞게 바꿈

예) 그 제안을 前向적으로 검토하겠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轉向하였다.

전후 前後 : 앞과 뒤

戰後 : 전쟁이 끝난 뒤 (일반적으로 2차대전 후)

전화 電話 : 전화기로 말을 통함

戰禍 : 전쟁으로 말미암은 禍 *6·25의 戰禍로 인한…

轉化 : 바뀌어서 달리 됨

錢貨 : 돈

* 轉禍爲福

정의 正義 : 올바른 도리

情誼 : 서로 사귀어 친해진 정

定義 : 술어의 뜻을 명백히 하여 개념의 내용을 한정함

정상 正常 : 바르고 떳떳함 * 정상적

頂上 : 꼭대기 * 頂上會談

정체 政體 : 국가의 조직형태 * 정치체제

停滯 : 사물이 움직이지 않고 쌓임

제국 帝國 :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

諸國 : 여러 나라

예) 러시아帝國 / 日本帝國 / 東南亞諸國 / 유럽諸國

제도 制度 : 제정된 법규

諸島 : 모든 섬

예) 西印度諸島

製圖 : 圖面을 제작함

濟度 : 일체 중생을 고해해서 건지어 극락으로 인도함 * 濟度衆生

제작 製作 : (기계, 가구, 미술품 등을) 재료를 가지고 만듦 * 機械製作

制作 : 정하여 만듦. 생각하여 정함 * 放送制作

조각 彫刻 : 조형 미술의 한 가지

組閣 : 내각을 조직함

조작 造作 : 일부러 꾸밈

操作 : 사물을 자기에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종함. 작업

예) 사건을 造作하다/帳簿 操作으로 세금을 포탈하다/기계 操作/糧穀操作費

조정 調停 : 분쟁을 가운데서 화해시킴

調整 : 골라서 알맞게 정돈함

조화 造花 : 종이나 형겔 따위로 만든 꽃

弔花 : 조상하는 뜻으로 바치는 꽃

주력 主力 : 구성체의 주된 힘

注力 : 힘을 들임

예) 主力事業/사업에 注力함

지상 地上 : 땅 위

至上 :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위

紙上 : 신문, 잡지의 기사면

예) 통일은 民族至上의 과업이다/新聞紙上/地上 최대의 서커스

패자 敗者 : 싸움이나 경기에 진 자

霸者 : 제후의 우두머리. 싸움이나 경기에 이긴 자

평가 評價 : 물건의 값을 평정함. 선악미추의 가치를 논정함 * 가치評價

平價 : 국제간의 통화단위를 함께 함유하는 金量에 의하여 비교 표시한 비교가격 * 平價切下

표결 表決 : 의안에 대한 가부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일

票決 : 투표로서 결정함

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學園 : 학술을 가르치며 또는 연구하는 기관의 총칭

學院 : 학교나 강습소 學園 > 學院

합의 合意 : 뜻이 맞음 * 合意事項/與野간의 合意
 合議 :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함 * 合議機關/合議制 法院

행사 行事 : 일을 거행함
 行使 : 취하여 행동함
 예) 식목일 行事/권리 行使

현상 現狀 : 현재의 상태 * 現狀況, 現狀維持, 現狀打破
 現象 :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의 형상 * 現象界
 現像 : 형상을 나타냄
 懸賞 : 모집, 구득, 심인(尋人, 사람찾기) 등에 상을 걸

협의 協議 :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함
 狹義 : 좁은 뜻

협조 協調 : 힘을 합해 서로 調和함. 상호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함
 協助 : 힘을 모아 서로 도움 協調 > 協助
 예) 議員(國民) 여러분의 協調를 바랍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데 協助합니다.

회복 回復 : 이전 상태와 같이 돌리킴
 恢復 : 쇠퇴한 국세나 가세 등을 예전대로 바로 잡음

3. 음이 비슷하여 틀리기 쉬운 말

가게 : 상품을 파는 가게
 가계 家計 : 한 집안 살림살이의 수입과 지출
 家系 : 한 집안의 계통

가제 假題 : 임시 제목

과제 課題 : 부과된 문제

가동률 稼動率 : 사람이나 기계가 움직여 일함

可動率 : 움직일 수 있는 정도

가득률 稼得率 :稼動하여 결과를 얻음

가름 : 함께 하던 일을 서로 가르기. 구별, 분별 * 가르다.

가늠 : 목표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리는 표준. 헤아림 * 가늠다.

갈음 : 같은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인사에 대신함 * 갈다.

가열 加熱 :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함

과열 過熱 : 경기가 지나치게 좋아짐

가중 加重 : 더 무겁게 함

과중 過重 : 너무 무거움

가히 : -할 만한

가위 可謂 : 가히 이르자면

각론 各論 : 논설문이나 책따위의 각 세목에 대한 논설 ⇔ 총론

강론 講論 : 학술이나 道義의 뜻을 강연하고 토론함

간월 間月 : 한달씩 거름

간헐 間歇 : 주기적으로 쉬었다 일어났다 함

감절 : 어떤 수량의 배

곱절 : 같은 물건의 수량을 몇 번이나 되집어 합하는 일

- 감소 減少 : 줄어서 적어짐
- 감수 減收 : 수입·수확이 줄
甘受 : 불만없이 달게 받음
- 감행 敢行 : 과감하게 행함
- 가맹 加盟 : 맹약에 가입함
- 갓가지 : ‘가지가지’의 준말
- 각가지 : 여러 가지, 많은 종류 * 발음상으로나 내용상으로 구별하기 힘들
- 같은 임무를 : 任務를
- 같은 인물을 : 人物을
- 개발 開發 : 개척하여 발전시킴(물질적)
- 제발 啓發 : 슬기와 재능을 널리 열어 줌(정신적, 능력적)
- 개펄 : 갯가의 개흙이 깔린 벌판
- 갯벌 : 조수가 드나드는 모래톱
- 거액 巨額 : 많은 액수의 돈
- 고액 高額 : 많은 금액
- 거저 : 공짜로
- 그저 : 아직 그대로.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없이. 제발
- 격렬 激烈 : 심히 맹렬함
- 극열 極熱 : 극히 뜨거움
- 극렬 極烈 : 극히 맹렬함

- 결단 決斷 : 딱 잘라 단정 내림
 결판 : 망가져서 쓸 수가 없는 상태
- 결재 決裁 : 아랫사람이 올린 안건을 책임자가 헤아려 승인함
 결제 決濟 : 증권 또는 代金 授受에 의해서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끝맺음
 예) 상사의 決裁가 난 사항/ 한국증권대체決濟주식회사/ 어음의 決濟
- 경고 警告 :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알림
 경구 警句 : 주의할 구절. 말
- 계산 計算 : 셈을 헤아림
 계상 計上 : 셈을 하여 써 넣음. 예산 편성에 넣음
- 계획 計劃 : 계교(計較)하여 일의 엮이를 잡음
 개혁 改革 : 새롭게 뜯어 고침
 기획 企劃 : 일을 계획함
- 고개를 넘다
 곡예를 넘다
- 고대 苦待 : 몹시 기다림
 기대 期待 : 예기하여 바람
- 고향 故鄉 : 나서 자란 고향
 고양 高揚 : 높이 선양함
- 공립 公立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함
 共立 : 공동하여 설립함. 나란히 섬
 국립 國立 : 나라에서 세움

郡立 : 郡에서 세움

공보 公報 : 관청에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

홍보 弘報 : 일반에게 널리 공공적인 일을 알림

공정 公正 : 공평하고 정대함

공증 公證 : 공무원 등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법률관계의 存否를 공식으로 증명하는 일, 또는 그 증거

공포 公布 : 법령을 이미 확정된 국가의사로서 일반국민에게 알림

공표 公表 : 널리 알리도록 공개 발표함

교차하는 감회를 어찌할 줄 모르겠다.

좋지 않은 감회를 어찌할 줄 모르겠다.

과속 過速 : 일정한 속도에 지나침

가속 加速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속도를 더 하는 운동

관권 官權 : 정부가 행할 권리

강권 強權 : 강한 권력

관리 官吏 : 벼슬아치

관료 官僚 : 정부관리의 총칭

관여 關與 : 관계함

간여 干與 : 관계하여 참견함 = 간예(干預)

괴병에 : 팔다리가 아프고 쭈신 괴병에 걸려...

피병에 : 팔다리가 아프고 쭈신 피병에 걸려...

구세대 舊世代 : 옛 세대

후세대 後世代 : 뒤 세대

구약이 신약을 : 舊約이 新約을

구악이 신악을 : 舊惡이 新惡을

규명 糾明 : 잘못을 따지고 캐어 사실을 밝힘

구명 究明 : 연구하여 밝힘

그외에

그 위에

기조 基調 : 기본적 경향

기저 基底 : 기초가 되는 밑바닥

기히 既히 : 이미

기위 既爲 : 이미. 벌써

금번 今番 : 이번

금반 今般 : 이번

기대치 말고 : 정부에만 기대치 말고 업계 스스로...

기대지 말고 :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업계 스스로...

-는 : 답변하는/ 처리되는/ 드리는

-ㄴ : 답변한/ 처리된/ 드린

* 현재와 과거형으로 듣기에 따라서 같이 들리기도 하나 의미상 파악이 가능하다.

호남방언 사용자의 습관중 하나

- 깎듯이 : 깎듯하다.
 깎듯이 : * 칼로 깎듯이 반듯하다.
- 나가다 : 밖으로 나가다.
 나아가다 : 향하여 가다. 점점 되어가다.
- 나은 : 더 나은 세상. 병이 다 나았다.
 낳은 : 새끼를 낳은 고양이
- 너머 : 산 너머, 고개 너머(명)
 넘어 : 넘다(동)
- 남북간 南北間
 남북한 南北韓
-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다.
- 농간 弄奸 : 남을 속이어 일을 변동시키는 간사한 짓
 농단 壟斷 : 이익을 독점함
- 농수산물 農水産物
 농산물 農産物
- 누증 累增 : 여러 차례로 더함
 누적 累積 : 포개어 쌓임
- 단임 單任 : 한번 임기로 끝남 * 單任制
 담임 擔任 : 책임지고 맡아 봄 * 擔任선생님

당기 當期 : 어떤 법률관계로 여러 期로 나눈 경우에 現在 경과중의 기간

단기 短期 : 짧은 기간 * 短期資金

동기 同期 : 같은 기간 * 同期對比

대단한 결정

대담한 결정

~대로 : ① (앞말이 뜻하는) 그 모양과 같이 (의)
 ②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때마다, 그 족족, 하는 대로, 본 대로
 ③ 그 상태로, 각각(의존) 너대로, 학교대로

~데로 : 곳, 경우, 처지, 일, 것 * 먹는 데

대처 對處 : 어떤 일에 대한 조처

대치 對峙 : 서로 맞대하여 버팀

대치 代置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

대체 代替 : 다른 것으로 바꿈

對替 : (금융) 어떤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에 옮겨 적는 일

대항 對抗 : 서로 상대하여 겨룸

대응 對應 : 마주 대해 서로 응함

돈만 있으면

돈 많이 있으면

-든 : 든지 * 하든(지)/ 했든(지)/ 언제든(가) - 무엇이나 가리지 않음을 나타냄

-던 : (과거형) * 하던/ 했던/ 언제던가

되돌아보다 : 다시 돌아보다. 회고하다.

뒤돌아보다 : 뒤쪽을 돌아보다.

드러나다 : 겉으로 보이게 되다.

들어내다 : 밖으로 들어내다.

-르런지 : <無> 「르는지」의 誤記

-르는지 : 「할런지」로 발음해도 표기는 언제나 「할는지」

막역 莫逆 : 허물없이 아주 친함

막연 漠然 : 아득한 모양

망각 忘却 : 잊어 버림

만각 晩覺 : 늦은 뒤에 깨달음. 늦게 깨달음

무개 無蓋 : 뚜껑이 없음 * 無蓋車

무게 : 물건의 무거운 정도

무리 無理 : * 무리한 요구

물의 物議 : * 물의를 일으켜...

무사려 無思慮 : 깊이 생각하지 않음

무사려 : * 장수 외치는 소리

문무를 : 文武를

문물을 : 文物을

맛 : * 맛있는 음식

멋 : * 멋쟁이 신사

미국회사와 같이

미국에서와 같이

미급 未及 : 아직 따르지 못함
 미흡 未洽 : 넉넉하거나 흡족하지 못함

반목과

밥먹고 와

발하다 發하다 : * 경고를 발하다

바라다 : * 잘못 듣기 쉬움

반드시 : 꼭, 틀림없이

반듯이 : 반듯하게

받아드리다 : 받아서 누구에게 주다.

받아들이다 : 받다.

방어 防禦 : 남이 침노하는 것을 막음

방호 防護 : 막아 지켜서 호위함

방직 紡織 : 피륙을 짜는 일

방적 紡績 : 실을 만드는 일

법리 法理 : 법률의 원리

범리 犯理 : 범죄의 심리

법면 法面 : 독·호안·절토 등의 경사면

벽면 壁面 : 벽의 거죽

법무장관

법무부장관

- 번복 翻覆 : 이리저리 뒤쳐서 고침 * 陳述을 翻覆하다.
- 반복 反覆 : 언행을 이랬다저랬다 잇달아 고침(덜 쓰임)
反復 : 같은 일을 되풀이함
- 변전 變轉 : 이리저리 변하여 달라짐
- 변천 變遷 : 변하여 옮겨짐
- 보상 補償 : 남의 손해를 메꾸어 갚아줌 * 光州補償法(與)
- 배상 賠償 : 남에게 입힌 손해를 갚아줌 * 光州賠償法(野)
- 보안 保安 :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전함
- 보완 補完 :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완전케 함
- 보전 保全 : 보호하여 안전하게 함 * 自然保全/環境保全
補填 : 부족을 메꾸어 보충함 * 資金補填
- 보존 保存 : 잘 지니어 잃지 않도록 함 * 保存登記
- 보호 保護 : 보전하여 호위함
- 보우 保佑 : 보살피어 도와줌 * 하느님이 保佑하사...
- 부과 附課/賦課 : 세금 및 부담의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지우는 행위
- 부가 附加 : 덧붙임
- 부당한 不當 : 이치에 마땅하지 않음
- 부단한 不斷 : 끊임이 없음
- 부딪치다 : 부딪다의 힘준 말. 충돌(衝突) * <부록 4. 우리말을 알자> 참고
- 부닥치다 : 몸에 부딪칠 정도로. 닥치다, 봉착(逢着)
- 닥치다 : 가까이 다다르다.

예) 벽에 부딪치다. 어려움에 부딪치다.

- 부문 部門 : 갈라놓은 부류
 부분 部分 : 전체 속의 한쪽
 부면 部面 : 몇 개로 나눈 한 면
- 부언 附言 : 덧붙여 말함
 부연 敷衍 : 덧붙여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늘어 놓음. 또, 그 설명
- 부치다 : 토의에 부치다
 붙이다 : 「-붙다」의 사동형
- 분교 分校 : 한 학교의 일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따로 세운 학교
 본교 本校 : 근본이 되는 학교
- 불과 不過 : 어떤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불가 不可 : 옳지 않음
- 불손 不遜 : 겸손하지 못함
 불순 不純 : 깨끗하거나 순수하지 못함
 不順 : 온순하지 못함. 순조롭지 못함. 기후가 順坦치 못함
 예) 不純分子/ 日氣不順
- 불안 不安 : 안정되지 못함
 불온 不穩 : 온당하지 않고 험악함 * 不穩사상
- 불우 不遇 :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함
 불후 不朽 :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견딤

비난 非難 :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 잡음

비판 批判 : 비평 판단함

비추다 : * ~를 비추다. (목적격)

비치다 : * ~가 비치다. (주격)

빌다 : * 용서를 빌다.

빌리다 : * 돈을 빌리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리 私利 : 개인의 이익

소리 小利 : 작은 이익

사명 使命 : 使者로서 받는 명령

소명 召命 :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 현재는 「시대적인 召命意識」 등으로 쓰임

~사오니 : 하였사오니

~아오니 : ‘사오니’를 잘못 표기한 말

사항 事項 : 일의 條項

사안 事案 : 문제되어 있는 일의 안건

삼림 森林 : 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

산림 山林 : 산과 숲

살림 : 한 가정의 생활이나 그 형편

산정 算定 : 셈하여 정함

선정 選定 : 뽑아서 정함

1을 : 3분의 1을

2를 : 3분의 2를

상이 相異 : 서로 다름

상위 相違 : 서로 틀림

선두 先頭 : 첫머리 * 선두에 서서

선도 先導 : 앞에 서서 인도함 * 隊伍를 先導하다.

善導 : 올바른 길로 인도함 * 靑少年 善導

성과 成果 : 일의 끝에 이루어진 결과

성가 聲價 : 세상의 좋은 평판

성명서 聲明書 : 어떤 일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밝힘

석명서 釋明書 :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

성취 成就 : 일을 목적대로 이룸

선취 先取 : 남보다도 먼저 가짐

성패 成敗 : 성공과 실패

승패 勝敗 : 이김과 짐

~소 : * 하였소. (받침 다음)

~오 : * 오시오. (모음 다음)

소극 消極 : 사물에 관하여 스스로 힘써 대하지 않고 되는대로 방치함

소국 小局 : 좁은 소갈머리

소임 所任 : 맡은 바 직책

수임 受任 : 임명을 받음

소지를 素地 : 밑바탕. 要因이 되는 바탕

소질을 素質 : 본디부터 갖추고 있는 성질

수석기장 首席機長

수습기장 修習機長 : <無>

수요 需要 : 필요해서 얻고자 함

수효 數丈 : 일이나 물건의 수

소요 所要 : 요구되는 바. 필요한 바

수입 收入 : 금품이나 곡물 같은 것을 거두어 들임

受入 : 받아 들임 * 受入配當金/受入利子

수익 收益 : 이익을 거둠

수출을 안 늘리겠다.

세출을 안 늘리겠다.

수행 遂行 : 계획대로 해냄

시행 施行 : 실지로 행함

수혜 受惠 : 혜택을 입음

수해 受害 : 해를 입음

시혜 施惠 : 은혜를 베풀

순환 循環 : 쉬지 않고 자꾸 돌

수난 受難 : 어려운 일이나 처지를 당함

시각 時刻 : 어떤 순간

시간 時間 : 시각과 시각의 사이

시련 試鍊 : 시험하고 단련함

실현 實現 : 실제로 나타남

시현 示顯 : 나타내 보임 * 실적을 示顯(示現)하다.

示現 : 나타내 보임

시료 施療 : 무료로 치료를 베풀

치료 治療 : 병을 다스려 낫게 함

치유 治癒 : 치료로 병이 다 나옴

신문 訊問 : 증인·피고인 등에 대해 구두로 물어 사건을 조사함(법)

심문 審問 : 자세히 따져서 물음

신인도 信認度 : 믿고 인정하는 정도

신임도 信任度 : 믿고 맡김의 정도

신망 信望 : * 信望을 한 몸

실망 失望 : * 失望을 한 몸

실재 實在 : 현실에 존재함. 또, 그것

실제 實際 : 실지의 경우. 또, 형편, 사실

실지 實地 : 실제의 처지, 실제의 장소. 현장

예) 실제(실지)의 경험

심정 心情 : 마음과 情

심경 心境 : 마음의 상태

아세아 亞細亞 : 아시아의 음역(音譯)

아시아 ASIA : 대주의 하나

* 습관에 의한 구별이 가능

아프리카 : Africa

아메리카 : America

악화 惡化 : 나쁘게 변함

약화 弱化 : 세력이 약하여 짐

안 : '아니'의 준말. 안 먹는다.

않 : '아니 하'의 준말

안 마당 : * 북한의 안마당이었던 아프리카가...

앞 마당 : * 북한의 앞마당이었던 아프리카가...

안 맞는 : * 현실에 안 맞는

알맞는 : * 현실에 알맞는 (「알맞은」의 잘못)

억제 抑制 : 억눌러서, 적당한 상태로 움직이도록 조절함

억지 抑止 : 억눌러서, 하려는 일을 말려 못하게 함

안위를 安危 : 안전함과 위태함

안일을 安逸 : 썩 편하고 한가함

안이를 安易 : 손쉬움. 어렵지 않음

안정 安定 : 틀이 잡힘 ⇔ 混亂

안전 安全 : 편안하고 온전함 ⇔ 危險

온전 穩全 : 흠결이 없이 완전함

- 兩手겸將 : 양수겸장을 잘못 말하거나 표기한 것 〈無〉
- 兩手兼將 : 장기에서 두 개의 조각이 동시에 將을 부르게 되는 일
-
- 언명 言明 : 말로써 의사를 분명히 나타냄
- 엄명 嚴明 : 엄격하고 명백함
- 嚴命 : 엄중한 명령
-
- 역내 域內 : 일정 구역의 안
- 영내 領內 : 영토안
-
- 역량 力量 :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 영양 營養 : 생물이 취하여 몸의 소모를 보충하며, 생활력을 보전하는 양분
- 영향 影響 : 한 가지 사물로 인하여 다른 사물에 작용이 미치는 결과
-
- 연계 連繫 : 이어서 땀. 남의 죄에 관계되어 옥에 땀
- 연결 連結 : 잇대어 맺음
-
- 연돌을 煙突 : 굴뚝
- 연도를 沿道 : 길
-
- 연속적 連續的 : 끊이지 않고 죽 이음
- 영속적 永續的 : 오래 계속됨
-
- 예기 豫期 :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기대하거나 예상함
- 얘기 : 이야기의 준말
-
- 예수를 : 기독교의 개조(開祖)
- 예술을 : 藝術을

외형만 外形 : 겉에서 본 모양 * 外形만 번지르르...

외양만 外樣 : 겉 모양 * 外樣만 번지르르...

영단 英斷 : 감연히 일을 결정함

용단 勇斷 : 용기를 가지고 결단함

우수한 사람

우스운 사람

운영 運營 : 조직 기구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함

운용 運用 : 움직여 씀

위업 偉業 : 위대한 사업

유업 遺業 : 고인이 남긴 사업

위험 危險 : 위태함

위협 威脅 : 으르고 협박함

위압 威壓 : 위력으로 억누르거나 위엄으로 올려댐. 또는 그 압력

유언 遺言 : 죽음에 임해서 남기는 말

유훈 遺訓 : 예전 사람이 끼친 훈계

유행어로 : 流行語로

유행으로

의견 意見 : 마음에 느낀 바 생각

이견 異見 : 서로 다른 의견. 색다른 의견

의사뇌염 擬似腦炎 : 뇌염과 비슷함

유사뇌염 類似腦炎 : 〈無〉 의사뇌염의 오기

의의 意義 : 사물이 가진 속뜻

이의 異議 : 다른 뜻

잇따라 : 뒤를 이어 따르다. follow

잇달아 : 끊이지 않게 뒤를 이어달다. 계속 따라가다. continue

이를 위해

일을 위해

이상 理想 : 각자의 그 지식 경험의 범위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상태

이성 理性 :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는 능력

이해하지 理解

이해치 理解

인류 人類 :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만 동물과 구별하는 말

일류 一流 : 첫째가는 지위

인정 認定 : 옳다고 믿고 정하는 일

인증 認證 : 문서행위가 진정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해 증명함

일류화 一流化 : 세계화의 한 정의

인류화 人類化 : 세계화의 한 정의 * 발음상으로나 내용상 구별이 안됨

일반적 一般的 : 특별히 정한 어떤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

일방적 一方的 :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일탈 逸脱 : 빗나가고 벗어남

이탈 離脱 : 떨어져 나감

임명 任命 : 직무를 맡게 함

임면 任免 : 직무의 임명과 해면

입안 立案 : 案을 세움

위반 違反 : 법령, 협정, 계약 등을 어기는 일

자산 資產 :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금전의 총칭

재산 財産 : 개인 가정 단체가 소유하는 재물

* 資產을 財産으로 발음하는 수가 많으니 주의!!

자유 自由 :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함

자율 自律 : 스스로 자기의 방종을 억제함 * 조사가 붙으면 혼동이 온다.

자작극 自作劇 : 스스로 만들어 낸 일. 또는 사건

조작극 造作劇 : 누구를 해칠 목적으로 꾸며 낸 일. 또는 사건

자조 自助 : 스스로 제 자신을 도움

자주 自主 :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행함

작은 봉급 : * 대소(大小)

적은 봉급 : * 과다(寡多)

잔악 殘惡 : 잔인하고 악독함

잔학 殘虐 : 잔인하고 포악함

잔혹 殘酷 : 잔인하고 혹독함

- 작용 作用 : 동작하는 힘
 적용 適用 : 맞추어 씬
- 잔무 殘務 : 다 처리 되지 않고 남은 사무
 잡무 雜務 : 자질구레한 일
- 장기 長期 : 오랜 기간
 정기 定期 : 정한 기간
 중기 中期 : 단기, 장기의 중간 기간
- 장애 障礙 : 막아서 거치적 거림
 장해 障害 : 거리껴서 해가 됨
- 장차 將次 : 차차 앞으로
 점차 漸次 : 차례를 따라 조금씩
- 재 齋 : 불교의식 * 재율리다. 四十九齋
 제 祭 : 유교의식 * 祭祀
- 재야 在野 : 벼슬하지 않고 민간에 있음 ⇔ 在朝
 제야 除夜 : 설달 그믐날 밤 * 除夜의 종소리
- 재원 財源 : 재화를 발생·收得하는 근본원인
 才媛 : 재주가 있는 젊은 여성
- 재적 在籍 : 학적, 호적 등에 적혀 있음
 제적 除籍 : 학적, 호적 등에서 빼어 버림
 재석 在席 : 자리에 있음

재정 財政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 발전상 필요한 수지에 관한 경제적 행위

裁定 : 옳고 그름을 재판하여 결정함

제정 制定 : 제도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저의 : 나의

저의 底意 : 속셈, 숨은 뜻

저희 : 우리의, 저 사람들

저녁

전역 全域 : 구역의 전부

轉役 : 군대에서 제대함

적용 適用 : 알맞게 응용함

적응 適應 :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잘 어울림

저변 底邊 : 밑변

주변 周邊 : 바깥쪽을 둘러싼 부분

저 위에서 맴돌고

저위에서 맴돌고 : 低位

적재정량 積載定量 :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정량

적재적량 積載適量 : <無> 적재정량의 誤記

전도 前途 : 앞길

정도 程度 : 알맞은 한도

正道 : 올바른 길

전략 戰略 : 군대 운용의 방책

전력 全力 : 모든 힘 * 全力投球

정략 政略 : 정치상의 책략

전매익금 專賣益金 : 전매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전매입금 專賣入金 : 〈無〉 전매익금의 誤記

전연 全然 : 아주 도무지

전혀 : 오로지

전쟁 戰爭 : 병력에 의한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와 교전 단체간의 투쟁

정쟁 政爭 : 정치상의 투쟁

전진 前進 : 앞으로 나아감 * 前進的

점진 漸進 : 차차 나아감 * 漸進的

정립 定立 : 어떤 이론을 정하여 세움

적립 積立 : 모아서 쌓아둠

정면 正面 : 꼭 마주 보이는 면

전면 前面 : 앞면, 앞쪽되는 바다

정비 整備 : 정돈하여 갖추

준비 準備 : 미리 마련하여 갖추

정진 精進 : 정력을 다하여 나아감

전진 前進 : 앞으로 향하여 나아감

제안 提案 : 어떠한 안건을 제출함

제언 提言 : 생각이나 의견을 제출함

- 제한 制限 : 일정한 한도
- 조인 調印 : 조약 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의 공문서에 서명하는 일
- 주인 主因 : 가장 근본되는 원인
- 조정 調整 : 골라서 알맞도록 정돈함
- 조종 操縱 :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
- 조장 助長 : 도와서 힘을 북돋움
- 주장 主張 : 자기의 의견을 내세움
- 주창 主唱 : 앞장서서 부르짖음
- 종합 綜合 : 개개의 것을 한데 모아 합함
- 총합 總合 : 전부를 합함
- 통합 統合 : 모두 합쳐 하나로 모음
- 좃다 : 남을 따르다.
- 쫓다 : 몰아내다.
- 주간사主幹社 : * 主幹事會社
- 주관사主管社 : * 主管하는 會社
- 주관 主管 : 주장하여 관리함
- 主觀 : 외계 및 그 밖의 객체를 의식하는 자아
- 주권 主權 : 국가 구성의 요소
- 주황색朱黃色 : 주홍빛과 누른 빛 사이의 색깔
- 주광색晝光色 : 햇빛이 쨍쨍한 대낮의 빛이나 밝기. 또 그 조명

- 즉각 卽刻 : 즉시
- 적극 積極 : 바싹 다 잡아서 활동함
- 증수 增收 : 수입이나 수확이 높
- 증세 增稅 : 조세액을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
- 징수 徵收 : 조세, 수수료, 과료, 벌금, 곡식 또는 물품 등을 거둠
- ~지 : 깨끗지 않다(무성음 뒤).
- ~치 : 확실치 않다(유성음 뒤).
- 지그시 : 지그시 감은 눈
- 지긋이 :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 * 지긋하다.
- 지적만 하고 指摘 : 손가락질해 가리킴
- 지정만 하고 指定 : 이것이라고 가리켜 정함
- 진영 陣營 : 군사가 둔을 친 곳. 무리, 집단
- 진용 陣容 : 한 단체의 구성이나 짜임새. 진세의 형편 상태
- 차익 差益 : 뺄 것을 빼고 난 나머지의 일부
- 차액 差額 : 한 액수에서 다른 액수를 감안한 나머지 액수
- 차치 且置 : 물론
- 차처 此處 : 이곳
- 참석 參席 : 모임의 자리에 참여함 *참여의 의미가 강함
- 출석 出席 : 자리에 나감 *권리, 의무 이행의 의미가 강함
- 천리 天理 : 천지 자연의 도리

철리 哲理 : 철학상의 이치

천명 闡明 : 드러내서 밝힘

언명 言明 : 말로써 의사를 분명히 나타냄

체 : * 아는 체, 잘난 체(척)

채 : * 벗은 채로 돌아다니다.

체제 體系 : 낱낱이 다른 것을 동일한 조직

체제 體制 : 생기거나 이루어진 형식 또는 됃됨이

최상 最上 : 맨 위

최선 最善 : 가장 좋음

최하위를 모면한 것이

최하위를 못 면한 것이

추가 追加 : 나중에 더하여 보탬

초과 超過 : 일정한 정도를 지나침

추이 推移 : 일 형편이 변하여 옮김

추위 : 추운 기운

타개 打開 : 엷히고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나아갈 길을 엷 * 難局을 打開하기 위한...

타계 他界 : 저승. 죽음

타결 妥結 : 두 편이 서로 좋도록 협의 절충하여 이야기를 마무리

통고 通告 : 서면이나 말로 통하여 알림

통보 通報 : 통지하여 보고함. 또, 그 보고

통괄 統括 : 낱낱의 일을 한데 모아 잡음

통할 統轄 : 모두 거느려서 관할함

총괄 總括 : 여러 가지를 한 데로 모아서 뭉침

파도 波濤 : 큰 물결

파고 波高 : 파도의 높이

평안 平安 : 무사히 잘 있음

평화 平和 : 평온하고 화목함

품 : 무슨 일에 드는 힘 또는 수고

폼 : 양식, 형식. a form

무대접 待接 :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

후대접 厚待接 : 후한 대접

피해 被害 : 재산, 명예, 신체상의 손해를 입음

폐해 弊害 : 폐가 되는 나쁜 일

하기대회 夏期大會

하키대회

하나님 : 하느님을 일컫는 말

하느님 : 하늘님, 종교적 신앙의 대상

하반기 下半期 : 둘로 나눈 아래쪽

후반기 後半期 : 뒤의 절반

하소 : 하소연, 억울한 일, 딱한 사정 등을 간곡히 베풀어 말함

호소 呼訴 : 제 사정을 官府나 남에게 하소연함

학계의 의견 : * 學界의 意見

각계의 의견 : * 各界의 意見

한참 : 일을 하거나 쉬는 동안의 한 차례

한창 : 가장 성할 때

합력 合力 : 흩어진 힘을 한데 모음

협력 協力 : 한가지 일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함

협력을 : * 군사적 協力을 ...

압력을 : * 군사적 壓力을 ...

합의를 : * 민족적 合意를 ...

합일을 : * 민족적 合一을 ...

항상 바른 생각을 하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는...

해방 解放 : 압박하거나 가두었던 것을 풀어 놓음

훼방 毀謗 : 남을 헐어서 비방함

예) 그들은 우리를 해방(훼방)하러 왔다.

현실을 호도 糊塗 :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어물쩍하게 넘겨 버림

현실을 오도 誤導 : 그릇 인도함

형태 形態 : 사물의 생김새, 형상과 태도

행태 行態 : 행하는 태도

- 형편 形便 : 일이 되어 가는 모양, 경로, 결과
 형평 衡平 : 正義의 구체적 내용. 균형
- 혼돈 混沌 : 사물의 구별이 확실치 않은 상태 ⇔ 질서
 혼동 混同 : 뒤섞어 보거나 잘못 판단함
 * 혼동과 혼돈을 혼동하지 마라.
- 호송 護送 : 따라가며 지켜서 보냄
 후송 後送 : 후방으로 보냄
- 하물 荷物 : 짐 * 手荷物
 화물 貨物 : 운반할 수 있는 재화 * 小貨物
- 화 化 : * 민주화 개혁을...
 -와 : * 민주와 개혁을...
- 확대 擴大 : 확장하여 크게 함
 확산 擴散 : 흩어져 떨어짐
- 확언 確言 : 확실한 말
 확인 確認 : 확실히 인정함
- 확장 擴張 : 범위나 세력을 늘리어 넓힘
 확충 擴充 : 넓히어 충실하게 함
- 환언 換言 : 바꿔 말함
 환원 還元 : 근본으로 되 돌아감
- 회생 回生 : 다시 살아남 * 농어촌을 희생시킬 대책

희생 犧牲 : 어떤 사물·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음 * 농업을 희생시켜 공업을...

후세 後世 : 뒤를 이음

후손 後孫 : 몇 대가 지난 뒤의 자손

훈풍 薰風 : 첫여름에 훈훈하게 부는 바람

순풍 順風 : 순하게 부는 바람

* 속기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말 *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있다.

단어를 안다고 해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정확히 들을 수 없다. 정확히 들었다고 해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정확히 들은 것이 아니다. 정확히 듣고 표기하였다고 해도 말한 사람의 실수 여부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속기록이 된다. 말에는 늘 실수가 있기 때문이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말의 자문가」...이야말로 진정한 속기사이다.

그러므로 속기사에게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한자표기를 병용하는 회의록에서는 의미파악이 절대적이다.

4. 우리말을 알자 (한글 맞춤법 제57항 및 해설)

가 림 들로 가림

갈 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해설 발음 형태는 같거나 비슷하면서 뜻이 다른 단어를 구별하여 적음으로써 달리 적는 동음 이의어(同音異義語)로 다루는 것이다.

가림 -- 들로 가림, 편을 가림, 판가림

갈음 -- 연하장으로 세배를 갈음한다.

가족 인사로 약혼식을 갈음한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해설 '거름'은 '(땅이) 걸다'의 어간 '걸-'에 '-음'이 붙은 형태로, '걸음'은 '걷다'의 어간 '걷-'에 '-음'이 붙은 형태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거름'은 '(땅이) 걷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뜻하므로, 본뜻에서 멀어진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하여 소리나는 대로 '거름'으로 적어서, 시각적으로 '걸음'과 구별하는 것이다.

거름 -- 밭에 거름을 준다. 밭거름, 거름기

걸음 -- 걸음이 빠르다. 걸음걸이, 걸음마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해설 '거치다'는 '무엇에 걸려서 스치다, 경유하다'란 뜻을 나타내며, '견히다'는 '걷다'의 피동사다.

거치다 -- 대전을 거쳐서 논산으로 간다. 가로거치다.

견히다 -- 안개가 견힌다. 세금이 잘 견힌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해설 '견잡다'는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다'란 뜻을 나타내며, '겉잡다'는 '겉가랴하여 먼저 어림치다'란 뜻을 나타낸다.

견잡다 -- 견잡을 수 없게 악화한다. 견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겉잡다 -- 겉잡아서 50만 명 정도는 되겠다.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해설 '그러므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란 뜻을 나타내며, '그럼으로써'는 대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란 뜻을 나타낸다. 곧, '그러므로'는 '(그러하다→) 그렇다'의 어간 '그렇→그러(ㅎ 불규칙)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붙은 형태, 또는 '(그렇게 하다→) 그러다'의 어간 '그러-'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결합한 형태이며, '그럼으로써'

는 ‘(그렇게 하다→) 그러다’의 명사형 ‘그럼’에 조사 ‘-으로(씨)’가 붙은 형태다. 그러므로

-- ① (그러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

②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러므로, 만류하기가 어렵다.

③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학자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는다.

그럼으로(씨) -- (그렇게 하는 것으로씨)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씨, 삶의 보람을 느낀다.

조사 ‘-(으)로씨’가 이유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럼으로(씨)’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럼으로(씨) --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네가 그럼으로(씨), 병세가 더 악화하였다.

노 림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해설 ‘노름[賭博]’도 어원적인 형태는 ‘놀-’에 ‘-음’이 붙어서 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 어간의 본 뜻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그리고 ‘놀음’은 ‘놀다’의 ‘놀-’에 ‘-음’이 붙은 형태인데,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노름 -- 노름꾼, 노름빚, 노름판(도박판)

놀음 -- 놀음놀이, 놀음판(←놀음놀이판)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해설 ‘느리다’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란 뜻을, ‘늘이다’는 ‘본디보다 길게 하다, 아래로 처지게 하다’란 뜻을, ‘늘리다’는 ‘크게 하거나 많이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느리다 -- 걸음이 느리다. 느리광이

늘이다 -- 바지 길이를 늘인다. (지붕 위에서 아래로) 밧줄을 늘어 놓는다.

늘리다 -- 마당을 늘린다. 수요를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리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해설 ‘다리다’는 ‘다리미로 문지르다’란 뜻을, ‘달이다’는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재에 물을 부어

끓게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다리다 -- 양복을 다린다. 다리미질

달이다 -- 간장을 달인다. 한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해설 '다치다'는 '부딪쳐서 상하다, 부상을 입다'란 뜻을 나타내며, '닫치다'는 '닫다[閉]'의 피동사
이니, '닫아지다'와 대응하는 말이다.

다치다 -- 발을 다쳤다. 허리를 다치었다.

닫히다 -- 문이 닫힌다.

'닫치다'는 '닫다'의 강세어이므로, '문을 닫치다(힘차게 닫다)처럼 쓰인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해설 '마치다'는 '끝내다'의 뜻을, '맞히다'는 '표적(標的)에 맞게 하다, 맞는 답을 내놓다,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 눈·비·서리 따위를 맞게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마치다 -- 일과(日課)를 마친다. 끝마치다.

맞히다 -- 활로 과녁을 맞힌다. 답을 (알아)맞힌다.

침을 맞힌다. 비를 맞힌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해설 '목거리'는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걸이'는 '목에 거는 물건(목도리 따위), 또는 여자들이
목에 거는 장식품'을 이른다.

목거리 -- 목거리(병)가 잘 낫지 않는다.

목걸이 -- 그 여인은 늘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소뿔에 받혔다.

받치다 술을 체에 받친다.

해설 ‘받치다’는 ‘신이나 웃어른께 드리다, 마음과 몸을 내놓다, 세금 따위를 내다’란 뜻을, ‘받치다’는 ‘밑을 괴다, 모음 글자 밑에 자음 글자를 붙여 적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아래에서 잡아 들다’ 등의 뜻을 나타내며, ‘받히다’는 ‘받다[觸]’의 피동사, ‘받치다’는 ‘받다’(체 따위로 쳐서 액체만 받아내다)의 강세어이다.

받치다 -- 제물을 바친다. 정성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세금을 바친다.

받치다 -- 기둥 밑을 돌로 바친다. ‘소’ 아래 ‘ㄴ’을 받쳐 ‘손’이라 쓴다.

우산을 받친다(‘받다’의 강세어). 받침, 밑받침

받히다 -- 소에게 받히었다.

받치다 -- 체로 받친다. 술을 받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해설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란 뜻을,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란 뜻을 나타낸다.

반드시 -- 그는 반드시 온다. 성(盛)한 자는 반드시 쇠할 때가 있다.

반듯이 -- 반듯이 서라. 선을 반듯이 그어라. 반듯이 < 번듯이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해설 ‘부딪치다’는 ‘부딪다’(물건과 물건이 서로 힘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되게 하다)의 강세어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다.

부딪다 -- 뒤의 차가 앞 차에 부딪는다. 몸을 벽에 부딪는다.

부딪치다 -- 자동차에 부딪친다. 몸을 벽에 부딪친다.

부딪히다(부딪음을 당하다) -- 자전거에 부딪혔다.

부딪치이다(부딪침을 당하다) -- 자동차에 부딪치이었다.

| | | |
|-----|----------------|-------------|
| 부치다 | 편지를 부친다. | 논밭을 부친다. |
| | 빈대떡을 부친다.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 |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인쇄에 부치는 원고 |
| |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 |
| 붙이다 | 우표를 붙인다. | 책상을 벽에 붙였다. |
| | 홍정을 붙인다. | 불을 붙인다. |
| | 감시원을 붙인다. | 조건을 붙인다. |
| | 취미를 붙인다. | 별명을 붙인다. |

해설 '부치다'는

- ① 힘이 미치지 못하다.
- ②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 ③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 ④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 ⑤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누름적, 저냐 따위를 익혀 만들다.
- ⑥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는다.
- ⑦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 ⑧ 몸이나 식사 따위를 의탁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며, '붙이다'는

- ① 붙게 하다.
- ② 서로 맞당게 하다.
- ③ 두 편의 관계를 맺게 하다.
- ④ 암컷과 수컷을 교합(交合)시키다.
- ⑤ 불이 옮겨서 타게 하다.
- ⑥ 노름이나 싸움 따위를 어울리게 만들다.
- ⑦ 달려 붙게 하다.
- ⑧ 습관이나 취미 등이 익어지게 하다.
- ⑨ 이름을 가지게 하다.
- ⑩ 뺨이나 볼기를 손으로 때리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부치다 -- 힘에 부치는 일. 부채로 부친다. 편지를 부친다.
 책을 소포로 부친다. 남의 논을 부친다. 저냐를 부친다.
 그 문제를 토의에 부친다. 원고를 인쇄에 부친다.
 당숙 댁에 몸을 부치고 있다.

붙이다 -- 포스터를 붙인다. 찬장을 벽에 붙인다. 홍정을 붙인다.
 접을 붙인다(←접붙인다). 불을 붙인다. 싸움을 붙인다.
 경호원을 붙인다. 단서(但書)를 붙인다. 습관을 붙인다.
 이름(호, 별명)을 붙인다. 한 대 올려 붙인다.

부치이다(‘부치다’의 피동사, 곧 ‘부치어지다’) -- 바람에 부치이다.

풍구로 부치이다.

‘부치다’ ⑧은 ‘붙이다’로 적던 것을 바꾸었다. 이 단어는 ‘기숙(寄宿)’(남의 집에 몸을 부쳐 있음) ‘기식(寄食)’(밥을 남의 집에 부쳐 먹음)과 상통하는 말이다. 그리고 ‘붙이다’가 ‘부치다’로 바뀐에 따라 ‘붙여 -지내다’가 ‘부쳐 -지내다’로 적게 된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해설 ‘시키다’는 ‘하게 하다’란 뜻을 나타내며, ‘식히다’는 ‘식다’의 사동사(식게 하다)다.

시키다 -- 공부를 시킨다. 청소를 시킨다.

다만, ‘공부-시키다, 청소-시키다’처럼 쓰일 경우는, ‘시키다’를 사동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쓴다.

식히다 -- 뜨거운 물을 식힌다.

아 름 세 아 름 되는 둘레

알 음 전부터 알 음이 있는 사이

얹 얹이 힘이다.

해설 ‘아름’은 ‘두 팔을 벌려서 겨안은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며, ‘알음’은 ‘아는 것’이란 뜻을 나타낸다. ‘알음’은 ‘알다’의 어간 ‘알-’에 ‘-음’이 붙은 형태인데, 그것이 한 음절로 줄어지면 ‘얹’이 된다. 살음→살

아름 -- 둘레가 한 아 름 되는 나무

밤, 상수리 따위가 저절로 충분히 익은 상태를 이르는 ‘아람’과 구별된다. 아람-벌다
 알음 -- 서로 알음이 있는 사이, 알음알음, 알음알이
 앓 -- 바로 앓이 중요하다. 앓의 힘으로 문화를 창조한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앓히다 윗자리에 앓힌다.

해설 ‘안치다’는 ‘끓이거나 찢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란 뜻을 나타내며, ‘앓히다’는 ‘앓다’의 사동사(앓게 하다)다. ‘앓히다’는 또 ‘버릇을 가르치다, 문서에 무슨 줄거리를 따로 잡아 기록하다’란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안치다 -- 밥을 안치다. 떡을 안치다.

앓히다 -- 자리에 앓힌다. 끓어앓히다. 버릇을 앓히다.

어 림 경계선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 음 얼음이 얼었다.

해설 ‘어름’은 ‘두 물건의 끝이 닿은 데’를 뜻하며,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을 뜻한다. ‘얼음’은 ‘얼다’의 어간 ‘얼-’에 ‘-음’이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

어름 -- 바다와 하늘이 닿은 어름이 수평선이다.

왼쪽 산과 오른쪽 산 어름에 솥막(-幕)이 있었다.

얼음 -- 얼음이 얼다. 얼음과자, 얼음물, 얼음장, 얼음주머니, 얼음지치기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해설 ‘이따가’는 ‘조금 지나 뒤에’란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다. ‘이따가’도 어원적인 형태는 ‘있다가’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이따가 -- 이따가 가겠다. 이따가 만나세

있다가 -- 여기에 있다가 갔다. 며칠 더 있다가 가마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해설 '저리다'는 '살이나 뼈 마디가 오래 놀리어 피가 잘 돌지 못해서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하다' 처럼 풀이되며,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염분을 먹여서 절게 하다)다.

저리다 -- 발이 저리다. 손이 저리다.

절이다 -- 배추를 절인다. 생선을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해설 '조리다'는 '어육(魚肉)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바득하게 바짝 끓이다'란 뜻을, '졸이다'는 '속을 태우다시피 마음을 초조하게 먹다'란 뜻을 나타낸다.

조리다 -- 생선을 조린다. 장조림, 통조림

졸이다 -- 마음을 졸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해설 '주리다'는 '먹을 만큼 먹지 못하여 배굼다'란 뜻을 나타내며,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사(줄게 하다)다.

주리다 -- 오래 주리며 살았다. 굼주리다.

주리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는단 말인가?

줄이다 -- 양을 줄인다. 수효를 줄인다. 줄임표(생략부)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해설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 '자기 나름으로는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고'는 '하는 일로 인하여'란 뜻을 표시한다.

-노라고 -- 하노라고 하였다. 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느라고 --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자느라고 못 갔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 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해설 현행 맞춤법에서는 어미 '-느니보다'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는 이보다'로 적어야 할 것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 '이'가 사람을 뜻할 뿐 사물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이것을 어미로 처리하여 '-느니보다'로 적기로 하였다.

-느니보다 -- 마지못해 하느니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당치 않게 떠드느니보다 잠자코 있어라.

-는 이보다(세 개 단어) --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바른말하는 이보다 아침하는 이를 가까이 한다.

-(으)리만큼(어미) 그가 나를 미워하리만큼 내가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으)리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해설 '-(으)리 이만큼'으로 적던 것을 '-(으)리만큼'으로 바꾸었다. 사람을 뜻하는 경우에만 의존 명사 '이'를 밝히어 적도록 한 것이다. '-(으)리만큼'은 '-리 정도만큼'이란 뜻을 표시하는 어미로 다루어지며, '-리 이만큼(세 개 단어)'은 '-리 사람만큼'이란 뜻을 표시한다.

-(으)리만큼 -- 싫증이 나리만큼 잔소리를 들었다.

배가 터지리만큼 많이 먹었다.

-(으)리 이만큼 -- 반대할 이는 찬성할 이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해설 '-(으)러'는 그 동작의 직접 목적을 표시하는 어미이고, '-(으)려(고)'는 그 동작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표시하는 어미다.

-(으)러 -- 친구를 만나러 간다. 책을 사러 간다.

-(으)려 --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해설 '-(으)로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을 가진 입장에서'란 뜻을 나타내며, '-(으)로써'는

‘재료,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다.

-(으)로서 -- ① (...가 되어서) 교육자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사람의 자식으로서, 인륜을 어길 수는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학자로서의 임무

② (...의 입장에서) 사장으로서 하는 말이다.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피해자로서 항의한다.

③ (...의 자격으로) 주민 대표로서 참석하였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한다.

④ (...로 인정하고) 그를 친구로서 대하였다.

그 분을 선배로서 예우(禮遇)하였다.

-(으)로써 -- ① (...를 가지고) 톱으로(써) 나무를 자른다.

피로(써) 이긴다.

동지애로(써) 결속(結束)한다.

② (...때문에) 병으로(써) 결근하였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해설 ‘-(으)므로’는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으)ㅁ 으로(써)’는 명사형 어미 또는 명사화 접미사 ‘-(으)ㅁ’에 조사 ‘-으로(써)’가 붙은 형태다. 어미 ‘-(으)므로’에 ‘써’가 붙는 형식은 없다.

-(으)므로 -- 날씨가 차므로, 나다니는 사람이 적다.

비가 오므로, 외출하지 않았다.

책이 없으므로, 공부를 못 한다.

-(으)ㅁ 으로(써) -- 그는 늘 웃음으로써 대한다.

책을 읽음으로써 시름을 잊는다.

담배를 끊음으로써 용돈을 줄인다.

동방속기 (실무편)

1998년 1월 1일 재판 인쇄
1998년 1월 10일 재판 발행

저 자 ... 동방속기학회

발행인 ... 李 相 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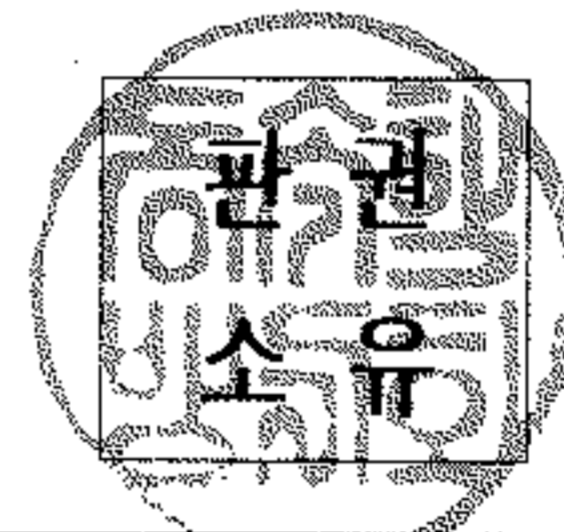
정가 9,000원

발 행 ... **크라운출판사**
기술서적 사업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73-12
☎ (02) 745-0311~3

팩 스 ... (02) 741-3231

등 록 ... 제1-422호



첨단 기술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기술서적 사업부

N-11

Copyright © 1998 CROWN Publishing Co.



■ 「동방속기」의 올바른 공부법

1.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2. 기본 문자 쓰는 연습을 충실히 합니다.
3. 이용한 일반상식을 넓힙니다.
4. 글 읽는 것을 생활화하여 쓰기와 읽기에 능숙해지도록 합니다.
5. 기본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응용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ISBN 89-406-6299-7

CROWN ©N-11